정책19-27



승인번호
제 438001 호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2020. 12.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자 일러두기

1.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장애수용, 사회복귀 등)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종단면 조사인 장애인삶 패널조사(제438001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 본 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마친 등록장애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의 가구원입니다. 타 통계와 비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규모는 장애인 6,121명과 그들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조사개요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3. 본 분석보고서는 2019년 10월-12월에 실시된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년도의 데이터를 가중값을 적용하여 집계·분석한 결과입니다. 단, 가구원의 모집단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중값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가구원 결과 활용 시 해석에 유의바랍니다.
4. 통계표의 기초통계량의 비중(%)은 소수점 둘째자리, 평균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전체 합계와 세부항목의 각 행 또는 열의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보고서내 응답수는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수, 추정수는 가중값이 적용된 값입니다.
6.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분기 문항들의 개별 문항에 대한 응답자 수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표의 관측 수가 적거나 빈 셀이 존재할 수 있으니 해석에 유의바랍니다. 표본크기가 현저히 작은

분석단위의 경우에는 본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7. 본 분석보고서에서는 상대표준오차를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과 활용시 상대표준오차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경우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평균점수를 나타내는 표에서 사용한 척도의 종류는 해당 통계표에 명시하였습니다.
9. 평균 산출 시 '모름/응답거절'과 '해당 없음'은 제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10. 산업 및 직업분류는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11. 본 보고서의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향후 추가적인 자료정리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습니다.
12. 본 조사는 모집단에 대한 전국 대표치로 표본설계가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13. 통계표 및 도표에 사용된 '-'은 '해당없음'을 의미합니다.

연 구 진

연구책임 : 김정희(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본부장)

공동연구원 :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장)

: 김현지(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팀장)

: 김태용(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선임연구원)

: 이혜수(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 연구원)

자문위원(가나다순)

김동기(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호진(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팀 연구원)

박민규(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변종석(한신대학교 응용통계학과 교수)

윤상용(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정화(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경제활동연구팀 책임연구원)

임찬수(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

목 차

Ⅰ. 장애인삶 패널조사 개요 ····· 3

1. 개요 ····· 3
2. 조사개요 ····· 5

Ⅱ. 2019년 연구 추진 현황 ····· 13

1. 개요 ····· 13
2. 2019년(2차 조사) 조사내용 ····· 14
   1) 2차 조사 조사표 개발 방향 ····· 14
   2) 조사내용 ····· 23
3. 2차 년도 자료 구축 ····· 28
   1) 조사 추진 사항 ····· 28
   2) 2차 년도 실사 현황 ····· 32
   3) 데이터 에디팅 ····· 35

Ⅲ. 표본설계 및 가중치 ····· 39

1. 개요 ····· 39
2. 표본설계 ····· 40
   1) 개요 ····· 40
   2) 표본추출결과 ····· 41
3. 패널구축 ····· 42
4. 가중치 ····· 44
   1) 1차 년도 가중치 부여 및 추정 ····· 44
   2) 종단가중치(2차 년도) ····· 48
   3) 모수추정 ····· 54

Ⅳ.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요 결과(1차~2차 비교) ····· 59

1. 개요 ····· 59
2. 패널 개인 특성 ····· 59
   1) 인구통계학적 특성 ····· 59

2) 장애수용 및 심리상태 ····· 61
3) 건강·의료 ····· 65
4) 자립 및 사회참여 ····· 67
3. 가구의 경제상황 ····· 72
1) 소득 및 소비 ····· 72
2) 부채 ····· 74

Ⅴ.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패널) ····· 77

1. 인구통계학적 특성(2차 조사) ····· 77
2. 일반현황 ····· 78
1) 장애 등록시기 ····· 78
2) 세부장애 ····· 78
3) 중복장애 ····· 79
4)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1순위) ····· 81
3. 장애수용 및 심리상태 ····· 82
1) 장애수용 ····· 82
2) 심리상태 ····· 85
3) 사회관계 ····· 90
4. 건강·의료 ····· 100
1) 건강 ····· 100
2) 의료서비스 ····· 122
3) 안전 ····· 137
5. 자립 ····· 143
1) 일상생활 ····· 143
2) 여가활동 ····· 160
3) 자립생활 ····· 169
4) 교육 ····· 188
5) 고용(취업) ····· 225
6. 사회참여 ····· 254
1) 장애 관련 서비스 ····· 254
2) 인권 ····· 262
3) 결혼생활 및 성 ····· 272
4) 노후 ····· 294
5) 현재 삶의 만족도 ····· 302

Ⅵ.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가구주) ····· 305

1. 가계변화 ····· 305
1) 경제상황 ····· 305
2. 주거 ····· 312
1) 이사 이유 ····· 312
2) 현재 주택 형태 ····· 313
3) 현재 주택점유 형태 ····· 313
4) 주택 마련 방법(1순위) ····· 314

Ⅶ. 장애인삶 패널조사 결과(가구원) ····· 317

1. 응답자 특성 ····· 317
2. 장애수용 및 변화 ····· 318
1) 장애수용 ····· 318
2) 심리상태 ····· 322
3) 사회관계 ····· 326
3. 건강/의료 ····· 330
1) 건강 ····· 330
2) 의료서비스 ····· 334
3) 안전 ····· 336
4. 자립 ····· 338
1) 일상 및 여가활동 ····· 338
2) 자립생활 ····· 345
3) 교육 ····· 347
4) 고용(취업) ····· 350
5. 사회참여 ····· 355
1) 인권 ····· 355
2) 노후 ····· 358
3) 삶의 만족도 ····· 360

[부록] 주요 용어 정의 ····· 361

표 목 차

<표 I-2-1> 조사영역 및 세부영역 ····· 6
<표 I-2-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7
<표 Ⅱ-1-1> 2019년 연구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 13
<표 Ⅱ-2-1> 패널용 조사표 변경 내용(예시) ····· 14
<표 Ⅱ-2-2> 장애인(패널)용 조사표 연도별 조사항목 ····· 15
<표 Ⅱ-2-3> 가구주용 조사표 연도별 조사항목 ····· 21
<표 Ⅱ-2-4> 가구원용 조사표 연도별 조사항목 ····· 21
<표 Ⅱ-2-5> 장애수용 및 변화 ····· 24
<표 Ⅱ-2-6> 건강·의료 ····· 24
<표 Ⅱ-2-7> 자립 ····· 24
<표 Ⅱ-2-8> 사회참여 ····· 25
<표 Ⅱ-3-1> 보기카드 예시 ····· 30
<표 Ⅱ-3-2> 조사원 교육 내용 ····· 31
<표 Ⅱ-3-3> 조사원 교육 일정 및 참석자 ····· 31
<표 Ⅱ-3-4> 조사완료 현황 ····· 33
<표 Ⅱ-3-5> 2차 년도 조사완료 표본 ····· 34
<표 Ⅱ-3-6> 데이터 에디팅 내용(일부 발췌) ····· 35
<표 Ⅱ-3-7> 종단데이터 에디팅 내용(일부 발췌) ····· 36
<표 Ⅲ-2-1> 표본추출결과 ····· 41
<표 Ⅲ-3-1> 모집단 및 패널구축 현황 ····· 42
<표 Ⅲ-4-1>최종가중치의 기술통계량 ····· 46
<표 Ⅲ-4-2> 주요변수별 모집단 분포 ····· 46
<표 Ⅲ-4-3> 변수유형별 주요 문항 ····· 47
<표 Ⅲ-4-4> 주요문항별 상대표준오차(%) - 전체 ····· 47
<표 Ⅲ-4-5>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2차 조사 현황 ····· 48
<표 Ⅲ-4-6>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2차 년도 가중치 작성을 위한 분석대상 ····· 49
<표 Ⅲ-4-7> 로지스틱 회귀분석 : 독립변수 ····· 50
<표 Ⅲ-4-8> 응답확률 모형(로지스틱회귀모형) ····· 52
<표 Ⅲ-4-9> 2차 년도 종단가중치의 기술통계량 ····· 53
<표 Ⅲ-4-10> 주요 문항별 상대표준오차 ····· 53
<표 Ⅲ-4-11> 모집단 현황과 2차 년도 가중값 합계 ····· 54

<표 Ⅳ-2-1>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59
<표 Ⅳ-2-2> 최종학력 ····· 60
<표 Ⅳ-2-3> 가구원 수 ····· 61
<표 Ⅳ-2-4>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전체) ····· 61
<표 Ⅳ-2-5>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항목별) ····· 62
<표 Ⅳ-2-6> 장애수용(전체) ····· 64
<표 Ⅳ-2-7> 지난 6개월간 전반적 건강상태 ····· 65
<표 Ⅳ-2-8> 만성질환(질병) 유무 ····· 66
<표 Ⅳ-2-9> 만성질환(질병) 보유 수 ····· 66
<표 Ⅳ-1-10>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 67
<표 Ⅳ-2-11>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및 정도 ····· 68
<표 Ⅳ-2-12>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전체) ····· 68
<표 Ⅳ-2-13>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항목별) ····· 69
<표 Ⅳ-3-14> 월평균 가구 소득 비중 ····· 72
<표 Ⅳ-2-15> 월평균 가구 생활비 및 항목별 생활비 비중 ····· 73
<표 Ⅳ-2-16>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1순위) ····· 73
<표 Ⅳ-2-17> 부채 비율 ····· 74
<표 Ⅴ-1-1> 인구통계학적 특성(2차 조사) ····· 77
<표 Ⅴ-2-1> 장애 등록시기 ····· 78
<표 Ⅴ-2-2> 지체 장애 세부장애 유형 ····· 79
<표 Ⅴ-2-3> 청각장애 세부장애 유형 ····· 79
<표 Ⅴ-2-4> 중복장애 발생시기 ····· 80
<표 Ⅴ-2-5> 중복장애 유형 ····· 80
<표 Ⅴ-2-6>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1순위) ····· 81
<표 Ⅴ-3-1>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 82
<표 Ⅴ-3-2> 장애와 관련한 경험 ····· 83
<표 Ⅴ-3-3> 장애수용 ····· 84
<표 Ⅴ-3-4> 우울수준(항목별) ····· 85
<표 Ⅴ-3-5> 자아존중감 ····· 86
<표 Ⅴ-3-6> 지난조사 이후 자살 생각 ····· 87
<표 Ⅴ-3-7> 자살 생각 이유(1순위) ····· 88
<표 Ⅴ-3-8> 자살 충동 행동(1순위) ····· 88
<표 Ⅴ-3-9> 자살 시도 경험 ····· 89
<표 Ⅴ-3-10> 자살 시도 횟수 ····· 89

<표 Ⅴ-3-11> 의사결정 주체(1순위) ····· 90
<표 Ⅴ-3-12> 가족관계 만족도 ····· 91
<표 Ⅴ-3-13>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 ····· 91
<표 Ⅴ-3-14> 가족과의 갈등 경험 ····· 93
<표 Ⅴ-3-15> 가족과의 갈등 유형(1순위) ····· 93
<표 Ⅴ-3-16>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 94
<표 Ⅴ-3-17> 만남 빈도 ····· 95
<표 Ⅴ-3-18> 정서적 도움 및 지지 ····· 95
<표 Ⅴ-3-19> 어려움 상담 상대 ····· 96
<표 Ⅴ-3-20> 주로 사용하는 SNS(1순위) ····· 97
<표 Ⅴ-3-21> SNS 접속시간 ····· 98
<표 Ⅴ-3-22> SNS 사용 이유 ····· 99
<표 Ⅴ-3-23> SNS 관련 평가 ····· 99
<표 Ⅴ-4-1>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100
<표 Ⅴ-4-2> 전년 대비 건강상태 ····· 101
<표 Ⅴ-4-3> 만성질환(질병) 유무 ····· 102
<표 Ⅴ-4-4> 만성질환(질병) 유형(1순위) ····· 102
<표 Ⅴ-4-5> 주 평균 운동 일수 ····· 104
<표 Ⅴ-4-6> 운동 시간 ····· 105
<표 Ⅴ-4-7> 운동 하지 않는 이유 ····· 106
<표 Ⅴ-4-8> 운동 유형 ····· 107
<표 Ⅴ-4-9> 주관적 몸무게 ····· 108
<표 Ⅴ-4-10> 하루 평균 수면시간 ····· 109
<표 Ⅴ-4-11> 하루 식사 수 ····· 109
<표 Ⅴ-4-12> 하루 식사량 ····· 110
<표 Ⅴ-4-13> 패스트푸드 섭취 수(주평균) ····· 110
<표 Ⅴ-4-14> 식생활 ····· 111
<표 Ⅴ-4-15> 지난조사 이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 112
<표 Ⅴ-4-16>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 112
<표 Ⅴ-4-17> 보험 가입 거부당한 경험 ····· 113
<표 Ⅴ-4-18> 보험 가입 거부당한 보험 유형 ····· 113
<표 Ⅴ-4-19> 생명보험 상세 유형 ····· 113
<표 Ⅴ-4-20> 손해보험 상세 유형 ····· 114
<표 Ⅴ-4-21> 혼합/제3보험 상세 유형 ····· 114

<표 Ⅴ-4-22>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 115
<표 Ⅴ-4-23>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 116
<표 Ⅴ-4-24>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비 항목(1순위) ····· 117
<표 Ⅴ-4-25> 현재 흡연 여부 ····· 118
<표 Ⅴ-4-26> 하루 평균 흡연량 - 담배(개비) ····· 118
<표 Ⅴ-4-27> 현재 음주 여부 ····· 119
<표 Ⅴ-4-28> 음주량 ····· 120
<표 Ⅴ-4-29> 장애 관련 제한 ····· 121
<표 Ⅴ-4-30>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 122
<표 Ⅴ-4-31> 외래진료횟수 ····· 123
<표 Ⅴ-4-32> 응급실 이용횟수 ····· 123
<표 Ⅴ-4-33> 입원횟수 ····· 124
<표 Ⅴ-4-34> 입원일수 ····· 125
<표 Ⅴ-4-35> 입원 이유 ····· 125
<표 Ⅴ-4-36> 이용 의료기관 유형 ····· 126
<표 Ⅴ-4-37> 의료관련 재활치료 서비스(1순위) ····· 127
<표 Ⅴ-4-38> 병원 이용 시 주 이용 교통수단(1순위) ····· 128
<표 Ⅴ-4-39> 병원까지 이동시간 ····· 129
<표 Ⅴ-4-40>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 정도 ····· 129
<표 Ⅴ-4-41> 진료결과 설명 충분성 ····· 130
<표 Ⅴ-4-42> 장애로 인한 의사 처방약 복용 여부 ····· 131
<표 Ⅴ-4-43> 건강검진 받은 경험 ····· 131
<표 Ⅴ-4-44>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 132
<표 Ⅴ-4-45>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 133
<표 Ⅴ-4-46>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 ····· 133
<표 Ⅴ-4-47>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 134
<표 Ⅴ-4-48>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 ····· 135
<표 Ⅴ-4-49>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 135
<표 Ⅴ-4-50>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136
<표 Ⅴ-4-51> 평상 시 안전도 ····· 137
<표 Ⅴ-4-52> 지난조사 이후 사고 경험 ····· 138
<표 Ⅴ-4-53> 사고 종류(1순위) ····· 138
<표 Ⅴ-4-54>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여부 ····· 139
<표 Ⅴ-4-55>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경험 ····· 139

<표 Ⅴ-4-56>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 140
<표 Ⅴ-4-57> 주거환경 평가 ····· 141
<표 Ⅴ-4-58> 주거공간 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1순위) ····· 142
<표 Ⅴ-5-1>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1순위) ····· 143
<표 Ⅴ-5-2> 도움 받는 분야 ····· 144
<표 Ⅴ-5-3> 주중 평균 1일 기준 도움 받는 시간 ····· 145
<표 Ⅴ-5-4> 주말 평균 1일 기준 도움 받는 시간 ····· 145
<표 Ⅴ-5-5>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 ····· 146
<표 Ⅴ-5-6> 주중 평균 1일 기준 도움제공 희망 시간 ····· 147
<표 Ⅴ-5-7> 주말 평균 1일 기준 도움제공 희망 시간 ····· 147
<표 Ⅴ-5-8> 집안일 시간(만 6세 이상) ····· 148
<표 Ⅴ-5-9> 집안일 부담 정도 ····· 149
<표 Ⅴ-5-10> 미취학 아동 유무 ····· 149
<표 Ⅴ-5-11> 아동양육 참여 여부 ····· 150
<표 Ⅴ-5-12> 아동 양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 ····· 150
<표 Ⅴ-5-13> 아동양육 참여 유형(1순위) ····· 150
<표 Ⅴ-5-14> 아동양육 부담 정도 ····· 151
<표 Ⅴ-5-15> 아동양육 만족도 ····· 151
<표 Ⅴ-5-16> 돌봄이 필요한 성인 유무 ····· 152
<표 Ⅴ-5-17> 한달 평균 외출 빈도 ····· 153
<표 Ⅴ-5-18>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1순위) ····· 154
<표 Ⅴ-5-19> 외출하는데 필요한 사항(1순위) ····· 155
<표 Ⅴ-5-20> 사회복지/고용정보 획득방법(1순위) ····· 156
<표 Ⅴ-5-21>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어려움 정도 ····· 157
<표 Ⅴ-5-22>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애로사항(1순위) ····· 158
<표 Ⅴ-5-23> 경제생활 평가 ····· 159
<표 Ⅴ-5-24> 여가활동(1순위) ····· 160
<표 Ⅴ-5-25> 여가활동 시간(1순위) ····· 161
<표 Ⅴ-5-26> 여가활동 만족도 ····· 162
<표 Ⅴ-5-27> 여가활동 동반자 ····· 163
<표 Ⅴ-5-28> 여행 경험 ····· 164
<표 Ⅴ-5-29> 여행 빈도 ····· 164
<표 Ⅴ-5-30> 여행 일수 ····· 165
<표 Ⅴ-5-31>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1순위) ····· 166

<표 Ⅴ-5-32> 반려동물 유무 ····· 167
<표 Ⅴ-5-33>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1순위) ····· 168
<표 Ⅴ-5-34>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 ····· 169
<표 Ⅴ-5-35>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시각 장애) ····· 170
<표 Ⅴ-5-36>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지체/뇌병변 장애) ····· 170
<표 Ⅴ-5-37>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청각장애) ····· 171
<표 Ⅴ-5-38>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전체) ····· 171
<표 Ⅴ-5-39>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시각 장애) ····· 172
<표 Ⅴ-5-40>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지체/뇌병변 장애) ····· 172
<표 Ⅴ-5-41>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청각장애) ····· 172
<표 Ⅴ-5-42>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전체) ····· 173
<표 Ⅴ-5-43> 현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 ····· 174
<표 Ⅴ-5-44> 장애인보조기기 불만족 이유(1순위) ····· 175
<표 Ⅴ-5-45>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필요한 정책 ····· 176
<표 Ⅴ-5-4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 177
<표 Ⅴ-5-47> 지원시간(보건복지부+지자체) ····· 178
<표 Ⅴ-5-48>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 178
<표 Ⅴ-5-49> 활동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1순위) ····· 178
<표 Ⅴ-5-5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충분정도 ····· 179
<표 Ⅴ-5-51>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시간 ····· 179
<표 Ⅴ-5-52> 자립생활 지원 필요 사항(1순위) ····· 180
<표 Ⅴ-5-53> 기관/시설 이동시간 (1)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 181
<표 Ⅴ-5-54> 기관/시설 이동시간 (2)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 182
<표 Ⅴ-5-55> 기관/시설 이동시간 (3)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 183
<표 Ⅴ-5-56> 기관/시설 이동시간 (4) 사회복지시설 ····· 183
<표 Ⅴ-5-57> 기관/시설 이동시간 (5)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 184
<표 Ⅴ-5-58>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정도 ····· 185
<표 Ⅴ-5-59>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이유(1순위) ····· 186
<표 Ⅴ-5-60>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 187
<표 Ⅴ-5-61>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 재학 상태 ····· 188
<표 Ⅴ-5-62> 초등학생 - 재학 상태 ····· 189
<표 Ⅴ-5-63> 중/고등학생 - 재학 상태 ····· 189
<표 Ⅴ-5-64> 전문/대학/대학원생 - 재학 상태 ····· 190
<표 Ⅴ-5-65> 보육시설/유치원 다니지 않는 이유 ····· 190

<표 Ⅴ-5-66>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 191
<표 Ⅴ-5-6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유치원 형태 ····· 193
<표 Ⅴ-5-68> 주중 하루 평균(시간 환산) ····· 194
<표 Ⅴ-5-69> 주말 하루 평균(시간 환산) ····· 194
<표 Ⅴ-5-70> (미취학) 등하원시 도움(1순위) ····· 195
<표 Ⅴ-5-71> (미취학) 등하원시 소요시간(분) ····· 195
<표 Ⅴ-5-72> (미취학) 보육시설/유치원 생활 시 문제점(1순위) ····· 195
<표 Ⅴ-5-73>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 196
<표 Ⅴ-5-74> 지난조사 이후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 197
<표 Ⅴ-5-75>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 만족도 ····· 197
<표 Ⅴ-5-76> (초등학교) 학교 형태 ····· 198
<표 Ⅴ-5-77> (초등학교) 등하교시 도움(1순위) ····· 198
<표 Ⅴ-5-78> (초등학교) 등하교 소요시간(분) ····· 199
<표 Ⅴ-5-79> (초등학교) 학교 생활 시 문제점(1순위) ····· 199
<표 Ⅴ-5-80>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 200
<표 Ⅴ-5-81> 지난조사 이후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 200
<표 Ⅴ-5-82>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만족도 ····· 201
<표 Ⅴ-5-83> (초등학교) 학교 생활 평가 ····· 201
<표 Ⅴ-5-84> (초등학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1순위) ····· 202
<표 Ⅴ-5-85> (초등학교) 주중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 203
<표 Ⅴ-5-86> (초등학교) 주말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 203
<표 Ⅴ-5-87> (중/고등학교) 등하교시 도움(1순위) ····· 204
<표 Ⅴ-5-88> (중/고등학교) 등하교 소요시간(분) ····· 204
<표 Ⅴ-5-89>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 시 문제점(1순위) ····· 205
<표 Ⅴ-5-90> (중/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 206
<표 Ⅴ-5-91> 지난조사 이후 (중/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 206
<표 Ⅴ-5-92>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 평가 ····· 207
<표 Ⅴ-5-93> (중/고등학교) 진학/진로계획 참여 여부 ····· 207
<표 Ⅴ-5-94> (중/고등학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1순위) ····· 208
<표 Ⅴ-5-95> (중/고등학교) 주중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 208
<표 Ⅴ-5-96> (중/고등학교) 주말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 209
<표 Ⅴ-5-97> (중/고등학교) 희망하는 교육수준 ····· 209
<표 Ⅴ-5-98>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후 계획 ····· 209
<표 Ⅴ-5-99>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 입학형태 ····· 210

<표 Ⅴ-5-100>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비 지원/부담 ····· 210
<표 Ⅴ-5-101> (전문대/대학교/대학원) 등하교시 도움(1순위) ····· 211
<표 Ⅴ-5-102>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지난조사 이후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1순위) ··· 211
<표 Ⅴ-5-103>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1순위) ···· 212
<표 Ⅴ-5-104>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생활 시 문제점(1순위) ····· 212
<표 Ⅴ-5-105>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 213
<표 Ⅴ-5-106>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 213
<표 Ⅴ-5-107>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 생활 평가 ····· 214
<표 Ⅴ-5-108>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1순위) ····· 214
<표 Ⅴ-5-109>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주중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 215
<표 Ⅴ-5-110>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주말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 215
<표 Ⅴ-5-111>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향후 계획 ····· 216
<표 Ⅴ-5-112>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지난조사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 216
<표 Ⅴ-5-113>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 참여 여부 ····· 217
<표 Ⅴ-5-114>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 218
<표 Ⅴ-5-115> 평생교육 프로그램(1순위) ····· 219
<표 Ⅴ-5-116>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주체 ····· 219
<표 Ⅴ-5-117> 평생교육 참여 빈도 ····· 220
<표 Ⅴ-5-118> 학비 부담/지원 ····· 220
<표 Ⅴ-5-119>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도움(1순위) ····· 221
<표 Ⅴ-5-120>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 시간(분) ····· 221
<표 Ⅴ-5-121>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 222
<표 Ⅴ-5-122>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 222
<표 Ⅴ-5-1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 223
<표 Ⅴ-5-1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활동(1순위) ····· 224
<표 Ⅴ-5-125>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225
<표 Ⅴ-5-126> 직무종류나 근로시간 제한 이유(1순위) ····· 226
<표 Ⅴ-5-127> 일자리 유무 ····· 227
<표 Ⅴ-5-128>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 228
<표 Ⅴ-5-129> 근로형태 ····· 229
<표 Ⅴ-5-130> 근로시간형태 ····· 229
<표 Ⅴ-5-131> 적성 부합 정도 ····· 230
<표 Ⅴ-5-132> 주 평균 근무일수 ····· 230
<표 Ⅴ-5-133> 하루 평균 근무시간 ····· 231

<표 Ⅴ-5-134> 주 평균 근무시간 ····· 232
<표 Ⅴ-5-135> 주 평균 희망 근무일수 ····· 232
<표 Ⅴ-5-136> 하루 평균 희망 근무시간 ····· 233
<표 Ⅴ-5-137> 주 평균 희망 근무시간 ····· 234
<표 Ⅴ-5-138>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1순위) ····· 235
<표 Ⅴ-5-139> 직업코드 ····· 236
<표 Ⅴ-5-140> 근무기간(년) ····· 237
<표 Ⅴ-5-141> 한 달 평균 소득 ····· 237
<표 Ⅴ-5-142> 재택근무 여부 ····· 238
<표 Ⅴ-5-143> 직장 관련 만족도 ····· 239
<표 Ⅴ-5-144> 지난조사 이후 구직/이직 경험 이유(1순위) ····· 240
<표 Ⅴ-5-145> 지난조사 이후 받은 지원 ····· 241
<표 Ⅴ-5-146> 받고 싶은 지원 ····· 242
<표 Ⅴ-5-147> 본인의 근로 가능 여부 ····· 244
<표 Ⅴ-5-148> 근로를 위해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필요 여부 ····· 245
<표 Ⅴ-5-149> 근로를 위해 필요한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항목(1순위) ····· 245
<표 Ⅴ-5-150> 구직활동 여부 ····· 246
<표 Ⅴ-5-151> 구직 관련 구체적인 활동 ····· 247
<표 Ⅴ-5-152> 구직 애로사항(1순위) ····· 247
<표 Ⅴ-5-153> 취업 필요사항(1순위) ····· 248
<표 Ⅴ-5-154> 구직하지 않은 이유(1순위) ····· 249
<표 Ⅴ-5-155> 구직활동 하지 않는 동안 주 활동 ····· 250
<표 Ⅴ-5-156> 향후 구직 의향 ····· 251
<표 Ⅴ-5-157> 산업코드 ····· 251
<표 Ⅴ-5-158> 직업코드 ····· 252
<표 Ⅴ-5-159> 일자리(사업체) 시작 동기 ····· 252
<표 Ⅴ-5-160> 일자리(사업체) 소득 유무 ····· 253
<표 Ⅴ-5-161> 일자리(사업체) 소득 금액 ····· 253
<표 Ⅴ-6-1>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인지 여부 ····· 254
<표 Ⅴ-6-2>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경험 여부 ····· 255
<표 Ⅴ-6-3>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 ····· 256
<표 Ⅴ-6-4>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 258
<표 Ⅴ-6-5> 지난조사 이후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 258
<표 Ⅴ-6-6> 1달 평균 사회복지시설 이용 횟수 ····· 259

<표 Ⅴ-6-7>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1순위) ····· 260
<표 Ⅴ-6-8>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 261
<표 Ⅴ-6-9>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1순위) ····· 261
<표 Ⅴ-6-10> 지난조사 이후 장애 인식관련 교육(장애인식,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 262
<표 Ⅴ-6-11> 인권교육 내용(1순위) ····· 263
<표 Ⅴ-6-12> 일상생활에서 존중 받는 정도 ····· 263
<표 Ⅴ-6-13>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 받을 권리(1순위) ····· 264
<표 Ⅴ-6-14>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 ····· 265
<표 Ⅴ-6-15> 지난조사 이후 괴롭힘이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 ····· 266
<표 Ⅴ-6-16> 폭력을 행사한 사람(1순위) ····· 266
<표 Ⅴ-6-17> 폭력 경험 빈도 ····· 267
<표 Ⅴ-6-18> 폭력 경험 대처 유형 ····· 268
<표 Ⅴ-6-19> 폭력 목격 대처 유형 ····· 268
<표 Ⅴ-6-20> 장애인 여성으로 차별 받는 정도 ····· 269
<표 Ⅴ-6-21> 인권증진 강화되어야 할 부분 ····· 270
<표 Ⅴ-6-22> 웰다잉 혹은 안락사 선택 여부 ····· 271
<표 Ⅴ-6-23> 혼인상태 ····· 272
<표 Ⅴ-6-24>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 273
<표 Ⅴ-6-25> 향후 결혼 의향 ····· 274
<표 Ⅴ-6-26> 지난조사 이후 이혼, 별거, 사별 경험 ····· 274
<표 Ⅴ-6-27> 지난조사 이후 이혼/별거 이유 ····· 274
<표 Ⅴ-6-28> 지난조사 이후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후 힘들었던 점(1순위) ····· 275
<표 Ⅴ-6-29> 현재 혼인상태의 재혼 여부 ····· 275
<표 Ⅴ-6-30> 재혼 이유(1순위) ····· 276
<표 Ⅴ-6-31> 현재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인 이유 ····· 276
<표 Ⅴ-6-32> 현재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임으로 인해 현재 가장 힘든 점(1순위) ··· 277
<표 Ⅴ-6-33> 재혼 의향 ····· 278
<표 Ⅴ-6-34> 재혼 의향 이유(1순위) ····· 278
<표 Ⅴ-6-35> 자녀 유무 ····· 279
<표 Ⅴ-6-36> 자녀 임신형태(시험관/인공수정 여부) ····· 279
<표 Ⅴ-6-37>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 경험 ····· 280
<표 Ⅴ-6-38> 장애가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 ····· 280
<표 Ⅴ-6-39> 향후 자녀 계획 ····· 281
<표 Ⅴ-6-40>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 282

<표 Ⅴ-6-41> 지난조사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 ····· 283
<표 Ⅴ-6-42>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 284
<표 Ⅴ-6-43> 지난조사 이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 ····· 284
<표 Ⅴ-6-44>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유형 ····· 285
<표 Ⅴ-6-45>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장소(1순위) ····· 285
<표 Ⅴ-6-46> 지난조사 이후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 285
<표 Ⅴ-6-47> 지난조사 이후 인공수정 시도 경험 ····· 286
<표 Ⅴ-6-48> 지난조사 이후 임신중절 경험 ····· 286
<표 Ⅴ-6-49> 지난조사 이후 임신중절을 강요 받은 경험 ····· 286
<표 Ⅴ-6-50> 지난조사 이후 배우자와 갈등 ····· 287
<표 Ⅴ-6-51> 배우자와 갈등 이유(1순위) ····· 288
<표 Ⅴ-6-52> 갈등 해결 방법(1순위) ····· 289
<표 Ⅴ-6-53> 지난조사 이후 장애가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 290
<표 Ⅴ-6-54> 지난조사 이후 성생활 만족도 ····· 290
<표 Ⅴ-6-55> 지난조사 이후 성관련 상담 ····· 291
<표 Ⅴ-6-56> 지난조사 이후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 292
<표 Ⅴ-6-57> 원치 않는 성관계 시 조치 사항(1순위) ····· 293
<표 Ⅴ-6-58> 지난조사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 ····· 294
<표 Ⅴ-6-59> 노후생활 준비 사항(1순위) ····· 295
<표 Ⅴ-6-60> 노후생활 준비 정도 ····· 295
<표 Ⅴ-6-61>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296
<표 Ⅴ-6-62> 노후생활 걱정(1순위) ····· 297
<표 Ⅴ-6-63> 주관적 노인 나이 ····· 298
<표 Ⅴ-6-64> 노후생활에 필요한 1달 생활비 ····· 299
<표 Ⅴ-6-65> 희망하는 노후활동 ····· 300
<표 Ⅴ-6-66> 연락 빈도 ····· 301
<표 Ⅴ-6-67> 현재 삶의 만족도 ····· 302
<표 Ⅵ-1-1> 월평균 가구 소득(전체) ····· 305
<표 Ⅵ-1-2>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 ····· 306
<표 Ⅵ-1-3> 생활비 부담(1순위) ····· 307
<표 Ⅵ-1-4>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 ····· 308
<표 Ⅵ-1-5> 자산 ····· 309
<표 Ⅵ-1-6> 부채 ····· 309
<표 Ⅵ-1-7> 현재 경제상태 ····· 310

<표 Ⅵ-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 310
<표 Ⅵ-1-9> 보장 받고 있는 내용 ····· 311
<표 Ⅵ-2-1> 이사 이유 ····· 312
<표 Ⅵ-2-2> 현재 주택 형태 ····· 313
<표 Ⅵ-2-3> 현재 주택점유 형태 ····· 313
<표 Ⅵ-2-4> 주택 마련 방법(1순위) ····· 314
<표 Ⅶ-1-1> 응답자(가구원)의 특성 ····· 317
<표 Ⅶ-2-1> 패널의 장애 정보 인지 정도 ····· 318
<표 Ⅶ-2-2> 장애 관련 도움처 ····· 318
<표 Ⅶ-2-3>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1순위) ····· 319
<표 Ⅶ-2-4> 패널의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 319
<표 Ⅶ-2-5> 패널의 장애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 ····· 320
<표 Ⅶ-2-6> 장애수용 ····· 321
<표 Ⅶ-2-7> 패널이 장애에 적응한 정도 ····· 322
<표 Ⅶ-2-8> 우울증 ····· 322
<표 Ⅶ-2-9> 자아존중감 ····· 323
<표 Ⅶ-2-10> 이민고려 이유 ····· 324
<표 Ⅶ-2-11> 자살생각 ····· 324
<표 Ⅶ-2-12> 자살생각 이유 (1순위) ····· 325
<표 Ⅶ-2-13> 자살 충동 행동 (1순위) ····· 325
<표 Ⅶ-2-14> 자살시도 경험 ····· 325
<표 Ⅶ-2-15> 패널과의 관계 정도 ····· 326
<표 Ⅶ-2-16> 가족관계 만족도 ····· 326
<표 Ⅶ-2-17>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 ····· 327
<표 Ⅶ-2-18> 연락 빈도 ····· 329
<표 Ⅶ-3-1> 패널 돌봄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험 여부 ····· 330
<표 Ⅶ-3-2> 전년 대비 건강상태 ····· 330
<표 Ⅶ-3-3> 패널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 331
<표 Ⅶ-3-4>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 331
<표 Ⅶ-3-5> 만성질환(질병) 유무 ····· 332
<표 Ⅶ-3-6> 만성질병 유형(1순위) ····· 332
<표 Ⅶ-3-7> 주 평균 운동 일수 ····· 333
<표 Ⅶ-3-8> 운동 시간 ····· 333
<표 Ⅶ-3-9> 처방약 복용 여부 ····· 334

<표 Ⅶ-3-10> 건강검진 받은 경험 ····· 334
<표 Ⅶ-3-11>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 335
<표 Ⅶ-3-12> 지난 6개월 필요한 의료 받지 못한 경험 ····· 335
<표 Ⅶ-3-13>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 335
<표 Ⅶ-3-14> 평상 시 안전도 ····· 336
<표 Ⅶ-3-15>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여부 ····· 336
<표 Ⅶ-3-16> 지난조사 이후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경험 ····· 337
<표 Ⅶ-3-17>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 337
<표 Ⅶ-4-1> 패널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 338
<표 Ⅶ-4-2> 가구원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 여부 ····· 338
<표 Ⅶ-4-3> 도움제공 분야(1순위) ····· 339
<표 Ⅶ-4-4> 도움제공 시간 ····· 340
<표 Ⅶ-4-5> 도움 제공시 느끼는 부담 ····· 340
<표 Ⅶ-4-6> 돌봄/양육 강화 ····· 341
<표 Ⅶ-4-7> 돌봄/양육 책임 ····· 341
<표 Ⅶ-4-8> 지난조사 이후 패널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못한 경험 여부 ··· 342
<표 Ⅶ-4-9> 하지 못한 일 유형 ····· 342
<표 Ⅶ-4-10> 주부양자 부재 시 패널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주거형태 ····· 343
<표 Ⅶ-4-11> 현재 경제상태 ····· 343
<표 Ⅶ-4-12> 여가활동 만족 ····· 344
<표 Ⅶ-4-13> 패널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 345
<표 Ⅶ-4-14> 패널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충분정도 ····· 345
<표 Ⅶ-4-15> 패널의 자립생활을 위핸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 346
<표 Ⅶ-4-16> 지역 환경으로 인한 불편 정도 ····· 346
<표 Ⅶ-4-17> 거주지역 일상생활 불편 이유(1순위) ····· 346
<표 Ⅶ-4-18> 지난조사 이후 학업중단/상급학교 진학 못한 경험 ····· 347
<표 Ⅶ-4-19> 지난조사 이후 학업중단/상급학교 진학을 못한 이유 ····· 347
<표 Ⅶ-4-20> 평생교육 참여 여부 ····· 348
<표 Ⅶ-4-21> 평생교육 참여 빈도 ····· 348
<표 Ⅶ-4-22>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 349
<표 Ⅶ-4-23> 일자리 유무 ····· 350
<표 Ⅶ-4-24>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 350
<표 Ⅶ-4-25> 근로형태 ····· 351
<표 Ⅶ-4-26> 근로시간형태 ····· 351

<표 Ⅶ-4-27> 주 평균 근무일수 ····· 351
<표 Ⅶ-4-28> 하루 평균 근무시간 ····· 352
<표 Ⅶ-4-29> 주 평균 근무시간 ····· 352
<표 Ⅶ-4-30>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1순위) ····· 353
<표 Ⅶ-4-31> 구직 시 패널의 영향 ····· 354
<표 Ⅶ-4-32> 구직활동 여부 ····· 354
<표 Ⅶ-5-1> 차별 정도 ····· 355
<표 Ⅶ-5-2> 차별 받고 있는 부분 ····· 355
<표 Ⅶ-5-3> 차별 대처방법 ····· 356
<표 Ⅶ-5-4> 차별 상담 대상 ····· 356
<표 Ⅶ-5-5>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식 관련 교육 여부 ····· 357
<표 Ⅶ-5-6> 인권증진 강화되어야 할 부분 ····· 357
<표 Ⅶ-5-7> 장애관련 시설 입지가 어려운 이유 ····· 358
<표 Ⅶ-5-8>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 ····· 358
<표 Ⅶ-5-9> 노후생활 준비 사항(1순위) ····· 359
<표 Ⅶ-5-10> 노후생활 준비 정도 ····· 359
<표 Ⅶ-5-11> 노후생활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 360
<표 Ⅶ-5-12> 현재 삶의 만족도 ····· 360

그 림 목 차

[그림 Ⅰ-2-1] 조사표 ····· 6
[그림 Ⅰ-2-2] 조사대상 범위 ····· 9
[그림 Ⅱ-2-1] 장애인삶 패널조사 관심 영역별 구성지표 체계 ····· 23
[그림 Ⅱ-2-2] 대상별 조사표 구성 문항 체계 ····· 26
[그림 Ⅱ-2-3]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흐름도 ····· 27
[그림 Ⅱ-1-1] 리플렛 및 조사지침서 ····· 29
[그림 Ⅱ-1-2]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차별 실사 진행 현황 ····· 32
[그림 Ⅲ-4-1] 장애인삶 패널조사 응답 및 무응답 도표 ····· 51

Ⅰ 장애인삶 패널조사 개요

Ⅰ 장애인삶 패널조사 개요

1. 개요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438001호)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에 대해서 개인·가족·사회적 요인의 동태를 파악 하여,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횡단조사로 구축된 자료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못해 관심 변수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1] 그러나 패널자료를 이용하면 상태변이 행렬을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관측할 수 없는 변수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 이러한 이유로 개인의 삶의 변화는 종단조사 자료로 구축되었을 때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장애 발생에 따른 변화를 탐색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 종단자료를 구축하고자 2018년 1차 년도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패널조사는 2015년~2017년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 6,121명 표본을 패널로 구축하여, 장애인 및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패널조사의 핵심은 초기 구축된 표본이 이후 조사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조사했는가에 달려 있다.[3][4] 2019년에 실시된 2차 년도 조사는 초기 구축된 장애인 패널 6,121명 중 5,52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원표본 유지율은 90.3%이다. 2020년 현재는 3차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2차 조사 과정 및 조사 진행 결과를 제시하고, 기본 데이터 클리닝[5]이 진행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2차 년도 조사의 기본적 정보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보고서는 다음을 사항을 포괄하고 있다. 첫째로는 2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 개발이다. 2차 년도 조사는 1차 조사의 조사표를 기본으로 수정·보완하여 실시하였다. 이는 패널조사는 동일 대상을 동일 문항으로 추적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 진행 중에 조사표를 변경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1) 주재선 외. (2018). 2018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홍민기, 최효미. (2014). 조사연구. 15(4). 95-122.
3) 김유빈 외. (2019). 제21차(2018)년도 한국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 한국노동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한국노동연구원.
4) 패널조사 데이터는 초기 구축한 표본을 반복적으로 조사함으로서 수집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패널조사에서는 일반적인 횡단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시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며 (김규성, 2010), 패널조사에서는 표본마모가 (또는 표본이탈, 표본탈락, 패널이탈 으로 불림; panel attrition) 주요이슈의 하나로 부각된다. (출처) 김현지 외.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규성, 박인호. (2010). 패널조사 웨이브 무응답 대체방법 비교. 조사연구학회, 11(1), 1-18.
5) 향후 지속적으로 종단클리닝(서로 다른 조사 차수간의 비교로 오류를 바로 잡는 과정)이 진행되면서 일부 데이터가 수정될 수 있다. 이는 당해 차수의 오류를 잡는 횡단클리닝 이후에 진행되며, 조사 차수가 증가할수록 클리닝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출처) 최효미 외. (2012). 패널자료의 품질 개선을 위한 조사기법 연구-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방법. 한국노동연구원.

1차 조사의 조사표를 바탕으로 종단연구의 2차 년도 조사에 맞는 문항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둘째, 2차 년도 조사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과 2차 년도 조사참여자 특성을 살펴본다. 먼저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1차 년도 조사결과와의 비교값을 제시하여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2차 년도 조사결과 전반을 분석하여 장애인 패널 및 그들의 가구원 특성을 살펴본다. 본 보고서에 활용된 자료는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1차 및 2차 년도 자료이다.[6] 본 조사 총괄과 연구는 조사패널팀에서 담당하였으며, 실사는 통계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담당하였다.

6) 향후 추가적인 자료정리과정에서 데이터가 일부 수정될 수 있다.

2. 조사개요[7)]

1) 법적근거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및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 제438001호)[8)]이다.

2) 조사연혁

- 장애인삶 패널조사 통계작성승인(2018.9.6.): 제438001호
- 1차 조사 및 패널구축 완료 (6,121명): 2018년
- 2차 조사 완료 (5,527명): 2019년

3) 조사목적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장애수용, 사회복귀, 가족구조 등)를 파악하고, 삶과 관련된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실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등의 탐색을 통해 향후 관련 정책의 수립 ·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개인·가족·사회적 관점에서 장애 발생에 따른 장애수용과정과 사회관계의 변화 등을 탐색하고, 장애수용 및 변화, 건강·의료, 일상생활 등의 이해를 통해 관련 정책의 수립·지원 과정에서 활용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4)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 32조에 의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한 등록장애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한다. 조사대상이 되는 표본은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과 추정의 정도(precision)를 높일 수 있는 표본이 추출될 수 있도록 표본설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설계요소를 반영, 통계적 방법에 기반을 두어 선정하였다. 표본설계 연구결과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표본배분 및 표본추출하였다.[9)]

---

7) 본 절은 「김정희 외. (2019). 2018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지 외.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여 수정 · 보완 하였다.

8) 2018년은 1차 년도 조사로 패널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 분석, 공표항목 등의 검토가 필요한 바, 조건부승인으로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승인(제438001호, 승인일 : 2018.09.06.)을 받음.

9) 관련해서는 「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참고한다.

5) 조사표 구조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과 그들의 가구원이 장애수용 과정과 사회관계 속에서 겪는 변화를 '장애수용 및 가계변화,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주요 조사 영역별 세부 포함 내용[10]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또한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적조사를 위해 마지막에 패널관리 정보(향후 이사의향 등)를 추가로 조사하였다.

〈표 I-2-1〉 조사영역 및 세부영역

주요 조사 영역	세부 포함 내용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일반현황 등
건강 · 의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자립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사회참여	장애관련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주1) 조사영역은 패널용(장애인용) 조사표 기준임

본 패널조사의 조사표는 총 3종 (패널용, 가구주용, 가구원용[11])으로 구성하였으며, 각각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용 (패널)	가구주용	가구원용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패널)에 관한 문항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의 가계변화에 관한 문항	표본으로 선정된 ① 패널에 관한 가구원의 경험·생각(인식)관련 문항 ② 가구원 본인과 관련한 문항
조사표 1	조사표 2	조사표 3

[그림 I -2-1] 조사표

◦ 패 널 용 :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및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일상 및 여가생활,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장애관련 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

◦ 가구주용 : 가구원 현황, 경제상황, 주거에 대하여 조사

◦ 가구원용 :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및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일상 및 여가생활,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인권, 노후, 삶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조사

10) 조사대상의 범위에 대한 자문회의(2017.11.28) 결과를 바탕으로 복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주요 조사 영역을 결정.

11)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원 조사표는 반복될 수 있다. 가구원 설문의 경우 조사 참여 의향을 묻고, 참여 의향이 있는 경우만 응답 받으며, 거절 시 상세사유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6) 조사방법 및 조사체계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전문면접원에 의한 1:1 대면면접조사이며, 조사도구로는 태블릿 PC를 활용(TAPI :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12]한다. TAPI는 조사표의 논리적 오류, 즉 문항의 흐름상 응답자의 응답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확률적으로 응답이 잘못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등일 발생 하였을 때 조사현장에서 조사원이 응답값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종단조사에서 TAPI를 활용하면 논리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값이 나오는 경우 팝업창을 띄워 응답값을 재확인하는 기능을 장착할 수 있다. 이에 장애인삶 패널조사에서는 TAPI를 활용하여 복잡한 설문 구조 등으로 인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답 오류 및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조사는 조사원이 조사 진행에 앞서 패널과 사전 방문 약속을 잡고, 약속된 장소를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타계식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채택하여 조사원이 패널에게 질문하고 패널의 응답내용은 태블릿 PC에 바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만 패널 조사표 영역 중 결혼 생활 및 성의 일부 민감 문항에 대해서는 2018년과 동일하게 자기기입식 조사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비밀보호용 봉투를 이용하여 패널이 직접 기입하도록 하였다. 2019년 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기획하여 총괄하고, 현장조사는 통계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를 통해 진행하였다.

〈표 Ⅰ-2-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방법
패널(장애인)	TAPI 조사[주1)]
패널의 가구원	유치조사 병행

주1) 결혼생활 및 성 영역의 일부 민감문항의 경우 비밀보호용 봉투를 활용한 자기기입식 조사 병행

12) TAPI를 활용한 조사는 기존의 CAPI(Computer Aided Personal Interview)의 장점을 모두 포함하면서 노트북의 단점인 휴대의 불편함을 태블릿 PC로 개선한 선진화된 조사방법이다. 이는 현장실사 관리 효율성, 자료처리 시간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 이용자용 통계정보보고서, 2016). CAPI는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조사로 면접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지참하고 조사대상자에게 컴퓨터 화면 나오는 질문을 읽어준 후 그 응답을 키보드나 마우스를 이용하여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CAPI의 장점은 첫째, 질문 논리에 따라 경로를 지정하여 면접원이 해당문항을 찾아서 기입할 필요가 없고, 응답자의 응답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문항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잘못된 경로로 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다. 둘째, CAPI는 문항에 따라 응답범위를 사전에 지정하여 입력 오류의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문항간 일관성을 유지시켜 준다. 셋째, CAPI에서는 필요에 따라 설문의 순서를 무작위로 배치할 수 있으며, 응답자 상황과 대답에 따른 맞춤식 설문문항으로 면접할 수 있다. 넷째, 자동 계산 및 채점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인쇄된 설문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접원이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한 후 정/오답을 판단해서 적어야 하나, CAPI는 응답자가 말한 숫자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정/오답을 판단하여 자동으로 입력된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2009).

7) 조사기간 및 조사주기

본 패널조사는 2019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실시되었으며[13], 장애인 및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주기는 1년으로 매년 동일대상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8) 조사대상 및 추적원칙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패널로 구축된 장애인 6,121명과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 조사대상이며,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추적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추적원칙은 본 조사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1차 년도 조사 완료된 장애인은 '패널 구성원'으로 칭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을 '가구원 구성원'으로 칭한다. '패널 구성원'은 추적 조사의 대상인 반면, '가구원 구성원'은 패널의 조사 참여 여부에 따라 추적여부가 결정된다. 둘째, '패널 구성원'이 조사에 참여할 경우 패널과 함께 거주하는 만 12세 이상 '가구원 구성원'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조사참여 이력이 있는 '가구원 구성원' 중 비동거 상태이거나, 조사 참여의향이 없는 경우는 추적조사를 하지 않는다. 셋째, '패널 구성원'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가구원 구성원'은 추적 조사를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조사대상[14]은 장애인 패널,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15]이다. 본 조사는 본인응답이 원칙이며, '만 12세 미만의 패널' 이거나 또는 '응답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대리응답을 허용하고 있다.[16] 대리응답자의 기본원칙은 가족과 가구원 중에서 가장 많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이며, 장애인 조사임을 감안하여 주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포괄한다.[17] 대리응답자의 자격 및 우선순위는 '가족', '가구원', '주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가족과 가구원이 대리응답자인 경우는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기타 친·인척'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

---

13) 2차 년도 조사결과는 2020.12.31. 본 보고서를 통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3차 년도 조사결과는 2021.12.31. 공표될 예정이다.

14)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관련한 본 문단은「강정배 외. (2018). 장애인패널 예비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15) 가구원은 6개월 이상 생계(동거)를 같이 한 사람 (단, 활동보조인,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인척 제외하며,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을 의미합니다. 단,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주는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에 응답자가 가구주라고 지목하는 가구원(응답자 본인 포함)을 가구주로 간주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3절의 가구원 및 가구주의 정의를 참고한다.

16) 실제 현장조사에서는 대리응답의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7) 일상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인일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1) 대리응답 허용 기준

① 연령: 만 12세 미만

② 응답자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리응답자 자격 및 우선순위

◦ 대리응답 우선순위 : 가족 > 가구원 > 주된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

- 가족 및 가구원 대리응답 우선순위 : 1. 부모 > 2. 조부모 > 3. 형제·자매 4. 기타 친·인척)

조사대상		연령	원패널과의 관계	응답기준		조사표	
				원칙	대리응답 허용 기준		
장애인 (원패널)	장애인	만0세~		본인응답	① 만12세미만 ② 의사소통 불가능한 경우	장애인용 [조사표 1]	가구주 [조사표 2]
가구원	비장애인	만12세 이상	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이모, 삼촌 등	본인응답	불가	가구원용 [조사표 3]	+
	장애인			본인응답	② 의사소통 불가능한 경우		

[그림 Ⅰ-2-2] 조사대상 범위

Ⅱ 2019년 연구 추진 현황

Ⅱ 2019년 연구 추진 현황

1. 개요

2차 년도 조사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의 조사 준비기간을 거쳐 실시되었다. 준비 사항으로는 계획수립, 조사업체 선정, 표본리스트 정리, 조사표 확정, TAPI 조사표 개발, 조사지침서 개발, 통계작성 변경 승인, 조사원 교육 등 이다.

〈표 Ⅱ-1-1〉 2019년 연구 추진일정 및 진행사항

진행일정	진행단계	상세내용
’19.3월	◦ 장애인삶 패널조사 계획 수립	◦2차 년도 본조사 계획 수립
’19.3월~10월	◦ 데이터 에디팅	◦1차 년도 데이터 클리닝 및 에디팅
’19.3월~10월	◦ 가중치설계	◦1차 년도 가중치설계 연구
’19.4월~7월	◦ 2차 년도 조사표 개발	◦2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 수정 · 보완
’19.7월	◦ 조사업체 선정 완료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업체 선정
’19.8월	◦ 표본리스트 정리	◦조사대상자 리스트 정리
‘19.8월	◦ 조사표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학계 및 관련전문가 의견수렴(조사표와 관련)
’19.8월	◦ 조사표 확정	◦조사표 확정
’19.8월-9월	◦ 2차 조사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2차 조사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 종단연구를 위한 조사표로 변경 및 삭제
’19.8월~9월	◦ TAPI 개발 및 로직 테스트	◦IRB 동의서, 답례품 TAPI 시스템 내장 ◦TAPI 조사표 개발 ◦TAPI 로직테스트
’19.9월	◦ 조사지침서 개발	◦조사지침서 개발 및 확정
’19.8월~9월	◦ 조사준비	◦협조요청 공문 ◦홈페이지 배너, 조사원 명함 제작 ◦조사안내문 제작 ◦리플렛, 보안각서 등 준비 ◦답례품 ◦장애인 조사원 모집
’19.9월	◦ 조사안내문 사전 발송	◦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안내문 발송
’19.9월	◦ 명절 선물 발송	◦패널 관리를 위한 명절 선물 발송
’19.10월	◦ 조사원 교육	◦조사원교육 : 전국 6대 권역별, 총 131명
’19.10월	◦ 사전 설명회 및 사전조사	◦장애인조사원 투입을 위한 사전 설명회 ◦사전조사 진행 후 장애인 조사원 의견수렴
’19.10월~12월	◦ 2차 년도 본조사 진행	◦본조사(2차년도 조사) 실시

2. 2019년(2차 조사) 조사내용

1) 2차 조사 조사표 개발 방향

2차 년도 조사는 1차 조사의 조사표를 기본으로 응답빈도가 낮아 데이터의 활용도와 신뢰성을 저해하는 문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문항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하고 응답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보완·삭제 하였다.

(1) 조사표

장애인(패널)용 조사표 내 항목 중 1차 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문항과 1차 조사 결과 응답빈도가 낮아 활용도가 낮은 문항 등을 삭제하였다. 또한 2차 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문항 내 제시된 응답 시점을 변경[18]하고, 1차 조사 결과 중 기타의견으로 많이 제시된 내용은 선택항목에 반영하였다. 그 외에 문항의 명료성 제고를 위해 워딩을 수정하였다. 1차 조사 결과 중 기타의견으로 많이 제시된 내용은 선택항목에 반영하였다. 또한 문항의 명료성 확보를 위해 워딩을 수정하였다.

〈표 II-2-1〉 패널용 조사표 변경 내용(예시)

조사영역		조사내용	변경사항	변경사유
일반현황		장애발생 원인 및 시기,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 장애등록 시기, 장애 발생 후 즉시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장애등급 재심사 받은 이유	삭제	이전조사에서 파악한 문항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 수용	장애 인지 정도	삭제	문항 중복(장애와 관련한 경험)에 따른 삭제
		장애 발생 인지 후 힘들었던 점		이전조사에서 파악한 문항으로 응답부담 경감 차원에서 삭제
	심리 상태	우울증	변경	하위범주 횟수 수정
	사회 관계	가족관계	변경	선택항목에 해당없음 추가
		어려움 상담 상대	변경	선택항목 추가
사회참여	장애 관련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변경	선택 항목 보완
	인권	폭력을 행사한 사람, 폭력 목격 대처 유형	변경	선택 항목 통합 및 보완
	삶의 만족도	장애 이전의 삶의 만족도	삭제	이전조사에서 파악한 문항으로 응답부담 경감 차원에서 삭제

18) 문항에 '지난조사 이후' 등 추가함

(2) 연도별 조사항목

가. 장애인(패널)용 조사표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변경되면서 장애인(패널)용 조사항목 중 16개가 삭제되었다. 영역별로는 일반현황에서 5개 항목, 장애수용 및 변화에서 2개 항목, 자립에서 8개 항목, 사회참여에서 1개 항목이 삭제되었다.

〈표 Ⅱ-2-2〉 장애인(패널)용 조사표 연도별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일반현황		이름	O	O
		성별	O	O
		태어난 년도	O	O
		최종학력	O	O
		장애발생 원인 및 시기	O	X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	O	X
		주장애 유형 및 정도[19], 중복장애 유형	O	O
		지체장애 세부 유형	O	O
		청각장애 세부 유형	O	O
		중복장애 발생년도	O	O
		장애등록 시기	O	X
		장애 발생 후 즉시 장애등록 하지 않은 이유	O	X
		장애등급 재심사 받은 이유	O	X
		주요 의사소통 수단	O	O
장애 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장애 인지 정도	O	X
		장애 발생 인지 후 힘들었던 점	O	X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정도	O	O
		장애와 관련한 경험	O	O
		장애수용	O	O
	심리상태	우울증	O	O
		자아존중감	O	O
		자살생각	O	O
		자살이유	O	O
		자살충동 행동	O	O
		자살시도	O	O
	사회관계	가정 내 의사결정 주체	O	O
		가족관계 만족도	O	O
		가족관계	O	O
		가족 갈등	O	O
		가족 갈등 이유	O	O
		가까이 지내는 사람	O	O
		만남 빈도	O	O
		정서적 도움 및 지지	O	O
		어려움 상담 상대	O	O
		SNS 사용	O	O
		SNS 접속시간	O	O
		SNS 사용 이유	O	O
		SNS 관련 인식	O	O
건강 ·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O	O
		또래 대비 건강상태	O	O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의료		만성질병유형	O	O
		운동일수 및 시간	O	O
		운동하지 않는 이유	O	O
		운동유형	O	O
		주관적 몸무게	O	O
		수면 시간	O	O
		하루 식사 수	O	O
		하루 식사량	O	O
		라면, 햄버거 등 섭취 수	O	O
		영양상태	O	O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O	O
		민간의료보험 개수	O	O
		장애로 인해 보험 가입	O	O
		거부당한 보험 유형	O	O
		생명보험거부_상세보험유형	O	O
		손해보험거부_상세보험유형	O	O
		혼합보험거부_상세보험유형	O	O
		장애인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	O	O
		장애에 대한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	O	O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비 항목	O	O
		흡연 여부 및 정도	O	O
		음주여부 및 정도	O	O
		장애로 인한 일상생활 제한 정도	O	O
	의료서비스	6개월간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O	O
		입원 이유	O	O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	O	O
		의료관련 재활치료 서비스	O	O
		병원 이용시 교통수단 및 이동보조기기	O	O
		병원 이동 시간	O	O
		의료종사자의 장애이해 정도	O	O
		진료결과에 대한 설명 정도	O	O
		복용 알약 개수	O	O
		건강검진 시기 및 횟수	O	O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O	O
		병 · 의원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및 횟수	O	O
		치과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및 횟수	O	O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O	O
		의료서비스 만족도	O	O
	안전	안전도	O	O
		사고경험	O	O
		사고종류	O	O
		재난대응 훈련/안전교육 인지 여부	O	O
		재난대응 훈련/안전교육 경험 여부	O	O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 정도	O	O
		주거환경	O	O
		주택 내 불편한 공간	O	O
자립	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O	O
		도움제공 여부	O	O
		도움제공 시간	O	O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O	O
		도움 필요 시간	O	O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집안일 시간		O	O
		집안이 부담 정도		O	O
		가정 내 양육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유무		O	O
		아동양육 참여 여부, 시간, 유형		O	O
		아동양육 부담 정도		O	O
		아동양육 분담 만족도		O	O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성인 유무		O	O
		성인돌봄 참여 여부, 시간, 유형		O	X
		성인돌봄 부담 정도		O	X
		성인돌봄 분담 만족도		O	X
		외출 정도		O	O
		외출하는데 필요한 사항		O	O
		외출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		O	O
		사회복지/고용정보 획득 방법		O	O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어려움		O	O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		O	O
		경제생활 관련 어려움 정		O	O
	여가활동	주로 참여한 여가활동 종류 및 시간		O	O
		여가활동 만족도		O	O
		여가활동 상대		O	O
		여행 여부		O	O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		O	O
		반려동물 유무		O	O
		반려동물 키우는 이유		O	O
	자립생활	거주시설 입소여부		O	O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사용여부		O	O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		O	O
		장애인보조기기 불만족 이유		O	O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정책		O	O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O	O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O	O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O	O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불만족 이유		O	O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성		O	O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O	O
		기관/시설 이동시간		O	O
		거주지역 생활 시 불편한 정도		O	O
		거주지역 일상생활 불편 이유		O	O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O	O
	교육	무학 이유		O	X
		(공통문항)	현재 학업상태	O	O
			보육시설/유치원 다니지 않은 이유	O	O
			학년	O	O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O	O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생)	교육형태	O	O
			이용시간	O	O
			등하원 시 도와주는 사람	O	O
			등하원시 소요시간	O	O
			생활 시문제점	O	O
			편의제공 및 만족도	O	O
		(초등학생)	학년	O	O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학교형태	O	O
			등하교시 도와주는 사람	O	O
			등하교 소요시간	O	O
			생활 시 문제점	O	O
			편의제공 및 만족도	O	O
			학교생활 관련 적절성	O	O
			1달 용돈	O	O
			사교육시설 이용여부	O	O
			사교육시설 이용시간	O	O
		(중/고등학생)	학년	O	O
			학교형태	O	O
			등하교시 도와주는 사람	O	O
			등하교 소요시간	O	O
			생활 시 문제점	O	O
			편의제공 및 만족도	O	O
			학교생활 관련 적절성	O	O
			전환교육 계획 개발 참여	O	O
			1달 용돈	O	O
			사교육시설 이용여부	O	O
			사교육시설 이용시간	O	O
			희망하는 교육수준	O	O
			향후 계획	O	O
		(전문대/대학 /대학원)	학년	O	O
			입학형태	O	O
			전공	O	O
			학비 지원/부담	O	O
			등하교시 도와주는 사람	O	O
			등하교 소요시간	O	X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	O	O
			생활 시 문제점	O	O
			편의제공 및 만족도	O	O
			학교생활 관련 적절성	O	O
			1달 용돈	O	O
			사교육시설 이용여부	O	O
			사교육시설 이용시간	O	O
			향후 계획	O	O
			아르바이트 경험	O	O
			아르바이트 유형	O	O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	O	X
			노동부 신고 경험	O	X
			신고 후 임금 수령 여부	O	X
		(평생 교육)	참여 여부	O	O
			참여하지 않은 이유	O	O
			프로그램 종류	O	O
			실시 기관	O	O
			참여 빈도	O	O
			학비 부담	O	O
			참여를 위한 도움	O	O
			참여 소요시간	O	O
			편의제공 및 만족도	O	O
			향후 참여 의향	O	O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참여 희망 활동	O	O
	고용(취업)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O	O
		직무종류나 근로시간 제한 이유		O	O
		지난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O	O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O	O
		(직장이 있는 패널)	직업과 전공의 일치 정도	O	O
			근로시간 및 희망 근로시간	O	O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O	O
			주로 하는 일 및 직업코드	O	O
			근무기간	O	O
			한달 평균 소득	O	O
			재택근무 유무	O	O
			재택근무시간	O	O
			직장 만족도	O	O
			구직/이직 이유	O	O
			근로나 고용유지 위해 받거나 받고 싶은 지원	O	O
		(직장이 없는 패널)	근로 가능 여부	O	O
			근로를 위한 필요한 지원	O	O
			근로를 위한 필요한 지원 항목	O	O
			구직활동 여부	O	O
			구직활동 종류	O	O
			구직활동 애로사항	O	O
			취업을 위한 필요사항	O	O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패널)	구직활동 하지 않은 이유	O	O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주요 활동	O	O
			향후 구직 의향	O	O
		(비임금근로자)	사업내용 및 주로 하는 일	O	O
			일자리(사업체) 시작 시기	O	O
			자영업자 일자리(사업체) 시작 동기	O	O
			자영업자 일자리(사업체) 소득	O	O
			무급가족종사자 일자리(사업체) 시작 동기	O	O
사회 참여	장애관련 서비스	장애복지서비스 인지율/이용경험/만족도		O	O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O	O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		O	O
		사회복지시설 이용 횟수		O	O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O	O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O	O
		사회복지시설 이용 불만족 이유		O	O
	인권	인권관련 교육 경험		O	O
		인권관련 교육 내용		O	O
		장애인으로 존중 받은 느낌		O	O
		장애인으로 존중 받을 권리		O	O
		괴롭힘/폭력 경험		O	O
		폭력을 행사한 사람		O	O
		폭력 경험 빈도		O	O
		폭력 경험 대처 유형		O	O
		폭력 목격 대처 유형		O	O
		장애여성 차별 유무		O	O
		장애인 인권증진 강화		O	O
		웰다잉/안락사		O	O
	결혼생활	현재 혼인상태		O	O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및 성	결혼하지 않은 이유	O	O
		향후 결혼 의향	O	O
		이혼/별거/사별 경험 유무	O	O
		이혼/별거 이유	O	O
		과거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후 힘들었던 점	O	O
		현재 혼인상태의 재혼 여부	O	O
		재혼 이유	O	O
		결혼생활 시작 년도	O	O
		현재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인 이유	O	O
		현재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임으로 인해 힘든 점	O	O
		재혼 의향	O	O
		재혼 의향 이유	O	O
		자녀 유무	O	O
		자녀 성별/임신형태/재혼자녀	O	O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 유무	O	O
		장애가 자녀계획에 미친 영향	O	O
		자녀계획	O	O
		자녀계획 수	O	O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	O	O
		임신 경험 여부	O	O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	O	O
		임신/출산/육아 건진 관한 교육 여부	O	O
		임신/출산/육아 건진 관련 교육 종류	O	O
		임신/출산/육아 건진 관련 교육 장소	O	O
		산후조리원 경험 여부	O	O
		인공수정 경험 여부	O	O
		인공수정 횟수	O	O
		임신중절 경험 여부	O	O
		임신중절 이유	O	O
		임신중절 강요 여부	O	O
		배우자와 갈등 여부	O	O
		배우자와 갈등 이유	O	O
		배우자와 갈등 해결 방법	O	O
		장애가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O	O
		성생활 만족도	O	O
		성관련 상담	O	O
		원친 않는 성관계 경험	O	O
		원치 않는 성관계 후 조치	O	O
	노후	노후생활 준비 여부	O	O
		노후생활 준비 사항	O	O
		노후생활 준비 정도	O	O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O	O
		노후생활 걱정	O	O
		장애인의 노인 연령	O	O
		노후생활시 필요한 적정 생활비	O	O
		희망하는 노후활동	O	O
		가족과 연락 빈도	O	O
	삶의 만족도	장애 이전의 삶의 만족도	O	X
		현재 삶의 만족도	O	O

19)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차 년도 조사부터 장애등급 문항은 장애정도 문항으로 변경됨

나. 가구주용 조사표

가구주용 조사항목 중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변경되면서 삭제된 항목은 없었다.

〈표 Ⅱ-2-3〉 가구주용 조사표 연도별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일반현황		총 가구원수	O	O
		이름	O	O
		패널과의 관계	O	O
		가구주 여부	O	O
		성별	O	O
		태어난년도	O	O
		최종학력	O	O
		졸업여부	O	O
		장애유무	O	O
		장애유형	O	O
		장애정도[20]	O	O
		혼인상태	O	O
		출생국가	O	O
장애수용 및 변화	경제상황	가구 소득	O	O
		생활비	O	O
		가정 생활비 부담	O	O
		장애와 관련되어 지출 비용	O	O
		자산 및 부채	O	O
		경제상태 변화 정도	O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O	O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시기	O	O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용	O	O
	주거	주택형태	O	O
		주택점유 형태	O	O
		현재 사는 집 마련 방법	O	O
		집 크기	O	O
		방 개수	O	O
		이사 이유	O	O
		거주 장소 선택 요인	O	O

다. 가구원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항목 중 1차 조사에서 2차 조사로 변경되면서 삭제된 항목은 없었다.

〈표 Ⅱ-2-4〉 가구원용 조사표 연도별 조사항목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일반현황		이름	O	O
		장애유무	O	O
		장애유형	O	O
		장애정도	O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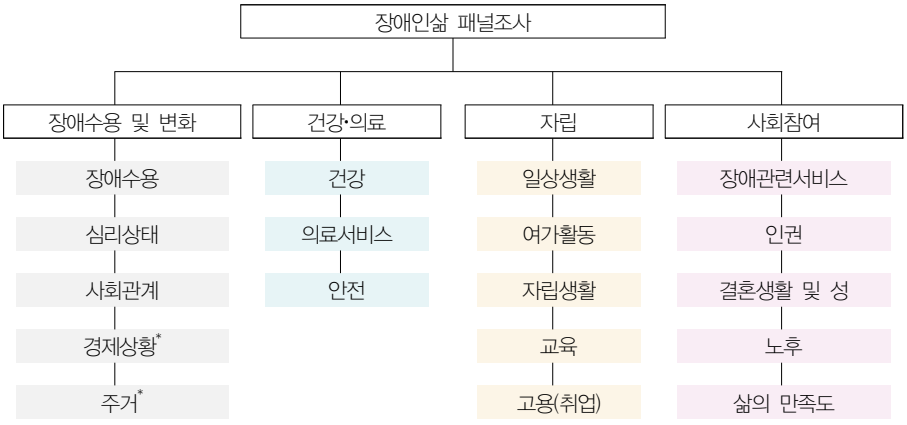
20)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2차 년도 조사부터 장애등급 문항은 장애정도 문항으로 변경됨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장애수용 및 변화	장애수용	패널의 장애 유형 인지여부	O	O
		패널의 장애특성 인지여뷰	O	O
		패널의 장애발생 후 도움 받은 곳	O	O
		패널의 장애발생 후 애로사항	O	O
		패널이 가구원의 삶에 미친 정도	O	O
		가구원의 관점에서 패널의 장애와 관련된 경험	O	O
		가구원의 관점에서 패널의 장애수용	O	O
		가구원의 관점에서 패널의 작애적응	O	O
	심리상태	우울증	O	O
		자아존중감	O	O
		이민 고려 여부 및 이유	O	O
		자살 생각	O	O
		자살 생각 이유	O	O
		자살 생각 후 행동	O	O
		자살 시도	O	O
	사회관계	패널과의 관계	O	O
		가족관계 만족도	O	O
		가족관계	O	O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연락빈도	O	O
건강·의료	건강	패널에 의한 가구원의 부상 및 질병 여부	O	O
		1년 전 비교 시 건강상태	O	O
		패널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	O	O
		전반적 건강상태	O	O
		만성질병유형	O	O
		운동일수 및 시간	O	O
	의료서비스	약 복용 여부	O	O
		건강검진 경험 여부	O	O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	O	O
		의료적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	O	O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O	O
	안전	안전도	O	O
		재난대응 훈련/안전교육 인지 여부	O	O
		재난대응 훈련/안전교육 경험 여부	O	O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O	O
자립	일상 및 여가활동	가구원의 관점에서 패널의 일상생활 필요정도	O	O
		일상생활 도움 제공 여부	O	O
		제공하는 도움 종류	O	O
		도움 제공 시간	O	O
		도움 제공 부담 정도	O	O
		패널의 돌봄/양육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것	O	O
		패널의 돌봄/양육 책임자	O	O
		패널 지원으로 인해 못한 일	O	O
		패널 지원으로 인해 못한 일 종류	O	O
		패널의 부양자 부재 시 희망하는 거주형태	O	O
		경제상황 변화 정도	O	O
		여가활동 만족도	O	O
	자립생활	패널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O	O
		패널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시간 충분성	O	O
		패널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O	O
		거주지역 생활 시 불편한 정도	O	O
		거주지역 일상생활 불편 이유	O	O

조사영역		조사항목	1차조사 (2018)	2차조사 (2019)
주요	하위			
	교육	학업 중단 경험 여부	O	O
		학업 중단 이유	O	O
		평생교육 참여 여부	O	O
		평생교육 참여 빈도	O	O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O	O
	고용(취업)	지난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O	O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 형태	O	O
		근로시간	O	O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O	O
		패널이 가구원의 일자리 유무에 미치는 영향	O	O
		구직활동 여부	O	O
사회참여	인권	장애인가정으로 차별받는 정도	O	O
		차별 받고 있는 부분	O	O
		차별 대처 방법	O	O
		차별 상담 대상	O	O
		장애 인식관련 교육 경험 유무	O	O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것	O	O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입지가 어려운 점	O	O
	노후	노후생활 준비 여부	O	O
		노후생활 준비 사항	O	O
		노후생활 준비 정도	O	O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O	O
	삶의 만족도	가구원의 현재 삶의 만족도	O	O

2) 조사내용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장애인과 가족(가구원)의 장애수용 과정과 그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유지하는 상황에서 겪는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장애수용 및 가계변화’, ‘건강·의료’, ‘자립’, ‘사회참여’의 4가지 영역을 주요 관심 관점으로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주요 관심 영역별 세부 구성 지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 ‘경제상황’및 ‘주거’지표의 경우 가구주용 조사표에만 반영하여 측정함

[그림 Ⅱ-2-1] 장애인삶 패널조사 관심 영역별 구성지표 체계

(1) 영역별 구성지표 세부사항 및 조사문항

첫째, '장애수용 및 변화'영역은 크게,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등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5〉 장애수용 및 변화

조사영역	내용
장애수용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장애 관련 경험
심리상태	우울증, 자아존중감, 이민 의향 이유, 자살 생각, 자살생각 이유, 자살 충동 행동, 자살 시도 경험 및 횟수
사회관계	의사결정 주체,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과의 갈등 경험 및 유형, 가까이 지내는 주변 지인 수 및 연락 빈도,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이성문제 상담 상대, 주로 사용하는 sns, sns 이용시간 및 이용이유, sns 관련 인식
경제상황*	가구의 소득, 생활비,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 패널의 장애로 인해 생활비 이외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 자산과 부채, 가구 경제상황 개선 정도
주거*	주거형태, 주거위치, 주택점유 형태, 주택 마련 방법, 집의 크기/방 개수, 이사 이유, 거주 장소 선택 요인

주1) 경제상황 및 주거는 가구주용 조사표에 배치하였다.

둘째, '건강·의료'영역은 크게,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등의 3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6〉 건강 · 의료

조사영역	내용
건강	전반적인 건강상태, 1년전 비교 시 건강상태, 만성질병 유형, 운동 횟수와 시간, 주로 하는 운동, 주관적 몸무게, 수면시간, 식사 수, 패스트푸드 섭취 수, 영양 상태 평가, 민간의료보험 가입, 보험 가입 거부당한 경험 및 보험 유형, 장애 건강 및 관리를 위한 강화 사항,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사항,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 항목, 흡연/음주 여부, 장애 관련 제한과 정도
의료 서비스	의료기관 이용 여부 및 횟수, 입원 이유, 이용 의료기관 유형, 재활치료 서비스, 병원 이용시 주 교통수단 및 이동보조기기 및 이동시간,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도, 진료결과 설명 충분성, 처방약 복용 여부, 건강검진 시기 횟수, 건강검진 못받은 이유,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유
안전	평상 시 안전도, 사고 경험, 사고 종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경험,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주거환경, 주택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

셋째, '자립'영역은 크게,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등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7〉 자립

조사영역	내용
일상생활	일상생활 도움 제공자, 도움받는 분야 및 시간, 도움이 필요한 분야 및 정도, 도움제공 희망 시간, 집안일 참여 시간, 집안일 부담 정도, 가정 내 미취학 아동 유무, 아동양육 참여 여부 및 시간, 참여 유형,

조사영역	내용
	아동양육 부담 정도 및 만족도, 가정 내 돌봄 필요한 성인 유무, 외출 빈도, 외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 사회복지/고용정보 획득방법,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애로사항, 경제생활 평가
여가활동	여가활동 유형 및 시간, 여가 만족도, 여가활동 동반자, 여행 경험 및 횟수/일수, 반려동물 유무 및 키우는 이유
자립생활	거주시설 입소여부,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 및 사용여부, 장애인보조기기 사용 만족도 및 불만족 이유, 관련 필요 정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경험/지원시간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지원시간 충분성,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기관/시설 이동시간, 거주 지역 불편 정도 및 이유, 주거안정을 위한 필요 정책
교육	재학 여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학년(학기), 전공, 학교 형태, 입학 형태, 학비 지원/부담, 등하교(등하원) 소요시간, 등하교(등하원) 시 도움 제공자, 장애인학생지원센터 지원 경험 및 희망 지원 유형, 학교생활 적응 정도 및 문제점, 학습을 위한 편의제공 필요여부/제공여부/만족도, 진학/진로계획, 용돈, 사교육시설 유형 및 이용시간, 희망 교육수준, 향후 계획, 아르바이트 경험 및 유형, 평생교육 경험 및 유형, 참여 기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활동
고용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무종류/근로시간 제한 이유, 근로 여부,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형태, 직무 적성 부합 정도,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 희망 근로시간, 직업, 근무기간, 근로 소득, 재택근무 여부 및 시간, 직장 만족도, 이직 경험 및 이유, 받거나 받고 싶은 지원, 직장을 다니기 위한 타인 도움/작업환경/보조 장비 필요 여부, 보조 장비 마련 및 작업환경 변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구직 활동, 애로사항, 취업 필요사항, 구직하지 않은 이유, 구직하지 않은 기간 동안 주로 하는 활동, 향후 구직 의향, 사업내용 및 주로 하는 일, 일자리(사업체) 시작 시기 및 동기, 소득

넷째, ‘사회참여’영역은 크게, ‘장애관련 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등의 5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I-2-8〉 사회참여

조사영역	내용
장애관련 서비스	장애관련 복지서비스 인지/이용/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및 횟수,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 및 만족도, 불만족 이유
인권	장애 인식관련 교육 경험 및 교육 내용, 장애관련 인권교육, 주변으로부터 존중/차별받는 정도, 차별 받고 있는 부분, 차별 대처방법, 장애관련 법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여부, 장애 인식관련 교육 경험, 인권증진 강화사항,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 입지가 어려운 이유
결혼생활 및 성	혼인상태, 결혼하지 않은 이유, 향후 결혼 의향, 이혼/별거/사별 경험,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에 힘들었던 점, 재혼 경험 및 이유, 결혼생활 시작 년도, 이혼/별거 이유, 이혼/별거/사별이어서 현재 가장 힘든 점, 재혼 의향 이유, 자녀유무, 시험관/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 및 재혼 자녀 유무, 장애 발생 이후 자녀를 낳은 경험, 장애가 성관계(행위)에 미치는 영향, 성생활 만족도, 성관련 상담,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및 조치사항
노후	노후생활 준비사항, 경제적 준비정도,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노후생활 걱정,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희망하는 노후활동, 연락 빈도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도

(2) 조사대상의 구분에 따른 조사표 구성

조사대상인 장애인,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다음과 같이 ① 장애인용(패널) ② 가구주용 ③ 가구원용의 총 3개의 종류로 구성하였다.

장애인용 (패널)	가구주용	가구원용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패널) 관련 문항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의 가계변화 관련 문항	표본으로 선정된 ① 패널에 관한 가구원의 경험·생각(인식)관련 문항 ② 가구원 본인 관련 문항
조사표 1	조사표 2	조사표 3

[그림 II-2-2] 대상별 조사표 구성 문항 체계

패널용 조사표는 일반현황[21]을 포함하여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및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일상 및 여가생활',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장애관련 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노후', '삶의 만족도'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가구주용 조사표는 '가구원 현황', '경제상황', '주거'에 대하여, 그리고 가구원용 조사표는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및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 '일상 및 여가생활', '자립생활', '교육', '고용(취업)', '인권', '노후', '삶의 만족도'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는 문항을 각각 배치하였다.

덧붙여 실사단계에서는 패널조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적조사를 위한 패널관리 정보(향후 이사의향 등)를 마지막에 추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21) 패널의 인적사항 (이름, 성별, 출생년도, 학력수준), 장애정보, 다문화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조사 흐름

조사영역과 연령 등의 조건에 따른 선택사항을 반영한 조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통 영역 중심의 '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건강', '의료서비스', '안전'등을 조사의 앞단에 배치하여 조사대상 전체에 대한 공통 조사를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자립 영역에서 '일상생활', '여가활동', '자립생활', '교육', '고용'과 관련한 문항에 해당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사회참여 영역에서 '장애 관련 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그리고 '노후'와 관련한 질문에 응답하고,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도록 조사의 흐름을 구성했다.



[그림 Ⅱ-2-3]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흐름도

3. 2차 년도 자료 구축

1) 조사 추진 사항

(1) 장애인삶 패널조사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2차 년도 본 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2차 년도 조사를 위하 조사표 개발을 진행하였다. 2차 년도 조사를 위한 조사표는 1차 년도 조사표와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연구진이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였으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려 최종 조사표를 확정지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종단조사 문항으로의 변경과 1차 조사 결과에 따른 조사 문항 변경 등이 있다.

(2) TAPI 사전조사

장애인조사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및 사전 TAPI를 활용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년도에 실제 조사현장에서 조사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사전 검토 작업으로 장애 유형(지체, 안면, 신장, 자폐성 장애)을 고려하여 조사원을 투입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2차 년도 조사 실시를 TAPI의 로직상 오류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3) 조사업체 선정 및 장애인조사원 간담회 실시

전국 단위의 대규모 통계조사인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2차 년도 조사 수행을 위하여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통계조사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현장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 진행시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장애인 조사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간담회는 장애인삶 패널조사 연구진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조사원 활동시 초기 접촉 과정/조사 진행/조사표 작성 중 겪게 되는 애로사항 등이다.

(4) 표본리스트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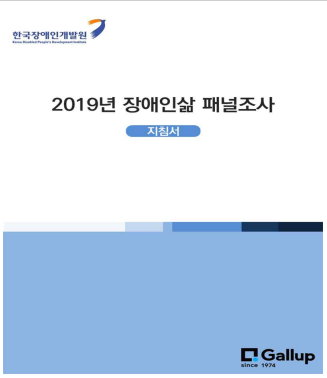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자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다. 표본추출틀은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통해 확보하였다. 본 조사를 위하여 표본리스트 내에 주소, 전화번호 등의 체계를 통일된 형태로 재가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표본리스트는 실사 현장에서 조사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TAPI에 탑재하였다.

(5) 조사표 확정 및 TAPI 개발

조사표는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1차 적으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내부연구진 회의 및 조사수행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조사표를 확정하였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1차 년도와 같이 조사도구로 태블릿 PC를 활용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 대면면접조사를 기본으로 하였다. 최종조사표는 TAPI용 조사표로 개발되었으며, 조사표 수정 사항 및 로직 수정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와 더불어 로직 오류 등에 대한 검토·수정이 이루어졌다.

(6) 조사 준비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조사 참여 독려를 위한 홍보자료 및 실사용 조사도구를 제작하였다. 홍보자료로는 1차 년도와 같이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전 제공할 리플렛을 제작하여 조사참여를 독려하였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대응매뉴얼을 준비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조사관련 사전 안내를 위한 전화컨택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리플렛을 제작하여 발송하였다. 리플렛에는 장애인삶 패널조사 소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지원 사업 및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 신청방법 등을 담았다. 또한 장애인삶 패널조사 홍보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였다. 조사대상자 컨택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대응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을 준비하였다. 또한 장애인삶 패널조사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안내, 조사 거절 시 매뉴얼도 준비하였다. 현장조사시 조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조사 도구로는 조사안내문, 조사지침서, 협조요청 공문, 보기카드, 신분증, 명함 등을 준비하였다. 조사원들이 실제 실사진행 과정 전반에 참고할 수 있는 조사지침서에는 조사 개요, 패널 관리 방안, 조사 진행 준비물, 조사업무 수행 시 유의사항, 조사표 작성방법, TAPI 조사 가이드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리플렛		조사 지침서	

[그림 Ⅱ-1-1] 리플렛 및 조사지침서

2019년부터 조사 진행 시 이해를 돕기 위한 보기카드를 별도로 제작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문항에 대한 예시 그림 혹은 사진 등을 추가하여 대상자 및 면접원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3-1〉 보기카드 예시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 colspan="2">보기카드 예시</th></tr>
<tr><td rowspan="2">B-3.
안전
문6.

장애인
편의시설</td><td>경사로</td><td colspan="2"></td></tr>
<tr><td>시 · 청각경보기</td><td colspan="2">
</td></tr>
<tr><td rowspan="2">C-3.
자립생활
문2.

장애인
보조기기</td><td>시각장애</td><td>녹음 및 재생장치
(보이스아이메이커)</td><td></td></tr>
<tr><td>지체/
뇌병변
장애</td><td>식사보조기기
(음식보호대,
접시, 컵, 젓가락)</td><td></td></tr>
</table>

(7) 조사원 교육 및 장애인조사원

가. 조사원 교육

조사원 교육은 2019년 10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전국 6대 권역으로 나누어(서울/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 제주) 총 131명의 조사원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업체의 장애인삶 패널조사 연구진이 진행하였으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이 모든 교육에 참석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조사표와 조사지침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조사지침서는 각 문항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 정의와 문항별 관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진과 한국갤럽이 함께 작성하였다. 교육 주요 내용은 1차 년도에서 변경된 조사표 내용, 로직 수정사항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삶 패널조사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조사표의 구성 및 내용, TAPI 교육 및 실습으로 진행되었다.

〈표 Ⅱ-3-2〉 조사원 교육 내용

교육 내용	교육 주체
인사말, 조사 배경 및 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
실사자료 안내 및 지침서 교육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조사표 교육 : 가구주, 가구원	
조사표 교육 : 패널	
TAPI 교육	
질의응답	

〈표 Ⅱ-3-3〉 조사원 교육 일정 및 참석자

일자	권역	장소	참석자
2019. 10. 08(화)	서울/경기/인천/강원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센터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조사원 52명
2019. 10. 10(목)	대전/세종/충북/충남	대전사무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조사원 15명
	대구/경북	대구사무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조사원 13명
2019. 10. 11(금)	부산/경남/울산	부산사무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조사원 30명
	광주/전북/전남	광주사무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조사원 18명
2019. 10. 12(토)	제주	제주사무실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연구진, 조사원 3명

나. 장애인조사원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자와의 관계형성 및 향후 유지율 제고를 위해 장애인 조사보조원을 모집하여 투입하였다. 모집된 조사보조원 5명은 조사원 교육(서울) 및 조사보조원

간담회에 참여하여 조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장애인조사원 중 최종 6명은 장애인조사원과 보조원으로서 역할 분담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다. 안면장애인(1명)은 안면 장애 리스트 제공하여 사전 안내와 조사를 단독 진행하여 최종 19명의 패널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지체장애인(2명)은 조사 강력거절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 참여 독려 전화를 실시했으며, 시각장애인(2명)은 장애 유형별 특징 및 대면 조사 시 유의사항 등 교육 자료 검토 및 장애인 관련 정보를 검색/취합하였다.

2) 2차 년도 실사 현황

(1) 주차별 진행 현황

조사기간은 2019년 10월 ~ 12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각 주차별 진행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참여율 제고를 위한 사전 안내 전화 및 리플렛, 추석선물 발송 등을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림 II-1-2]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차별 실사 진행 현황

(2) 2차 년도 조사 결과[22)]

1차 년도는 패널구축 조사가 함께 이루어 졌으며, 6,121명[23)]의 장애인 표본과 그들의 가구원 조사를 완료하였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가 3,242명, 경증 장애가 2,879명이다.[24)]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974명, 시각 757명, 청각·언어 1,141명, 뇌병변 980명, 지적·자

22) 본 절은 「김현지 외.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 재정리 하였다.

23)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패널이 지속적이고 강력한 거절 등의 다양한 이유로 조사에 참여 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속성을 가진 예비표본을 사전 원칙에 따라 차례대로 접촉 및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대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복수 접촉으로 조사가 완료된 장애인이 패널 구축시 모두 포함되어 주사목표 인원 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구축되었다.

폐성 567명, 정신 328명, 내부·안면 1,374명이다.

2차 조사(2019년)는 1차 조사에 참여한 모든 패널이 조사대상이다. 최종적으로 장애인 5,527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전체 응답률은 약 90.30%(=2차 년도 조사 참여자/1차 년도 조사 참여자)이다. 조사미참여 장애인 표본은 594명으로 2차 년도의 표본이탈율은 전체 9.7%로, 594명의 표본이탈이 발생했다.[2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응답이 전체의 약 7.7%이며, 소멸표본이 전체의 약 2% 이다.

〈표 Ⅱ-3-4〉 조사완료 현황

(단위 : 명, %)

조사차수	조사완료 현황(명)			표본 유지율(%)	표본이탈		가구원 응답자수	실사기간
	참여	미참여	계		(1차)응답 → (2차) 조사미참여(무응답)	조사불가(2차)		
1차(2018)	6,121	-	6,121	100	-	-	5,231	10-12월
2차(2019)	5,527[주1)]	594	6,121	90.3	471	123	5,005	10-12월

주 1. 원표본 유지율(%) = (5,527/6,121)×100
2. 만12세 이상 가구원으로 조사완료한 가구원 수

표본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장기비수신, 강력거절, 주소불명, 사망, 시설입소·병원입원 등, 장애등록 취소 등이 있다. 이탈 사유별 현황은 강력거절과 장기비수신이 전체 이탈 사유의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비수신 16.3%, 사망 15.2%, 주소불명 13.3% 순이다.[26] 장기비수신은 컨택을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조사기간 내 표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최종적으로 2차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이다. 강력거절은 패널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사참여 거절로 인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강력거절 중에는 패널이 조사에 참여하여 응답을 진행하던 중 포기하거나 가원의 강력거절로 최종적으로 조사미참여된 사례도 등이 있다. 사망, 시설입소·병원입원, 장애등록 취소는 조사대상 제외로 2차 년도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실상 조사 불가능한 표본이다. 따라서 이들은 조사불가로 정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정의에 따라, 2차 년도 조사대상자가 아닌 조사불가는 장애등록취소, 시설입소·병원입원자와 사망으로 인한 자연 소멸 표본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향후 차수부터는 조사 참여가 불가능한 표본이며, 123명이다.

24) 장애등급 1~3급을 중증 장애, 4~6급을 경증 장애로 범주화 하였다.
25) 대부분의 패널조사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패널의 조사거부 등의 다양한 사유로 무응답이 발생한다.
26) 이는 다른 패널조사와 같은 경향을 보인다.

〈표 II-3-5〉 2차 년도 조사완료 표본

(단위 : 명)

구분	1차 년도 조사 완료 표본	이탈 표본	표본 이탈 사유							2차 년도 조사완료 표본
			조사미참여(무응답)				조사불가			
			장기 비수신[1)]	강력 거절[2)]	주소 불명	기타	사망	시설입소, 병원 입원 등	장애 등록 취소	
전국	6,121	594	97	249	79	46	90	16	17	5,527
지체	974	76	17	36	5	4	9	2	3	898
시각	757	59	9	29	7	4	10	.	.	698
청각	761	57	12	25	6	5	5	1	3	704
언어	380	31	4	12	5	4	4	.	2	349
지적	401	34	8	12	5	5	2	2	.	367
뇌병변	980	98	12	44	13	5	17	5	2	882
자폐성	166	15	3	9	2	1	.	.	.	151
정신	328	41	9	17	7	3	5	.	.	287
신장	580	63	10	25	8	4	11	3	2	517
심장	120	10	2	5	1	1	1	.	.	110
호흡기	163	32	4	10	7	1	6	2	2	131
간	206	30	2	10	4	5	9	.	.	176
안면	30	4	.	3	1	.	.	.	.	26
장루. 요루	148	27	3	8	4	2	10	.	.	121
뇌전증	127	17	2	4	4	2	1	1	3	110
중증	3,242	345	53	133	46	25	74	9	5	2,897
경증	2,879	249	44	116	33	21	16	7	12	2,630
남자	3,389	331	49	135	50	26	55	10	6	3,058
여자	2,732	263	48	114	29	20	35	6	11	2,469

주 1: 장기출타 1명이 포함되어 있다.
2: 조사 중 강력항의로 인한 조사중단 1명이 포함되어 있다.

3) 데이터 에디팅

에디팅은 실사 완료 후 조사 실시기관에서 1차 에디팅이 진행되었다. 1차 에디팅에서는 패널데이터, 가구주데이터, 가구원데이터에 대해 응답한 내용의 적합성, 극단치 확인, 로직 오류 확인, 면접원 메모 내용 확인 및 반영 등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오류 검토를 목적으로 2차 에디팅이 진행되었으며, 2차 에디팅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들이 진행하였다. 2차 에디팅에서는 1차 에디팅 내용에 대한 논의, 문항의 논리적 오류 확인, 기타 응답 반영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에디팅 내용을 살펴보면 학력상태에 대한 응답 체크 후 조사 진행 중에 학력 변동 사항을 떠올려 메모로 기입해놓은 경우 등 조사 진행 중 면접원이 대상자의 응답에 대한 참고사항을 메모로 기입한 것을 토대로 에디팅을 진행하였다. 기타(오픈)응답이 응답범주에 해당 응답이 있는 경우는 해당 응답으로 수정하였다. 계속해서 가족관계의 만족도에 대한 문항 중 미혼인데 처가/시댁, 배우자, 자녀에 대한 문항에 응답한 경우 혼인상태를 재확인하여 해당없음으로 수정, 3차년도 조사 TAPI 로직 작업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표 Ⅱ-3-6〉 데이터 에디팅 내용(일부 발췌)

영역	문항	에디팅 내용	수정
C-4.교육	초등학생 – 재학 상태	메모확인	메모 반영하여 학력 상태 오입력 응답변동사항반영
C-3.자립생활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메모확인	메모 반영
A-3.사회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미혼인경우(2)처가/시댁,(3)배우자,(4)자녀에 응답할 수 없음	1)혼인상태 확인 후 해당없음 응답 2)3차 년도 조사 TAPI 구축 할 때 로직 작업 추가
D-2.인권	폭력 목격 대처 유형	기타 리코드	기타응답 확인 후 응답범주에 있는 경우 리코드
A-2.주거	주택 마련 방법	기타(오픈) 내용 및 메모 확인	기타응답 확인 후 응답범주에 있는 경우 리코드

3차 에디팅은 1차 년도 데이터와 비교하는 종단데이터 에디팅을 진행하였으며, 한국갤럽에서 우선적으로 1차 년도 데이터와 상이하거나 변화가 크게 보이는 경우를 확인하였다.

4차 에디팅은 3차 에디팅을 토대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이 1차 년도 데이터와 비교하여 종단데이터 에디팅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 실시기관 담당자와 논의 과정을 거쳤다. 또한 4차 에디팅에서는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 검증을 진행하였다. 논리적 오류 확인은 실사 완료된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진 및 실사 조사기관 담당자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1,2차 조사 데이터에 대한 에디팅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년도의 혼인상태를 결혼으로 응답하고 2차 년도에는 미혼으로 응답하는 경우, 지난 조사 이후 이사 경험이 없는데 방 개수, 집 크기(m^2, 평수)의 큰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은 재확인 후 수정하였으며, 3차 년도 조사의 TAPI 로직 작업에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데이터의 논리적 오류 내용을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년도 조사와 2차 년도 조사의 장애 유형이 다르게 응답된 경우, 수급가구로 응답하였으나 가구소득이 고소득으로 응답한 경우, 중/고등학교 학력상태 오기입된 경우 등이 발견되었다.

〈표 II-3-7〉 종단데이터 에디팅 내용(일부 발췌)

영역	문항	에디팅 내용	수정
D-3.결혼생활및성	혼인상태	1차 년도 결혼/이혼/사별/별거 응답자→ 미혼응답	1) 혼인상태변동확인 2) 3차년도 조사 TAPI 구축 할 때 로직 작업 추가
A-1.경제상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여부	지난조사이후 이사하지 않았는데 주택크기변화가 큰 경우	주택크기변화량체크
A-1.경제상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여부	지난조사이후 이사하지 않았는데 방 개수변화가 큰 경우	주택크기변화량체크

Ⅲ 표본설계 및 가중치

Ⅲ 표본설계 및 가중치[27)]

1. 개요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전국의 장애인(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제외) 및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생산 통계의 정도(precision)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어진 시간과 조사예산 등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표본을 구성 하는 것을 목표로 표본설계를 실시하였다. 목표모집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애인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마친 등록장애인(단, 장애인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과 그들의 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은 사망,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장애인 251,277명[28)]과 그들의 가구원으로 정의하였다. 표본추출틀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DB 명부(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 사망 및 주소불명 등 조사 불가능자 제외)를 이용하였다.[29)] 여기에는 장애 유형[30)], 장애 정도[31)], 지역, 성별, 나이 정보가 포함되어있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및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으로, 장애인 표본크기는 전체 예산과 조사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5,8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국 단위 통계의 95% 신뢰수준에서 단순임의추출의 모비율 추정을 가정할 경우 목표허용오차 1.27% 수준이다. 표본설계 내역을 토대로 본 조사의 패널 구축 및 1차 년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조사완료 되어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패널로 구축된 장애인 표본은 6,121명이다.

본 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표본설계 연구 및 가중치 연구 보고서(김현지 외, 2018; 김현지, 2019; 김현지 외; 2020)를 토대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재구성 하였다.

---

27) 본 장은「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한국장애인개발원.; 김정희 외. (2019). 2018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다.

28) 본 조사의 모집단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장애인 총 258,016명이다.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은 2,545,637명(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장애인등록 현황 및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4, 접속: 2019.6.24.)과는 차이가 있다.

29) 본 패널조사의 조사목적 및 모집단 정의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기준 보건복지부의 등록장애인 중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장애등록을 마친 장애인 명부를 표본추출틀로 확보하였다.

30)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의한 15개 법정장애 유형을 의미한다.

31) 표본추출틀에는 장애 정도(장애등급 1급~3급은 중증, 4급~6급은 경증)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2. 표본설계[32)]

1) 개요[33)]

표본설계는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삶 패널조사로 생산하는 통계의 정도(precision)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주어진 시간 및 조사예산 등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한 표본추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 패널조사의 조사대상은 장애인 및 그들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이다. 이때 장애인 표본크기는 전체 예산과 조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5,800명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전국 단위 통계의 95% 신뢰수준에서 단순임의추출의 모비율 추정을 가정할 경우 목표허용오차 1.27% 수준이다.

모집단 분석은 모집단의 특성 변수이면서 조사항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징인 성별, 연령,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표본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확보하였다. 모집단 분석 결과, 모집단은 전국에 분산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중증, 경증) 및 각 장애 유형별 성별, 연령별 분포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장애 유형별 모집단 수의 차이가 큰 경우 장애 유형별 통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표본 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표본설계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표본 수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종 표본에 특정 장애 유형이나 연령대의 누락 없이 이들이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34)].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는 조사결과의 공표단위 이다. 전국 및 장애 유형별, 장애 정도별, 그리고 성별에 대한 공표를 계획하고 있는바, 공표단위에 따른 모집단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추정량의 정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한 표본배분을 고려하였다. 특정 장애 유형의 누락 없이 모든 법정장애 유형이 최종 표본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예산과 조사일정을 고려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표본추출방법 방안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표본설계를 통해 모든 법정장애 유형 및 다양한 특성의 표본이 최종표본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으면서, 공표단위에 대한 모집단 대표성, 통계적으로 분석 가능한 수준의 표본크기를 확보하고, 조사의 효율성(조사예산 및 일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

32) 본 절은 「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다. 김정희 외. (2019). 2018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

33)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본부 정책연구부 조사패널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본 절은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한 사항으로 연구진간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34) 특히 모집단 비율이 낮은 장애 유형(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을 가진 희소(稀少)장애인, 영유아기·학령기에 있는 만 18세 이하 장애인이 최종 표본에서 누락되지 않고 일정 수 이상 추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었다. (출처) 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 표본추출결과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이중추출(double sampling)을 적용하였으며, 조사대상인 장애인 표본 추출에 앞서 읍면동 추출이 선행된다. 일상의 읍면동은 희소장애인과 만18세 이하 장애인이 최종 표본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고려하였으며, 일상의 읍면동내 거주하는 전체 장애인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층화한 후 최종 표본인 장애인을 계통추출 하였다. 지역은 표본 추출 시 고려함으로서 비례배분하여 할당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최종 추출된 표본의 주요변수별 모집단 및 표본추출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표본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불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패널 구축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예비표본을 활용한 표본대체를 허용하였다.[35)]

〈표 Ⅲ-2-1〉 표본추출결과

(단위 : 명, %)

장애 유형(15)	장애 유형(7)	모집단	표본	
			빈도	비율(%)
지체	지체	49,532	935	16.1
시각	시각	21,557	732	12.6
청각	청각.언어	73,818	1,090	18.8
언어				
뇌병변	뇌병변	42,177	951	16.4
지적	지적.자폐성	23,852	538	9.3
자폐성				
정신	정신	8,894	321	5.5
신장	내부.안면	31,447	1,233	21.3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계		251,277	5,800	100.0

35) 본 패널조사는 원칙적으로 대체표본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패널의 이사 및 장기부재, 또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사거절로 인한 무응답 및 기타 다양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표본을 추출하여, 표본대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이러한 표본대체는 초기 패널 구축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이후 조사는 표본대체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본대체로 인한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표본설계에 따라 각각의 원표본과 동일 속성을 가진 표본을 추가로 추출하였다.

(단위 : 명, %)

장애 정도	모집단	표본	
		빈도	비율(%)
중증	92,616	3,018	52.0
경증	158,661	2,782	48.0
계	251,277	5,800	100.0

성별	모집단	표본	
		빈도	비율(%)
남자	142,540	3,189	56.7
여자	108,737	2,611	43.3
계	251,277	5,800	100.0

장애인삶 패널조사는 기본 원칙으로 표본대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초기 패널 구축 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예비표본을 활용한 표본대체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이유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는 조사 불가능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패널의 이사 및 장기부재,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사거절 등의 무응답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예비표본은 각각의 원표본과 동일 속성(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 연령, 지역)을 가진 표본으로 추가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표본대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표본 오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패널구축[36)]

조사완료 결과 장애인 표본은 6,121명[37)]이 조사되었다. 이는 조사 진행 중 발생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거절,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발생한 무응답으로 인해 표본 대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복수 접촉이 발생하여 조사가 완료된 장애인을 모두 최종 표본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조사완료 현황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974명(15.91%), 시각 757명(12.37%), 청각·언어 1,141명(18.64%), 뇌병변 980명(16.01%), 지적·자폐성 567명(9.26%), 정신 328명(5.36%), 내부·안면 1,374명(22.45%)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 3,389명(55.37%), 여자 2,732명(44.63%)이며,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3,242명(52.97%), 경증 2.879명(47.03%)이다. 최종 구축 패널 현황은 다음과 같다.

36) 2018년 조사는 패널구축과 1차 년도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37) 초기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패널(원표본)이 다양한 이유로 조사에 참여를 하지 못한 경우, 동일한 속성을 가진 예비표본을 사전 원칙에 따라 차례대로 접촉 및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실사 과정에서 강력거절, 부재 등의 이유로 무응답이 발생하여 대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복수 접촉으로 조사가 완료된 장애인이 패널 구축시 포함되어 조사목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구축되었다.

〈표 Ⅲ-3-1〉 모집단 및 패널구축 현황

(단위 : 명, %)

장애 유형(15)	장애 유형(7)	모집단	표본배분		패널구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체	지체	49,532	935	16.1	974	15.9
시각	시각	21,557	732	12.6	757	12.4
청각	청각.언어	73,818	1,090	18.8	1141	18.6
언어						
뇌병변	뇌병변	42,177	951	16.4	980	16
지적	지적. 자폐성	23,852	538	9.3	567	9.3
자폐성						
정신	정신	8,894	321	5.5	328	5.4
신장	내부.안면	31,447	1,233	21.3	1374	22.4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중증		92,616	3,018	52.0	3,242	53.0
경증		158,661	2,782	48.0	2,879	47.0
남자		142,540	3,189	56.7	3,389	55.4
여자		108,737	2,611	43.3	2,732	44.6
계		251,277	5,800	100.0	6121	100.0

4. 가중치

1) 1차 년도 가중치 부여 및 추정[38)]

(1) 개요

최종가중치를 부여할 표본은 총 6,121명이다. 이는 조사 진행 중 발생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거절, 장기부재 등의 이유로 발생한 무응답으로 인해 표본 대체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복수 접촉이 발생하여 조사가 완료된 장애인을 모두 최종 표본으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을 최종 표본으로 포함한 것은 패널 구축 이후 다음연도 부터 발생할 수 있는 패널마모로 인한 표본 규모의 감소를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된 모든 장애인을 최종 표본에 포함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2) 설계가중치

설계가중치는 표본설계로부터 직접 구해지며, 이는 다음 식과 같다. 읍면동 추출은 읍면동 내 장애인수를 크기척도로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한다. 그리고 추출된 읍면동내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전체 층화 및 배분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하는 이중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가중치는 다음과 같으며, 이는 i 읍면동에 거주하는 j번째 장애인에 대한 것이다.[39)]

$$w_{ij} = \left[\sum_{1h} \pi_{aij}^{-1} I_{aij}(1h)\right] \times \left[\sum_{2h} \pi_{ij|s_{2h}}^{-1} I_{ij|s_{2h}}(2h)\right]$$

,여기서 $I_{aij} = \begin{cases} 1\ , (ij) \in U_{1h} \\ 0\ , (ij)\ \notin U_{1h} \end{cases}$, $I_{ij|s_{2h}} = \begin{cases} 1\ , (ij) \in s_{2h} \\ 0\ , (ij)\ \notin s_{2h} \end{cases}$, $\pi_{aij} = \dfrac{n_{1h}\, x_{hi}}{\sum_j x_{hj}}$, $\pi_{ij|s_{2h}} = \dfrac{m_{2h}}{M_{2h}}$,

$1h$: 일상의 층, $1h = 1,...,k$.

$2h$: 이상의 층, $2h = 1,...,l$.

U_{1h} : 일상 표본 추출을 위한 모집단의 $1h$번째 층,

s_{2h} : 이상 표본 추출을 위한 일상표본의 $2h$번째 층,

x_{hj} : 일상 표본 추출을 위해 정의된 $1h$번째 모집단 층의 읍면동내에서의 장애인 수 (읍면동

38) 본 절은「김정희 외. (2019). 2018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기술한 내용으로 이는「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였다. 표본설계 내역과 패널구축 현황을 토대로 가중치 산출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공표범위, 모집단 및 표본완료 현황에 따른 가중치 산출시 활용 변수와 조사완료 인원에 대한 가중치 부여 및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자문회의)하여 최종가중치 산출 방안을 마련, 적용 결과 검토 후, 최종가중치를 산출(자문회의)하였다.

39)「김현지, 김태용. (2018). 장애인패널조사 표본설계.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참고한다.

추출을 위해 사용된 크기 변수),

n_{1h} : $1h$번째 모집단 층에서 추출된 읍면동 수,

M_{2h}: $2h$번째 1상 표본 층 내 전체 장애인 수,

m_{2h}: $2h$번째 층에서 추출된 표본 장애인 수이다.

(3) 최종가중치

기본가중치를 설계가중치에 응답률을 조정하여 산출하고, 이때 가중값이 부여되는 인원은 조사가 완료된 인원이다. 전체 표본크기의 제약으로 설계 단계에서 장애 유형은 7개 범주, 연령대[40]는 내재적 층으로 표본이 적절히 할당되었으며, 지역은 추출단계에서 계통추출로 표본이 추출되었다. 따라서 가중값 산출시 최종 계산된 가중값 합계가 모집단 구성비와 다를 수 있다. 표본가중값의 합과 모집단 규모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종가중치는 기본가중치에 레이킹 비 조정을 거쳐 산출하였다.[41]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대, 지역에 대한 주변분포를 맞추었다. 가중치 산출시 최종가중치의 최소값이 1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중치 산출에 활용한 변수는 표본추출틀 내 정보가 존재하는 변수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 지역변수이다.[42] 충분치 않은 표본크기로 인해 통계표 산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조정변수는 공표단위 및 현실적으로 산출 가능한 통계표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장애 유형의 경우 15개 범주가 공표단위는 아니지만 향후 자료 사용 측면을 고려하여 15개 범주로 가중값을 산출하였다. 목표 장애인 수 보다 최종 표본이 많은 것으로 인한 표본의 영향력을 줄이고, 집단별 분포의 반영을 통해 편향을 줄일 수 있도록 최종가중치 작성시 연령대, 그리고 지역변수까지 고려하였다. 연령대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 공표를 하지 않더라도 통계 작성을 위한 집단별 분포를 추정에 반영하고, 편향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후층으로 구성하여 적용하였다.[43] 따라서 연령대는 층을 통합하여 만18세 이하(학령기), 만19－49세(청·중년), 만50세(장·노년)로 사후층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만6세 이하의 자연 마모, 연령대 모집단 분포, 정책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다. 또한 표본설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은 사후층의 표본은 조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가중치 선택의 문제는 통계적 추정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공표 및 데이터 사용의 용이성을

40) 연령대는 모집단 분포의 치우침이 심해 설계단계에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최종표본이 장애 유형별 전 연령대를 골고루 포함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 연령대가 모두 최종 표본에 포함되면서, 연령대별 표본이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노년층 패널의 자연마모로 인한 표본이탈을 사전에 고려하여 표본을 구성하였다.

41) 최종가중치 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후층화와 레이킹 적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였다. (참고)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42)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고려하지 않은 분포에 대한 가중합은 모집단 구성비와 다를 수 있다.

43) 이에 관해서는 자문회의를 통해 통계적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는 공표 단위가 아니더라도 통계 작성을 위한 집단별 분포를 추정에 반영함으로서 편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된다. 연구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사후층의 연령대 범주를 결정하였다.

담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1차 년도 조사결과 분석에 필요한 가중치는 향후 자료 분석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였다.[44)]

〈표 Ⅲ-4-1〉최종가중치의 기술통계량

관측수	6,121	가중합	6,121
평균	41.05	관측치 합	251,277
표준 편차	47.97	분산	2,300.73
왜도	4.31	첨도	34.54
제곱합	24,395,809.1	수정 제곱합	14,080,479.8
변동계수	116.84	평균의 표준 오차	0.61
중위수	27.55	표준 편차	47.97
사분위 범위	36.72	범위	859.90

〈표 Ⅲ-4-2〉 주요변수별 모집단 분포

(단위 : 명)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대		지역	
지체	49,532	중증	92,616	남자	142,540	만0-18세	23,935	서울	39,850
시각	21,557	경증	158,661	여자	108,737	만19-49세	40,067	부산	17,791
청각	69,732	계	251,277	계	251,277	만50세 이상	187,275	대구	13,393
언어	4,086					계	251,277	인천	13,921
지적	19,086							광주	6,635
자폐성	4,766							대전	7,121
뇌병변	42,177							울산	5,026
정신	8,894							세종	1,022
신장	21,421							경기	52,921
심장	726							강원	9,077
호흡기	2,161							충북	9,267
간	3,027							충남	12,457
안면	102							전북	11,602
장루.요루	3,076							전남	12,075
뇌전증	934							경북	17,918
계	251,277							경남	17,414
								제주	3,787
								계	251,277

모든 통계표에 대해 오차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주요문항

44) 최종가중치 작성방안은 가중값으로 인한 효과와 검토방안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변수유형별 주요 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비교·검토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변수유형별 주요문항은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담당하는 연구진간 논의를 토대로 결정되었다. (출처) 「김현지, 김태용.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가중치 산정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을 중심으로 추정값의 정확성에 대한 기준인 상대표준오차[45]를 산출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대표준오차 분석은 변수의 유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주요 문항은 장애인삶 패널조사 연구진 논의를 토대로 결정하였다.[46]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산출되는 통계표는 월평균 가구소득, 노후생활에 필요한 1달 생활비 평균과 같은 연속형 변수 형태, 장애수용과 같이 세부문항으로 구성되어 문항별 응답값을 평균 내어 활용하는 척도 변수, 비율추정을 하는 일상생활존중정도[47]를 묻는 범주형 변수가 있다. 이들 변수(문항)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 5%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48]

〈표 Ⅲ-4-3〉 변수유형별 주요 문항

변수유형	문항	조사영역(세부영역)
연속형 변수	• 월평균 가구소득	장애수용 및 변화(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 노후생활에 필요한 1달 생활비	사회참여(장애관련 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척도 변수(평균) : 세부문항으로 구성	• 장애수용	장애수용 및 변화(장애수용, 심리상태, 사회관계, 경제상황, 주거)
단일 범주형 변수(비율)	• 일상생활존중정도	사회참여(장애관련 서비스, 인권, 결혼생활 및 성, 노후, 삶의 만족도)

〈표 Ⅲ-4-4〉 주요문항별 상대표준오차(%) – 전체

구분	상대표준오차
노후생활에 필요한 1달 평균 생활비	1.128
월평균 가구소득	2.547
장애수용(평균)*	0.357
일상생활존중받는 정도(존중받고 있는 비율)**	1.720

* 주 1) 12개 세부 항목의 전체 평균을 사용하여 산출(일부 문항 역코딩)
2) 4점 리커트 척도 : 전혀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주 1) 일상생활존중받는 정도 :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고 있다.
2) 존중받고 있는 비율은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고 있다'

45) 상대표준오차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각 국가는 통계품질 유지를 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상대표준오차 5%미만은 매우 우수(excellent), 5~10%미만은 우수 (very good), 10~15%미만은 좋음(good), 15~25%미만은 허용가능(acceptable), 25~35% 미만은 주의사항과 함께 사용 가능(use with caution), 35% 이상은 공표 시 신뢰불가(too unreliable to publish)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캐나다 통계청의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출처) 이인선 외. (2016). 2016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연구용역.

46) 표본조사의 통계 품질을 가늠하는 측도로 추정량의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RSE)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표준오차는 변수마다 단위와 절대적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표준화한 값이 상대표준오차를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처) 변종석 외. (2018). 국민건강영양조사 제8기 표본설계 및 가중치 계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47) 일상생활존중받는 정도 :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고 있다.

48) 조사규모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대표준오차의 값이 30%미만이면 신뢰할 수 있는 추정값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30%이상~60%미만의 값은 주의와 함께 이용 가능하지만, 60%이상 값은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 추정값의 상대표준오차 5% 내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 추정 결과의 정도가 높은 비교적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출처) 통계청. (2018).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 조사통계 부문. 통계청. (2015). 자체통계품질진단 매뉴얼 : 조사통계.

2) 종단가중치(2차 년도)[49]

(1) 개요

2차 년도 조사가 완료된 장애인 표본은 5,527명으로, 이는 사망, 조사거부 등의 사유로 이탈한 표본은 제외된 인원이다. 따라서 종단가중치는 해당차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표본에서 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1차 및 2차 조사에 모두 응답하여 최종적으로 조사완료된 장애인 표본 5,527명에게 부여 한다. 이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무응답 조정을 필요로 하는데, 무응답 조정을 위한 응답확률 추정 모형으로는 사후층화, 로지스틱 회귀모형, CHAID 등이 존재 한다(Dufour 등, 2001; 김재광 외, 2004).[50]

〈표 Ⅲ-4-5〉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2차 조사 현황

구분	2차 조사		총계
	조사참여	조사미참여	
1차 년도 응답	5,527명	594명	6,121명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종단가중치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조사완료된 5,527명에 대해 부여한다. 종단가중치 산출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망, 이민자(시설 입소자)는 무응답으로 간주하지 않고 응답확률 추정 모형에서는 제외 한다. 둘째, 응답확률 추정 모형을 토대로 종단가중치를 산출한다. 그리고 통계적 추정 모형 적용에 필요한 특성 변수는 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추정된 모형을 통해 조사대상자 각각의 응답확률을 계산하고, 그 역수를 무응답 보정계수로 하여 1차 년도 가중치에 곱한 후 이를 2차 년도 종단가중치로 사용한다. 이때 표본설계 및 1차 년도 가중치 작성방법과의 일관성, 실제 공표와 향후 자료 활용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가중치를 작성하였다.

(2) 2차 년도 종단가중치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종단가중치는 1차 년도와 2차 년도 조사에 모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조사완료된 5,527명에 부여되며,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보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응답확률 추정 모형으로 부터 도출된 응답확률의 역수를 1차 년도 가중치에 곱하여 무응답 조정 하여 기본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레이킹 조정하여 2차 년도 종단가중치를 산출하였

49) 본 절은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재구성 하였다.
50) 김재광, 한근식, 윤연옥. (2004). 가계조사 무응답 처리기법 연구. 통계연구, 9(1).

다. 응답확률 추정 모형 적용에는 무응답 표본이(조사불가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 조사 참여 가능하였으나 단순 조사거절 등으로 인해 조사에 미참여한 표본[51]) 조사 미참여 사유에 따라 표본특성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고, 모형에서 무응답 사유가 사망, 이민자(시설 입소)인 경우는 무응답으로 간주하지 않고 제외 한다.[52] 2차 년도 가중치 작성을 위한 분석 대상은 <표 Ⅲ-4-6>와 같다. 마지막으로 통계의 공표를 고려하여 레이킹 비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정 변수는 통계의 공표 단위, 가중치 작성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1차 년도 가중치 산출시 사용한 변수와 동일(장애 유형, 성별, 장애 정도, 연령대) 하도록 유지하고, 이때 자료는 1차 년도 패널 구축 당시 모집단 정보를 활용 한다.

〈표 Ⅲ-4-6〉 장애인삶 패널조사 조사 2차 년도 가중치 작성을 위한 분석대상

2차 조사 결과		1차 조사 완료	패널 수(명)
조사대상	→	**분석대상**	5,998
조사참여(응답)		조사참여(협조성향)	5,527
조사미참여[53](무응답)		조사미참여(비협조성향)	471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 등(조사제외)		**분석제외**	
		사망, 장애등록 취소, 시설입소 등(조사제외)	123
		합계	6,121

주) 「심규호, 백지선. (2012). 가계금융조사를 이용한 무응답 조정방법 연구. 통계개발원.」 p.41을 참고하여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1차 및 2차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구성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용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는 2차 년도 조사 참여한 표본의 이전 년도 데이터이다. 무응답 보정의 통계적 타당성은 주어진 로지스틱 모형의 적합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54] 이러한 이유로 설명변수는 응답자와 무응답간 특성 분석을 토대로 실제 이용 가능한, 즉 결측이 없고, 지속적으로 모든 연차에 사용될 수 있는 설명변수를 모형으로 하였다.[55][56] 이때 종속변수는 조사참여 여부로 구분되는 지시변수 이다.

51) 구체적인 사항은 2장을 참고한다.

52) 무응답은 발생 사유에 따른 표본의 특성은 서로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 할 때에는 표본이탈 사유를 고려하여 응답 성향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조사불가(소멸)로 인한 무응답 표본과 조사 참여 가능하였으나 조사거절로 인해 해당 차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즉 이후년도 조사에는 다시 참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표본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출처) 홍민기, 최효미. (2014). 노동패널 표본이탈과 불평등 지표. 조사연구, 15(4), 95-122.

53) 수신거부, 장기비수신, 조사거부 등

54) 박민규 외. (203). 한국노동패널 가중치 연구.

55)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56)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통계적 모형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개인 및 가구 특성 등과 같은 조사대상자 고유 속성을 반영한 추정 모형으로, 이를 고려한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종단가중치 산출시 응답확률 추정 모형의 선택뿐만 아니라 무응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선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Dufour 등(2001)은 응답확률 모형의 중요성을 Rizzo 등(1996)은 보조변수, 즉 모형에 투입할 변수의 선택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출처) 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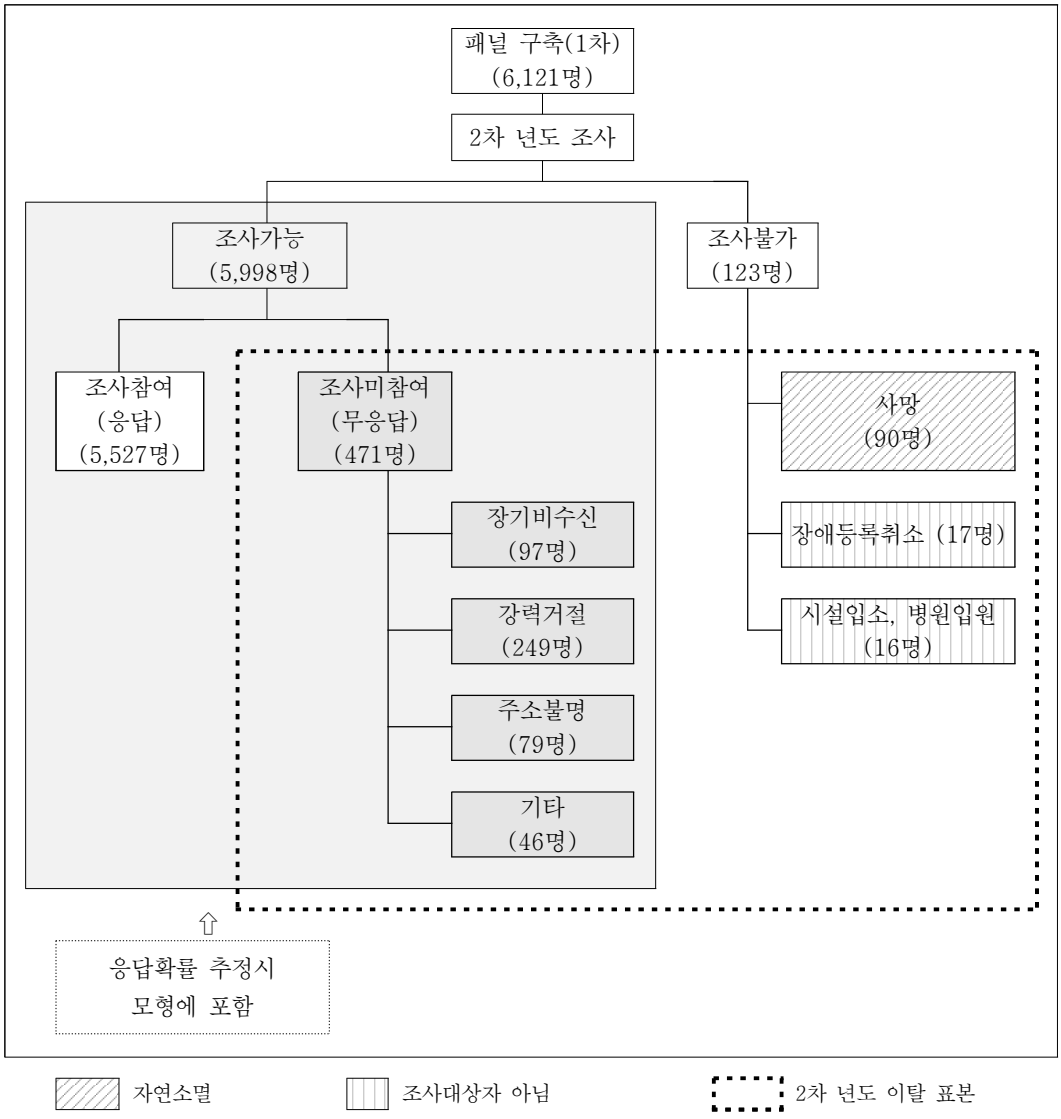
$$2\text{차 년도의 응답여부} = \begin{cases} 1, \text{응답} \\ 0, \text{무응답} \end{cases}$$

로지스틱 회귀모형 적용을 위한 설명변수로는 표본설계시 고려 및 공표단위인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변수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응답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패널 개인 및 가구특성 변수인 주택유형, 가구원 수, 금융특성 변수인 월평균 생활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연령을 통제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응답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설명변수로 설정하되, 표본설계 당시 적용한 층화변수까지 함께 고려하여 변수로 투입하는 것이다. 모형에 투입된 전체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Ⅲ-4-7〉 로지스틱 회귀분석 : 독립변수

변수	변수유형	범주	내용
장애 유형	범주형	15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장애 정도	범주형	2	중증, 경증
성별	범주형	2	남자, 여자
연령대	범주형	3	만18세 이하, 만19-49세, 만50세 이상
주택유형	범주형	4	아파트, 연립 · 다세대, 단독 · 전원주택, 기타
가구규모	범주형	4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이상
월 평균 생활비	범주형	4	100만 미만, 100만 이상-200미만, 200만 이상-300미만, 300만 이상

주) 음영표시는 본 조사의 공표단위 및 층화변수임



주) Hidiroglou et al. (1993). in Paul P. Biemer and Lars E. Lyberg. 2003. Introduction to Survey Quality, p.86. 도표 활용.; 변종석, 이석훈, 정구현. (2013).에서 발췌하여 본 패널조사 내용으로 재구성함

[그림 Ⅲ-4-1] 장애인삶 패널조사 응답 및 무응답 도표[57)]

57) 본 도표는「김현지, 김태용, 이혜수. (2020). 장애인삶 패널조사를 위한 종단가중치 작성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췌하였다.

한국장애인개발원 www.koddi.or.kr

〈표 Ⅲ-4-8〉 응답확률 모형(로지스틱회귀모형)

변수	범주	추정치	표준오차	오즈비	p-값
Intercept	-	2.615	0.281	-	<.0001
연령대	만0-18세	-0.268	0.165	0.765	0.105
(기준: 만50세 이상)	만19-49세 이상	-0.449***	0.119	0.638	0.000
장애 유형	간	-0.560**	0.268	0.571	0.037
(기준: 지체)	뇌병변	-0.195	0.181	0.823	0.283
	뇌전증	-0.404	0.336	0.668	0.230
	시각	-0.023	0.199	0.978	0.909
	신장	-0.256	0.211	0.774	0.224
	심장	-0.078	0.374	0.925	0.834
	안면	-0.799	0.561	0.45	0.154
	언어	0.022	0.253	1.022	0.932
	자폐성	-0.173	0.325	0.841	0.595
	장루.요루	-0.799***	0.293	0.45	0.006
	정신	-0.587**	0.240	0.556	0.015
	지적	-0.078	0.249	0.925	0.754
	청각	-0.010	0.200	0.99	0.962
	호흡기	-0.966***	0.273	0.381	0.000
장애 정도 (기준: 중증)	경증	-0.055	0.115	0.947	0.636
성별 (기준: 남자)	여자	-0.026	0.098	0.975	0.793
주택형태	단독.전원주택	0.588**	0.262	1.801	0.025
(기준: 기타)	아파트	0.230	0.237	1.259	0.331
	연립.다세대	0.131	0.243	1.14	0.590
가구규모	2인가구	0.319**	0.163	1.376	0.050
(기준: 1인 가구)	3인가구	0.247	0.184	1.281	0.178
	4인 가구 이상	0.514**	0.198	1.671	0.010
월평균 생활비	100만 이상-200미만	-0.161	0.152	0.851	0.291
(기준: 100만원 미만)	200만 이상-300미만	-0.654***	0.178	0.52	0.000
	300만 이상	-0.555***	0.204	0.574	0.007

주) * p < 0.1, **p < 0.05, *** p < 0.01

이렇게 산출된 가중값 합은 모집단 구성비와 다를 수 있다. 이는 표본설계 시 반영한 층화변수 외 변수들을 이용함에 따라 가중값의 분포와 합이 일부 상이해지는 현상이며, 공표를

고려하여 레이킹 비 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조정 변수는 1차 년도 가중치 산출시 고려한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성별, 연령대, 지역이다.

〈표 Ⅲ-4-9〉 2차 년도 종단가중치의 기술통계량

관측수	5,527	가중합	5,527
평균	45.464	관측값 합	251,277
표준 편차	51.096	분산	2,610.761
왜도	3.5924	첨도	20.298
제곱합	25,851,008.5	수정 제곱합	14,427,065.9
변동계수	112.388	평균의 표준 오차	0.687
중위수	31.017	표준 편차	51.096
사분위 범위	40.441	범위	667.784

전국 단위 상대표준오차는 5% 미만으로,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장애 정도별 상대표준오차 역시 20%[58]를 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Ⅲ-4-10〉 주요 문항별 상대표준오차

(단위: %)

구분	상대표준오차(RSE)
월평균 가구소득	1.9483
노후생활에 필요한 1달 평균 생활비	0.9395
장애수용(평균)*	0.3904
일상생활존중받는 정도(존중받고 있는 비율)**	1.74

* 주 1) 12개 세부 항목의 전체 평균을 사용하여 산출(일부 문항 역코딩)
2) 4점 리커트 척도: 전혀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 주 1) 일상생활존중받는 정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고 있다.
2) 존중받고 있는 비율은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고 있다'를 합친 비율을 의미한다.

58) 상대표준오차가 25%가 넘을 경우는 해석에 있어서 유의해야 한다.

〈표 Ⅲ-4-11〉 모집단 현황과 2차 년도 가중값 합계

(단위: 명, %)

구 분		모집단		2차 년도 가중값 합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전 체		251,277	100.0	251,277	100.0
성별	남성	142,540	56.7	142,540	56.7
	여성	108,737	43.3	108,737	43.3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7	49,532	19.7
	뇌병변	42,177	16.8	42,177	16.8
	시각	21,557	8.6	21,557	8.6
	청각/언어	73,818	29.4	73,818	29.4
	지적/자폐성	23,852	9.5	23,852	9.5
	정신	8,894	3.5	8,894	3.5
	내부/안면	31,447	12.5	31,447	12.5
장애 정도	중증	92,616	36.9	92,616	36.9
	경증	158,661	63.1	158,661	63.1

3) 모수추정

모집단의 평균(비율) 추정량과 분산추정량은 다음과 같다.

가. 평균(비율)추정

$$\bar{y} = \hat{p} = \sum_h \sum_i \sum_j w_{hij} y_{hij} / w_{...}$$

, 여기서 h는 설계층, $w_{...} = \sum_h \sum_i \sum_j w_{hij}$이다. 모비율 추정은 y 가 범주형 변수(값은 1과 0을 가짐)로 정의되며, 모평균 추정식과 동일한 식을 사용한다.

나. 분산추정

$$\widehat{var}(\bar{Y}) = \sum_{h=1}^{H} \frac{n_h(1-f_h)}{n_h - 1} \sum_{i=1}^{n_h} (e_{hi.} - \bar{e}_{h..})^2$$

, 여기서 $f_h = n_h/N_h$, $e_{hi.} = \sum_{j=1} w_{hij}(y_{hij} - \bar{y})/w_{...}$, $\bar{e}_{h..} = \left(\sum_{i=1}^{n_h} e_{hi.}\right)/n_h$이다.

다. 표준오차 (SE) 및 상대표준오차 (RSE)

평균의 추정량에 대한 상대표준오차는 다음의 식을 통해서 계산된다.

$$\text{표준오차 } \widehat{SE}(\overline{Y}) = \sqrt{\hat{V}(\overline{Y})}$$

$$\text{상대표준오차 } \widehat{RSE} = \frac{\sqrt{\hat{V}(\overline{Y})}}{\overline{Y}} \times 100\ (\%)$$

Ⅳ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요 결과 (1차~2차 비교)

Ⅳ 장애인삶 패널조사 주요 결과(1차~2차 비교)

1. 개요

1차 년도 조사 완료된 장애인 6,121명 패널 중 2차 년도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패널은 5,527명이다. 본 장에서는 장애인의 장애등록 이후 삶의 변화(장애수용, 사회복귀 등)를 일상생활, 소득수준, 건강상태, 복지욕구, 사회참여 관점에서 변화를 살펴보고자 2차 년도 조사 결과를 1차 조사 현황과 함께 제시하여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주요 항목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1차 년도에 구축한 패널 6,121명과 2차 년도에 응답한 패널 5,527명을 대상으로 해당년도 가중치를 부여하여 성,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본 장의 1차 년도 현황은 2018년 장애인삶 패널조사 보고서에 산출된 수치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59)]

2. 패널 개인 특성

1) 인구통계학적 특성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56.7%, 여성(43.3%)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가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지체 장애(19.7%), 뇌병변 장애(16.8%), 내부/안면 장애(12.5%), 지적/자폐성 장애(9.5%), 시각 장애(8.6%), 정신 장애(3.5%) 순이었고, 장애 정도는 중증이 36.9%, 경증은 63.1%이다.

〈표 Ⅳ-2-1〉 패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 분		1차 (2018)			2차 (2019)		
		추정수	비율	응답수	추정수	비율	응답수
전 체		(251,277)	100.0	6,121	(251,277)	100	5,527
성별	남성	(142,540)	56.7	3,389	(142,540)	56.7	3,058
	여성	(108,737)	43.3	2,732	(108,737)	43.3	2,469

59) 1차 년도 데이터는 2차 년도 데이터 에디팅 단계에서 확인된 추가 오류사항들을 재검증하여 데이터를 수정하였다.

구 분		1차 (2018)			2차 (2019)		
		추정수	비율	응답수	추정수	비율	응답수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7	974	(49,532)	19.7	898
	뇌병변	(42,177)	16.8	980	(42,177)	16.8	882
	시각	(21,557)	8.6	757	(21,557)	8.6	698
	청각/언어	(73,818)	29.4	1,141	(73,818)	29.4	1,053
	지적/자폐성	(23,852)	9.5	567	(23,852)	9.5	518
	정신	(8,894)	3.5	328	(8,894)	3.5	287
	내부/안면	(31,447)	12.5	1,374	(31,447)	12.5	1,191
장애 정도	중증	(92,616)	36.9	3,242	(92,616)	36.9	2,897
	경증	(158,661)	63.1	2,879	(158,661)	63.1	2,630

주 1) 내부/안면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됨
2) 응답수는 해당차수 조사에서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수를 의미함

최종학력별로 살펴보면, '중/고등학교' 졸업이 54.3%로 과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 초등학교 이하(22.0%), 전문대 이상(14.3%), 무학(9.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혼인상태는 '결혼' 상태인 패널 비중이 53.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이혼/별거/사별(24.8%), 미혼(13.3%), 비해당(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2〉 최종학력

(단위: 명, %)

구 분	1차		2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전 체	(251,277)	100.0	(251,277)	100.0
초등학교 이하	(55,812)	22.2	(55,245)	22.0
중/고등학교	(137,572)	54.7	(136,322)	54.3
전문대이상	(35,390)	14.1	(35,841)	14.3
무학	(22,503)	9.0	(23,869)	9.5

주1) 최종학력은 '졸업'을 기준으로 함. 초등학교 이하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의미한다.

2차 년도 평균 가구원 수는 2.51명으로 조사되었다. 범주별로 살펴보면, '2인 가구' 비율이 37.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인 가구 이상(21.6%), 1인 가구(21.0%), 3인가구(2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3〉 가구원 수

(단위: 명, %)

구 분	1차		2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전 체	(251,277)	100.0	(251,277)	100.0
1인 가구	(53,152)	21.2	(52,749)	21.0
2인 가구	(93,231)	37.1	(92,883)	**37.0**
3인 가구	(51,351)	20.4	(51,320)	20.4
4인 가구 이상	(53,542)	21.3	(54,324)	21.6
평균 가구원 수	(251,277)	2.49	(251,277)	**2.51**

2) 장애수용 및 심리상태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1차 년도 대비 2차 년도에 그 정도가 약간 향상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 중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인 항목은 '교육/학업'이며 1차(4.69점) 대비 0.35점 상승하여 5.04점으로 조사되어 전년 대비 긍정적인 영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조사된 항목 중 수치가 가장 낮았으며, 1, 2차 모두 장애가 미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전체)

(단위: 명, 점)

구 분	1차		2차	
	추정수	평균(점)	추정수	평균(점)
(1) 성격 및 가치관	(251,277)	4.18	(251,277)	4.51
(2) 생활방식	(251,277)	3.97	(251,277)	4.28
(3) 건강	(251,277)	3.86	(251,277)	4.11
(4) 교육/학업	(251,277)	4.69	(251,277)	**5.04**
(5) 직업	(228,579)	**3.74**	(229,491)	**4.04**
(6) 결혼/연애	(231,422)	4.43	(231,851)	4.60
(7) 대인관계	(251,277)	3.91	(251,277)	4.17
(8) 외출/여가활동	(251,277)	3.84	(251,277)	4.11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 결혼/연애는 만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영역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은 여성(4.49점)이 남성(4.53점) 대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 한편, '생활방식'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성격 및 가치관'은 정신 장애(3.64점)에서, '생활방식'에 대

해서는 뇌병변 장애(3.56점)에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 별로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과 '생활방식' 모두 중증 장애(각각 4.15점, 3.88점)가 경증 장애(각각 4.73점, 4.52점) 대비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한 영향 정도는 4.11점으로 1차 년도에 비해 긍정적 영향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4.05점)이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3.25점)에서 장애가 자신의 삶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다.

〈표 Ⅳ-2-5〉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변화(항목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성격 및 가치관		생활방식		건강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전 체		(251,277)	4.18	**4.51**	3.97	**4.28**	3.86	**4.11**
성별	남성	(142,540)	4.21	4.53	3.99	4.28	3.88	4.16
	여성	(108,737)	4.14	**4.49**	3.94	4.28	3.84	**4.05**
장애 유형	지체	(49,532)	4.37	4.67	4.02	4.35	3.69	4.05
	뇌병변	(42,177)	3.50	3.95	3.11	**3.56**	2.92	**3.25**
	시각	(21,557)	4.42	4.78	4.18	4.53	4.30	4.45
	청각/언어	(73,818)	4.41	4.76	4.40	4.65	4.46	4.68
	지적/자폐성	(23,852)	4.29	4.51	4.16	4.39	4.41	4.57
	정신	(8,894)	3.54	**3.64**	3.49	3.58	3.68	3.70
	내부/안면	(31,447)	4.16	4.52	3.89	4.23	3.31	3.57
장애 정도	중증	(92,616)	3.86	**4.15**	3.60	**3.88**	3.51	**3.71**
	경증	(158,661)	4.37	4.73	4.19	4.52	4.07	4.34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직업'에 대한 영향 정도는 4.04점으로 1차 년도에 비해 긍정적 영향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에 대해 남성에 비해 여성(3.93점)이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 장애(3.18점)에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느끼는 정도가 높았다.

'대인관계'와 '외출/여가활동'에 항목에서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에 대한 영향 정도는 4.17점, '외출/여가활동'는 4.11점으로 나타났다. 장애가 '대인관계'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남성(4.17점)이 여성(4.18점) 대비 컸던 반면, '외출/여가활동'은 여성(4.05점)이 남성(4.15점) 대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별로 살펴보면, '대인관계'는 정신 장애(3.01점), '외출/여가활동'은 뇌병변 장애(3.24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된다. '대인관계'와 '외출/여가활동'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중증 장애(각각 3.62점, 3.57점)가 경증 장애(각각 4.50점, 4.42점) 대비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Ⅳ-2-5〉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항목별) - 계속

(단위: 명, 점)

구 분		직업				대인관계		외출/여가활동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추정수	평균(점)	추정수	평균(점)				
전 체		(228,579)	3.74	(229,491)	**4.04**	3.91	**4.17**	3.84	**4.11**
성별	남성	(128,294)	3.62	(129,035)	**3.98**	3.93	**4.17**	3.88	4.15
	여성	(100,286)	3.88	(100,456)	4.11	3.87	4.18	3.78	**4.05**
장애 유형	지체	(47,414)	3.59	(47,637)	4.22	4.28	4.57	3.88	4.28
	뇌병변	(38,571)	3.11	(38,713)	3.36	2.99	3.45	2.80	**3.24**
	시각	(20,258)	4.11	(20,378)	4.25	4.22	4.47	4.11	4.24
	청각/언어	(67,353)	4.09	(67,431)	4.38	4.22	4.48	4.39	4.64
	지적/자폐성	(15,327)	3.90	(15,667)	4.40	3.75	3.84	4.06	4.06
	정신	(8,743)	3.42	(8,738)	**3.18**	3.14	**3.01**	3.33	3.43
	내부/안면	(30,913)	3.73	(30,926)	3.79	3.95	4.17	3.64	3.92
장애 정도	중증	(79,460)	3.43	(79,908)	**3.63**	3.40	**3.62**	3.35	**3.57**
	경증	(149,119)	3.90	(149,583)	4.26	4.20	4.50	4.12	4.42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장애수용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 2차는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세부항목별로 4점 척도 기준의 평균을 살펴보면, '(6)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와 '(8) 나는 내 장애를 숨기지 않는다'에 대해 2.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12) 나는 내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다(2.53점), (1)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2.44점), (5)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2.33점), (2) 나는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2.31점), (4) 나는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2.25점), (11)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2.25점), (9) 나는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산다(2.21점), (10)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2.19점)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Ⅳ-2-6〉 장애수용(전체)

(단위: 점, %)

구 분	1차				2차			
	평균(점)	비율(%)		계	평균(점)	비율(%)		계
	2.34	그렇지 않는 편임	그런 편임		2.33	그렇지 않는 편임	그런 편임	
(1)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2.43	54.7	45.3	100	2.44	54.3	45.7	100
(2) 나는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	2.31	61.6	38.4	100	2.30	62.1	37.9	100
(3)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	2.09	72.3	27.7	100	**2.07**	72.6	27.4	100
(4) 나는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2.24	64	36	100	2.25	63.6	36.4	100
(5)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	2.33	55.9	44.1	100	2.33	55.9	44.1	100
(6)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2.66	35	65	100	**2.68**	34.5	65.5	100
(7)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2.08	72.6	27.4	100	**2.07**	72.9	27.1	100
(8) 나는 내 장애를 숨기지 않는다	2.65	37.4	62.6	100	**2.68**	35.6	64.4	100
(9) 나는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산다	2.22	61.6	38.4	100	2.21	62.4	37.6	100
(10)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2.20	61.6	38.4	100	2.19	64.5	35.5	100
(11)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2.26	60.4	39.6	100	2.25	61.4	38.6	100
(12) 나는 내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다	2.51	49.8	50.2	100	2.53	48.7	51.3	100

주1)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1, 3, 7, 12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3) 건강 · 의료

지난 6개월간 패널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상태가 '좋은편'이라는 응답이 49.9%로, 1차(45.1%) 대비 4.8%p 높은 수준이었다.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은편'이라는 응답은 남성이 51.6%로, 여성(47.6%)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6개월 간 건강상태가 '좋은편'이라는 응답은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70.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은 뇌병변 장애가 63.5%(2.28점), 내부/안면 장애가 65.2%로 다소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가 54.9%, 경증 장애가 47.3%로 산출되어, 중증 장애가 경증 대비 6개월간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지난 6개월간 전반적 건강상태

(단위: 점, %)

구 분		평균(점)		1차		2차	
		1차	2차	좋지않은편임	좋은편임	좋지않은편임	좋은편임
전 체		2.38	**2.47**	54.9	45.1	50.1	**49.9**
성별	남성	2.41	**2.49**	53.5	46.5	48.4	**51.6**
	여성	2.36	2.44	56.7	43.3	52.4	47.6
장애 유형	지체	2.32	2.43	58.8	41.2	52.3	47.7
	뇌병변	2.09	**2.28**	71.4	28.6	**63.5**	36.5
	시각	2.43	2.54	51.9	48.1	44.2	55.8
	청각/언어	2.53	2.57	47.1	52.9	42.8	57.2
	지적/자폐성	2.70	**2.74**	31.0	69.0	29.3	**70.7**
	정신	2.43	2.44	52.7	47.3	51.8	48.2
	내부/안면	2.25	2.29	65.8	34.2	**65.2**	34.8
장애 정도	중증	2.31	2.40	57.8	42.2	**54.9**	45.1
	경증	2.43	**2.51**	53.2	46.8	47.3	**52.7**

주 1) 4점 척도(①매우 나쁘다, ②나쁜 편이다, ③좋은 편이다, ④매우 좋다)로 점수화함
2) '매우 나쁘다' 부터 '매우 좋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을 2개 범주로(좋지않은편임 : ① 매우 나쁘다+② 나쁜 편이다, 좋은편임 : ③ 좋은 편이다 + ④ 매우 좋다) 표기함

만성질환(질병)[60]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9.7%의 패널이 만성질환을 갖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차(57.2%) 대비 2.5%p 상승한 수치이다. 여성(63.0%)의 만성질환 보유율이 남성(57.1%)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에서 만성질병을 갖고 있다는 응답이 74.2%로 특히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

60)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질환)

우 29.5%로 타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60.8%)는 중증 장애(57.6%) 대비 만성질병 보유비율이 더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Ⅳ-2-8〉 만성질환(질병) 유무

(단위 : 명, 개, %)

구 분		1차			2차		
		추정수	있음	없음	추정수	있음	없음
전체		(251,277)	57.2	42.8	(251,277)	**59.7**	40.3
성별	남성	(142,540)	56.3	43.7	(142,540)	57.1	42.9
	여성	(108,737)	58.4	41.6	(108,737)	63.0	37.0
장애 유형	지체	(49,532)	59.2	40.8	(49,532)	65.1	34.9
	뇌병변	(42,177)	59.6	40.4	(42,177)	65.0	35.0
	시각	(21,557)	57.3	42.7	(21,557)	58.4	41.6
	청각/언어	(73,818)	56.4	43.6	(73,818)	56.5	43.5
	지적/자폐성	(23,852)	32.8	67.2	(23,852)	**29.5**	70.5
	정신	(8,894)	47.2	52.8	(8,894)	62.2	37.8
	내부/안면	(31,447)	73.5	26.5	(31,447)	**74.2**	25.8
장애 정도	중증	(92,616)	54.5	45.5	(92,616)	57.6	42.4
	경증	(158,661)	58.7	41.3	(158,661)	60.8	39.2

만성질환(질병) 보유 개수는 평균 1.84개로 조사되었으며, 1차 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다. 보유개수 범주별로 살펴보면, 만성질병 '1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개(35.3%), 3~4개(18.5%), 5개 이상(2.0%) 등의 순이었다. 장애 유형 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만성질병 보유 개수는 평균 1.97개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시각 장애(1.95개), 뇌병변 장애(1.90개), 지체 장애(1.86개), 청각/언어 장애(1.76개), 정신 장애(1.66개), 지적/자폐성 장애(1.49개)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Ⅳ-2-9〉 만성질환(질병) 보유 수

(단위 : 명, 개, %)

구 분		1차		2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보유 개수	1개	(61,838)	43.1	(66,296)	**44.2**
	2개	(55,921)	38.9	(52,953)	35.3
	3~4개	(23,038)	16.0	(27,671)	18.5
	5개 이상	(2,838)	2.0	(2,986)	2.0

구분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전체 평균		(143,635)	1.84	(149,905)	**1.84**
구분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0	(49,532)	1.86
	뇌병변	(42,177)	1.82	(42,177)	1.90
	시각	(21,557)	1.90	(21,557)	1.95
	청각/언어	(73,818)	1.70	(73,818)	1.76
	지적/자폐성	(23,852)	1.73	(23,852)	1.49
	정신	(8,894)	1.76	(8,894)	1.66
	내부/안면	(31,447)	2.04	(31,447)	**1.97**
장애 정도	중증	(92,616)	1.89	(92,616)	1.84
	경증	(158,661)	1.81	(158,661)	1.84

4) 자립 및 사회참여

일상생활에 도와주는 사람을 살펴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1차(37.0%) 대비 1.5%p 상승한 수치이다. '배우자'가 도와준다는 비율은 31.1%로 1차(32.6%)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모(14.9%), 자녀(6.4%), 형제자매(2.7%), 요양보호사(1.5%), 활동보조인(1.3%), 친구 및 이웃(1.2%), 유료 간병인/가정봉사원(1.0%), 친인척 및 무료 간병인/가정봉사원(각각 0.4%), 사회복지사 및 종교단체 관계자(각각 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1-10〉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단위: 명, %)

구 분	1차	2차	구 분	1차	2차
추정수	(251,277)	(251,277)	친구 및 이웃	1.1	1.2
전체	100.0	100.0	유료 간병인/가정봉사원	1.0	1.0
배우자	32.6	**31.1**	친인척	0.4	0.4
부모	15.4	14.9	무료 간병인/가정봉사원	0.5	0.4
자녀(며느리, 사위 포함)	6.3	6.4	사회복지사	0.2	0.2
형제자매	3.3	2.7	종교단체 관계자	0.1	0.2
요양보호사	1.1	1.5	기타	0.1	0.2
활동보조인	0.9	1.3	없음	37.0	**38.5**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 대해 노후 준비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은 19.4%로 조사되었다. 이는, 1차(24.4%) 대비 5.0%p 낮은 수치이다. 노후생활 준비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은 1차(64.4%) 대비 2.3%p 높아진 66.7%(매우 부족 13.5% + 부족한 편 53.3%)로, '충분'하다는 응답(33.3% = 충분한 편 31.7% + 매우 충분함 1.5%)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Ⅳ-2-11〉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여부 및 정도

(단위: 명, %)

구 분		1차		2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경제적 준비 여부	예	(46,515)	24.4	(37,484)	**19.4**
	아니오	(144,008)	75.6	(155,631)	80.6
경제적 준비 정도	매우 부족함	(5,350)	11.5	(5,052)	13.5
	거의 부족한 편임	(24,594)	52.9	(19,966)	**53.3**
	충분한 편임	(15,955)	34.3	(11,897)	31.7
	매우 충분함	(616)	1.3	(569)	1.5

현재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5.32점으로 1차 년도 대비 긍정적 영향이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4.62점), 사회적 관계(5.34점), 주거환경(5.99점), 직업(6.09점), 결혼생활(6.25점), 학교생활(6.51점) 등의 순이었다. 모든 항목에 대한 만족도 수준은 1차 대비 향상되었다. 세부 항목 중 '건강' 만족도는 4.62점으로 1차(4.20점) 대비 향상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12〉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전체)

(단위 : 명, 점)

구 분	1차		2차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1) 건강	(251,277)	4.20	(251,277)	4.62
(2) 수입	(228,579)	**4.02**	(229,491)	**4.20**
(3) 주거환경	(251,277)	5.71	(251,277)	5.99
(4) 학교생활	(251,277)	6.24	(251,277)	6.51
(5) 직업	(228,579)	5.79	(229,491)	6.09
(6) 결혼생활	(228,579)	5.94	(229,491)	6.25

구 분	1차		2차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7) 사회적 관계	(251,277)	5.03	(251,277)	5.34
(8) 전반적 삶의 만족도	(251,277)	5.02	(251,277)	5.32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불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함
2) (2)수입, (5)직업, (6)결혼생활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3) (2)수입의 경우 가구소득이 0원이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4) (4)학교생활의 경우 재학생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5) (5)직업의 경우 취업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6) (6)결혼생활의 경우 기혼자(사실혼, 동거 포함)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삶의 만족도를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건강'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4.68점)이 여성(4.54점) 대비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5.44점)의 '건강'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뇌병변 장애는 3.5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건강'에 대해 중증 장애(4.21점)가 경증 장애(4.86점) 대비 '건강'에 대해 낮게 평가했다.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4.20점으로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1차(4.02점) 대비 0.18점 높은 수준이다. 장애 유형 별로, 청각/언어(4.59점)는 '수입'에 대한 만족 수준이 가장 높았던 반면 정신 장애(3.43점)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 별로 중증 장애(3.72점)의 만족도가 경증 장애(4.43점) 대비 낮았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6.00점)의 만족도가 여성(5.98점)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각각 6.19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반면, 정신 장애(5.45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장애 정도 별로, 중증 장애(5.79점)가 경증(6.12점) 대비 낮은 만족 수치를 보였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6.62점)이 여성(6.31점) 대비 만족 수준이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6.98점)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뇌병변 장애(6.11점)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6.21점)의 만족도가 경증 장애(6.90점) 대비 낮게 나타났다.

〈표 Ⅳ-2-13〉 현재 삶의 만족도 변화(항목별)

(단위 : 명, 점)

구 분		(1) 건강		(2)수입		(3) 주거환경		(4) 학교생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추정수		(251,277)	(251,277)	(228,579)	(229,491)	(251,277)	(251,277)	(251,277)	(251,277)
전 체		4.20	**4.62**	4.02	**4.20**	5.71	**5.99**	6.24	**6.51**
성별	남성	4.27	**4.68**	4.00	**4.22**	5.72	**6.00**	6.27	**6.62**
	여성	4.12	4.54	4.05	4.17	5.71	5.98	6.18	6.31

구 분		(1) 건강		(2)수입		(3) 주거환경		(4) 학교생활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장애 유형	지체	4.08	4.58	4.19	4.40	5.88	6.18	6.34	6.93
	뇌병변	3.12	**3.54**	3.22	3.46	5.17	5.54	5.36	**6.11**
	시각	4.38	4.78	4.06	4.18	5.76	5.94	6.88	6.76
	청각/언어	4.91	5.30	4.56	**4.59**	5.97	**6.19**	6.89	**6.98**
	지적/자폐성	5.16	**5.44**	3.97	4.34	6.08	**6.19**	5.96	6.19
	정신	3.93	4.34	3.20	**3.43**	4.87	**5.45**	4.90	6.28
	내부/안면	3.41	3.90	3.72	4.02	5.51	5.89	6.68	6.84
장애 정도	중증	3.82	4.21	3.46	3.72	5.46	5.79	5.93	6.21
	경증	4.43	**4.86**	4.30	**4.43**	5.86	**6.12**	6.66	**6.90**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불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함
2) (2)수입, (5)직업, (6)결혼생활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3) (2)수입의 경우 가구소득이 0원이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4) (4)학교생활의 경우 재학생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5) (5)직업의 경우 취업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6) (6)결혼생활의 경우 기혼자(사실혼, 동거 포함)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남성(6.17점)이 여성(5.93점) 대비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 장애(6.38점)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시각 장애(5.74점)에서 가장 낮았다. 장애 정도별로, 중증 장애(5.98점)의 만족도가 경증 장애(6.11점)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결혼생활'에 대한서 남성(6.33점)이 여성(6.14점) 대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6.59점)에서 가장 높았던 반면, 정신 장애(4.94점)에서 가장 낮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5.88점)가 경증 장애(6.40점) 대비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5.36점)이 여성(5.32점) 대비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5.81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 반면, 정신 장애(4.01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4.75점)가 경증 장애(5.69점) 대비 만족 수준이 낮았다.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남성(5.32점)이 여성(5.31점)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5.81점)에서 가장 높은 만족 수준을 보인 반면, 정신 장애(4.36점)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 별로 살펴보면, 타 항목과 마찬가지로 중증 장애(4.82점)가 경증 장애(5.61점) 대비 만족 수준이 낮았다.

〈표 Ⅳ-2-13〉 현재 삶의 만족도(항목별) - 계속

(단위 : 명, 점)

구 분		(5) 직업		(6) 결혼생활		(7) 사회적관계		(8) 전반적 만족도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추정수		(228,579)	(229,491)	(228,579)	(229,491)	(251,277)	(251,277)	(251,277)	(251,277)
전 체		5.79	**6.09**	5.94	**6.25**	5.03	**5.34**	5.02	**5.32**
성별	남성	5.84	**6.17**	6.03	**6.33**	5.02	**5.36**	4.99	**5.32**
	여성	5.67	5.93	5.82	6.14	5.04	5.32	5.04	5.31
장애 유형	지체	5.94	6.06	6.20	**6.59**	5.39	5.68	5.25	5.55
	뇌병변	5.48	6.03	5.29	5.57	4.06	4.43	4.08	4.38
	시각	5.58	**5.74**	6.06	6.10	5.30	5.48	5.13	5.33
	청각/언어	5.78	6.17	6.15	6.43	5.50	**5.81**	5.53	**5.81**
	지적/자폐성	6.17	6.11	5.37	5.58	4.94	5.17	5.27	5.47
	정신	5.13	**6.38**	4.84	**4.94**	4.00	4.17	4.01	**4.36**
	내부/안면	5.68	6.16	6.02	6.51	4.82	5.27	4.71	5.19
장애 정도	중증	5.65	5.98	5.54	5.88	4.43	4.75	4.51	4.82
	경증	5.81	**6.11**	6.11	**6.40**	5.37	**5.69**	5.31	**5.61**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불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함
2) (2)수입, (5)직업, (6)결혼생활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3) (2)수입의 경우 가구소득이 0원이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4) (4)학교생활의 경우 재학생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5) (5)직업의 경우 취업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6) (6)결혼생활의 경우 기혼자(사실혼, 동거 포함)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3. 가구의 경제상황

1) 소득 및 소비

(1) 월평균 가구 소득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 가구 소득 비중은 근로소득이 61.8%로,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부업소득(16.0%), 공적이전소득(13.5%),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5.6%), 사적이전소득(2.4%), 비경상소득(0.7%) 등의 순이다.

〈표 Ⅳ-3-14〉 월평균 가구 소득 비중

(단위 : %)

구 분	1차 (2017년)	2차 (2018년)
전 체	100.0	100.0
근로소득	63.3	61.8
사업 · 부업소득	15.3	16.0
개인재산금융 · 연금소득	5.7	5.6
사적이전소득	2.7	2.4
공적이전소득	12.0	13.5
비경상소득	1.0	0.7

(2) 월평균 가구 생활비

가구 월평균 생활비(전체)는 170.24만원으로, 1차(2017년)의 164.38만원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의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양/오락비'외 모든 항목이 1차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료품비(외식비 포함)'가 57.16만원 (33.6%)로, 생활비로 지출되는 금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20.79만원, 12.2%), 교통/통신비(20.67만원, 12.1%), 기타생활비용(16.99만원, 10.0%), 주거관련 비용(15.09만원, 8.9%), 보육 및 교육비(11.03만원, 6.5%), 생필품 및 내구재 구입비(9.53만원, 5.6%), 의류비(8.28만원, 4.9%), 집세, 월세(6.12만원, 3.6%), 교양/오락비(4.59만원, 2.7%) 등의 순이다.

〈표 Ⅳ-2-15〉 월평균 가구 생활비 및 항목별 생활비 비중

(단위 : 만원, %)

구 분	1차 (2017년)			2차 (2018년)		
	평균	비율	표준오차	평균	비율	표준오차
전체	164.38	100.0	2.02	170.24	100.0	2.07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54.96	33.4	0.63	**57.16**	**33.6**	0.65
집세, 월세	6.12	3.7	0.24	6.12	3.6	0.26
의류비(옷, 신발 구입비 포함)	8.05	4.9	0.2	8.28	4.9	0.2
보육 및 교육비	10.77	6.6	0.52	11.03	6.5	0.56
보건의료비	20.41	12.4	0.65	20.79	12.2	0.64
주거관련 비용(전기/수도/냉난방)	14.66	8.9	0.18	15.09	8.9	0.18
교통/통신비	19.82	12.1	0.33	20.67	12.1	0.34
교양/오락비	4.60	2.8	0.17	4.59	2.7	0.14
생필품 및 내구재 구입비	9.33	5.7	0.24	9.53	5.6	0.23
기타생활비용 (경조사비, 부채상환비 등 포함)	15.67	9.5	0.6	16.99	10.0	0.65

생활비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은 생활비 비중이 가장 컸던 식료품비(61.1%)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보건의료비(14.8%), 집세, 월세(5.9%), 기타생활비용(5.7%), 보육 및 교육비(4.2%), 교통/통신비(4%), 주거관련 비용(3.2%), 생필품 및 내구재 구입비(0.5%), 기타(0.3%), 의류비(0.3%), 교양/오락비(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Ⅳ-2-16〉 생활비 중 부담되는 것(1순위)

(단위 : %)

구 분	1차 (2017년)	2차 (2018년)
전체	100.0	100.0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46.2	**61.1**
집세, 월세	7.4	5.9
의류비(옷, 신발 구입비 포함)	0.5	0.3
보육 및 교육비	5.6	4.2
보건의료비	16.7	14.8
주거관련 비용(전기/수도/냉난방)	5.5	3.2
교통/통신비	5.1	4.0
교양/오락비	0.0	0.1
생필품 및 내구재 구입비	0.7	0.5
기타생활비용 (경조사비, 부채상환비 등 포함)	7.7	5.7
기타	0.4	0.3
없음	4.3	0.0

2) 부채

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37.7%는 부채가 '있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1차(36.3%) 대비 1.4%p 증가한 수치이다. 부채 금액에 대한 2차 년도 조사 결과, 평균 부채 금액은 3,027.23만원으로 1차(2,974.96만원) 대비 약 52.27만원 증가했다. 구간 별로, '1천만원 미만'이 65.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억원 이상(10.3%), 1억원 미만 및 3천만원 미만(각각 9.0%), 5천만원 미만(5.9%) 등의 순이었다.

〈표 Ⅳ-2-17〉 부채 비율

(단위 : %)

구 분		1차		2차	
		추정수	비율	추정수	비율
부채 여부	있음	(91,166)	36.3	(94,762)	**37.7**
	없음	(160,111)	63.7	(156,515)	62.3
부채 총액	계	(251,277)	100	(251,277)	**100**
	1천만원 미만	(169,248)	67.4	(165,611)	**65.9**
	3천만원 미만	(22,116)	8.8	(22,530)	9.0
	5천만원 미만	(12,611)	5.0	(14,723)	5.9
	1억원 미만	(21,767)	8.7	(22,540)	9.0
	1억원 이상	(25,535)	10.2	(25,874)	10.3

〈표 Ⅳ-2-17〉 부채 평균

(단위 : 만원)

구 분	1차		2차	
	평균(만원)	표준오차	평균(만원)	표준오차
부채	2,974.96	170.70	**3,027.23**	183.22

Ⅴ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조사 결과(패널)

Ⅴ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조사 결과[61](패널)

1. 인구통계학적 특성(2차 조사)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삶 패널조사의 2차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 패널은 5,527명이다. 층화변수를 기준으로 이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이 56.7%, 여성(43.3%)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가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 지체 장애(19.7%), 뇌병변 장애(16.8%), 내부/안면 장애(12.5%), 지적/자폐성 장애(9.5%), 시각 장애(8.6%), 정신 장애(3.5%) 순이다. 장애 정도별 분포는 중증이 36.9%, 경증 63.1% 이다.

〈표 Ⅴ-1-1〉 인구통계학적 특성(2차 조사)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비율
전 체		(251,277)	100.0
성별	남성	(142,540)	56.7
	여성	(108,737)	43.3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7
	뇌병변	(42,177)	16.8
	시각	(21,557)	8.6
	청각/언어	(73,818)	29.4
	지적/자폐성	(23,852)	9.5
	정신	(8,894)	3.5
	내부/안면	(31,447)	12.5
장애 정도	중증	(92,616)	36.9
	경증	(158,661)	63.1

주1) 내부/안면 장애에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장애가 포함됨

61) 무응답 발생 시, 통계적 무응답 대체방법을 적용한 대체값을 포함하여 산출하였다.

2. 일반현황[62)]

1) 장애 등록시기

장애인 패널의 장애 발생 후 5년 이내 장애 등록을 했다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 발생 직후 등록한 비율은 18.5%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장애 발생 후 5년 이내 등록한 비율이 47.8%로 여성(43.8%)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에서 장애 발생 후 5년 이내 등록한 비율이 65.8%로 가장 높았고,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 발생 직후인 등록했다는 응답이 30.8%,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장애발생 21년 이후 등록했다는 응답이 27.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1〉 장애 등록시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 발생 직후	장애 발생 후 5년이내	6-10년 이내	11-15년 이내	16-20년 이내	21년 이후	계
전 체		(251,277)	**18.5**	**46.1**	11.1	3.6	5.3	15.4	100.0
성별	남성	(142,540)	19.7	**47.8**	10.8	3.7	5.2	12.8	100.0
	여성	(108,737)	16.9	43.8	11.5	3.5	5.5	18.8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3.3	56.3	6.8	2.7	4.6	6.2	100.0
	뇌병변	(42,177)	22.9	**65.8**	5.3	1.1	1.5	3.5	100.0
	시각	(21,557)	20.4	39.1	12.3	4.3	3.1	20.8	100.0
	청각/언어	(73,818)	11.2	36.3	14.6	4.0	6.8	**27.1**	100.0
	지적/자폐성	(23,852)	8.4	33.1	19.6	4.3	11.9	22.7	100.0
	정신	(8,894)	11.5	24.9	12.9	13.3	14.1	23.3	100.0
	내부/안면	(31,447)	**30.8**	46.8	9.3	3.6	2.4	7.1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9.0	46.7	10.9	4.1	5.6	13.7	100.0
	경증	(158,661)	18.2	45.7	11.2	3.3	5.2	16.4	100.0

주 1) 1차 년도 조사 결과임.

2) 세부장애

장애인 패널의 지체 장애 세부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척추장애가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하지 관절 장애(12.0%), 하지기능장애(9.6%)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척추장애 응답 비율은 34.8%로 여성(48.2%) 보다 낮았다.

62) 일반현황에서 추적 조사의 필요성이 낮은 장애 등록시기, 세부장애 유형, 중복장애 발생시기 및 유형은 1차 년도 조사 결과이다.

〈표 Ⅴ-2-2〉 지체 장애 세부장애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상지 절단 장애	하지 절단 장애	상지 관절 장애	하지 관절 장애	상지 기능 장애	하지 기능 장애	척추 장애	변형 등의 장애	모름	계
전 체		(51,546)	8.4	4.2	6.7	12.0	7.1	9.6	40.4	2.5	9.1	100.0
성별	남성	(29,922)	10.5	4.9	7.2	11.6	8.1	11.2	34.8	3.1	8.6	100.0
	여성	(21,624)	5.5	3.2	6.1	12.6	5.6	7.4	48.2	1.7	9.7	100.0

주 1) 1차 년도 조사 결과임.

2)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지체 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인 패널의 청각장애 세부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청력장애가 9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평형기능장애가 1.7% 이었다. 남성의 청력장애 응답 비율은 94.9%로 여성(91.9%) 보다 높았다.

〈표 Ⅴ-2-3〉 청각장애 세부장애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모름	계
전 체		(70,345)	93.4	1.7	4.9	100.0
성별	남성	(34,818)	94.9	1.7	3.4	100.0
	여성	(35,527)	91.9	1.7	6.4	100.0

주 1) 1차 년도 조사 결과임

2)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청각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중복장애

출생 후 21년 이후 중복장애가 발생했다는 응답이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출생 후 5년 이내(21.7%), 6-10년 이내(2.3%), 11-15년 이내(2.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출생 후 5년 이내 중복장애가 발생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0%로 여성(19.3%)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패널의 중복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중복장애가 없는 경우가 95.2%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중복 장애가 없다는 비율이 96.2%로 남성(94.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언어 장애를 중복장애로 가지고 있다는 응답이 2.9%,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뇌병변 장애를 중복장애로 가지고 있다는 응답은 3.0%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중복장애가 없다는 응답이 97.2%로, 중증 장애(91.3%)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증 장애의 경우 언어장애의 중복장애 비율이 1.5%, 경증 장애의 경우 지체 장애(0.5%)와 시각 장애(0.5%)의 중복장애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V-2-4〉 중복장애 발생시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출생 후 5년 이내	6-10년 이내	11-15년 이내	16-20년 이내	21년 이후	계
전 체		(12,015)	21.7	2.3	2.2	1.0	72.8	100.0
성별	남성	(7,850)	23.0	1.9	1.6	0.7	72.9	100.0
	여성	(4,165)	19.3	3.2	3.2	1.7	72.5	100.0

주 1) 1차 년도 조사 결과임.
2) 중복장애가 '있다'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V-2-5〉 중복장애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언어 장애	안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전 체		(251,277)	**0.8**	**0.6**	**0.5**	0.2	**0.7**	0.1	0.2	0.3
성별	남성	(142,540)	0.8	0.8	0.8	0.2	0.7	0.1	0.2	0.3
	여성	(108,737)	0.8	0.4	0.1	0.3	0.7	0.0	0.1	0.3
장애 유형	지체	(49,532)	0.0	0.1	0.5	0.1	0.1	0.0	0.3	0.0
	뇌병변	(42,177)	2.1	0.0	1.1	0.4	**2.9**	0.0	0.3	0.3
	시각	(21,557)	0.5	1.2	0.0	0.9	0.0	0.1	0.8	0.0
	청각/언어	(73,818)	0.5	0.6	0.3	0.0	0.4	0.0	0.0	0.0
	지적/자폐성	(23,852)	1.0	**3.0**	0.0	0.0	0.8	0.0	0.0	0.0
	정신	(8,894)	0.9	0.0	0.0	1.2	0.6	0.0	0.0	0.0
	내부/안면	(31,447)	1.2	0.5	1.0	0.3	0.0	0.4	0.0	1.8
장애 정도	중증	(92,616)	1.3	1.1	0.6	0.3	**1.5**	0.1	0.3	0.8
	경증	(158,661)	**0.5**	0.4	**0.5**	0.2	0.3	0.0	0.1	0.0

구 분		간장애	호흡기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중복 장애 없음	계
전 체		0.0	0.1	0.0	0.3	0.5	0.2	0.3	**95.2**	100.0
성별	남성	0.0	0.1	0.0	0.4	0.7	0.2	0.2	94.5	100.0
	여성	0.0	0.1	0.0	0.3	0.2	0.1	0.3	**96.2**	100.0
장애 유형	지체	0.0	0.0	0.1	0.0	0.3	0.0	0.1	98.3	100.0
	뇌병변	0.0	0.1	0.0	1.8	0.8	0.3	0.2	89.8	100.0
	시각	0.0	0.0	0.0	0.1	0.1	0.0	0.0	96.3	100.0
	청각/언어	0.0	0.0	0.0	0.0	0.6	0.2	0.2	97.2	100.0
	지적/자폐성	0.1	0.0	0.0	0.2	0.9	0.3	1.7	91.9	100.0
	정신	0.0	0.1	0.0	0.0	0.5	0.6	0.0	96.0	100.0
	내부/안면	0.0	0.2	0.0	0.0	0.2	0.0	0.1	94.4	100.0
장애 정도	중증	0.0	0.2	0.0	0.5	0.8	0.2	0.5	91.8	100.0
	경증	0.0	0.0	0.0	0.2	0.3	0.1	0.1	97.2	100.0

주 1) 1차 년도 조사 결과임.

4)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1순위)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1순위)을 살펴보면, 완전한 문장의 음성이 7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완전한 수준의 음성이 15.7%로 두 번째로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시각 장애,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완전한 문장의 음성을 응답한 비율은 92% 이상, 뇌병변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불완전한 수준의 음성을 선택한 경우가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에서 불완전한 문장의 음성을 선택한 비율이 25.5%로, 경증 장애의 10.0%에 비해 약 1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2-6〉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수어	필담	몸짓	음성 – 불완전한 수준	음성 – 완전한 문장	AAC (보완대체소통)	기타	없음	계
전 체		(251,277)	1.8	2.0	2.5	15.7	**76.9**	0.6	0.4	0.1	100.0
성별	남성	(142,540)	2.2	2.1	2.2	15.8	**77.0**	0.5	0.2	0.0	100.0
	여성	(108,737)	1.3	2.0	2.8	15.7	76.8	0.6	0.6	0.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	1.3	0.5	3.3	**92.7**	0.1	0.2	0.0	100.0
	뇌병변	(42,177)	1.4	1.8	7.5	**31.8**	54.6	1.0	1.3	0.6	100.0
	시각	(21,557)	1.4	1.9	0.5	2.7	**93.5**	0.1	0.0	0.0	100.0
	청각/언어	(73,818)	2.7	3.0	2.3	15.3	75.6	0.9	0.2	0.0	100.0
	지적/자폐성	(23,852)	0.6	1.2	3.4	**40.6**	53.5	0.5	0.2	0.0	100.0
	정신	(8,894)	1.9	2.0	0.8	23.2	71.9	0.3	0.0	0.0	100.0
	내부/안면	(31,447)	1.5	2.1	0.4	2.8	**93.0**	0.3	0.0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5	2.1	4.5	**25.5**	64.9	0.5	0.8	0.3	100.0
	경증	(158,661)	2.0	2.0	1.3	10.0	83.9	0.6	0.1	0.0	100.0

3. 장애수용 및 심리상태

1) 장애수용

(1)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가 '직업'에 미친 영향이 4.04점으로 타 항목에 비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외출/여가활동 및 건강(각 4.11점), 대인관계(4.17점), 생활방식(4.28점), 성격 등의 순이다.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남성은 직업에 대해 .98점으로 여성(4.11점) 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4.05점) 및 내부/안면 장애(3.57점)는 건강, 뇌병변(3.24점) 및 시각(4.24점) 장애의 경우는 외출/여가활동, 청각/언어(4.38점)의 경우 직업이 장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자폐성과 정신은 장애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큰 영역이 대인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각각 3.84점, 3.01점).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은 대인관계에서의 영향이 3.62점으로 경증의 4.50점과 차이를 보였다.

〈표 V-3-1〉 장애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

(단위 : 명, 점)

구 분		추정수	(1) 성격 및 가치관	(2) 생활방식	(3) 건강	(4) 교육/학업	(5) 직업	(6) 결혼/연애	(7) 대인관계	(8) 외출/여가활동
전 체		(251,277)	4.51	4.28	4.11	5.04	**4.04**	4.60	4.17	4.11
성별	남성	(142,540)	4.53	4.28	4.16	4.98	**3.98**	4.51	4.17	4.15
	여성	(108,737)	4.49	4.28	4.05	5.10	4.11	4.72	4.18	4.05
장애유형	지체	(49,532)	4.67	4.35	**4.05**	5.45	4.22	4.91	4.57	4.28
	뇌병변	(42,177)	3.95	3.56	3.25	4.56	3.36	3.95	3.45	**3.24**
	시각	(21,557)	4.78	4.53	4.45	5.08	4.25	4.85	4.47	**4.24**
	청각/언어	(73,818)	4.76	4.65	4.68	5.18	**4.38**	4.94	4.48	4.64
	지적/자폐성	(23,852)	4.51	4.39	4.57	4.47	4.40	4.27	**3.84**	4.06
	정신	(8,894)	3.64	3.58	3.70	4.36	3.18	3.22	**3.01**	3.43
	내부/안면	(31,447)	4.52	4.23	**3.57**	5.27	3.79	4.61	4.17	3.92
장애정도	중증	(92,616)	4.15	3.88	3.71	4.65	3.63	4.09	3.62	3.57
	경증	(158,661)	4.73	4.52	4.34	5.26	4.26	4.88	**4.50**	4.42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주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 결혼/연애는 만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2) 장애와 관련한 경험

‘(1) 나는 장애의 발생원인, 치료, 관리 등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그렇다다(③+④)’의 비율이 74.3%로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4) 나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그렇다(③+④) 비율은 30.7%로 가장 낮았다.

〈표 Ⅴ-3-2〉 장애와 관련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나는 장애의 발생원인, 치료, 관리 등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4.0	21.7	60.1	14.1	25.7	**74.3**	100.0
(2) 나는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11.7	43.4	39.8	5.1	55.1	44.9	100.0
(3) 나는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9.2	30.4	47.8	12.6	39.6	60.4	100.0
(4) 나는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17.7	51.6	27.8	2.9	69.3	**30.7**	100.0
(5) 나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1.3	43.7	38.7	6.3	55.0	45.0	100.0
(6) 나는 사회가 장애를 보는 관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4.0	36.4	53.2	6.5	40.3	59.7	100.0
(7) 나의 장애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7	33.9	48.7	8.7	42.6	57.4	100.0
(8) 나는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8.7	34.2	45.0	12.1	42.9	57.1	100.0
(9) 나의 종교적인 믿음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15.2	43.8	36.3	4.7	59.0	41.0	100.0
(10) 나는 장애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11.7	36.2	41.1	11.0	47.9	52.1	100.0
(11) 나는 장애로 인해 나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7.7	37.7	49.6	5.0	45.5	54.5	100.0
(12) 나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	4.4	28.7	59.5	7.4	33.1	66.9	100.0
(13) 나는 장애로 인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 애쓴다고 생각한다	6.1	37.0	52.5	4.4	43.1	56.9	100.0
(14) 나는 장애에 완전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한다	7.6	41.0	47.7	3.7	48.6	51.4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3) 장애수용

장애수용 정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6)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2.68점)'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 및 '(7) 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각각 2.07점으로 가장 낮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는 '(1)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한다'가 2.77점으로 가장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중증 장애는 경증 장애 보다 장애 수용도가 높게 나타난 한편, 중증 장애에서 '(1)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는 점수가 2.14점으로 경증 장애(2.61점)와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표 V-3-3〉 장애수용

(단위 : 명, 점)

구 분		추정수	(1) 나는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	(2) 나는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	(3) 나는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	(4) 나는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5)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에 만족한다	(6) 나는 장애보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 체		(251,277)	2.44	2.30	**2.07**	2.25	2.33	**2.68**
성별	남성	(142,540)	2.44	2.31	2.10	2.26	2.33	2.69
	여성	(108,737)	2.43	2.29	2.05	2.24	2.33	2.66
장애 유형	지체	(49,532)	**2.77**	2.27	2.10	2.24	2.38	2.72
	뇌병변	(42,177)	2.03	2.25	1.78	2.02	2.04	2.48
	시각	(21,557)	2.60	2.34	2.11	2.31	2.44	2.76
	청각/언어	(73,818)	2.52	2.33	2.23	2.35	2.47	2.76
	지적/자폐성	(23,852)	2.11	2.23	2.20	2.33	2.32	2.61
	정신	(8,894)	1.98	2.18	1.95	2.23	2.18	2.51
	내부/안면	(31,447)	2.52	2.44	1.99	2.26	2.27	2.74
장애 정도	중증	(92,616)	2.14	2.25	1.95	2.18	2.17	2.56
	경증	(158,661)	2.61	2.33	2.15	2.29	2.42	2.75

구 분		(7)장애는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8) 나는 장애를 숨기지 않는다	(9) 나는 나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산다	(10)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다	(11) 비록 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12) 나는 내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두렵다
전 체		**2.07**	2.68	2.21	2.19	2.25	2.53
성별	남성	2.07	2.70	2.21	2.21	2.26	2.56
	여성	2.06	2.65	2.21	2.17	2.22	2.48
장애 유형	지체	2.15	2.76	2.23	2.21	2.27	2.68
	뇌병변	1.85	2.73	1.94	1.92	1.89	2.35
	시각	2.12	2.63	2.36	2.35	2.40	2.55
	청각/언어	2.15	2.67	2.35	2.35	2.45	2.55
	지적/자폐성	2.20	2.59	2.20	2.16	2.16	2.53
	정신	1.93	2.43	2.05	2.04	2.08	2.36
	내부/안면	1.94	2.68	2.16	2.12	2.23	2.52
장애 정도	중증	1.96	2.65	2.06	2.04	2.06	2.43
	경증	2.13	2.70	2.30	2.29	2.35	2.58

주1)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주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1, 3, 7, 12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2) 심리상태

(1) 우울수준

우울수준[63]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가 2.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가 1.4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는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가 2.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장애는 '(2) 비교적 잘 지냈다'가 2.3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중증의 우울수준이 경증 보다 높고,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는 중증 장애에서 1.99점으로 경증(1.69점)과 차이를 보였다.

〈표 Ⅴ-3-4〉 우울수준(항목별)

(단위 : 명, 점)

구 분		추정수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쳐서 자지 못했다
전 체		(251,277)	1.68	2.19	1.70	1.94	1.81
성별	남성	(142,540)	1.65	2.20	1.66	1.90	1.75
	여성	(108,737)	1.71	2.17	1.76	2.00	1.89
장애 유형	지체	(49,532)	1.61	2.15	1.61	1.91	1.86
	뇌병변	(42,177)	1.94	**2.36**	1.94	2.23	1.96
	시각	(21,557)	1.61	2.14	1.62	1.85	1.82
	청각/언어	(73,818)	1.54	2.07	1.60	1.79	1.71
	지적/자폐성	(23,852)	1.55	2.13	1.59	1.77	1.53
	정신	(8,894)	1.81	2.30	2.15	2.24	1.95
	내부/안면	(31,447)	1.84	2.33	1.78	2.09	1.94
장애 정도	중증	(92,616)	1.80	2.29	1.84	2.07	1.84
	경증	(158,661)	1.60	2.13	1.62	1.87	1.79

구 분		(6)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그냥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전 체		1.75	**2.41**	1.52	1.64	**1.49**	1.80
성별	남성	1.73	2.39	1.50	1.61	1.48	1.77
	여성	1.78	2.44	1.54	1.68	1.52	1.83
장애 유형	지체	1.68	2.31	1.38	1.56	1.35	1.73
	뇌병변	1.98	2.59	1.67	1.87	1.68	2.14
	시각	1.69	2.37	1.44	1.55	1.36	1.69
	청각/언어	1.64	2.32	1.49	1.56	1.46	1.63
	지적/자폐성	1.62	2.33	1.55	1.52	1.55	1.72
	정신	2.08	**2.66**	1.89	2.03	1.95	2.16
	내부/안면	1.85	2.58	1.52	1.69	1.48	1.88
장애 정도	중증	1.88	2.53	1.62	1.76	1.63	**1.99**
	경증	1.67	2.34	1.45	1.57	1.42	1.69

주1) 4점 척도(①극히 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로 점수화함
주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2, 7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63) 한 개인의 지난 1주일간의 심리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세부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가 2.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 정도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 대비 높은 편이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와 시각장애는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이 3.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에 대한 차이가 중증(2.31점)과 경증(2.61점) 나타났다.

〈표 V-3-5〉 자아존중감

(단위 : 명, 점)

구 분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 체		2.81	2.90	2.76	**2.50**	2.77
성별	남성	2.82	2.91	2.75	2.53	2.78
	여성	2.79	2.89	2.78	2.46	2.76
장애 유형	지체	2.91	2.95	2.87	2.54	2.83
	뇌병변	2.61	2.80	2.49	2.14	2.53
	시각	2.83	2.93	2.82	2.70	2.81
	청각/언어	2.91	**2.98**	2.91	2.69	2.90
	지적/자폐성	2.66	2.74	2.77	2.38	2.65
	정신	2.51	2.63	2.39	2.24	2.52
	내부/안면	2.85	2.93	2.68	2.51	2.81
장애 정도	중증	2.67	2.79	2.61	2.31	2.63
	경증	2.89	2.96	2.85	**2.61**	2.85

구 분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 체		2.52	2.53	2.75	2.90	**3.05**
성별	남성	2.54	2.53	2.75	2.90	3.04
	여성	2.51	2.52	2.74	2.89	3.06
장애 유형	지체	2.61	2.59	2.72	2.98	**3.13**
	뇌병변	2.40	2.26	2.73	2.64	2.98
	시각	2.54	2.61	2.75	2.98	**3.13**
	청각/언어	2.60	2.66	2.80	3.02	3.07
	지적/자폐성	2.50	2.45	2.71	2.82	2.99
	정신	2.25	2.25	2.79	2.62	2.88
	내부/안면	2.46	2.53	2.73	2.88	3.03
장애 정도	중증	2.43	2.36	2.72	2.76	2.98
	경증	2.58	2.62	2.77	2.98	3.09

주1)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항상 그렇다)로 점수화함
주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3, 6, 9, 10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3) 자살관련

지난조사 이후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7.9%), 지체 장애(7.4%), 내부/안면 장애(7.2%)에서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3-6〉 지난조사 이후 자살 생각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33,881)	6.3	93.7	100.0
성별	남성	(131,569)	6.3	93.7	100.0
	여성	(102,313)	6.3	93.7	100.0
장애 유형	지체	(48,403)	7.4	92.6	100.0
	뇌병변	(39,233)	6.2	93.8	100.0
	시각	(20,674)	6.9	93.1	100.0
	청각/언어	(68,270)	5.4	94.6	100.0
	지적/자폐성	(17,378)	3.5	96.5	100.0
	정신	(8,894)	7.9	92.1	100.0
	내부/안면	(31,029)	7.2	92.8	100.0
장애 정도	중증	(82,287)	6.3	93.7	100.0
	경증	(151,594)	6.3	93.7	100.0

주1) 지난조사 이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응답 결과임. 만 12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자살생각 이유(1순위)는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가 6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이 14.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66.8%, 남성의 65.3%가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비율이 76.6%, 지적/자폐성 장애와 시각 장애의 경우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적/자폐성의 46.3%는 '외로움, 고독'에서 크게 나타났다.

자살충동시의 대처 행동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혼자서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87.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했다'가 0.3%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혼자서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90.1%로 여성(83.2%) 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가족과 이야기했다'가 9.2%로 남성(4.5%)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에서 '혼자서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94.0%로 가장 높았고, 지적/자폐성 장애(27.9%) 및 정신 장애(26.7%)의 경우 '가족과 이야기 했다'는 응답 비율이 25%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신장애는 '병원에 상담을 요청했다'가 12.4%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높았다.

〈표 V-3-7〉 자살 생각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육체/정신 건강문제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	괴롭힘, 학대, 폭력	남녀관계 및 결혼문제	
전 체		(14,706)	**65.9**	14.7	0.1	0.8	
성별	남성	(8,254)	65.3	15.5	0.0	0.0	
	여성	(6,452)	**66.8**	13.7	0.2	1.8	
장애 유형	지체	(3,595)	75.9	8.7	0.0	0.0	
	뇌병변	(2,444)	75.5	9.5	0.0	1.4	
	시각	(1,418)	59.4	**21.6**	0.0	0.0	
	청각/언어	(3,705)	53.7	18.6	0.0	2.2	
	지적/자폐성	(609)	22.6	**29.1**	2.0	0.0	
	정신	(705)	63.6	13.4	0.0	0.0	
	내부/안면	(2,229)	**76.6**	15.7	0.0	0.0	
장애 정도	중증	(5,196)	70.3	13.2	0.2	0.7	
	경증	(9,510)	63.6	15.5	0.0	0.9	

구 분		가족 양육, 수발, 돌봄 부담	외로움, 고독	배우자, 가족, 지인의 사망	직장, 직업 문제	기타	계
전 체		2.2	10.3	1.0	3.0	2.0	100.0
성별	남성	0.0	10.5	1.7	5.3	1.8	100.0
	여성	5.0	10.0	0.2	0.0	2.3	100.0
장애 유형	지체	0.0	12.2	0.3	0.0	3.0	100.0
	뇌병변	6.9	6.3	0.0	0.0	0.3	100.0
	시각	0.0	16.4	0.0	0.0	2.7	100.0
	청각/언어	2.7	6.1	2.2	11.1	3.4	100.0
	지적/자폐성	0.0	**46.3**	0.0	0.0	0.0	100.0
	정신	0.0	16.4	0.0	3.7	2.9	100.0
	내부/안면	2.5	2.7	2.5	0.0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1.1	9.9	1.0	1.0	2.6	100.0
	경증	2.8	10.5	1.0	4.0	1.7	100.0

주1) 지난조사 이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V-3-8〉 자살 충동 행동(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혼자서 생각했다	가족과 이야기했다	친구, 이웃과 이야기했다	병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회복지 시설에 도움을 구했다	종교기관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했다	계
전 체		(14,706)	**87.1**	6.5	3.4	2.1	0.6	0.3	100.0
성별	남성	(8,254)	**90.1**	4.5	3.0	1.8	0.0	0.6	100.0
	여성	(6,452)	83.2	**9.2**	3.8	2.3	1.4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3,595)	89.1	5.5	4.1	0.0	1.2	0.0	100.0
	뇌병변	(2,444)	86.3	4.5	3.8	4.2	1.2	0.0	100.0
	시각	(1,418)	85.2	4.8	1.2	5.5	0.0	3.3	100.0
	청각/언어	(3,705)	89.8	4.0	5.0	0.6	0.6	0.0	100.0
	지적/자폐성	(609)	70.1	**27.9**	0.0	2.0	0.0	0.0	100.0
	정신	(705)	60.9	**26.7**	0.0	**12.4**	0.0	0.0	100.0
	내부/안면	(2,229)	**94.0**	3.5	2.5	0.0	0.0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5,196)	83.7	11.0	2.3	2.9	0.0	0.0	100.0
	경증	(9,510)	**88.9**	4.1	4.0	1.6	1.0	0.5	100.0

주1) 지난조사 이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8.7%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률은 9.3%로 남성(8.1%)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은 자살 시도 경험이 22.8%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횟수를 살펴보면,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3-9〉 자살 시도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4,706)	8.7	91.3	100.0
성별	남성	(8,254)	8.1	91.9	100.0
	여성	(6,452)	9.3	90.7	100.0
장애 유형	지체	(3,595)	1.1	98.9	100.0
	뇌병변	(2,444)	8.6	91.4	100.0
	시각	(1,418)	4.9	95.1	100.0
	청각/언어	(3,705)	14.4	85.6	100.0
	지적/자폐성	(609)	22.8	77.2	100.0
	정신	(705)	15.3	84.7	100.0
	내부/안면	(2,229)	7.8	92.2	100.0
장애 정도	중증	(5,196)	8.5	91.5	100.0
	경증	(9,510)	8.7	91.3	100.0

주1) 지난조사이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Ⅴ-3-10〉 자살 시도 횟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전 체		(1,272)	72.5	9.5	15.1	2.9	100.0
성별	남성	(671)	93.9	6.1	0.0	0.0	100.0
	여성	(601)	48.6	13.3	32.0	6.1	100.0

주1) 지난조사이후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사회관계

(1) 의사결정 주체(1순위)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의사결정 주체로 나 자신이 50% 이상 이며, 다음으로 배우자(27.3%), 부모(15.0%) 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나 자신' 또는 '부모', 여성은 '배우자'와 '성인 자녀'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69.4%) 및 내부/안면 장애(64.7%)는 의사결정 주체로 '나 자신'을 선택한 비율이 64% 이상, 지적/자폐성 장애는 '부모'를 선택한 비율이 58.9%, 뇌병변 장애는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42.4%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나 자신을 의사결정 주체로 응답한 비율은 59.7%로 중증 장애는 36.2%로 23.5%p로 차이(12.7%p)가 가장 큰 항목으로 나타났다.

〈표 V-3-11〉 의사결정 주체(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나 자신	배우자	부모	성인자녀(자녀의 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가족 모두 회의를 통해	친인척	후견인	기타	계
전 체		(251,277)	**51.0**	27.3	15.0	3.8	1.9	0.5	0.2	0.1	0.0	100.0
성별	남성	(142,540)	**51.9**	26.4	**17.0**	1.5	2.4	0.3	0.2	0.2	0.0	100.0
	여성	(108,737)	50.0	**28.6**	12.4	**6.8**	1.2	0.7	0.3	0.0	0.1	100.0
장애유형	지체	(49,532)	59.8	30.0	6.6	2.5	1.0	0.1	0.1	0.0	0.0	100.0
	뇌병변	(42,177)	33.2	**42.4**	14.5	7.0	2.0	0.1	0.4	0.1	0.1	100.0
	시각	(21,557)	**69.4**	16.7	9.1	3.8	0.4	0.1	0.1	0.4	0.0	100.0
	청각/언어	(73,818)	57.1	26.8	10.6	4.0	0.5	0.9	0.0	0.0	0.0	100.0
	지적/자폐성	(23,852)	14.9	13.9	**58.9**	2.2	8.0	1.0	0.7	0.0	0.3	100.0
	정신	(8,894)	41.1	12.6	32.1	3.5	10.0	0.0	0.7	0.0	0.0	100.0
	내부/안면	(31,447)	**64.7**	26.0	5.3	2.6	0.5	0.5	0.3	0.3	0.0	100.0
장애정도	중증	(92,616)	36.2	26.9	**26.8**	4.7	4.2	0.4	0.6	0.2	0.1	100.0
	경증	(158,661)	**59.7**	27.6	8.2	3.3	0.6	0.5	0.0	0.1	0.0	100.0

(2)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5) 나는 형제/자매/친척과 관계가 좋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4) 나는 자녀와 관계가 좋다'(65.7%), '(3)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49.8%), '(1)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48.1%)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편,'(2) 나는 처가/시댁과 관계가 좋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은 37.1%로 가장 낮았다.

〈표 Ⅴ-3-12〉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해당 없음	계
(1)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	(251,277)	0.5	3.4	29.1	18.9	3.9	48.1	48.0	100.0
(2) 나는 처가/시댁과 관계가 좋다	(251,277)	0.7	4.3	28.3	8.8	5.0	**37.1**	57.9	100.0
(3)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	(251,277)	0.7	3.4	33.8	16.1	4.1	49.8	46.1	100.0
(4) 나는 자녀와 관계가 좋다	(251,277)	1.4	4.7	43.1	22.5	6.1	65.7	28.3	100.0
(5) 나는 형제/자매/친척과 관계가 좋다	(251,277)	1.7	12.2	60.1	22.2	14.0	**82.3**	3.8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미성년자 또는 미혼인 경우 (2)번, (3)번, (4)번 문항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함
주3)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없는 경우 (1)번, (5)번 문항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함

가족관계에 대한 세부항목별 견해를 살펴보면, '(6)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8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2) 우리가족만의 전통이 있다(가훈, 가치관, 규칙 등)'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은 71.0%로 가장 낮았다.

〈표 Ⅴ-3-13〉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해당 없음	계
(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251,277)	1.2	7.4	39.6	42.9	8.5	82.5	9.0	100.0
(2)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다	(251,277)	1.6	7.3	39.1	43.0	8.9	82.1	9.0	100.0
(3) 우리가족은 화목하다	(251,277)	1.4	9.5	38.4	41.7	10.9	80.1	9.0	100.0
(4) 우리가족은 서로를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산다	(251,277)	1.8	11.1	39.2	38.9	12.9	78.1	9.0	100.0
(5) 우리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251,277)	1.7	12.0	42.7	34.6	13.7	77.3	9.0	100.0
(6)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251,277)	1.4	7.1	38.7	43.9	8.5	82.6	9.0	100.0
(7) 우리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251,277)	1.2	7.5	38.2	44.1	8.7	82.4	9.0	100.0
(8) 우리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	(251,277)	1.6	10.8	40.1	38.5	12.4	78.6	9.0	100.0
(9)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 발생시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251,277)	1.6	7.2	39.9	42.3	8.8	82.2	9.0	100.0
(10) 우리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251,277)	1.8	8.3	41.9	38.9	10.2	80.8	9.0	100.0

구 분	추정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해당 없음	계
(11) 우리가족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가족원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251,277)	1.6	9.6	40.6	39.2	11.2	79.8	9.0	100.0
(12) 우리가족만의 전통이 있다(가훈, 가치관, 규칙 등)	(251,277)	3.9	16.2	41.9	29.1	20.0	71.0	9.0	100.0
(13) 우리가족은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251,277)	1.5	8.2	39.6	41.7	9.7	81.3	9.0	100.0
(14)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인다	(251,277)	1.4	8.6	39.9	41.2	10.0	81.0	9.0	100.0
(15) 우리가족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251,277)	1.5	9.6	40.5	39.5	11.0	80.0	9.0	100.0
(16) 우리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251,277)	2.4	13.6	41.5	33.6	16.0	75.0	9.0	100.0
(17) 우리가족 간의 의견차는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다	(251,277)	2.5	12.3	42.3	33.9	14.8	76.2	9.0	100.0
(1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251,277)	1.4	9.2	40.7	39.8	10.5	80.5	9.0	100.0
(19) 우리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251,277)	1.2	9.2	40.5	40.1	10.4	80.6	9.0	100.0
(20) 우리가족은 규칙이나 가치관을 가족과 함께 만든다	(251,277)	2.0	11.8	41.5	35.7	13.8	77.2	9.0	100.0

주1)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3) 가족과의 갈등

지난조사 이후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8%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15.8%, 뇌병변장애는 10.8%, 지적/자폐성장애의 10.1%에서 가족과의 갈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과의 갈등 유형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 상태 악화, 장애 치료 등 장애 문제'가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생활비 문제(19.1%), 가족간 경제적 도움 요구(13.0%)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9.3%, 여성의 29.2%가 '장애상태 악화, 장애치료 등 장애문제'를 선택하였으며, 약 10%p의 차이를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에서 '장애상태 악화, 장애치료 등 장애문제'를 가족과의 갈등 유형으로 선택한 비율이 56.8%로 타 장애 유형 보다 높았고, 지체 장애와 시각 장애에서 '가족간 경제적 도움 요구'를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 청각/언어 장애에서 '생활비 문제'를 응답한 비율이 24.5%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가족과의 갈등 유형으로 '장애 문제'를 선택한 비율이 49.1%로 경증장애와 차이가 큰 항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27.0%).

〈표 Ⅴ-3-14〉 가족과의 갈등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9.8	90.2	100.0
성별	남성	(142,540)	9.8	90.2	100.0
	여성	(108,737)	9.8	90.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0.1**	89.9	100.0
	뇌병변	(42,177)	**10.8**	89.2	100.0
	시각	(21,557)	9.1	90.9	100.0
	청각/언어	(73,818)	9.7	90.3	100.0
	지적/자폐성	(23,852)	8.9	91.1	100.0
	정신	(8,894)	**15.8**	84.2	100.0
	내부/안면	(31,447)	7.6	92.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9.5	90.5	100.0
	경증	(158,661)	**9.9**	90.1	100.0

〈표 Ⅴ-3-15〉 가족과의 갈등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상태 악화, 장애치료 등 장애문제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	자녀와의 동거문제	생활비 문제	가족간 경제적 도움 요구	가족의 돌봄 문제	가족 이외 주변사람 혹은 친구문제	진로 및 결혼 문제	기타	계
전 체		(24,585)	**34.9**	6.6	4.3	19.1	13.0	6.5	2.9	3.6	9.1	100.0
성별	남성	(13,960)	**39.3**	7.7	0.7	17.9	14.5	6.6	3.8	3.7	5.8	100.0
	여성	(10,625)	29.2	5.1	9.0	**20.7**	11.0	6.3	1.7	3.5	13.4	100.0
장애 유형	지체	(4,981)	37.7	7.0	2.1	18.3	**25.4**	3.6	1.8	3.7	0.5	100.0
	뇌병변	(4,562)	56.3	4.7	1.3	15.0	3.7	11.2	2.1	2.4	3.3	100.0
	시각	(1,964)	15.7	1.9	5.4	15.7	**21.2**	4.8	8.4	12.9	14.0	100.0
	청각/언어	(7,150)	17.2	7.0	8.6	**24.5**	13.1	7.5	2.3	1.6	18.2	100.0
	지적/자폐성	(2,125)	52.9	4.5	2.7	13.5	2.9	5.9	5.8	5.1	6.7	100.0
	정신	(1,406)	56.8	6.5	0.0	18.8	4.6	1.3	0.0	0.0	12.0	100.0
	내부/안면	(2,397)	28.8	13.6	4.8	20.5	11.9	5.4	2.7	5.3	7.0	100.0
장애 정도	중증	(8,804)	**49.1**	4.1	2.3	16.9	7.0	9.4	2.8	2.5	6.0	100.0
	경증	(15,781)	27.0	7.9	5.4	20.4	16.4	4.9	2.9	4.2	10.8	100.0

주1) 가족과의 갈등 경험에 '예'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가까이 지내는 친구 · 이웃 · 지인

가까이 지내는 친구·이웃·지인 수를 살펴보면, 없음이 29.9%로 나타났다. '1~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까이 지내는 친구·이웃·지인이 '1~2명'이라는 응답은 37.7%로 남성(3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에서 '1~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로 가장 높았고,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이 '없다' 응답은 정신 장애에서 56.6%로 다소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이'없는'비율이 42.1%로 경증 장애(22.7%)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3-16〉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없음	1~2명	3~4명	5~6명	7명 이상	계
전 체		(251,277)	29.9	**35.4**	19.6	10.9	4.2	100.0
성별	남성	(142,540)	30.5	33.7	19.0	11.7	5.2	100.0
	여성	(108,737)	29.1	**37.7**	20.5	10.0	2.8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1.6	32.4	23.6	15.2	7.2	100.0
	뇌병변	(42,177)	45.3	32.9	12.8	6.7	2.3	100.0
	시각	(21,557)	21.6	**42.2**	20.9	10.1	5.3	100.0
	청각/언어	(73,818)	22.8	38.4	22.9	12.7	3.2	100.0
	지적/자폐성	(23,852)	50.6	31.9	10.9	4.6	2.0	100.0
	정신	(8,894)	**56.6**	31.4	7.8	1.1	3.1	100.0
	내부/안면	(31,447)	21.0	35.5	23.9	13.9	5.7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2.1	33.3	14.1	7.4	3.2	100.0
	경증	(158,661)	22.7	36.6	22.9	13.0	4.8	100.0

가까이 지내는 친구·이웃·지인과의 만남 빈도를 살펴보면, '1개월에 1~2회 정도'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주에 1~2회 정도(28.1%), 3개월 1~2회 정도(14.0%), 거의 매일(13.3%), 1년에 1~2회 정도(5.5%) 등의 순이다. 남성의 경우, '1개월에 1~2회 정도'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여성(35.6%)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1주에 1~2회 정도'만나는 비율은 여성(31.1%)이 남성(25.7%) 대비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만남 빈도가 '1개월에 1-2회 정도'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는 '거의 매일'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7%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1년에 1~2회 정도' 만난다고 응답한 비율이 8.2%로 경증 장애의 4.4% 보다 높은 반면, '거의 매일'만나는 비율에 대해서 경증 장애(14.4%)가 중증 장애(10.9%) 보다 높다.

〈표 Ⅴ-3-17〉 만남 빈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년에 1~2회 정도	3개월 1~2회 정도	1개월 1~2회 정도	1주에 1~2회 정도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계
전 체		(176,235)	5.5	14.0	**39.1**	28.1	13.3	100.0
성별	남성	(99,118)	5.8	15.2	**41.8**	25.7	11.4	100.0
	여성	(77,117)	5.2	12.4	35.6	**31.1**	15.8	100.0
장애 유형	지체	(38,829)	6.6	10.7	37.0	30.0	15.7	100.0
	뇌병변	(23,068)	9.3	18.0	39.2	23.7	9.9	100.0
	시각	(16,901)	3.8	14.9	37.6	29.0	14.7	100.0
	청각/언어	(56,960)	3.2	15.2	40.5	27.6	13.5	100.0
	지적/자폐성	(11,778)	5.3	8.7	32.1	31.2	**22.7**	100.0
	정신	(3,860)	10.3	15.9	37.1	30.2	6.5	100.0
	내부/안면	(24,840)	6.4	14.0	**43.7**	27.8	8.1	100.0
장애 정도	중증	(53,668)	8.2	14.9	39.1	26.9	10.9	100.0
	경증	(122,568)	4.4	13.6	39.1	28.6	14.4	100.0

주1) 가까이 지내는 친구, 이웃, 지인 수에 '1명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정서적 도움 및 지지 정도를 살펴보면, '(1)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은 40.5%로 낮은 편이다.

〈표 Ⅴ-3-18〉 정서적 도움 및 지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해당 없음	계
(1) 나는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251,277)	2.0	9.2	50.0	32.2	11.2	**82.1**	6.7	100.0
(2) 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251,277)	5.0	21.8	54.2	18.0	26.8	72.2	1.0	100.0
(3) 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받고 있다	(251,277)	19.1	23.1	31.0	9.5	42.2	**40.5**	17.3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어려움이 있을 때 주로 의논하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15.1%로 두 번째로 높다.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로 응답한 비율이 44.7%로 여성(3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어려움 상담 상대에 대해 살펴보면, 지체 장애 및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배우자', 지적/자폐성 장애와 정신 장애는 '부모님'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에서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경증 장애(47.3%) 보다 낮았던 반면, 장애 정도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부모님'으로 중증(26.3%)이 경증은 8.6%로 나타났다.

〈표 V-3-19〉 어려움 상담 상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없음	배우자	부모님	전문 상담사/의료진	주변 친구/지인	형제, 자매
전 체		(251,277)	13.1	**42.4**	15.1	0.9	9.9	5.6
성별	남성	(142,540)	15.3	**44.7**	16.3	0.9	9.8	5.3
	여성	(108,737)	10.3	39.3	13.4	0.9	10.1	5.9
장애 유형	지체	(49,532)	11.1	**49.9**	7.0	0.8	11.8	3.6
	뇌병변	(42,177)	12.3	**44.7**	14.8	1.6	5.5	5.7
	시각	(21,557)	16.8	**39.4**	9.5	0.5	14.1	5.3
	청각/언어	(73,818)	14.8	**46.8**	10.3	0.5	10.1	4.2
	지적/자폐성	(23,852)	7.4	15.5	**53.8**	0.7	6.1	11.1
	정신	(8,894)	16.4	12.8	**34.2**	3.2	6.9	17.3
	내부/안면	(31,447)	14.3	**47.7**	8.8	0.9	13.4	4.5
장애 정도	중증	(92,616)	11.7	34.0	**26.3**	1.5	7.5	7.9
	경증	(158,661)	13.9	**47.3**	8.6	0.5	11.3	4.3

구 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터넷 모임/카페	자녀	기타	없음	계
전 체		1.4	0.2	11.0	0.3	0.1	100.0
성별	남성	1.8	0.2	5.2	0.2	0.0	100.0
	여성	0.9	0.1	18.6	0.4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1.0	0.0	14.1	0.7	0.0	100.0
	뇌병변	2.0	0.2	12.7	0.2	0.3	100.0
	시각	1.6	0.0	12.6	0.2	0.0	100.0
	청각/언어	1.1	0.2	11.9	0.1	0.0	100.0
	지적/자폐성	1.7	0.7	2.6	0.5	0.0	100.0
	정신	3.2	0.0	5.9	0.0	0.0	100.0
	내부/안면	1.3	0.0	8.8	0.3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1.8	0.3	8.4	0.4	0.1	100.0
	경증	1.2	0.1	12.6	0.3	0.0	100.0

(6) SNS

주로 사용하는 SNS(1순위 기준)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카카오스토리(5.8%), 밴드(4.0%), 페이스북(3.7%) 순 이었다. 여성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SNS가 '없는'비율이 86.8%로 남성(82.9%)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90.8%) 및 정신 장애(90.5%)에서 주로 사용하는 SNS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외로, 내부/안면 장애(9.3%)는 '카카오 스토리', 시각 장애(6.7%)는 '밴드', 지적/자폐성 장애는 페이스북(6.9%)을 사용하는 비율이 타 장애 유형보다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주로 사용하는 SNS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6.8%로 경증 장애(83.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3-20〉 주로 사용하는 SNS(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없음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인스타그램	밴드	기타	없음
전 체		(251,277)	**84.6**	3.7	5.8	0.2	1.6	4.0	0.0	0.0
성별	남성	(142,540)	82.9	4.0	6.0	0.2	1.9	5.1	0.0	0.0
	여성	(108,737)	**86.8**	3.4	5.6	0.2	1.3	2.6	0.0	0.0
장애유형	지체	(49,532)	81.9	3.3	7.8	0.3	2.4	4.3	0.0	0.0
	뇌병변	(42,177)	**90.8**	2.3	3.9	0.1	0.9	1.8	0.1	0.1
	시각	(21,557)	81.9	2.8	5.6	0.1	2.9	**6.7**	0.0	0.0
	청각/언어	(73,818)	84.8	3.5	5.4	0.3	1.0	5.1	0.0	0.0
	지적/자폐성	(23,852)	86.7	**6.9**	2.8	0.3	2.8	0.4	0.0	0.0
	정신	(8,894)	**90.5**	3.7	3.6	0.2	1.3	0.4	0.2	0.2
	내부/안면	(31,447)	78.7	5.2	**9.3**	0.1	1.2	5.5	0.0	0.0
장애정도	중증	(92,616)	**86.8**	4.2	5.0	0.1	1.6	2.2	0.0	0.0
	경증	(158,661)	83.3	3.5	6.3	0.3	1.6	5.0	0.0	0.0

주로 사용하는 SNS가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SNS 접속시간을 살펴보면, '10분'이 30.7%로 가장 높았고, 70분 이상이 6.6%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SNS 접속시간이 10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여성(2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 및 시각, 정신, 내부/안면 장애에서 '10분'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와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30분',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40~60분'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는 '30분 이하', 중증 장애는 '40분 이상'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3-21〉 SNS 접속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분	20분	30분	40~60분	70분 이상	계
전 체		(38,680)	**30.7**	19.0	27.5	16.2	6.6	100.0
성별	남성	(24,344)	**33.3**	18.0	26.3	16.3	6.1	100.0
	여성	(14,336)	26.2	20.8	29.4	16.0	7.6	100.0
장애 유형	지체	(8,958)	**34.2**	17.7	24.9	18.6	4.7	100.0
	뇌병변	(3,874)	20.7	18.0	**30.8**	19.0	11.6	100.0
	시각	(3,895)	**36.0**	12.5	23.7	20.4	7.4	100.0
	청각/언어	(11,243)	31.3	20.2	**33.2**	10.5	4.7	100.0
	지적/자폐성	(3,167)	21.4	19.4	18.2	**27.5**	13.5	100.0
	정신	(849)	**30.9**	25.6	19.4	19.9	4.3	100.0
	내부/안면	(6,694)	**32.1**	22.1	26.9	12.7	6.3	100.0
장애 정도	중증	(12,212)	29.2	16.1	24.9	**19.4**	**10.4**	100.0
	경증	(26,468)	**31.4**	**20.4**	**28.6**	14.7	4.9	100.0

주1) 주로 사용하는 SNS가 1개 이상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물음

SNS 사용 이유로는 '사람들과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가 39.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하여'가 30.9%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사람들과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41.5%로 여성(3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사람들과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이 40%이상, 시각 장애의 경우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하여'라고 응답한 비율은 41.2%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와 '호기심 또는 새로운 재미, 즐거움을 위하여'를 선택한 비율이, 경증 장애의 경우'사람들과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및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하여'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SNS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6)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8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9) 나는 전반적으로 SNS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가 83.0%, '(7)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가 80.3%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3) 나는 SNS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자신이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62.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3-22〉 SNS 사용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에 대한 편견 없이 친구를 사귈 수 있어서	사람들과 지식,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하여	호기심 또는 새로운 재미, 즐거움을 위하여	사업이나 업무, 학업 등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기타	계
전 체		(38,680)	8.1	39.5	30.9	7.5	2.8	4.3	6.3	0.6	100.0
성별	남성	(24,344)	7.0	**41.5**	31.0	5.4	3.5	3.4	7.4	0.7	100.0
	여성	(14,336)	9.8	36.0	30.7	11.1	1.7	5.7	4.6	0.4	100.0
장애 유형	지체	(8,958)	5.7	**45.4**	30.6	5.4	3.9	1.4	6.7	1.0	100.0
	뇌병변	(3,874)	11.9	37.2	21.5	7.2	5.6	5.0	8.2	3.4	100.0
	시각	(3,895)	6.1	31.9	**41.2**	5.6	7.8	3.3	4.2	0.0	100.0
	청각/언어	(11,243)	5.7	**43.1**	34.6	4.5	1.1	7.3	3.7	0.0	100.0
	지적/자폐성	(3,167)	16.3	26.7	23.7	16.3	0.5	4.4	12.0	0.0	100.0
	정신	(849)	19.1	23.8	**30.8**	14.6	0.0	0.0	11.7	0.0	100.0
	내부/안면	(6,694)	8.9	39.3	28.0	11.7	1.4	3.7	7.0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12,212)	**12.7**	34.4	25.6	**11.4**	1.6	3.5	9.9	0.9	100.0
	경증	(26,468)	6.0	**41.8**	**33.4**	5.7	3.4	4.6	4.7	0.4	100.0

주1) 주로 사용하는 SNS가 1개 이상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Ⅴ-3-23〉 SNS 관련 평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 혀 그 렇 지 않다	② 그 렇 지 않은 편이다	③ 그 런 편이다	④ 항 상 그런 편 이다	① + ②	③ + ④	계
(1) 나는 SNS 활동에 자신이 있다	(38,680)	1.6	33.2	55.9	9.4	34.8	65.2	100.0
(2) 나는 SNS 기능을 활용하는데 자신이 있다	(38,680)	2.3	34.6	51.0	12.1	36.9	63.1	100.0
(3) 나는 SNS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자신이 있다	(38,680)	2.8	34.6	51.3	11.3	37.4	**62.6**	100.0
(4) 나는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데 자신이 있다	(38,680)	2.5	21.9	65.4	10.2	24.4	75.6	100.0
(5) SNS는 나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이다	(38,680)	2.0	21.2	63.5	13.2	23.3	76.7	100.0
(6)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38,680)	1.0	13.9	70.2	14.8	15.0	**85.0**	100.0
(7) SNS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38,680)	1.2	18.5	68.8	11.5	19.7	**80.3**	100.0
(8) SNS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38,680)	1.8	20.3	65.9	12.1	22.0	78.0	100.0
(9) 나는 전반적으로 SNS가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38,680)	1.0	16.0	72.1	10.9	17.0	**83.0**	100.0

주1) 주로 사용하는 SNS가 1개 이상 있는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건강 · 의료

1) 건강

(1) 건강상태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49.9%는 좋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56.6%는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③+④)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47.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에서는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던 반면, 뇌병변 장애(36.5%) 및 내부/안면(34.8%)의 긍정 비율은 30%대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45.1%로 경증(52.7%) 보다 낮았다.

〈표 V-4-1〉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4.8	45.3	48.2	1.7	50.1	**49.9**	100.0
성별	남성	(142,540)	4.4	43.9	50.1	1.5	48.4	**51.6**	100.0
	여성	(108,737)	5.3	47.0	45.7	2.0	52.4	47.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5.9	46.4	46.8	0.9	52.3	47.7	100.0
	뇌병변	(42,177)	8.9	54.5	36.2	0.3	63.5	**36.5**	100.0
	시각	(21,557)	3.5	40.7	54.4	1.4	44.2	55.8	100.0
	청각/언어	(73,818)	2.2	40.6	54.8	2.4	42.8	57.2	100.0
	지적/자폐성	(23,852)	2.3	27.0	65.2	5.5	29.3	**70.7**	100.0
	정신	(8,894)	5.1	46.7	47.6	0.6	51.8	48.2	100.0
	내부/안면	(31,447)	6.6	58.5	34.1	0.7	65.2	**34.8**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7.1	47.8	43.3	1.9	54.9	45.1	100.0
	경증	(158,661)	3.5	43.8	51.1	1.6	47.3	**52.7**	100.0

전년 대비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해진 편이라는 긍정 응답(④+⑤) 비율은 9.1%로 나타났다. 여성의 긍정 응답(④+⑤) 비율은 9.3%로 남성은 8.9%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 및 뇌병변 장애에서 긍정 응답(④+⑤) 비율이 각각 11.8%, 11.4%이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긍정 응답(④+⑤) 비율이 10.1%로 경증(8.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2〉 전년 대비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안좋아 졌다	② 조금 안좋아 졌다	③ 비슷 하다	④ 조금 건강해 졌다	⑤ 매우 건강해 졌다	①+②	③	④+⑤	계
전 체		(251,277)	3.1	22.0	65.8	8.4	0.7	25.1	65.8	**9.1**	100.0
성별	남성	(142,540)	2.7	21.3	67.1	8.2	0.8	24.0	67.1	8.9	100.0
	여성	(108,737)	3.5	23.0	64.2	8.6	0.7	26.5	64.2	**9.3**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3.1	28.3	59.4	8.4	0.7	31.5	59.4	9.1	100.0
	뇌병변	(42,177)	4.5	22.3	61.8	11.1	0.3	26.9	61.8	**11.4**	100.0
	시각	(21,557)	4.3	25.6	63.1	6.5	0.5	29.9	63.1	7.0	100.0
	청각/언어	(73,818)	2.0	18.2	72.3	6.8	0.6	20.2	72.3	7.4	100.0
	지적/자폐성	(23,852)	0.8	13.5	73.9	9.6	2.2	14.2	73.9	**11.8**	100.0
	정신	(8,894)	1.3	18.6	73.0	6.6	0.5	19.9	73.0	7.1	100.0
	내부/안면	(31,447)	4.8	25.6	59.9	9.1	0.6	30.4	59.9	9.7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3.8	20.6	65.5	9.1	1.0	24.4	65.5	10.1	100.0
	경증	(158,661)	2.6	22.9	66.0	7.9	0.6	25.5	66.0	8.5	100.0

주1) '매우 안좋아 졌다' 부터 '매우 건강해 졌다' 까지 5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만성질환

3개월 이상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질환(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9.7%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0%로 남성(5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74.2%) 장애에서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2%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중증(57.6%) 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유형(1순위 기준)을 살펴보면, '고혈압/저혈압'이 1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당뇨병(10.9%),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당뇨병'이 12.2%, 여성은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가 13.0%로 3개월 이상 지속된 질환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고혈압/저혈압' 및 '중풍, 뇌혈관질환'이 각각 20.0%,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부/안면 장애는 '당뇨병'이 19.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고혈압/저혈압'이 17.0%로 경증 장애의 11.9%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3〉 만성질환(질병)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51,277)	**59.7**	40.3	100.0
성별	남성	(142,540)	57.1	42.9	100.0
	여성	(108,737)	**63.0**	37.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65.1	34.9	100.0
	뇌병변	(42,177)	65.0	35.0	100.0
	시각	(21,557)	58.4	41.6	100.0
	청각/언어	(73,818)	56.5	43.5	100.0
	지적/자폐성	(23,852)	29.5	70.5	100.0
	정신	(8,894)	62.2	37.8	100.0
	내부/안면	(31,447)	**74.2**	25.8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57.6	42.4	100.0
	경증	(158,661)	**60.8**	39.2	100.0

〈표 Ⅴ-4-4〉 만성질환(질병)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암 (위,간,폐,기관지 등)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만성간염, 간경변	당뇨병	갑상선 질환
전 체		(251,277)	1.7	9.6	2.3	0.5	10.9	1.3
성별	남성	(142,540)	1.9	7.0	2.1	0.6	**12.2**	0.2
	여성	(108,737)	1.5	**13.0**	2.4	0.3	9.2	2.7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	18.2	2.5	0.3	11.9	1.9
	뇌병변	(42,177)	1.2	4.9	1.2	0.4	9.8	0.4
	시각	(21,557)	0.7	8.0	2.1	0.2	17.2	0.6
	청각/언어	(73,818)	1.6	11.9	2.2	0.1	8.4	2.3
	지적/자폐성	(23,852)	1.2	2.2	3.2	0.1	3.5	0.2
	정신	(8,894)	0.5	6.7	3.6	0.3	8.1	0.7
	내부/안면	(31,447)	3.8	4.4	2.3	2.2	**19.0**	0.3
장애 정도	중증	(92,616)	1.7	4.7	2.3	0.3	10.7	0.5
	경증	(158,661)	1.7	12.5	2.2	0.6	11.1	1.7

〈표 Ⅴ-4-4〉 만성질환(질병) 유형(1순위) - 계속

(단위: %)

구 분		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폐결핵, 결핵	만성기관지염 (심한가래,기침 등)	천식	백내장, 녹내장	만성 중이염
전 체		**15.1**	4.9	1.1	0.1	0.8	0.3	0.3	0.3
성별	남성	15.2	5.2	1.2	0.1	0.7	0.3	0.3	0.3
	여성	15.0	4.6	0.9	0.0	0.9	0.4	0.4	0.2
장애유형	지체	16.2	1.0	0.9	0.0	0.2	0.3	0.3	0.2
	뇌병변	**20.0**	**18.9**	0.4	0.0	0.8	0.0	0.0	0.1
	시각	16.0	2.7	1.8	0.3	0.5	0.1	1.2	0.0
	청각/언어	16.8	3.1	1.1	0.0	1.1	0.4	0.4	0.7
	지적/자폐성	2.4	3.5	0.9	0.0	1.1	0.0	0.0	0.2
	정신	7.6	0.6	0.3	0.5	0.9	0.0	0.0	0.0
	내부/안면	14.1	0.8	2.2	0.2	1.1	1.3	0.4	0.1
장애정도	중증	11.9	6.2	1.2	0.2	1.3	0.5	0.1	0.2
	경증	**17.0**	4.2	1.0	0.0	0.5	0.3	0.5	0.3

구 분		만성신부전증 (만성신장 질환)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골다공증	정신질환 (우울증 등)	전립선 질환	기타	없음
전 체		2.4	0.6	0.5	3.3	0.5	3.1	40.3
성별	남성	2.4	0.6	0.1	3.0	0.9	2.7	42.9
	여성	2.4	0.6	1.1	3.8	0.0	3.6	37.0
장애유형	지체	0.1	1.4	1.2	2.7	0.7	3.2	34.9
	뇌병변	0.1	0.2	0.5	2.6	0.3	3.1	35.0
	시각	0.9	0.8	0.2	2.1	0.7	2.1	41.6
	청각/언어	0.0	0.6	0.4	1.2	0.6	3.6	43.5
	지적/자폐성	0.0	0.0	0.3	6.6	0.0	4.0	70.5
	정신	0.0	0.0	0.0	**30.7**	0.0	1.6	37.8
	내부/안면	18.0	0.2	0.4	0.9	0.5	2.0	25.8
장애정도	중증	**5.7**	0.5	0.4	6.0	0.3	2.9	42.4
	경증	0.4	0.6	0.6	1.8	0.6	3.2	39.2

(3) 운동

주기적으로 하는 운동 일 수와 시간에 대해 주 평균 운동 일수를 살펴보면, 운동 하지 않음이 3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3~4일(17.5%), 1~2일(17.2%), 5~6일(16.4%), 7일(9.4%)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남성(3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는 운동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4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자폐성 장애(21.3%)는 '1~2일'이 21.3%, 뇌병변 장애는 '5일~6일'이 19.3%, 내부/안면 장애(20.5%) 및 청각/언어 장애(20.4%)에서 '3~4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 이상으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다.

〈표 V-4-5〉 주 평균 운동 일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운동하지 않음	1~2일	3~4일	5~6일	7일	계
전 체		(251,277)	**39.4**	17.2	17.5	16.4	9.4	100.0
성별	남성	(142,540)	38.2	17.4	15.6	18.5	10.3	100.0
	여성	(108,737)	**41.0**	16.9	20.1	13.7	8.3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0.7	18.1	17.2	15.2	8.8	100.0
	뇌병변	(42,177)	39.1	13.6	12.9	**19.3**	**15.1**	100.0
	시각	(21,557)	41.8	17.0	17.6	14.7	8.9	100.0
	청각/언어	(73,818)	35.9	18.3	**20.4**	16.9	8.5	100.0
	지적/자폐성	(23,852)	45.0	**21.3**	15.6	15.7	2.4	100.0
	정신	(8,894)	**49.0**	17.0	11.7	12.0	10.3	100.0
	내부/안면	(31,447)	37.3	15.3	**20.5**	16.3	10.6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5.9	16.0	14.4	15.5	8.2	100.0
	경증	(158,661)	35.6	17.9	19.3	17.0	10.1	100.0

운동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1회 평균 '30분~60분 미만' 운동 한다는 응답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60분~90분 미만(34.4%), 90분 이상(13.5%), 30분 미만(9.4%)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60 분 이상', 여성은 '60분 미만' 운동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에서 '60분~90분 미만'응답 비율이 40.8%로 가장 높았고, 그 외 장애 유형은 '30분~60분 미만' 운동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60분 미만', 경증 장애의 경우 '60분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Ⅴ-4-6〉 운동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30분 미만	30분~60분 미만	60분~90분 미만	90분 이상	계
전 체		(152,270)	9.4	**42.7**	34.4	13.5	100.0
성별	남성	(88,122)	8.7	40.1	**35.1**	**16.1**	100.0
	여성	(64,148)	**10.3**	**46.2**	33.5	10.1	100.0
장애 유형	지체	(29,359)	9.2	**44.7**	32.2	13.9	100.0
	뇌병변	(25,705)	13.1	**41.7**	28.4	16.8	100.0
	시각	(12,548)	8.3	**40.5**	37.0	14.2	100.0
	청각/언어	(47,284)	5.7	39.8	**40.8**	13.6	100.0
	지적/자폐성	(13,124)	15.7	**46.0**	30.2	8.1	100.0
	정신	(4,538)	12.1	**51.2**	27.0	9.7	100.0
	내부/안면	(19,711)	9.4	**45.0**	33.0	12.6	100.0
장애 정도	중증	(50,102)	**13.1**	**45.3**	29.7	11.9	100.0
	경증	(102,168)	7.6	41.4	**36.7**	**14.3**	100.0

주1) 1주일 평균 운동 일수가 '1일'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운동 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동을 싫어해서'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운동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해서(19.8%),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14.1%),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1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운동을 싫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0.7%로 남성(27.3%) 보다 높았고, 남성은 '운동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응답이 21.5%로 여성(17.7%)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에서 '운동을 싫어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6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각/언어 장애는 '운동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응답이 35.2%, 뇌병변 장애는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응답이 27.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는 운동을 싫어해서(32.9%), 경증 장애는 운동 할 시간이 부족하여(26.5%)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표 V-4-7〉 운동 하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운동 할 충분한 시간이 부족하여	운동을 도와줄 보호자가 없어서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운동 방법을 잘 몰라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전 체		(99,007)	19.8	12.9	5.5	3.4	1.6
성별	남성	(54,418)	21.5	11.5	5.9	3.7	1.4
	여성	(44,589)	17.7	14.5	5.1	3.1	1.7
장애 유형	지체	(20,173)	19.7	12.8	2.4	3.8	1.6
	뇌병변	(16,472)	6.4	27.8	8.7	2.9	3.1
	시각	(9,009)	21.0	14.0	9.1	3.6	2.3
	청각/언어	(26,534)	35.2	5.5	5.4	3.7	1.0
	지적/자폐성	(10,728)	9.4	7.0	6.3	3.9	1.8
	정신	(4,356)	4.8	8.6	4.5	5.2	0.4
	내부/안면	(11,736)	18.0	14.8	3.9	1.4	0.4
장애 정도	중증	(42,514)	10.8	16.5	6.1	2.9	1.3
	경증	(56,493)	26.5	10.2	5.1	3.8	1.8

구 분		운동 할 장소가 부족하여	운동을 싫어해서	운동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타	없음	계
전 체		2.6	28.8	14.1	11.4	0.0	100.0
성별	남성	2.2	27.3	15.1	11.3	0.0	100.0
	여성	3.0	30.7	12.8	11.4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3.4	24.1	13.3	19.0	0.0	100.0
	뇌병변	4.1	19.1	12.0	15.9	0.0	100.0
	시각	2.0	31.8	8.4	7.9	0.0	100.0
	청각/언어	2.1	25.9	15.7	5.5	0.0	100.0
	지적/자폐성	3.0	48.9	15.9	3.7	0.0	100.0
	정신	1.1	64.0	9.7	1.7	0.0	100.0
	내부/안면	0.8	23.3	19.0	18.4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2.3	32.9	14.9	12.3	0.0	100.0
	경증	2.8	25.7	13.5	10.7	0.0	100.0

주1) 1주일 평균 운동 일수를 '0일'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로 하는 운동 유형으로는 '걷기'가 7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헬스(4.6%), 자전거(4.5%), 등산(2.8%)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걷기'가 84.9%로 남성(74.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에서 '걷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87.5%로 가장 높았고, 시각 장애에서 '헬스(웨이트 트레이닝)'응답이 8.0%로 다소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걷기'운동을 하는 비율이 80.9%로 경증(77.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8〉 운동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걷기	요가 및 필라테스	헬스(웨이트 트레이닝)	수영	자전거(싸이클) 타기	등산
전 체		(152,270)	**78.8**	0.9	4.6	2.1	4.5	2.8
성별	남성	(88,122)	74.4	0.2	5.7	1.7	6.1	3.9
	여성	(64,148)	**84.9**	1.9	3.1	2.7	2.4	1.2
장애 유형	지체	(29,359)	75.0	1.5	6.8	3.7	5.1	1.4
	뇌병변	(25,705)	85.2	0.6	2.4	1.7	6.0	1.1
	시각	(12,548)	74.2	0.9	**8.0**	2.6	5.3	2.4
	청각/언어	(47,284)	77.4	0.9	3.7	1.6	4.0	4.7
	지적/자폐성	(13,124)	71.2	0.5	5.5	4.3	4.1	1.0
	정신	(4,538)	**87.5**	0.0	4.9	0.3	2.3	2.2
	내부/안면	(19,711)	85.8	0.7	3.6	0.1	3.5	3.7
장애 정도	중증	(50,102)	**80.9**	0.6	3.7	1.7	4.7	2.0
	경증	(102,168)	77.9	1.0	5.1	2.3	4.4	3.1

구 분		달리기(조깅)	배드민턴	농구	골프	테니스	기타	계
전 체		0.9	0.3	0.3	0.3	0.2	4.3	100.0
성별	남성	1.1	0.4	0.5	0.5	0.4	5.1	100.0
	여성	0.5	0.1	0.0	0.1	0.0	3.2	100.0
장애 유형	지체	1.0	0.3	0.2	0.7	0.4	4.0	100.0
	뇌병변	0.3	0.1	0.0	0.2	0.0	2.5	100.0
	시각	1.8	0.0	0.4	0.2	0.0	4.2	100.0
	청각/언어	0.8	0.3	0.8	0.2	0.5	5.2	100.0
	지적/자폐성	1.5	0.7	0.0	0.8	0.0	10.5	100.0
	정신	1.8	0.0	0.0	0.0	0.0	1.0	100.0
	내부/안면	0.2	0.5	0.0	0.1	0.0	1.7	100.0
장애 정도	중증	0.7	0.5	0.0	0.3	0.0	4.8	100.0
	경증	0.9	0.2	0.5	0.3	0.3	4.0	100.0

주1) 1주일 평균 운동 일수가 '1일'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주관적 몸무게

주관적 몸무게에 대한 인식은 '적당하다'가 6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체중이다(17.6%), 저체중이다(13.6%)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1.9%로 여성(64.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 및 시각 장애에서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았다. 한편, 정신 장애의 경우 '과체중이다' 응답이 29.9%, 뇌병변 장애 및 내부/안면 장애는 '저체중이다' 응답이 19% 이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적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9%로 경증(71.6%)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4-9〉 주관적 몸무게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적당하다	저체중이다	과체중이다	계
전 체		(251,277)	68.7	13.6	17.6	100.0
성별	남성	(142,540)	**71.9**	**14.7**	13.4	100.0
	여성	(108,737)	64.6	12.2	**23.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66.9	11.4	21.7	100.0
	뇌병변	(42,177)	62.4	**19.6**	18.0	100.0
	시각	(21,557)	**74.2**	8.7	17.1	100.0
	청각/언어	(73,818)	**74.3**	10.4	15.3	100.0
	지적/자폐성	(23,852)	64.7	16.0	19.3	100.0
	정신	(8,894)	59.2	11.0	**29.9**	100.0
	내부/안면	(31,447)	69.1	**19.1**	11.9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63.9	**18.5**	17.7	100.0
	경증	(158,661)	**71.6**	10.8	17.6	100.0

(5) 하루 평균 수면시간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8시간이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9시간 이상이 11.1%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남성은 '7시간 이상', 여성은 '6시간 이하' 수면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8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높았고,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7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5%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8시간 이상', 경증 장애의 경우 '7시간 이하'수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Ⅴ-4-10〉 하루 평균 수면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6시간 미만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상	계
전 체		(251,277)	15.2	20.2	26.0	27.5	11.1	100.0
성별	남성	(142,540)	13.8	19.2	**27.4**	**28.2**	**11.4**	100.0
	여성	(108,737)	**17.0**	**21.4**	24.2	26.6	10.8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9.8	23.9	27.7	23.1	5.5	100.0
	뇌병변	(42,177)	13.1	16.9	21.0	32.8	16.2	100.0
	시각	(21,557)	15.7	22.4	26.0	27.6	8.4	100.0
	청각/언어	(73,818)	14.8	22.5	**30.5**	23.6	8.5	100.0
	지적/자폐성	(23,852)	5.1	9.3	21.7	**41.3**	22.7	100.0
	정신	(8,894)	12.3	17.0	15.6	35.0	20.2	100.0
	내부/안면	(31,447)	19.5	20.7	25.9	24.1	9.9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3.1	16.0	21.6	**31.6**	**17.8**	100.0
	경증	(158,661)	**16.4**	**22.6**	**28.6**	25.2	7.2	100.0

(6) 식생활

하루 평균 식사 횟수를 살펴보면, '3회'가 76.0%로 가장 높았고, '1회 미만'으로 식사는 한다는 응답 비율은 0.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남성은 '3회'가 76.8%로 여성(75.0%)보다 높게 나타났고, 여성은 '2회'식사한다는 응답이 22.3%로 남성(20.5%) 대비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는 하루 평균 식사 횟수가 '3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83.8%로 가장 많았고, 정신장애는 '2회'식사 비율이 28.8%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Ⅴ-4-11〉 하루 식사 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회 미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전 체		(251,277)	0.1	1.1	21.3	76.0	1.5	100.0
성별	남성	(142,540)	0.1	1.3	20.5	**76.8**	1.4	100.0
	여성	(108,737)	0.0	0.9	**22.3**	75.0	1.8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0.0	1.0	22.8	75.0	1.1	100.0
	뇌병변	(42,177)	0.3	1.0	18.9	78.6	1.2	100.0
	시각	(21,557)	0.3	1.5	22.0	74.6	1.6	100.0
	청각/언어	(73,818)	0.0	1.0	21.6	75.7	1.7	100.0
	지적/자폐성	(23,852)	0.0	0.8	12.5	**83.8**	2.9	100.0
	정신	(8,894)	0.0	1.9	**28.0**	68.9	1.3	100.0
	내부/안면	(31,447)	0.0	1.2	25.4	72.2	1.3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0.1	1.2	19.2	77.6	1.9	100.0
	경증	(158,661)	0.0	1.0	22.5	75.2	1.3	100.0

하루 평균 식사량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많이 먹는다 또는 매우 많이 많이 먹는다 (④+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 '매우 적게 먹는다 또는 적게 먹는다 (①+②)'고 응답한 비율은 14.1%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많이 먹는다는 응답(④+⑤) 비율이 6.0%로 여성(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12〉 하루 식사량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적게 먹는다	② 적게 먹는다	③ 적당하다	④ 많이 먹는다	⑤ 매우 많이 먹는다	①+②	③	④+⑤	계
전 체		(251,277)	0.8	13.2	80.2	5.6	0.2	14.1	80.2	5.8	100.0
성별	남성	(142,540)	0.7	12.4	80.9	5.8	0.2	13.1	80.9	6.0	100.0
	여성	(108,737)	1.0	14.3	79.2	5.4	0.1	15.3	79.2	5.6	100.0

주1) '매우 적게 먹는다' 부터 '매우 많이 먹는다' 까지 5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1주일 평균 패스트푸드 섭취 수를 살펴보면, '0회'가 4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회(25.2%), 2회(16.9%), 3회(9.0%), 4회 이상(5.2%)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0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여성(47.9%)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0회(59.4%), 지체 장애는 1회(30.1%), 지적/자폐성 장애는 2회(26.4%)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0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경증(4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13〉 패스트푸드 섭취 수(주평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0회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전 체		(251,277)	**43.8**	25.2	16.9	9.0	5.2	100.0
성별	남성	(142,540)	40.6	24.5	17.7	10.6	6.6	100.0
	여성	(108,737)	47.9	26.1	15.8	6.9	3.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3.9	**30.1**	13.8	7.4	4.8	100.0
	뇌병변	(42,177)	**59.4**	18.0	12.9	7.4	2.3	100.0
	시각	(21,557)	41.6	24.3	20.1	7.3	6.6	100.0
	청각/언어	(73,818)	39.2	27.2	18.3	10.6	4.7	100.0
	지적/자폐성	(23,852)	24.1	26.3	**26.4**	12.6	10.6	100.0
	정신	(8,894)	29.4	20.2	23.8	**14.7**	**11.9**	100.0
	내부/안면	(31,447)	53.8	23.5	12.3	6.6	3.8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6.3	22.0	17.5	8.5	5.7	100.0
	경증	(158,661)	42.3	27.1	16.5	9.3	4.8	100.0

식생활에 대해 살펴보면, '(2)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36.7%, '(1)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이상 줄거나 늘었다'는 7.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의 경우, '(4) 과일, 야채를 하루에 한번도 먹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3.4%로 여성의 9.5%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2)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는 응답 비율이 46.9%, '(3)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는 응답이 30.9%로 타 유형 대비 높은 편이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2)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항목에 대해 중증이 32.9%로 경증(39.0%)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4-14〉 식생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지난 6개월 동안 몸무게가 5kg이상 줄거나 늘었다	(2)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다	(3) 다른 사람에 비해 많이 먹거나 빨리 먹는다	(4) 과일, 야채를 하루에 한번도 먹지 않는다
전 체		(251,277)	7.5	**36.7**	16.7	11.7
성별	남성	(142,540)	7.0	36.0	18.0	**13.4**
	여성	(108,737)	8.1	37.8	15.0	9.5
장애 유형	지체	(49,532)	7.0	39.3	21.0	11.3
	뇌병변	(42,177)	10.5	35.3	12.9	14.2
	시각	(21,557)	6.3	38.0	18.9	12.9
	청각/언어	(73,818)	4.4	36.6	14.6	9.2
	지적/자폐성	(23,852)	10.3	21.3	20.3	12.0
	정신	(8,894)	13.1	**46.9**	**25.5**	19.1
	내부/안면	(31,447)	8.6	43.1	13.3	11.6
장애 정도	중증	(92,616)	9.9	32.9	15.9	12.6
	경증	(158,661)	6.0	**39.0**	17.2	11.2

주1) '예' 와 '아니오' 중 '예' 의 응답 비율로 표기함

(7) 민간의료보험

지난조사 이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면, '가입했음'은 10.8%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가입했음'이 10.3%, 남성은 11.2%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에서 '가입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0%, 정신 장애의 경우 8.8% 이다. 중증 장애의 경우 '가입했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경증의 12.7%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표 V-4-15〉 지난조사 이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가입했음	가입하지 않았음	모름	계
전 체		(251,277)	10.8	85.4	3.8	100.0
성별	남성	(142,540)	11.2	85.3	3.5	100.0
	여성	(108,737)	10.3	85.5	4.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5.0**	82.7	2.4	100.0
	뇌병변	(42,177)	6.9	88.7	4.4	100.0
	시각	(21,557)	12.5	83.8	3.8	100.0
	청각/언어	(73,818)	12.0	84.3	3.7	100.0
	지적/자폐성	(23,852)	6.9	85.6	7.4	100.0
	정신	(8,894)	3.7	**91.2**	5.0	100.0
	내부/안면	(31,447)	10.8	86.8	2.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7.6	88.1	4.3	100.0
	경증	(158,661)	**12.7**	83.8	3.5	100.0

지난조사 이후 보험회사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대상자의 가입 개수를 살펴보면, 1개(49.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개(28.5%), 3개(12.6%) 순이다.

〈표 V-4-16〉 민간의료보험 가입 개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계
전 체		(27,217)	49.8	28.5	12.6	3.7	5.4	100.0
성별	남성	(16,014)	46.3	30.4	11.9	3.2	8.2	100.0
	여성	(11,203)	54.9	25.7	13.5	4.5	1.3	100.0
장애 유형	지체	(7,410)	42.6	28.4	14.4	1.4	13.2	100.0
	뇌병변	(2,902)	50.1	28.1	15.1	5.4	1.3	100.0
	시각	(2,687)	37.3	40.7	16.1	3.6	2.4	100.0
	청각/언어	(8,845)	53.8	29	9.1	4	4.1	100.0
	지적/자폐성	(1,657)	69.4	20	7.2	3.4	0	100.0
	정신	(330)	74	7	14.2	0	4.7	100.0
	내부/안면	(3,386)	53.1	24.2	15	7.5	0.2	100.0
장애 정도	중증	(7,071)	60.7	22.3	10.3	6.1	0.6	100.0
	경증	(20,146)	46	30.7	13.4	2.9	7.1	100.0

주1)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에 '가입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보험에 가입하려다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에서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한 비율이 8.3% 이다. 중증의 경우 보험 가입 거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8%로 경증 장애(3.3%)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17〉 보험 가입 거부당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41,736)	4.2	95.8	100.0
성별	남성	(137,573)	4.4	95.6	100.0
	여성	(104,162)	4.0	96.0	100.0
장애 유형	지체	(48,351)	3.8	96.2	100.0
	뇌병변	(40,334)	4.9	95.1	100.0
	시각	(20,743)	3.8	96.2	100.0
	청각/언어	(71,106)	2.5	97.5	100.0
	지적/자폐성	(22,077)	3.3	96.7	100.0
	정신	(8,446)	5.9	94.1	100.0
	내부/안면	(30,679)	8.3	91.7	100.0
장애 정도	중증	(88,657)	5.8	94.2	100.0
	경증	(153,078)	3.3	96.7	100.0

주1) 민간의료보험 가입여부 '가입했음' 또는 '가입하지 않았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입 거부당한 보험 유형으로는 생명보험(5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혼합보험/제3보험(35.8%), 손해보험(13.0%) 등의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생명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응답 비율이 54.2%로 여성(4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18〉 보험 가입 거부당한 보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생명보험	손해보험	혼합보험/제3보험	기타	계
전 체		(10,176)	50.0	13.0	35.8	1.2	100.0
성별	남성	(6,045)	54.2	9.4	35.6	0.8	100.0
	여성	(4,131)	44.0	18.2	36.1	1.7	100.0

주1) 장애로 인해 보험가입 거부당한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입 거부당한 생명보험의 상세 유형을 살펴보면, 상해보험이 4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망보험(26.5%), 어린이보험(12.9%), 연금보험(6.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13.8%가 '연금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남성(2.8%)와 10%p이상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19〉 생명보험 상세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사망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교육보험	기타	계
전 체		(5,090)	26.5	6.7	47.5	12.9	0.4	6.0	100.0
성별	남성	(3,273)	25.2	2.8	48.8	16.2	0.0	7.0	100.0
	여성	(1,817)	28.9	13.8	45.1	6.9	1.1	4.2	100.0

주1)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유형 '생명보험'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입을 거부당한 손해보험의 상세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보험'이 30.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해상보험(26.9%), 화재 보험(24.7%), 책임보험(1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39.3%)이 남성(18.1%)보다 자동차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20〉 손해보험 상세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기타	계
전 체		(1,321)	30.2	24.7	26.9	13.9	4.3	100.0
성별	남성	(569)	18.1	32.0	26.4	17.7	5.9	100.0
	여성	(752)	39.3	19.2	27.3	11.0	3.2	100.0

주1)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유형 '손해보험'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입을 거부당한 혼합/제3보험 상세 유형을 살펴보면, '의료실비보험'이 52.5%로 가장 높았고 질병/상해보험은 45.2%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혼합보험/제3보험' 중 의료실비보험 가입 시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9.2% 이다.

〈표 V-4-21〉 혼합/제3보험 상세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의료실비보험	질병/상해보험	기타	계
전 체		(3,644)	52.5	45.2	2.3	100.0
성별	남성	(2,154)	54.8	45.2	0.0	100.0
	여성	(1,490)	49.2	45.1	5.7	100.0

주1) 보험 가입을 거부당한 유형 '혼합/제3보험'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8)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기준)을 살펴보면, '건강검진비 지원'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체육시설 이용지원(12.7%), 이동지원(10.2%), 건강관리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7.1%), 건강검진 센터 내 장애 전문요원 필요(7.0%) 등의 순이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건강검진비 지원'이 각각 59.8%, 57.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각 장애(65.0%)와 내부/안면 장애(64.1%)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응답이 가장 높았고, 지적/자폐성 장애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지원'이 17.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53.4%가 '건강검진비 지원'이 강화되어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Ⅴ-4-22〉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건강 검진비 지원	이동 지원	체육 시설 이용지원 (할인 혜택, 도움 제공 등)	건강검진 센터 내 장애 전문요원 필요	서비스 제공자의 장애인식 증가	건강관리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기타	없음	계
전 체		(251,277)	**58.5**	10.2	12.7	7.0	4.0	7.1	0.4	0.1	100.0
성별	남성	(142,540)	57.5	10.3	13.4	7.0	4.4	6.8	0.5	0.1	100.0
	여성	(108,737)	**59.8**	10.1	11.7	6.9	3.5	7.6	0.1	0.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59.9	10.4	13.1	6.3	2.8	7.1	0.2	0.2	100.0
	뇌병변	(42,177)	52.7	19.8	11.2	4.4	4.3	6.7	0.7	0.3	100.0
	시각	(21,557)	**65.0**	9.1	10.1	5.9	3.1	6.6	0.2	0.0	100.0
	청각/언어	(73,818)	61.7	4.5	14.9	7.6	4.4	6.3	0.4	0.1	100.0
	지적/자폐성	(23,852)	45.5	10.4	**17.3**	11.2	6.3	8.9	0.3	0.2	100.0
	정신	(8,894)	50.0	11.4	11.2	11.8	9.0	6.5	0.2	0.0	100.0
	내부/안면	(31,447)	**64.1**	10.9	7.3	6.0	2.4	9.1	0.3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53.4	14.8	11.0	7.9	4.6	7.9	0.4	0.1	100.0
	경증	(158,661)	61.5	7.6	13.6	6.4	3.7	6.7	0.3	0.2	100.0

(9)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치료/의료비 지원'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치료/재활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10.3%), 이동지원(9.7%), 의료진의 장애인식 증가(5.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치료/재활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이 10.4%, 의료진의 장애인식 증가' 응답 비율이 5.8%로 나타났다. 청각/언어 장애의 79.4%는 '치료/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뇌병변 장애의 15.2%가 '이동 지원', '치료/재활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은 지적/자폐성 장애(17.6%)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Ⅴ-4-23〉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치료/의료비 지원	이동 지원	의료진의 장애인식 증가	병원 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치료/재활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기타	없음	계
전 체		(251,277)	**71.6**	9.7	5.1	3.1	10.3	0.0	0.1	100.0
성별	남성	(142,540)	71.3	9.3	**5.8**	3.2	**10.4**	0.0	0.0	100.0
	여성	(108,737)	72.1	10.3	4.1	3.0	10.3	0.1	0.1	100.0
장애유형	지체	(49,532)	72.5	8.7	4.7	2.9	10.9	0.2	0.0	100.0
	뇌병변	(42,177)	66.1	**15.2**	5.8	2.0	10.6	0.0	0.3	100.0
	시각	(21,557)	72.1	10.8	4.4	2.4	10.1	0.0	0.1	100.0
	청각/언어	(73,818)	**79.4**	5.8	3.7	4.0	7.0	0.0	0.0	100.0
	지적/자폐성	(23,852)	57.0	12.9	9.2	3.2	**17.6**	0.0	0.0	100.0
	정신	(8,894)	59.7	11.3	9.3	3.6	16.0	0.0	0.0	100.0
	내부/안면	(31,447)	73.4	9.5	4.2	2.9	9.9	0.0	0.1	100.0
장애정도	중증	(92,616)	64.6	12.8	6.4	3.2	13.0	0.0	0.0	100.0
	경증	(158,661)	**75.8**	7.9	4.3	3.1	8.8	0.1	0.1	100.0

(10)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비 항목(1순위)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검사비(35.5%) 응답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입원비(20.3%), 재활치료비(13.0%), 약제비(8.4%), 수술비 및 보장구구입비(각 7.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9.7%는 '보장구구입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의 6.5%에 비해 높은 편이며, 성별 응답율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장애는 '검사비'응답 비율이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뇌병변 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재활치료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1%, 22.2%로 나타났다. 한편, 청각/언어 장애 20.0%는 '보장구 구입비', 정신 장애의 30.2%는 입원비라고 응답하였다.

〈표 Ⅴ-4-24〉 지원이 필요한 치료/의료비 항목(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재활 치료비	기타	없음	계
전 체		(213,381)	20.3	7.9	**35.5**	8.4	6.7	7.9	13.0	0.2	0.2	100.0
성별	남성	(121,694)	20.8	7.8	35.9	7.8	7.1	6.5	13.8	0.2	0.2	100.0
	여성	(91,686)	19.6	8.2	34.9	9.3	6.3	**9.7**	11.8	0.1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42,590)	18.0	10.1	36.6	10.3	7.5	3.0	14.0	0.2	0.4	100.0
	뇌병변	(34,908)	24.2	4.6	27.0	7.5	10.7	2.5	**23.1**	0.1	0.3	100.0
	시각	(18,800)	18.4	7.5	**44.6**	11.7	5.7	3.5	8.5	0.2	0.0	100.0
	청각/언어	(65,674)	18.3	8.4	34.7	5.5	4.8	**20.0**	8.1	0.0	0.0	100.0
	지적/자폐성	(17,642)	19.2	3.1	39.3	6.7	8.0	0.7	**22.2**	0.0	0.7	100.0
	정신	(6,842)	**30.2**	6.2	34.7	14.4	6.3	0.3	7.5	0.3	0.0	100.0
	내부/안면	(26,924)	23.1	11.7	37.7	11.1	4.9	2.4	8.6	0.5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74,564)	23.1	6.8	32.2	8.7	7.8	2.7	18.1	0.3	0.2	100.0
	경증	(138,817)	18.8	8.5	37.2	8.3	6.1	10.6	10.2	0.1	0.2	100.0

주1) 의료적 재활과 치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 '치료/의료비 지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11) 건강행태

가. 흡연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흡연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이 19.2%로 여성(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의 경우 흡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4%, 정신 장애의 흡연율은 15.8%로 다소 높았다. 경증 장애의 경우 12.0%로 중증 장애(9.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흡연량은 10~20개비 미만이 42.4%로 가장 많았으며, 20~30개비 미만(31.3%), 5~10개비 미만(13.0%), 5개비 미만(7.9%), 30개비 이상(5.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20개비 이상'응답이, 여성의 경우 '20개비 미만'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청각/장애는 '20~30개비 미만' 흡연 비율이 38.0%, 정신 장애의 15.9%가 하루 30개비 이상 흡연한다고 응답했고, 그 외 장애 유형은 '10~20개비 미만'흡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중증 장애의 경우 '30개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2%로 경증 장애(4.3%) 보다 높았다.

〈표 V-4-25〉 현재 흡연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흡연	담배만 피움	전자담배 만 피움	비흡연	지난 6개월 동안 피우지 않음	피워본 적 없음
전 체		(229,491)	11.2	10.9	0.3	88.8	37.0	51.8
성별	남성	(129,035)	**19.2**	18.7	0.4	80.8	59.5	21.4
	여성	(100,456)	1.0	0.9	0.0	99.0	8.0	91.0
장애 유형	지체	(47,637)	13.3	13.1	0.3	86.7	36.4	50.3
	뇌병변	(38,713)	5.8	5.7	0.1	94.2	45.9	48.3
	시각	(20,378)	**17.4**	17.2	0.2	82.6	30.9	51.7
	청각/언어	(67,431)	11.0	10.6	0.4	89.0	34.7	54.3
	지적/자폐성	(15,667)	8.9	8.6	0.2	91.1	23.4	67.7
	정신	(8,738)	**15.8**	15.8	0.0	84.2	22.0	62.3
	내부/안면	(30,926)	10.8	10.7	0.2	89.2	46.6	42.6
장애 정도	중증	(79,908)	9.8	9.6	0.2	90.2	36.3	53.9
	경증	(149,583)	**12.0**	11.6	0.3	88.0	37.3	50.7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V-4-26〉 하루 평균 흡연량 – 담배(개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개비 미만	5~10개비 미만	10~20개비 미만	20~30개비 미만	30개비 이상	계
전 체		(25,103)	7.9	13.0	**42.4**	31.3	5.5	100.0
성별	남성	(24,174)	7.6	12.9	42.1	**31.9**	**5.5**	100.0
	여성	(929)	**15.2**	**14.4**	**50.8**	16.3	3.4	100.0
장애 유형	지체	(6,239)	2.1	16.1	**44.0**	30.6	7.1	100.0
	뇌병변	(2,211)	6.1	20.3	**47.0**	25.2	1.5	100.0
	시각	(3,505)	5.2	15.3	**43.0**	35.0	1.6	100.0
	청각/언어	(7,114)	15.5	6.1	33.9	**38.0**	6.4	100.0
	지적/자폐성	(1,354)	5.4	13.1	**43.5**	34.2	3.8	100.0
	정신	(1,379)	1.7	4.2	**47.3**	30.9	**15.9**	100.0
	내부/안면	(3,301)	9.9	18.1	**51.6**	17.2	3.3	100.0
장애 정도	중증	(7,678)	7.0	16.4	44.7	23.7	**8.2**	100.0
	경증	(17,425)	8.3	11.4	41.4	34.6	4.3	100.0

주1) 흡연 여부 '담배 피움' 또는 '전자담배 피움'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나. 음주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음주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4.6%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현재 음주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36.3%, 여성은 9.7%로 26.6%p 격차가 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35.4%), 지체 장애(35.0%), 청각/언어 장애(31.6%)에서 음주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현재 음주를 한다고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음주량을 살펴보면 '주 1-2회'음주가 3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월2-3회(26.5%), 월 1회 이하(18.0%), 주 3-4회(10.2%), 거의 매일(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주 1-2회' 음주를 하는 비율이 41.6%로 가장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월 1회 이하' 음주 비율이 39.5%로 가장 높았다. 청각/언어 장애인 경우 '주 1-2회'음주를 한다는 응답 비율은 42.1%로 가장 높았고, 내부/안면 장애는 월 2-3회(33.3%), 뇌병변 장애는 월 1회 이하(29.0%)에서 음주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난 한편,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8.1%는 '거의 매일' 음주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증 장애의 경우 주 1-2회 음주를 한다는 응답 비율이 40.3%로 중증 장애(3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27〉 현재 음주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술을 마심	술을 마시지 않음			계
					지난 6개월 동안 마시지 않음	마셔본 적 없음	
전 체		(172,990)	24.6	75.4	46.8	28.6	100.0
성별	남성	(82,258)	**36.3**	63.7	52.2	11.6	100.0
	여성	(90,732)	9.7	90.3	39.9	50.4	100.0
장애 유형	지체	(30,961)	**35.0**	65.0	41.4	23.6	100.0
	뇌병변	(34,422)	11.1	88.9	58.6	30.3	100.0
	시각	(13,157)	**35.4**	64.6	37.7	26.9	100.0
	청각/언어	(46,128)	31.6	68.4	41.6	26.8	100.0
	지적/자폐성	(13,076)	16.5	83.5	32.8	50.6	100.0
	정신	(7,599)	13.0	87.0	46.1	40.9	100.0
	내부/안면	(27,647)	10.6	89.4	65.2	24.2	100.0
장애 정도	중증	(69,594)	12.9	87.1	52.7	34.4	100.0
	경증	(103,396)	30.9	69.1	43.7	25.4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V-4-28〉 음주량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월 1회 이하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계
전 체		(56,501)	18.0	26.5	**39.4**	10.2	5.9	100.0
성별	남성	(46,778)	13.5	26.2	**41.6**	11.6	7.1	100.0
	여성	(9,724)	**39.5**	28.0	28.9	3.4	0.2	100.0
장애 유형	지체	(16,677)	18.3	27.0	37.3	10.7	6.7	100.0
	뇌병변	(4,291)	**29.0**	26.2	35.9	3.4	5.5	100.0
	시각	(7,221)	12.9	23.2	41.8	17.8	4.3	100.0
	청각/언어	(21,303)	15.8	27.5	**42.1**	8.2	6.4	100.0
	지적/자폐성	(2,591)	18.7	19.6	39.0	14.5	**8.1**	100.0
	정신	(1,139)	23.7	17.1	34.3	**21.8**	3.1	100.0
	내부/안면	(3,280)	25.5	**33.3**	34.2	5.5	1.5	100.0
장애 정도	중증	(10,315)	20.2	27.4	35.3	11.2	5.9	100.0
	경증	(46,186)	17.5	26.3	**40.3**	10.0	5.9	100.0

주1) 음주 여부 '술을 마심'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12) 장애와 관련된 일상생활 제한

장애 관련 제한 정도를 살펴보면, '(2) 나는 무언가를 듣는데(청각) 제한이 있다'에 긍정적인 응답(③+④) 비율이 33.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 나는 만성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31.3%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12) 나는 머리를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등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는 9.2%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Ⅴ-4-29〉 장애 관련 제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없음	② 거의 없는 편임	③ 있는 편임	④ 매우 많음	①+②	③+④	계
(1) 나는 무언가를 보는데(시각) 제한이 있다	(251,277)	56.4	23.3	15.0	5.3	79.7	20.3	100.0
(2) 나는 무언가를 듣는데(청각) 제한이 있다	(251,277)	48.6	18.4	20.9	12.0	67.0	**33.0**	100.0
(3) 나는 말하는 것에(언어) 제한이 있다	(251,277)	56.0	20.9	16.6	6.5	76.9	23.1	100.0
(4) 나는 숨을 쉬는데 힘이 든다	(251,277)	65.3	23.4	9.2	2.0	88.8	11.2	100.0
(5) 나는 만성질환에 의한 통증이 있다	(251,277)	45.6	23.1	25.3	6.0	68.7	**31.3**	100.0
(6) 나는 무언가를 배우거나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다	(251,277)	47.5	24.4	20.3	7.7	71.9	28.1	100.0
(7) 나는 팔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다	(251,277)	56.8	21.2	15.1	7.0	78.0	22.0	100.0
(8) 나는 무언가를 잡거나 들고 있는데 제한이 있다	(251,277)	54.8	20.6	17.1	7.5	75.4	24.6	100.0
(9) 나는 다리나 발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	(251,277)	50.0	19.9	19.3	10.7	69.9	30.1	100.0
(10) 나는 불안, 우울해하는 등 감정을 조절하는데 제한이 있다	(251,277)	48.2	27.4	19.6	4.8	75.6	24.4	100.0
(11) 나는 기형을 포함하는 외형손상이 있다	(251,277)	67.1	22.1	7.8	3.0	89.2	10.8	100.0
(12) 나는 머리를 부딪치거나 떨어지는 등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	(251,277)	69.3	21.5	6.8	2.3	90.8	9.2	100.0
(13) 나는 뇌졸중(중풍)을 경험한 적이 있다	(251,277)	66.6	18.0	9.4	6.0	84.6	15.4	100.0
(14) 나는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제한이 있다	(251,277)	53.7	24.4	15.5	6.4	78.1	21.9	100.0

주1) '전혀 없음' 부터 '매우 많음'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의료서비스

(1) 의료기관 이용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4.7%로 조사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55.1%), 내부/안면 장애(52.0%)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타 장애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의료기관 이용 경험률은 48.4%로 경증 장애(42.5%)보다 높았다.

〈표 V-4-30〉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44.7	55.3	100.0
성별	남성	(142,540)	43.8	56.2	100.0
	여성	(108,737)	45.9	54.1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9.0	51.0	100.0
	뇌병변	(42,177)	**55.1**	44.9	100.0
	시각	(21,557)	41.9	58.1	100.0
	청각/언어	(73,818)	36.4	63.6	100.0
	지적/자폐성	(23,852)	34.5	65.5	100.0
	정신	(8,894)	48.2	51.8	100.0
	내부/안면	(31,447)	**52.0**	48.0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8.4**	51.6	100.0
	경증	(158,661)	42.5	57.5	100.0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외래진료 횟수는 '10회 미만'이 59.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0회 미만(21.9%), 20회 이상(16.7%), 0회(2.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0.1%로 여성이 58.5%로 남성 보다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 유형에서 외래진료횟수 '10회 미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정신 장애에서 7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외래진료횟수 '20회 이상' 응답이 30.6%로 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정도 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는 '1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험이 경증 장애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31〉 외래진료횟수

(단위 : 명, %)

구 분		추정수	0회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계
전 체		(112,272)	2.0	**59.4**	21.9	16.7	100.0
성별	남성	(62,378)	2.2	60.1	21.4	16.3	100.0
	여성	(49,895)	1.7	58.5	22.6	17.2	100.0
장애 유형	지체	(24,293)	0.4	61.1	21.2	17.4	100.0
	뇌병변	(23,231)	6.9	56.2	21.5	15.4	100.0
	시각	(9,023)	1.1	66.2	23.9	8.9	100.0
	청각/언어	(26,867)	0.1	60.9	23.5	15.6	100.0
	지적/자폐성	(8,221)	2.0	65.6	23.3	9.1	100.0
	정신	(4,291)	4.3	**72.7**	19.1	4.0	100.0
	내부/안면	(16,346)	0.4	48.9	20.0	**30.6**	100.0
장애 정도	중증	(44,843)	3.5	54.9	**22.2**	**19.4**	100.0
	경증	(67,429)	**1.0**	**62.5**	21.7	14.9	100.0

주1)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응급실 이용 횟수를 살펴보면, '0회'가 85.1%로 가장 높았고, 10회 미만(14.6%), 20회 미만(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0회 미만' 응급실을 이용 한다고 여성과 남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장애의 96.2%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20.5%가 '10회 미만'이용했다고 응답했다. 중증 장애의 응급실 이용횟수 '1회 이상' 비율은 경증 장애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다.

〈표 Ⅴ-4-32〉 응급실 이용횟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0회	10회 미만	20회 미만	계
전 체		(112,272)	85.1	14.6	0.3	100.0
성별	남성	(62,378)	84.9	14.7	0.4	100.0
	여성	(49,895)	85.4	14.5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24,293)	89.1	10.7	0.2	100.0
	뇌병변	(23,231)	84.6	14.9	0.5	100.0
	시각	(9,023)	85.8	14.2	0.0	100.0
	청각/언어	(26,867)	83.6	16.4	0.0	100.0
	지적/자폐성	(8,221)	85.7	14.3	0.0	100.0
	정신	(4,291)	**96.2**	3.8	0.0	100.0
	내부/안면	(16,346)	78.7	**20.5**	0.8	100.0
장애 정도	중증	(44,843)	83.4	**16.1**	**0.5**	100.0
	경증	(67,429)	86.2	13.6	0.2	100.0

주1)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입원 횟수를 살펴보면, '0회'가 6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0회 미만(31.4%), 20회 미만(0.3%), 20회 이상(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0회 미만'라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여성(28.8%) 보다 높았다. 시각 장애(79.2%), 청각/언어 장애(78.0%)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 장애의 경우 '10회 미만'의 입원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5.5%로 조사되었다. 경증 장애의 입원횟수 '0회' 응답 비율은 72.8%로 중증 장애(61.3%)와 11.5%p 차이를 보였다.

〈표 V-4-33〉 입원횟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0회	10회 미만	20회 미만	20회 이상	계
전 체		(112,272)	**68.2**	31.4	0.3	0.0	100.0
성별	남성	(62,378)	66.0	**33.5**	0.4	0.0	100.0
	여성	(49,895)	71.0	28.8	0.1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24,293)	69.2	30.8	0.0	0.0	100.0
	뇌병변	(23,231)	53.3	**45.5**	1.1	0.2	100.0
	시각	(9,023)	**79.2**	20.8	0.0	0.0	100.0
	청각/언어	(26,867)	**78.0**	22.0	0.0	0.0	100.0
	지적/자폐성	(8,221)	72.6	27.4	0.0	0.0	100.0
	정신	(4,291)	77.2	22.8	0.0	0.0	100.0
	내부/안면	(16,346)	61.5	38.0	0.5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44,843)	61.3	37.9	0.7	0.1	100.0
	경증	(67,429)	72.8	27.1	0.1	0.0	100.0

주1)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는 응답자의 입원 일수는 '10일 미만'이 33.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30일 미만(28.5%), 60일 이상(26.3%), 60일 미만(11.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60일 미만' 입원 응답 비율이 14.2%로 여성(7.7%) 보다 6.5%p 높았다. 여성의 경우 '60일 이상' 응답 비율은 28.2%로 남성(25.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뇌병변 장애와 정신 장애의 경우 '60일 이상' 입원했다고 응답은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자폐성 장애(47.5%)는 '10일 미만', 청각/언어 장애(36.3%)는 '30일 미만', 내부/안면 장애(16.6%)는 '60일 미만'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증 장애의 입원횟수 '10일 미만' 응답 비율은 43.1%로 중증 장애와 19.4%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일 이상' 입원한 응답 비율은 중증(39.8%)이 경증(13.5%)로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

〈표 Ⅴ-4-34〉 입원일수

(단위 : 명, %)

구 분		추정수	10일 미만	30일 미만	60일 미만	60일 이상	계
전 체		(35,679)	**33.6**	28.5	11.6	26.3	100.0
성별	남성	(21,188)	33.3	27.5	**14.2**	25.0	100.0
	여성	(14,491)	34.1	29.9	7.7	**28.2**	100.0
장애 유형	지체	(7,493)	43.0	31.5	8.1	17.4	100.0
	뇌병변	(10,857)	19.1	19.4	9.4	**52.2**	100.0
	시각	(1,878)	37.1	31.4	12.3	19.2	100.0
	청각/언어	(5,924)	43.2	**36.3**	15.7	4.9	100.0
	지적/자폐성	(2,251)	**47.5**	26.8	9.7	16.0	100.0
	정신	(978)	13.9	26.3	9.2	**50.7**	100.0
	내부/안면	(6,298)	35.9	33.3	**16.6**	14.3	100.0
장애 정도	중증	(17,336)	23.7	25.0	11.5	**39.8**	100.0
	경증	(18,344)	**43.1**	31.7	11.7	13.5	100.0

주1) 입원 횟수 '1회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입원 이유를 살펴보면, 장애, 합병증/후유증 치료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고, 장애와 상관없는 질병치료는 35.0%로 조사되었다. 남성은 '장애, 합병증/후유증 치료' 응답 비율은 50.5%로 여성(49.3%) 보다 높았고, 여성의 경우 '사고로 인한 치료'응답은 13.6%로 남성의 1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내부/안면 장애와 뇌병변 장애, 정신 장애의 70% 이상은 '장애, 합병증/후유증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증 장애의 '장애, 합병증/후유증 치료' 응답은 70.6%로 경증 장애(30.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35〉 입원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 합병증/ 후유증 (재활)치료	장애와 상관없는 질병치료	사고로 인한 치료	요양 및 휴식	성형/정형/ 교정	기타	계
전 체		(35,679)	50.0	35.0	12.6	1.3	0.4	0.7	100.0
성별	남성	(21,188)	50.5	35.4	11.9	1.5	0.1	0.6	100.0
	여성	(14,491)	49.3	34.5	13.6	1.0	0.9	0.8	100.0
장애 유형	지체	(7,493)	37.7	43.8	17.0	0.6	0.7	0.3	100.0
	뇌병변	(10,857)	**70.7**	17.6	7.6	2.9	0.6	0.6	100.0
	시각	(1,878)	12.8	49.1	36.0	0.5	0.0	1.6	100.0
	청각/언어	(5,924)	15.8	60.1	22.0	0.3	0.0	1.8	100.0
	지적/자폐성	(2,251)	33.2	63.2	3.0	0.6	0.0	0.0	100.0
	정신	(978)	**70.6**	16.9	8.2	4.3	0.0	0.0	100.0
	내부/안면	(6,298)	**75.2**	19.3	4.2	0.5	0.5	0.3	100.0
장애 정도	중증	(17,336)	**70.6**	20.3	5.8	2.1	0.6	0.7	100.0
	경증	(18,344)	30.6	48.9	18.9	0.6	0.3	0.7	100.0

주1) 입원 횟수 '1회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유형으로는 병/의원이 5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종합/대학병원(42.4%), 한방 병/의원(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종합/대학 병원' 응답이 43.3%, 여성의 경우 병/의원(53.1%)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종합/대학 병원'을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64.5%로 가장 높았고, 정신 장애의 경우 62.9%가 '병/의원'을 이용했다고 응답했다. 한편, 지체 장애는 '한방 병/의원'을 이용한 비율이 8.3%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높은 편이다. 중증의 경우 '종합/대학 병원'의 응답 비율이 46.2%로 높게 나타났으며, 경증의 경우는 '병/의원'의 응답 비율이 53.8%이다.

〈표 V-4-36〉 이용 의료기관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병/의원	종합/대학병원	한방 병/의원	보건소/보건의료원	기타	계
전 체		(110,048)	**52.3**	42.4	4.6	0.5	0.1	100.0
성별	남성	(60,998)	51.6	**43.3**	4.4	0.4	0.1	100.0
	여성	(49,050)	**53.1**	41.3	4.9	0.6	0.0	100.0
장애유형	지체	(24,198)	56.7	33.9	**8.3**	0.8	0.4	100.0
	뇌병변	(21,626)	47.1	49.8	2.3	0.7	0.0	100.0
	시각	(8,928)	57.4	35.3	5.3	2.0	0.0	100.0
	청각/언어	(26,853)	59.3	35.9	4.8	0.0	0.0	100.0
	지적/자폐성	(8,061)	56.6	37.1	6.1	0.3	0.0	100.0
	정신	(4,108)	**62.9**	35.7	0.5	0.6	0.4	100.0
	내부/안면	(16,274)	33.5	**64.5**	2.0	0.0	0.0	100.0
장애정도	중증	(43,268)	50.0	**46.2**	3.2	0.6	0.0	100.0
	경증	(66,780)	53.8	40.0	5.6	0.5	0.1	100.0

주1) 외래진료 횟수 '1회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입원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이용한 의료관련 재활치료 서비스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물리치료가 2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동치료(5.0%), 언어치료(3.2%), 작업치료(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23.2%로 남성(21.5%) 보다 높았다. 지체 장애(35.9%)의 경우 '물리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적/자폐성 장애(18.1%)의 경우 언어치료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뇌병변 장애는 '운동치료'를 받는 경우가 16.6%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물리치료 응답 비율은 경증 장애가 26.8%로 중증 장애(15.3%) 보다 다소 높았다.

〈표 Ⅴ-4-37〉 의료관련 재활치료 서비스(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전 체		(112,272)	**22.2**	2.6	3.2	0.2	0.3
성별	남성	(62,378)	21.5	2.6	4.2	0.2	0.3
	여성	(49,895)	**23.2**	2.7	1.9	0.2	0.4
장애 유형	지체	(24,293)	**35.9**	1.2	0.1	0.0	0.0
	뇌병변	(23,231)	27.0	7.0	1.6	0.0	0.3
	시각	(9,023)	18.9	1.3	0.0	0.1	0.8
	청각/언어	(26,867)	21.5	1.3	5.9	0.1	0.0
	지적/자폐성	(8,221)	12.4	4.3	**18.1**	1.8	2.7
	정신	(4,291)	6.3	1.0	0.0	1.0	0.6
	내부/안면	(16,346)	7.4	1.0	0.6	0.0	0.0
장애 정도	중증	(44,843)	15.3	4.3	5.0	0.4	0.7
	경증	(67,429)	**26.8**	1.5	2.0	0.0	0.1

구 분		미술치료	행동치료	운동치료	기타	없음	계
전 체		0.3	0.6	5.0	1.0	64.6	100.0
성별	남성	0.3	0.5	4.5	1.0	64.8	100.0
	여성	0.2	0.6	5.6	1.0	64.2	100.0
장애 유형	지체	0.2	0.0	3.4	0.6	58.7	100.0
	뇌병변	0.4	0.8	**16.6**	1.1	45.2	100.0
	시각	0.0	0.1	3.3	0.0	75.6	100.0
	청각/언어	0.0	0.0	0.2	0.5	70.5	100.0
	지적/자폐성	2.1	3.7	1.6	0.0	53.3	100.0
	정신	0.0	2.7	4.2	1.9	82.3	100.0
	내부/안면	0.0	0.0	2.0	3.2	85.8	100.0
장애 정도	중증	0.4	1.2	8.9	1.6	62.2	100.0
	경증	0.2	0.1	2.5	0.6	66.1	100.0

주1) 지난 6개월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병원 이용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가용' 이용률이 34.5%로 가장 많았고, '일반, 저상버스'가 32.1%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자가용' 이용률이 39.3%로 여성(28.2%)보다 높았고, '일반, 저상버스'의 경우 여성이 38.1%로 남성(27.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장애와 시각 장애를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가용'을 이용한다는 비율이 30% 이상이었으며, 지체 장애의 '자가용' 이용률이 44.9%로 가장 높았다. 정신 장애의 경우 '일반, 저상버스'의 이용률이 51.7%로 높게 나타

났다. 한편, 뇌병변 장애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이용률이 14.0%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다. 경증 장애의 경우 병원 이용시 '자가용'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 비율은 36.3%로 중증 장애(31.4%) 보다 높았다.

〈표 V-4-38〉 병원 이용 시 주 이용 교통수단(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일반, 저상버스	일반택시	지하철/전철	장애인 콜택시	통학버스/사회복지시설 버스	자전거/오토바이
전 체		(251,277)	32.1	7.9	7.5	4.7	0.6	1.1
성별	남성	(142,540)	27.5	7.1	7.5	4.9	0.6	1.7
	여성	(108,737)	**38.1**	8.8	7.4	4.5	0.5	0.2
장애 유형	지체	(49,532)	26.6	9.1	6.8	3.0	0.4	0.7
	뇌병변	(42,177)	16.4	11.7	5.6	**14.0**	1.2	0.0
	시각	(21,557)	31.9	9.4	10.9	3.8	0.5	3.1
	청각/언어	(73,818)	41.0	4.4	8.0	0.9	0.0	1.2
	지적/자폐성	(23,852)	37.9	7.1	6.5	3.2	1.5	1.0
	정신	(8,894)	**51.7**	6.2	7.1	2.4	1.1	1.2
	내부/안면	(31,447)	31.2	9.0	8.5	6.2	0.5	1.2
장애 정도	중증	(92,616)	29.0	9.0	6.2	9.6	1.1	0.9
	경증	(158,661)	33.9	7.2	8.2	1.8	0.2	1.2

구 분		자가용	전동 스쿠터/휠체어	수동휠 체어	도보	기타	없음	계
전 체		**34.5**	0.8	0.6	8.8	1.0	0.4	0.2
성별	남성	**39.3**	1.2	0.6	8.5	1.0	0.1	0.1
	여성	28.2	0.2	0.7	9.2	1.1	0.8	0.3
장애 유형	지체	**44.9**	0.9	0.5	6.6	0.4	0.0	0.1
	뇌병변	35.9	3.0	2.7	4.9	3.6	0.2	0.7
	시각	29.0	0.0	0.2	10.9	0.1	0.1	0.2
	청각/언어	31.6	0.2	0.0	11.5	0.1	1.0	0.0
	지적/자폐성	31.9	0.0	0.2	10.5	0.0	0.0	0.2
	정신	16.0	0.0	0.0	12.8	1.1	0.4	0.0
	내부/안면	34.0	0.0	0.1	7.1	1.9	0.3	0.1
장애 정도	중증	31.4	0.8	1.3	7.8	2.1	0.2	0.5
	경증	**36.3**	0.7	0.2	9.4	0.4	0.5	0.0

집에서 주로 이용하는 병원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15분-30분 미만'이 4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분-60분 미만(29.5%), 15분 미만(11.9%) 등의 순이었다. 여성 중'1시간-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2%로 남성(6.3%)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51.1%)에서 '15분-30분 미만', 정신 장애(39.4%)에서 '30분-6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경우 '15분 미만' 응답 비율이 13.2%로 중증(9.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39〉 병원까지 이동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5분 미만	15분-30분 미만	30분-60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 체		(251,277)	11.9	**48.2**	29.5	7.6	2.7	100.0
성별	남성	(142,540)	11.8	48.8	30.3	6.3	2.7	100.0
	여성	(108,737)	12.1	47.4	28.5	**9.2**	2.7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3.7	**51.1**	23.9	8.8	2.5	100.0
	뇌병변	(42,177)	8.9	44.2	34.5	9.7	2.7	100.0
	시각	(21,557)	13.0	49.3	26.1	7.8	3.8	100.0
	청각/언어	(73,818)	14.5	49.5	28.9	4.8	2.3	100.0
	지적/자폐성	(23,852)	13.3	46.7	32.7	6.1	1.3	100.0
	정신	(8,894)	4.4	43.4	**39.4**	10.2	2.6	100.0
	내부/안면	(31,447)	7.6	47.9	30.3	9.6	4.5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9.8	47.5	32.9	7.5	2.3	100.0
	경증	(158,661)	13.2	48.7	27.6	7.6	3.0	100.0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 정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③+④) 비율은 90.9%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긍정 응답 비율이 95.4%로 가장 높았고, 지적/자폐성은 84.8%로 긍정 응답 비율이 낮은 편이다.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 정도에 대한 인식을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90.3%)이 경증(91.3%)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40〉 의사 및 간호사의 치료방법 이해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0.6	8.5	75.5	15.4	9.1	**90.9**	100.0
성별	남성	(142,540)	0.5	8.6	74.5	16.5	9.0	**91.0**	100.0
	여성	(108,737)	0.7	8.5	76.7	14.1	9.2	90.8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0.5	7.7	76.0	15.8	8.2	91.8	100.0
	뇌병변	(42,177)	0.2	9.3	72.8	17.8	9.5	90.5	100.0
	시각	(21,557)	1.3	8.0	76.5	14.2	9.3	90.7	100.0
	청각/언어	(73,818)	0.7	8.4	79.6	11.3	9.1	90.9	100.0
	지적/자폐성	(23,852)	1.0	14.2	72.8	11.9	15.2	**84.8**	100.0
	정신	(8,894)	0.2	10.9	73.8	15.1	11.1	88.9	100.0
	내부/안면	(31,447)	0.1	4.5	70.5	24.9	4.6	**95.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0.5	9.2	72.6	17.8	9.7	90.3	100.0
	경증	(158,661)	0.6	8.1	77.2	14.1	8.7	91.3	100.0

병원 진료가 끝난 후 의사나 간호사가 진료결과를 충분히 설명하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③+④)는 응답 비율은 90.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진료결과 설명의 충분성은 여성(90.1%) 이 남성(89.9%) 대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진료결과 설명 충분성의 긍정 응답 비율이 93.7%로 가장 높았고,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84.8%로 가장 낮았다. 진료결과 설명 충분성을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경증(90.8%)이 중증(88.7%) 대비 긍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4-41〉 진료결과 설명 충분성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0.7	9.3	75.7	14.3	10.0	**90.0**	100.0
성별	남성	(142,540)	0.7	9.4	75.4	14.5	10.1	89.9	100.0
	여성	(108,737)	0.7	9.2	76.1	14.0	9.9	**90.1**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0.5	8.9	77.0	13.7	9.3	90.7	100.0
	뇌병변	(42,177)	0.6	10.8	72.7	15.9	11.4	88.6	100.0
	시각	(21,557)	1.0	8.9	76.4	13.6	9.9	90.1	100.0
	청각/언어	(73,818)	0.5	8.5	79.0	12.0	9.0	91.0	100.0
	지적/자폐성	(23,852)	2.5	12.6	73.6	11.3	15.2	**84.8**	100.0
	정신	(8,894)	0.4	13.8	75.8	10.0	14.2	85.8	100.0
	내부/안면	(31,447)	0.0	6.2	71.3	22.5	6.3	**93.7**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0.9	10.3	72.9	15.8	11.3	88.7	100.0
	경증	(158,661)	0.5	8.7	77.4	13.4	9.2	**90.8**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장애로 인한 의사 처방약 복용

장애로 인하여 의사가 처방한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61.5%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는 63.8%로 남성(59.8%)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의사 처방약을 3개월 이상 복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8.4%로 가장 높았고,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44.2%로 가장 낮았다. 중증 장애의 경우는 71.6%로 경증 장애(55.6%) 보다 높은 편이다.

〈표 Ⅴ-4-42〉 장애로 인한 의사 처방약 복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61.5	38.5	100.0
성별	남성	(142,540)	59.8	40.2	100.0
	여성	(108,737)	63.8	36.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58.7	41.3	100.0
	뇌병변	(42,177)	82.4	17.6	100.0
	시각	(21,557)	55.0	45.0	100.0
	청각/언어	(73,818)	**44.2**	55.8	100.0
	지적/자폐성	(23,852)	45.0	55.0	100.0
	정신	(8,894)	87.1	12.9	100.0
	내부/안면	(31,447)	**88.4**	11.6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71.6**	28.4	100.0
	경증	(158,661)	55.6	44.4	100.0

(3) 건강검진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4%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건강검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8.9%로 여성(67.8%)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시각 장애의 경우 건강검진 받은 경험이 79%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험률(40.1%)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54.8%로 경증 장애(76.3%) 보다 낮았다.

〈표 Ⅴ-4-43〉 건강검진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51,277)	**68.4**	31.6	100.0
성별	남성	(142,540)	**68.9**	31.1	100.0
	여성	(108,737)	67.8	32.2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79.5**	20.5	100.0
	뇌병변	(42,177)	57.6	42.4	100.0
	시각	(21,557)	79.2	20.8	100.0
	청각/언어	(73,818)	74.5	25.5	100.0
	지적/자폐성	(23,852)	**40.1**	59.9	100.0
	정신	(8,894)	55.2	44.8	100.0
	내부/안면	(31,447)	68.8	31.2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54.8	45.2	100.0
	경증	(158,661)	**76.3**	23.7	100.0

건강검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건강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39.4%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부담'이 13.5%로 두 번째로 높았다. 건강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응답 비율은 남성이 40.3%로 여성(38.2%)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및 정신 장애에서 '건강 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응답 비율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고, 청각/언어 장애 및 정신 장애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4%로 비교적 높았다. 중증 장애의 경우 '건강 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한' 응답 비율이 42.1%로 경증 장애(36.4%) 보다 높았다.

〈표 Ⅴ-4-44〉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부담	이동의 어려움	의료 장비 부족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	정보 부족	건강 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 해서	이유 없이 거부 당함	검진 대상이 아니 어서	기타	계
전 체		(79,399)	13.5	8.6	1.5	1.9	1.8	4.7	**39.4**	0.4	23.0	5.2	100.0
성별	남성	(44,332)	13.0	8.0	1.2	2.0	1.2	4.0	**40.3**	0.4	24.6	5.3	100.0
	여성	(35,066)	14.2	9.3	1.9	1.7	2.4	5.5	38.2	0.4	21.0	5.1	100.0
장애 유형	지체	(10,140)	16.9	11.2	6.2	1.7	1.7	3.7	32.0	0.0	23.1	3.6	100.0
	뇌병변	(17,870)	10.0	19.2	0.5	2.6	1.2	4.2	40.0	0.6	16.3	5.4	100.0
	시각	(4,482)	14.1	9.7	0.3	2.8	1.3	4.8	31.2	0.4	27.3	8.1	100.0
	청각/언어	(18,800)	**18.4**	5.4	1.2	1.0	3.3	4.9	38.5	0.0	21.4	5.8	100.0
	지적/자폐성	(14,297)	9.1	1.7	0.5	2.2	0.2	5.6	36.0	0.0	40.8	3.8	100.0
	정신	(3,988)	**18.4**	5.5	2.6	2.1	4.4	4.6	**50.3**	0.0	11.3	0.6	100.0
	내부/안면	(9,820)	11.2	3.3	0.8	1.4	1.3	4.8	**51.8**	2.2	15.3	8.0	100.0
장애 정도	중증	(41,817)	10.6	8.6	0.8	2.2	1.2	4.1	**42.1**	0.7	24.3	5.4	100.0
	경증	(37,582)	16.8	8.6	2.3	1.4	2.4	5.4	36.4	0.1	21.6	5.0	100.0

주1) 건강검진 받은 경험 '없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의료서비스 경험

지난 6개월 동안 병·의원(치과 제외)에서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3%로 남성(3.9%)보다 소폭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의 6.3%가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신장애의 경우 2.9%로 가장 낮았다. 경증 장애의 경우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4.5%로 중증 장애(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4-45〉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4.1	95.9	100.0
성별	남성	(142,540)	3.9	96.1	100.0
	여성	(108,737)	4.3	95.7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1	95.9	100.0
	뇌병변	(42,177)	3.9	96.1	100.0
	시각	(21,557)	**6.3**	93.7	100.0
	청각/언어	(73,818)	4.1	95.9	100.0
	지적/자폐성	(23,852)	4.2	95.8	100.0
	정신	(8,894)	**2.9**	97.1	100.0
	내부/안면	(31,447)	3.0	97.0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3.4	96.6	100.0
	경증	(158,661)	**4.5**	95.5	100.0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진료 받지 못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1회'가 2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회(26.5%), 7회 이상(17.9%), 3~4회(15.9%), 5~6회(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각/언어장애(52.4%)에서 '1회'라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청각/언어 장애는 '2회' 응답 비율이 33.4%, 정신장애의 경우 '3~4회' 응답 비율이 39.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지체장애는 '7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높게 나타났다. 경증장애의 경우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 '2회 이하' 응답 비율이, 중증장애의 경우 '3회 이상'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Ⅴ-4-46〉 병/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회	2회	3~4회	5~6회	7회 이상	계
전 체		(10,262)	29.4	26.5	15.9	10.4	17.9	100.0
성별	남성	(5,567)	**36.2**	23.5	14.7	11.6	14.0	100.0
	여성	(4,695)	21.2	30.1	17.3	8.9	**22.5**	100.0
장애 유형	지체	(2,012)	9.8	25.1	10.2	8.2	**46.7**	100.0
	뇌병변	(1,629)	32.9	20.3	24.3	7.7	14.8	100.0
	시각	(1,354)	16.4	28.7	16.6	**29.8**	8.4	100.0
	청각/언어	(3,050)	**52.4**	**33.4**	2.8	3.5	8.0	100.0
	지적/자폐성	(1,000)	14.5	21.2	27.6	10.1	26.6	100.0
	정신	(259)	25.9	9.5	**39.5**	11.5	13.6	100.0
	내부/안면	(959)	25.8	25.2	35.2	13.8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3,172)	16.1	19.4	**34.8**	**10.5**	**19.1**	100.0
	경증	(7,090)	**35.3**	**29.6**	7.4	10.3	17.4	100.0

주1) 병 · 의원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치과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5.9%로 남성(5.8%) 보다 소폭 높았다. 시각장애(10.4%)에서 충분한 치과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타 장애 유형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장애의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로 중증 장애(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4-47〉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5.8	94.2	100.0
성별	남성	(142,540)	5.8	94.2	100.0
	여성	(108,737)	5.9	94.1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6.1	93.9	100.0
	뇌병변	(42,177)	5.8	94.2	100.0
	시각	(21,557)	10.4	89.6	100.0
	청각/언어	(73,818)	5.0	95.0	100.0
	지적/자폐성	(23,852)	3.8	96.2	100.0
	정신	(8,894)	5.4	94.6	100.0
	내부/안면	(31,447)	5.6	94.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5.0	95.0	100.0
	경증	(158,661)	6.3	93.7	100.0

지난 6개월 동안 치과에서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에 대해 조사한 결과, '1회'가 3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회(24.0%), 5~6회(19.1%), 3~4회(14.2%), 7회 이상(7.1%)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회(39.9%)에서, 여성은 7회 이상(9.9%)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 안면 및 지적/자폐성 장애(각각 49.0%, 45.6%)에서 '1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뇌병변장애의 경우 '2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32.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장애는 '3~4회'가 28.0%, 시각장애는 '5~6회'가 35.0%, 지체 장애는 '7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중증장애의 경우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 '3~4회'응답 비율이, 경증 장애의 경우 '7회 이상'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Ⅴ-4-48〉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횟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회	2회	3~4회	5~6회	7회 이상	계
전 체		(14,591)	35.6	24.0	14.2	19.1	7.1	100.0
성별	남성	(8,200)	**39.9**	22.1	15.7	17.3	4.9	100.0
	여성	(6,390)	30.1	26.3	12.3	21.3	**9.9**	100.0
장애 유형	지체	(3,041)	33.6	19.1	4.2	29.5	**13.7**	100.0
	뇌병변	(2,442)	37.2	**32.8**	13.4	12.9	3.7	100.0
	시각	(2,246)	32.0	23.4	7.4	**35.0**	2.2	100.0
	청각/언어	(3,726)	31.9	30.5	18.9	7.7	11.0	100.0
	지적/자폐성	(902)	**45.6**	14.2	17.5	22.6	0.0	100.0
	정신	(483)	18.8	28.0	**28.0**	25.3	0.0	100.0
	내부/안면	(1,749)	**49.0**	10.9	26.2	9.7	4.1	100.0
장애 정도	중증	(4,609)	38.0	20.8	22.7	16.1	2.5	100.0
	경증	(9,981)	34.5	25.4	10.3	20.5	9.3	100.0

주1)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6개월 동안 진료가 필요하였으나 병·의원 또는 치과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대상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진료비 부담 응답'이 7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동의 어려움'(9.0%),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4.1%), '장애인관련 전문 인력 부족'(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부담'을 제외하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정보 부족'(3.8%), 남성은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5.4%)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Ⅴ-4-49〉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진료비 부담	이동의 어려움	의료 장비 부족	장애인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	정보 부족	이유 없이 거부 당함	기타	계
전 체		(20,603)	74.7	9.0	1.6	3.5	4.1	1.7	0.1	5.3	100.0
성별	남성	(11,449)	74.1	7.9	1.1	4.4	5.4	0.0	0.2	6.9	100.0
	여성	(9,155)	**75.4**	10.3	2.2	2.3	2.6	3.8	0.0	3.4	100.0

주1) 병/의원 또는 치과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만족한다(③+④)는 응답 비율은 87.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가 90.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증 장애의 경우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87.8%로 중증 장애(85.8%)보다 높았다.

〈표 Ⅴ-4-50〉 의료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만족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0.5	12.4	84.9	2.2	12.9	87.1	100.0
성별	남성	(142,540)	0.3	12.6	85.1	2.0	12.9	87.1	100.0
	여성	(108,737)	0.6	12.2	84.6	2.5	12.9	87.1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0.5	12.9	84.4	2.2	13.4	86.6	100.0
	뇌병변	(42,177)	1.0	17.2	79.9	1.9	18.2	81.8	100.0
	시각	(21,557)	0.3	13.7	83.7	2.2	14.1	85.9	100.0
	청각/언어	(73,818)	0.2	10.5	87.6	1.6	10.8	89.2	100.0
	지적/자폐성	(23,852)	0.9	10.5	86.8	1.8	11.4	88.6	100.0
	정신	(8,894)	0.2	15.5	81.9	2.5	15.7	84.3	100.0
	내부/안면	(31,447)	0.1	9.5	86.0	4.4	9.6	**90.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0.8	13.3	83.2	2.6	14.2	85.8	100.0
	경증	(158,661)	0.2	11.9	85.9	2.0	12.2	**87.8**	100.0

주1)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3) 안전

(1) 안전

평상 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평상시 생활하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③+④) 88.2%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 비율은 87.6%로 남성의 88.7% 보다는 낮은 편이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90.4%로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뇌병변 장애는 83.2%로 타 장애 유형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51〉 평상 시 안전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안전하지 않음	② 안전하지 않은 편임	③ 안전한 편임	④ 매우 안전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0.6	11.2	84.4	3.8	11.8	**88.2**	100.0
성별	남성	(142,540)	0.4	11.0	85.0	3.7	11.3	**88.7**	100.0
	여성	(108,737)	0.9	11.5	83.6	4.0	12.4	87.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0.2	13.5	82.8	3.5	13.6	86.4	100.0
	뇌병변	(42,177)	1.5	15.3	80.1	3.1	16.8	**83.2**	100.0
	시각	(21,557)	0.7	11.1	85.0	3.2	11.8	88.2	100.0
	청각/언어	(73,818)	0.3	8.3	87.5	3.8	8.6	91.4	100.0
	지적/자폐성	(23,852)	0.9	10.6	82.6	5.9	11.5	88.5	100.0
	정신	(8,894)	0.9	11.4	87.1	0.6	12.3	87.7	100.0
	내부/안면	(31,447)	0.2	9.4	85.6	4.8	9.6	**90.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2	12.0	82.8	4.1	13.1	86.9	100.0
	경증	(158,661)	0.2	10.8	85.4	3.6	11.0	89.0	100.0

주1) '전혀 안전하지 않음' 부터 '매우 안전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지난조사 이후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났다. 여성 중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로 남성(4.6%)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인의 7.6%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며, 정신 장애인의 경우 2.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5.8%로 중증 장애 3.6%보다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52〉 지난조사 이후 사고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51,277)	5.0	95.0	100.0
성별	남성	(142,540)	4.6	95.4	100.0
	여성	(108,737)	5.6	94.4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7.6	92.4	100.0
	뇌병변	(42,177)	6.4	93.6	100.0
	시각	(21,557)	5.6	94.4	100.0
	청각/언어	(73,818)	4.2	95.8	100.0
	지적/자폐성	(23,852)	3.1	96.9	100.0
	정신	(8,894)	2.1	97.9	100.0
	내부/안면	(31,447)	3.0	97.0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3.6	96.4	100.0
	경증	(158,661)	5.8	94.2	100.0

지난조사 이후 경험한 사고 종류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실족사고 (넘어짐, 미끄러짐 등)'가 4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28.3%), 추락사고(16.9%)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실족사고를 경험했다는 비율은 56.9%로 남성(33.8%) 대비 높았던 반면, 남성은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36.8%로 여성(19.2%)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53〉 사고 종류(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갇힘사고 (예, 엘리 베이터, 방안 등)	교통사고	추락사고 (낙상사고 포함)	화재사고	끼임사고 (예, 지하철 문 등)
전 체		(12,604)	1.8	28.3	16.9	0.4	0.9
성별	남성	(6,523)	0.0	36.8	19.3	0.0	0.0
	여성	(6,081)	3.7	19.2	14.4	0.9	1.8
구 분		폭행사고	실종사고 (예, 가족을 잃어버림)	레저사고 (예, 자전거, 운동 중)	실족사고 (넘어짐, 미끄러짐 등)	기타	계
전 체		0.7	0.8	1.6	45.0	3.6	100.0
성별	남성	1.0	1.2	3.1	33.8	4.9	100.0
	여성	0.3	0.4	0.0	56.9	2.2	100.0

주1) 사고 경험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재난대응교육

지진 혹은 화재, 자연재해를 포함하는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6.3%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여부를 알고 있다는 응답이 61.6%로 여성(49.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70.0%), 내부/안면 장애(65.8%)에서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인지율이 62.2%로 50% 이상 이나, 중증 장애의 응답 비율은 46.2%로 낮았다.

〈표 Ⅴ-4-54〉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알고 있음	모름	계
전 체		(251,277)	**56.3**	43.7	100.0
성별	남성	(142,540)	**61.6**	38.4	100.0
	여성	(108,737)	49.4	50.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70.0**	30.0	100.0
	뇌병변	(42,177)	45.3	54.7	100.0
	시각	(21,557)	58.6	41.4	100.0
	청각/언어	(73,818)	58.8	41.2	100.0
	지적/자폐성	(23,852)	33.2	66.8	100.0
	정신	(8,894)	35.0	65.0	100.0
	내부/안면	(31,447)	**65.8**	34.2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6.2	53.8	100.0
	경증	(158,661)	**62.2**	37.8	100.0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지난조사 이후 재난대응훈련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16.1%로 조사되었다. 남성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18.9%로 여성(1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은 35.5%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정신 장애의 경험률은 6.4%로 가장 낮았다. 중증 장애의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참여 경험은 14.0%로 경증 장애(17.0%) 보다 3%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55〉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41,477)	**16.1**	83.9	100.0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성별	남성	(87,771)	**18.9**	81.1	100.0
	여성	(53,706)	11.5	88.5	100.0
장애 유형	지체	(34,665)	16.5	83.5	100.0
	뇌병변	(19,093)	7.5	92.5	100.0
	시각	(12,629)	17.2	82.8	100.0
	청각/언어	(43,369)	19.3	80.7	100.0
	지적/자폐성	(7,927)	**35.5**	64.5	100.0
	정신	(3,109)	**6.4**	93.6	100.0
	내부/안면	(20,684)	10.0	90.0	100.0
장애 정도	중증	(42,750)	14.0	86.0	100.0
	경증	(98,727)	**17.0**	83.0	100.0

주1)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인지 여부 '알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을 살펴보면, '(6)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의 비율이 84.2%로 가장 높았고, '(4)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54.5%로 가장 낮았다.

〈표 V-4-56〉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못함	② 거의 못함	③ 조금할 수 있음	④ 충분히 할 수 있음	①+②	③+④	계
(1)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251,277)	7.6	11.3	28.7	52.3	18.9	81.1	100.0
(2)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251,277)	7.6	10.4	28.8	53.2	18.0	82.0	100.0
(3) 집안/건물 내에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를 알고 있다	(251,277)	11.0	16.7	28.7	43.7	27.7	72.3	100.0
(4)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251,277)	21.2	24.4	21.6	32.9	45.5	**54.5**	100.0
(5)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대피소까지 이동 할 수 있다	(251,277)	9.8	12.9	31.3	46.0	22.7	77.3	100.0
(6)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	(251,277)	6.0	9.8	33.2	51.0	15.8	**84.2**	100.0

(4) 주거환경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의 비율이 89.7%로 가장 높았고, '(3) 집 주변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 생활하기에 좋지 않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43.4%로 가장 낮았다.

〈표 Ⅴ-4-57〉 주거환경 평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집이 튼튼하고 내부 구조재질이 방열/방습에 양호하다	(251,277)	1.3	11.2	65.2	22.2	12.5	87.5	100.0
(2) 적절한 방음, 환기,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다	(251,277)	1.7	11.4	62.0	24.9	13.1	86.9	100.0
(3) 집 주변 소음, 진동, 악취로 인해 생활하기에 좋지 않다	(251,277)	25.0	31.5	30.8	12.6	56.6	43.4	100.0
(4) 해일, 홍수, 산사태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	(251,277)	1.9	9.8	63.7	24.6	11.7	88.3	100.0
(5) 집 주변에서 활동하기 편리하다	(251,277)	1.4	9.9	62.7	26.0	11.3	88.7	100.0
(6) 집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횡단보도 등)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다	(251,277)	1.3	10.9	64.7	23.1	12.2	87.8	100.0
(7) 집 주변에 병원, 소방서, 사회복지시설 등이 가까이 있다	(251,277)	4.8	18.5	60.2	16.5	23.3	76.7	100.0
(8)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은 안전하다	(251,277)	1.1	9.2	68.7	21.0	10.3	89.7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거공간 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화장실 및 욕실'이 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계단(3.6%), 문턱(3.4%), 거실(2.9%)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 따른 수리가 필요한 공간은 여성의 경우 화상실 및 욕실(9.1%), 계단(4.7%)에서 남성 대비 2%p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인의 11.6%, 정신 장애인의 10.5%가 '화장실 및 욕실'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증 장애의 경우 '화장실 및 욕실'의 응답 비율이 9.2%로 경증 장애(7.0%) 보다 높았다.

〈표 V-4-58〉 주거공간 내 수리가 필요한 공간(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침실	거실	현관 및 복도	화장실 및 욕실	문턱	부엌	계단	기타	없음	계
전 체		(251,277)	1.3	2.9	1.4	7.9	3.4	0.9	3.6	0.4	78.4	100.0
성별	남성	(142,540)	1.4	2.6	1.6	6.9	3.2	1.0	2.7	0.5	80.1	100.0
	여성	(108,737)	1.1	3.3	1.2	**9.1**	3.6	0.8	**4.7**	0.2	76.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3	1.6	1.4	7.5	4.1	1.5	3.2	0.1	79.6	100.0
	뇌병변	(42,177)	1.9	4.3	1.7	**11.6**	6.8	0.4	4.4	0.2	68.7	100.0
	시각	(21,557)	1.1	3.2	2.7	8.9	4.4	1.0	3.5	0.7	74.4	100.0
	청각/언어	(73,818)	0.6	3.4	0.3	6.3	2.1	0.6	3.8	0.1	82.7	100.0
	지적/자폐성	(23,852)	2.2	1.9	2.4	7.6	1.1	1.0	2.3	0.3	81.2	100.0
	정신	(8,894)	0.9	2.6	2.3	**10.5**	1.7	2.0	3.4	0.0	76.4	100.0
	내부/안면	(31,447)	1.7	2.3	1.5	5.9	1.9	1.3	3.5	1.5	80.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9	3.1	2.0	9.2	3.8	1.3	3.6	0.7	74.3	100.0
	경증	(158,661)	0.9	2.7	1.0	7.0	3.1	0.8	3.5	0.2	80.7	100.0

5. 자립

1) 일상생활

(1)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1순위)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와주는 사람이'없는'경우가 38.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배우자(31.1%), 부모(1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부모' 응답이 16.7%로 여성(12.7%) 대비 높게 나타난 한편, '자녀'응답은 여성(11.1%)이 남성(2.7%) 대비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의 경우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는 배우자로 응답한 비율이 41.9%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배우자'라는 응답이 29.0%로 가장 높았고, 경증 장애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 포함)	형제 자매	친인척	친구 및 이웃	유료 간병인/가정봉사원
전 체		(251,277)	31.1	14.9	6.4	2.7	0.4	1.2	1.0
성별	남성	(142,540)	32.6	**16.7**	2.7	3.2	0.5	1.3	1.0
	여성	(108,737)	29.2	12.7	**11.1**	2.1	0.4	0.9	1.0
장애 유형	지체	(49,532)	32.0	6.8	6.3	1.9	0.7	1.5	0.4
	뇌병변	(42,177)	**41.9**	14.9	8.3	2.4	0.4	0.7	4.8
	시각	(21,557)	24.6	9.7	7.1	1.7	0.1	1.3	0.3
	청각/언어	(73,818)	31.2	10.2	6.5	1.3	0.3	0.7	0.0
	지적/자폐성	(23,852)	14.9	55.3	2.8	7.0	0.6	0.7	0.3
	정신	(8,894)	12.5	33.2	5.4	13.5	1.6	1.3	0.0
	내부/안면	(31,447)	37.0	7.0	6.0	2.3	0.2	2.4	0.3
장애 정도	중증	(92,616)	29.0	26.3	6.1	4.7	0.5	1.4	2.0
	경증	(158,661)	32.3	8.3	6.5	1.6	0.4	1.0	0.4

구 분		활동 보조인	무료 간병인/가정 봉사원	요양 보호사	종교단체 관계자	사회 복지사	기타	없음	계
전 체		1.3	0.4	1.5	0.2	0.2	0.2	**38.5**	100.0
성별	남성	1.1	0.4	1.0	0.3	0.3	0.3	38.7	100.0
	여성	1.5	0.3	2.1	0.1	0.1	0.1	38.3	100.0
장애 유형	지체	1.0	0.7	1.2	0.3	0.1	0.4	46.6	100.0
	뇌병변	2.4	0.6	5.3	0.1	0.3	0.1	17.8	100.0
	시각	1.6	0.1	1.7	0.1	0.0	0.0	**51.6**	100.0
	청각/언어	0.1	0.0	0.3	0.4	0.2	0.0	48.8	100.0
	지적/자폐성	1.8	0.2	0.1	0.0	0.3	0.0	16.1	100.0
	정신	0.7	0.6	0.6	0.5	1.3	2.3	26.6	100.0
	내부/안면	2.3	0.6	0.7	0.2	0.2	0.2	40.6	100.0
장애 정도	중증	2.7	0.5	2.1	0.1	0.3	0.4	23.7	100.0
	경증	0.4	0.3	1.1	0.3	0.2	0.1	47.2	100.0

(2) 도움 받는 분야 및 시간

일상생활 도움 받는 분야를 살펴보면, '(1)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③+④)은 53.4%였고, '(5) 집안청소 및 관리'에 대해 '도움을 받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③+④)이 59.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 옷 입고 벗기'에 대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비율(③+④)이 25.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2〉 도움 받는 분야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전혀 도움받지 않음	② 거의 도움받지 않는 편임	③도움받고 있는 편임	④전적으로 도움받음	①+②	③+④	계
(1) 전반적 일상생활	(154,538)	22.5	24.1	37.0	16.4	46.6	53.4	100.0
(2)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목욕, 대소변, 손/발톱관리 등)	(154,538)	46.7	22.6	18.8	11.8	69.3	30.7	100.0
(3) 이동 (휠체어 밀어주기, 길 안내하기, 버스 타고 내리기 등)	(154,538)	42.8	19.0	23.0	15.2	61.8	38.2	100.0
(4) 의사소통 (대화하기, 전화하기, 문자 쓰기 등)	(154,538)	41.6	21.4	25.7	11.3	62.9	37.1	100.0
(5) 집안청소 및 관리	(154,538)	24.5	15.9	37.0	22.6	40.4	**59.6**	100.0
(6) 건강관리 (약 챙겨 먹기, 상처치료, 운동 등)	(154,538)	42.9	23.0	20.4	13.7	65.9	34.1	100.0
(7) 학습활동 (언어배우기, 쓰기, 말하기 등)	(154,538)	47.8	21.1	19.0	12.0	68.9	31.1	100.0
(8) 금전관리 (저축, 가계부 쓰기 등)	(154,538)	40.2	18.0	22.7	19.1	58.2	41.8	100.0
(9) 여가 및 사회참여 (여행, 쇼핑 등)	(154,538)	35.7	18.8	26.7	18.8	54.5	45.5	100.0
(10) 식사(식사준비, 먹기, 치우기)	(154,538)	27.8	18.2	33.4	20.6	46.0	54.0	100.0
(11) 옷 입고 벗기	(154,538)	51.2	23.0	15.7	10.1	74.2	**25.8**	100.0

주1) '전혀 도움 받지 않음' 부터 '전적으로 도움 받음'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없음' 응답자는 제외함

주중 평균 1일 기준 도움 받는 시간을 살펴보면, '5시간 미만'이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도움받는 시간이 큰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와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도움 받는다는 응답이 8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는 '5~10시간 미만'도움받는 비율이 21.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64.1%로 경증 장애(86.7%)와 20%p 이상 큰 폭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Ⅴ-5-3〉 주중 평균 1일 기준 도움 받는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전 체		(154,538)	76.3	14.3	9.3	100.0
성별	남성	(87,439)	76.2	14.5	9.3	100.0
	여성	(67,099)	76.6	14.1	9.3	100.0
장애 유형	지체	(26,468)	83.4	10.5	6.2	100.0
	뇌병변	(34,672)	54.6	**23.4**	22.0	100.0
	시각	(10,426)	83.9	9.5	6.5	100.0
	청각/언어	(37,759)	87.5	8.6	3.9	100.0
	지적/자폐성	(20,018)	69.5	**21.6**	8.9	100.0
	정신	(6,526)	77.3	15.9	6.9	100.0
	내부/안면	(18,669)	87.0	8.8	4.2	100.0
장애 정도	중증	(70,689)	64.1	21.1	14.8	100.0
	경증	(83,849)	86.7	8.6	4.7	100.0

주1)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없음' 응답자는 제외함

주말 평균 1일 기준 도움 받는 시간을 살펴보면, '5시간 미만'이 77.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응답이 8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는 '5시간 이상' 응답이 21%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도움 받는 시간에 대해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65.3%, 경증 장애는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87.5%로 나타났다.

〈표 Ⅴ-5-4〉 주말 평균 1일 기준 도움 받는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전 체		(154,538)	77.3	13.2	9.4	100.0
성별	남성	(87,439)	77.4	13.4	9.2	100.0
	여성	(67,099)	77.3	13.1	9.6	100.0
장애 유형	지체	(26,468)	84.7	10.1	5.2	100.0
	뇌병변	(34,672)	55.7	**22.6**	**21.7**	100.0
	시각	(10,426)	87	8.8	4.2	100.0
	청각/언어	(37,759)	**87.5**	7.7	4.8	100.0
	지적/자폐성	(20,018)	69.7	19.5	10.8	100.0
	정신	(6,526)	79.2	15.6	5.2	100.0
	내부/안면	(18,669)	88.9	6.6	4.6	100.0
장애 정도	중증	(70,689)	65.3	19.0	15.6	100.0
	경증	(83,849)	87.5	8.4	4.1	100.0

주1) 일상생활 도와주는 사람 '없음' 응답자는 제외함

(3) 도움 필요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를 살펴보면, '(1)전반적 일상생활'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③+④) 35.8%인 것으로 나타났다. '(5) 집안청소 및 관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율(③+④)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1) 옷 입고 벗기'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비율(③+④)이 18.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V-5-5〉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② 거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편임	③ 도움이 필요한 편임	④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①+②	③+④	계
(1) 전반적 일상생활	(251,277)	37.0	27.2	24.9	10.8	64.2	35.8	100.0
(2)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목욕, 대소변, 손/발톱관리 등)	(251,277)	57.3	20.5	13.4	8.8	77.8	22.2	100.0
(3) 이동 (휠체어 밀어주기, 길 안내하기, 버스타고 내리기 등)	(251,277)	53.0	18.9	16.3	11.7	72.0	28.0	100.0
(4) 의사소통 (대화하기, 전화하기, 문자 쓰기 등)	(251,277)	53.1	20.8	17.9	8.3	73.9	26.1	100.0
(5) 집안청소 및 관리	(251,277)	38.5	19.6	26.9	15.0	58.1	41.9	100.0
(6) 건강관리 (약 챙겨 먹기, 상처치료, 운동 등)	(251,277)	54.7	21.8	14.4	9.1	76.5	23.5	100.0
(7) 학습활동 (언어배우기, 쓰기, 말하기 등)	(251,277)	57.3	20.8	13.0	8.9	78.1	21.9	100.0
(8) 금전관리 (저축, 가계부 쓰기 등)	(251,277)	53.2	19.3	15.8	11.7	72.5	27.5	100.0
(9) 여가 및 사회참여 (여행, 쇼핑 등)	(251,277)	49.1	18.5	19.3	13.1	67.6	32.4	100.0
(10) 식사(식사준비, 먹기, 치우기)	(251,277)	41.6	18.8	26.1	13.4	60.5	39.5	100.0
(11) 옷 입고 벗기	(251,277)	61.3	20.6	10.6	7.6	81.8	18.2	100.0

주1)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부터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일상생활에서 도움 받길 희망하는 시간을 주중 평균 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5시간 미만'이 77.2%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남성의 경우, 도움제공 희망 시간이 '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8%로 여성(7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는 '5~10시간 미만'응답 비율이 26.0%로 다른 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64.0%, 경증 장애의 경우에는 87.1%로 확인되었다.

〈표 Ⅴ-5-6〉 주중 평균 1일 기준 도움제공 희망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전 체		(187,176)	77.2	14.3	8.5	100.0
성별	남성	(107,054)	77.8	13.8	8.4	100.0
	여성	(80,122)	76.4	14.9	8.8	100.0
장애 유형	지체	(33,527)	83.3	10.1	6.5	100.0
	뇌병변	(39,552)	54.5	**26.0**	19.5	100.0
	시각	(14,352)	84.8	9.8	5.4	100.0
	청각/언어	(48,929)	88.7	8.6	2.8	100.0
	지적/자폐성	(21,624)	68.9	21.3	9.7	100.0
	정신	(7,349)	75.9	13.1	11.0	100.0
	내부/안면	(21,843)	86.7	8.7	4.6	100.0
장애 정도	중증	(80,068)	64.0	21.2	14.9	100.0
	경증	(107,108)	87.1	9.1	3.8	100.0

주1)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 모두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일상생활에서 도움 받길 희망하는 시간을 주말(공휴일) 평균 1일 기준으로 살펴보면, '5시간 미만'이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78.7%로 여성(76.3%)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87.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는 '5~10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26.1%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5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65.2%였고, 경증 장애는 87.1%로 나타났다.

〈표 Ⅴ-5-7〉 주말 평균 1일 기준 도움제공 희망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전 체		(187,176)	77.7	14.0	8.2	100.0
성별	남성	(107,054)	78.7	13.4	7.9	100.0
	여성	(80,122)	76.3	14.9	8.8	100.0
장애 유형	지체	(33,527)	85	10.2	4.8	100.0
	뇌병변	(39,552)	54.4	**26.1**	19.5	100.0
	시각	(14,352)	87.9	8.9	3.2	100.0
	청각/언어	(48,929)	87.5	8.7	3.8	100.0
	지적/자폐성	(21,624)	69.2	19.6	11.1	100.0
	정신	(7,349)	82	11.5	6.5	100.0
	내부/안면	(21,843)	87.4	8.6	4.0	100.0
장애 정도	중증	(80,068)	65.2	20.0	14.8	100.0
	경증	(107,108)	87.1	9.5	3.4	100.0

주1)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 유형과 정도 모두 '전혀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4) 집안일(만 6세 이상)

하루 평균 집안일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1~2시간 미만' 참여가 27.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참여하지 않음(22.1%), 30분~1시간 미만(20.2%), 2~3시간 미만(15.7%), 3시간 이상(14.5%)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시간 ~ 2시간 미만' 참여 응답 비율이 30.5%로 높게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3시간 이상'집안일 참여 응답 비율이 27.4%로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신 장애는 '1시간~2시간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32.0%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35.6%로 경증 장애(14.3%) 보다 약 21.3%p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V-5-8〉 집안일 시간(만 6세 이상)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0 분 (참여 하지 않음)	30분 ~ 1시간 미만	1시간 ~ 2시간 미만	2시간 ~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계
전 체		(246,489)	22.1	20.2	**27.5**	15.7	14.5	100.0
성별	남성	(139,575)	27.3	25.9	**30.5**	11.8	4.6	100.0
	여성	(106,914)	15.3	12.7	23.7	20.9	**27.4**	100.0
장애 유형	지체	(49,050)	16.4	21.0	28.6	16.5	17.5	100.0
	뇌병변	(40,590)	**46.6**	20.9	19.4	8.2	4.8	100.0
	시각	(21,330)	13.8	20.9	28.9	19.4	16.9	100.0
	청각/언어	(71,790)	11.6	17.0	31.0	19.8	20.5	100.0
	지적/자폐성	(23,621)	40.2	23.7	21.3	6.8	7.9	100.0
	정신	(8,894)	22.1	21.8	**32.0**	12.5	11.6	100.0
	내부/안면	(31,215)	15.0	21.5	30.9	20.0	12.6	100.0
장애 정도	중증	(89,912)	35.6	20.4	23.9	11.7	8.3	100.0
	경증	(156,577)	14.3	20.1	29.6	18.0	18.0	100.0

주1) 만 6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집안일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부담 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35.6%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3.8%)보다 여성(28.2%)의 '부담 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에서 '부담 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45.5%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부담 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38.1%로 경증 장애(34.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9〉 집안일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전혀 부담 되지 않음	②부담 되지 않는 편이다	③부담 되는 편이다	④매우 부담됨	①+②	③+④	계
전 체		(192,099)	12.2	52.2	32.9	2.7	64.4	**35.6**	100.0
성별	남성	(101,505)	16.1	55.6	26.6	1.7	71.8	28.2	100.0
	여성	(90,593)	7.9	48.4	40.0	3.8	56.2	**43.8**	100.0
장애 유형	지체	(41,028)	12.1	46.4	37.9	3.5	58.6	41.4	100.0
	뇌병변	(21,673)	4.4	50.1	36.8	8.8	54.5	**45.5**	100.0
	시각	(18,378)	13.4	51.6	33.4	1.6	65.0	35.0	100.0
	청각/언어	(63,429)	14.3	56.9	28.1	0.8	71.2	28.8	100.0
	지적/자폐성	(14,118)	19.8	51.7	27.7	0.8	71.5	28.5	100.0
	정신	(6,931)	15.6	56.2	26.6	1.6	71.8	28.2	100.0
	내부/안면	(26,541)	8.2	51.3	37.6	2.9	59.4	40.6	100.0
장애 정도	중증	(57,874)	11.1	50.9	34.0	4.1	61.9	**38.1**	100.0
	경증	(134,224)	12.7	52.8	32.4	2.1	65.5	34.5	100.0

주1) 집안일 시간 '30분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터 '매우 부담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5) 아동 양육 관련

아동 양육과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정 내 양육이 필요한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비율은 1.8%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로 여성(2.4%)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미취학 아동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로 경증 장애(2.0%)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10〉 미취학 아동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29,491)	1.8	98.2	100.0
성별	남성	(129,035)	1.4	98.6	100.0
	여성	(100,456)	2.4	97.6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2.5	97.5	100.0
	뇌병변	(38,713)	1.2	98.8	100.0
	시각	(20,378)	2.8	97.2	100.0
	청각/언어	(67,431)	1.9	98.1	100.0
	지적/자폐성	(15,667)	0.9	99.1	100.0
	정신	(8,738)	0.2	99.8	100.0
	내부/안면	(30,926)	1.8	98.2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1.5	98.5	100.0
	경증	(149,583)	2.0	98.0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2) * 해당 항목의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가구 내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82.8%가 아동 양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아동 양육 참여율이 75.0%로, 여성(88.9%) 보다 낮다.

〈표 V-5-11〉 아동양육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4,215)	82.8	17.2	100.0
성별	남성	(1,852)	75.0	25.0	100.0
	여성	(2,362)	88.9	11.1	100.0

주1) 미취학 아동 유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아동 양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을 살펴보면, '5~6시간'이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4시간'이 15.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5%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5~6시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0%로 가장 높다.

〈표 V-5-12〉 아동 양육 하루 평균 참여 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시간	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 이상	계
전 체		(3,488)	24.1	15.8	15.4	25.4	19.3	100.0
성별	남성	(1,389)	**46.5**	26.2	19.2	3.4	4.8	100.0
	여성	(2,100)	9.4	9.0	12.8	**40.0**	28.8	100.0

주1) 아동양육 참여 여부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미취학 아동양육 참여 유형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씻고 먹이고 재우는 것을 포함하는 돌봄'이 7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씻고 먹이고 재우는 것을 포함하는 돌봄'의 비율이 92.1%로 높게 나타난 한편, 남성은 '몸을 이용한 놀아주기'의 비율이 50.8%로 가장 높다.

〈표 V-5-13〉 아동양육 참여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씻고 먹이고 재우는 것을 포함하는 돌봄	몸을 이용한 놀아주기	책읽기, 언어교육과 같은 공부 봐주기	계
전 체		(3,488)	70.5	20.2	9.3	100.0
성별	남성	(1,389)	37.9	50.8	11.3	100.0
	여성	(2,100)	92.1	0.0	7.9	100.0

주1) 아동양육 참여 여부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아동양육 부담 정도를 살펴보면, 아동의 양육이 '부담 됨'으로 응답한 비율은 48.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부담 됨'으로 응답한 비율은 35.3%로 여성(61.7%)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14〉 아동양육 부담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부담 되지 않음	②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③ 부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부담됨	부담되지 않음	부담됨	계
전 체		(3,488)	6.8	42.0	48.5	2.7	48.8	51.2	100.0
성별	남성	(1,389)	6.8	57.9	28.5	6.8	64.7	35.3	100.0
	여성	(2,100)	6.9	31.4	61.7	0.0	38.3	61.7	100.0

주1) 부담되지 않음은 ①전혀부담되지 않음 또는 ②부담되지 않는 편임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부담됨은 ③ 부담되는 편임 또는 ④매우 부담됨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아동양육 참여 여부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계속해서 아동양육 만족 정도를 살펴보면, '만족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7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함'으로 응답한 비율은 80.3%로 여성(74.0%) 보다 높다.

〈표 Ⅴ-5-15〉 아동양육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4,215)	3.9	19.4	62.2	14.6	23.2	76.8	100.0
성별	남성	(1,852)	5.1	14.6	69.9	10.5	19.7	80.3	100.0
	여성	(2,362)	2.9	23.1	56.2	17.8	26.0	74.0	100.0

주1) '만족하지 않음' 은 ①전혀 만족하지 않음 또는 ②만족하지 않는 편임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이며, '만족함' 은 ③ 만족하는 편임 또는 ④매우 만족함으로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미취학 아동 유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6) 성인돌봄

가정 내 본인 외 돌봄이 필요한 성인이 '있는' 비율은 3.5%로 조사되었고,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4.4%로 남성(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 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돌봄이 필요한 성인이 '있다'는 응답이 각각 5.1%로 타 장애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와 경증 장애의 돌봄이 필요한 성인이 있는 비율은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표 V-5-16〉 돌봄이 필요한 성인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29,491)	3.5	96.5	100.0
성별	남성	(129,035)	2.7	97.3	100.0
	여성	(100,456)	4.4	95.6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3.6	96.4	100.0
	뇌병변	(38,713)	4.2	95.8	100.0
	시각	(20,378)	5.1	94.9	100.0
	청각/언어	(67,431)	2.7	97.3	100.0
	지적/자폐성	(15,667)	5.1	94.9	100.0
	정신	(8,738)	3.8	96.2	100.0
	내부/안면	(30,926)	2.0	98.0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3.5	96.5	100.0
	경증	(149,583)	3.5	96.5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7) 외출 관련

한달 평균 외출 빈도를 조사한 결과, 거의 매일이 3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 1~2회(22.7%), 주 3~4회(16.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로 여성(30.3%)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 시각 장애, 청각/언어 장애,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거의 매일'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이상이며, 뇌병변 장애는 '거의 외출하지 않음'의 비율이 31.7%, 정신 장애는 '주 1-2회 외출'이 29.4%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거의 외출하지 않음' 비율은 19.6%로, 경증 장애(7.7%) 보다 높았던 반면, '거의 매일' 외출한다는 응답은 27.8%로 경증 장애(44.7%)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17〉 한달 평균 외출 빈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거의 외출하지 않음	월 3회 이내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계
전 체		(251,277)	12.1	9.9	22.7	16.9	38.5	100.0
성별	남성	(142,540)	11.5	8.2	19.9	15.8	44.7	100.0
	여성	(108,737)	12.9	12.1	26.4	18.3	30.3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7.7	7.9	24.2	20.1	**40.1**	100.0
	뇌병변	(42,177)	**31.7**	12.7	20.4	12.1	23.0	100.0
	시각	(21,557)	9.3	7.9	23.1	15.1	**44.7**	100.0
	청각/언어	(73,818)	4.9	9.2	21.9	15.8	**48.1**	100.0
	지적/자폐성	(23,852)	12.6	12.4	19.0	14.7	**41.3**	100.0
	정신	(8,894)	19.2	17.0	**29.4**	14.9	19.5	100.0
	내부/안면	(31,447)	9.2	8.1	25.6	24.2	**32.9**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9.6	12.3	23.8	16.5	27.8	100.0
	경증	(158,661)	7.7	8.5	22.0	17.1	44.7	100.0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버스, 택시, 지하철/전철 등 '대중교통'이 4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가용(29.7%), 도보/걸어다님(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가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여성(24.1%)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대중교통' 이용 비율은 여성(51.9%)이 남성(38.3%)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의 경우 '자가용'비율이 39.6%로 가장 높고, 정신 장애는 '대중교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2%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인콜택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10.1%로, 경증 장애(1.9%) 보다 8.3%p 더 높다.

〈표 V-5-18〉 외출 시 주 이용 교통수단(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대중교통	장애인 콜택시	사회복지시설 버스	자전거, 오토바이, 전동스쿠터	자가용	휠체어	도보/걸어다님	기타	계
전 체		(251,277)	44.2	4.9	0.6	2.9	29.7	0.9	16.3	0.4	100.0
성별	남성	(142,540)	38.3	5.2	0.5	4.6	34.0	0.9	16.1	0.4	100.0
	여성	(108,737)	51.9	4.6	0.7	0.7	24.1	0.9	16.7	0.4	100.0
장애유형	지체	(49,532)	39.2	3.1	0.6	3.0	39.6	0.9	13.3	0.3	100.0
	뇌병변	(42,177)	31.6	16.3	0.8	2.8	32.5	3.8	11.8	0.4	100.0
	시각	(21,557)	48.8	3.2	1.0	3.2	26.1	0.0	17.4	0.3	100.0
	청각/언어	(73,818)	49.7	1.2	0.3	3.4	26.1	0.0	18.8	0.4	100.0
	지적/자폐성	(23,852)	46.8	1.9	1.4	1.7	25.1	0.7	21.0	1.4	100.0
	정신	(8,894)	58.2	2.9	0.8	2.3	9.6	0.0	26.2	0.0	100.0
	내부/안면	(31,447)	46.6	5.5	0.3	2.4	30.9	0.1	14.4	0.0	100.0
장애정도	중증	(92,616)	41.8	10.2	0.9	2.2	27.2	2.0	15.1	0.7	100.0
	경증	(158,661)	45.5	1.9	0.4	3.3	31.2	.2	17.1	0.3	100.0

주1) '대중교통' 은 일반버스, 저상버스, 일반택시, 지하철/전철의 응답 비율의 합임.
주2) '사회복지시설 버스' 는 사회복지시설 버스, 장애인 무료 셔틀버스의 응답 비율의 합임.

외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출하고 싶지 않음(23.3%),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11.5%), 밖에 나가서 할 일 또는 만날 사람(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8%로, 여성(46.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체 장애는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경증 장애(33.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9〉 외출하는데 필요한 사항(1순위)

(단위: 명,)

구 분		추정수	외출을 도와줄 사람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버스, 콜택시 등)	개인 교통수단 보유 (자가용 개조, 면허취득 등)	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음성신호, 유도블럭)
전 체		(55,225)	42.1	11.8	2.0	1.6
성별	남성	(28,041)	37.3	12.8	3.0	.8
	여성	(27,185)	46.9	10.8	.9	2.4
장애 유형	지체	(7,715)	37.6	15.8	3.2	1.9
	뇌병변	(18,747)	57.7	13.3	1.5	1.2
	시각	(3,689)	33.3	9.5	2.8	1.3
	청각/언어	(10,459)	27.5	9.8	0.4	3.5
	지적/자폐성	(5,976)	41.9	9.7	0.9	0.0
	정신	(3,220)	33.0	6.6	4.5	0.7
	내부/안면	(5,420)	33.7	12.2	4.3	1.2
장애 정도	중증	(29,491)	48.2	13.0	2.3	.8
	경증	(25,735)	34.9	10.4	1.6	2.6

구 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주변 시선, 장애인식)	밖에 나가서 할 일 또는 만날 사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도구/사람	외출하고 싶지 않음	기타	계
전 체		3.5	10.5	2.8	24.0	1.7	100.0
성별	남성	4.8	13.5	3.7	22.3	1.7	100.0
	여성	2.2	7.4	1.9	25.7	1.6	100.0
장애 유형	지체	2.4	4.9	0.1	31.6	2.6	100.0
	뇌병변	2.8	3.2	2.5	15.7	2.0	100.0
	시각	6.7	15.4	0.1	25.4	5.6	100.0
	청각/언어	4.9	18.8	8.1	26.1	1.0	100.0
	지적/자폐성	5.8	13.7	2.8	25.2	0.0	100.0
	정신	0.0	14.3	1.6	39.3	0.0	100.0
	내부/안면	2.2	18.3	0.1	27.3	0.7	100.0
장애 정도	중증	2.4	8.9	1.5	21.4	1.4	100.0
	경증	4.9	12.4	4.3	27.1	1.9	100.0

주1) 한달 평균 외출 빈도 '거의 외출하지 않음' 또는 '월 3회 이내'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8)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정보(사회복지/고용정보 등) 획득방법을 1순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통해’가 56.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주변 지인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26.5%),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 기관을 통해’(17.0%) 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여성(5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가장 높고, 지적/자폐성 장애는 ‘주변 지인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4%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통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로 경증 장애(59.9%)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20〉 사회복지/고용정보 획득방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해당기관을 통해	주변 지인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기타	계
전 체		(229,491)	56.0	17.0	26.5	0.5	100.0
성별	남성	(129,035)	59.2	16.5	23.7	0.6	100.0
	여성	(100,456)	51.8	17.6	30.1	0.5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59.3	18.6	22.2	0.0	100.0
	뇌병변	(38,713)	48.0	18.6	32.5	0.9	100.0
	시각	(20,378)	56.0	16.6	27.4	0.0	100.0
	청각/언어	(67,431)	60.6	16.1	23.3	0.0	100.0
	지적/자폐성	(15,667)	49.3	12.7	35.4	2.6	100.0
	정신	(8,738)	49.0	19.5	31.3	0.2	100.0
	내부/안면	(30,926)	56.0	16.5	26.2	1.3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48.7	17.4	32.6	1.4	100.0
	경증	(149,583)	59.9	16.8	23.2	0.1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주변지인 및 관련 단체 등을 통해’ 는 사회복지시설 담당자를 통해, 학교, 학원 등을 포함함.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③+④)이 49.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③+④)이 53.0%로 남성(46.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어려움’ 응답한 비율(③+④)이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어려움’으로 응답한 비율(③+④)이 55.2%로 경증 장애(4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21〉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어려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어렵지 않다	② 어렵지 않은 편이다	③ 어려운 편이다	④ 매우 어렵다	①+②	③+④	해당 없음	계
전 체		(229,491)	7.7	42.4	40.0	9.2	50.2	**49.2**	0.6	100.0
성별	남성	(129,035)	8.7	44.5	37.9	8.4	53.2	46.3	0.5	100.0
	여성	(100,456)	6.5	39.8	42.8	10.2	46.3	**53.0**	0.7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10.8	49.1	31.6	7.7	59.9	39.4	0.8	100.0
	뇌병변	(38,713)	3.9	31.7	46.5	17.0	35.6	**63.4**	0.9	100.0
	시각	(20,378)	7.0	39.9	43.9	8.4	46.8	52.4	0.8	100.0
	청각/언어	(67,431)	8.5	43.5	40.8	6.8	52.0	47.6	0.5	100.0
	지적/자폐성	(15,667)	5.1	36.0	47.4	11.4	41.1	58.8	0.2	100.0
	정신	(8,738)	5.6	32.8	47.5	13.4	38.4	60.9	0.7	100.0
	내부/안면	(30,926)	8.6	51.1	35.0	5.2	59.7	40.2	0.1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5.4	38.7	43.1	12.1	44.1	**55.2**	0.7	100.0
	경증	(149,583)	9.0	44.4	38.4	7.7	53.4	46.0	0.5	100.0

주1) '전혀 어렵지 않다' 부터 '매우 어렵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애로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로 인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가 49.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다'(21.3%),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1.2%로 여성(47.1%)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로 인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9.7%로 경증 장애(4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22〉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로 인해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한적이다	서비스 이용절차가 복잡하다	서비스 이용 관련 어려움이 있다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다	기타	계
전 체		(113,016)	49.3	21.3	8.4	17.3	3.7	100.0
성별	남성	(59,754)	51.2	21.2	7.9	16.8	2.9	100.0
	여성	(53,262)	47.1	21.4	8.9	17.9	4.6	100.0
장애 유형	지체	(18,749)	49.9	20.5	8.1	18	3.6	100.0
	뇌병변	(24,560)	49	23.7	10.4	14.6	2.3	100.0
	시각	(10,670)	44.5	24.7	10.3	15.4	5.2	100.0
	청각/언어	(32,077)	49.7	21	7.3	18.6	3.3	100.0
	지적/자폐성	(9,207)	52.3	15.1	4.1	23	5.4	100.0
	정신	(5,321)	46.1	18.4	7.3	19	9.2	100.0
	내부/안면	(12,433)	50.7	21.5	9.6	15	3.2	100.0
장애 정도	중증	(44,137)	49.7	20.7	8.8	16.7	4.1	100.0
	경증	(68,879)	48.9	21.7	8.1	17.7	3.5	100.0

주1) 장애인 관련 서비스 이용 및 어려움 정도 '어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어렵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서비스 이용 관련 어려움이 있다' 는 서비스 대기시간이 길다, 서비스 제공기관이 불친절하다, 서비스 비용이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의 합임.
3) '기타' 는 주변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 기타 응답 비율의 합임

(9) 경제생활 평가

경제생활 평가 정도를 살펴보면, '(2) 나는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1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5-23〉 경제생활 평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나는 돈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힘들다	(229,491)	23.4	38.9	29.5	8.1	62.4	37.6	100.0
(2) 나는 문화 및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	(229,491)	19.2	30.3	37.0	13.5	49.5	**50.5**	100.0
(3)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집을 구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9,491)	32.0	33.9	25.2	8.9	65.9	34.1	100.0
(4) 나는 돈이 없어 음식을 하거나 사지 못하여 식사를 거르곤 한다	(229,491)	48.0	39.5	11.1	1.4	87.5	12.5	100.0
(5) 나는 매월 공과금을 내는 것이 힘들다	(229,491)	38.8	39.0	19.1	3.1	77.8	22.2	100.0
(6)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필요한 치료를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229,491)	38.7	42.0	16.3	3.1	80.7	19.3	100.0
(7) 나는 빚 때문에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	(229,491)	44.3	37.7	14.9	3.1	82.0	18.0	100.0
(8)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29,491)	49.4	38.6	10.7	1.2	88.0	12.0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여가활동

(1) 여가활동 및 여행

지난 1개월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보기(TV로 영화 시청 포함)'가 5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없음(9.2%), 컴퓨터 또는 인터넷(6.7%), 집주변 산책(6.3%), 운동하기(6.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TV로 영화 시청 포함)'로 응답한 비율이 59.8%로 남성(53.8%)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컴퓨터 또는 인터넷'은 남성(8.8%)이 여성(4.0%) 대비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텔레비전 보기(TV로 영화 시청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이 61%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고, 지적/자폐성 장애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활동이 17.2%, 뇌병변 장애는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이 15.4%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여가활동 '없음' 응답이 12.0%로 경증 장애(7.5%) 대비 높다.

〈표 V-5-24〉 여가활동(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텔레 비전 보기 (TV로 영화 시청 포함)	라디오 듣기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컴퓨터 또는 인터넷
전 체		(251,277)	**56.4**	1.4	0.5	6.7
성별	남성	(142,540)	53.9	1.2	0.3	**8.8**
	여성	(108,737)	**59.8**	1.5	0.7	4.0
장애 유형	지체	(49,532)	57.6	1.3	0.7	4.8
	뇌병변	(42,177)	55.9	1.7	0.6	4.3
	시각	(21,557)	50.3	3.7	0.2	5.8
	청각/언어	(73,818)	56.0	1.0	0.2	6.3
	지적/자폐성	(23,852)	54.1	0.6	0.6	**17.2**
	정신	(8,894)	**61.3**	1.5	0.5	7.4
	내부/안면	(31,447)	**61.0**	0.8	0.5	6.3
장애 정도	중증	(92,616)	57.5	1.4	0.5	8.3
	경증	(158,661)	55.8	1.3	0.5	5.8

구 분		운동 하기 (헬스, 축구, 수영 등)	예술 활동(악기 연주, 글쓰기, 춤 등)	독서, 학습 (언어 공부, 강의 듣기 등)	휴식 (낮잠, 목욕탕가기)	자원 봉사 활동
전 체		6.0	1.1	1.4	4.7	0.2
성별	남성	7.4	1.6	1.3	3.9	0.0
	여성	4.2	0.6	1.6	5.7	0.4
장애 유형	지체	8.3	2.5	0.6	4.8	0.3
	뇌병변	5.0	0.2	1.0	6.2	0.0
	시각	7.9	0.3	2.8	3.5	0.6
	청각/언어	7.0	1.3	1.5	4.0	0.2
	지적/자폐성	2.6	0.9	3.0	5.0	0.0
	정신	1.6	0.7	0.6	8.4	0.2
	내부/안면	3.6	0.6	1.3	3.4	0.1
장애 정도	중증	3.4	0.6	1.7	5.5	0.0
	경증	7.5	1.5	1.3	4.1	0.3

구 분		친구 및 가족 모임	바둑, 장기	집주변 산책	동/식물 기르기	기타
	전 체	2.7	0.6	6.3	0.4	0.3
성별	남성	2.3	1.0	7.0	0.5	0.1
	여성	3.4	0.0	0.2	0.4	9.1
장애 유형	지체	2.3	0.2	1.2	0.1	6.4
	뇌병변	1.5	0.0	0.1	0.4	**15.4**
	시각	3.5	1.9	0.4	1.0	9.1
	청각/언어	4.5	0.9	0.1	0.1	8.1
	지적/자폐성	0.5	0.0	0.1	0.3	9.6
	정신	0.8	0.0	0.3	0.7	9.6
	내부/안면	2.8	0.5	0.3	0.0	7.5
장애 정도	중증	1.3	0.3	0.3	0.3	**12.0**
	경증	3.6	0.7	0.4	0.2	7.5

구 분		종교 활동	집주변 산책	동/식물 기르기	기타	없음
	전 체	2.3	6.3	0.4	0.3	9.2
성별	남성	1.6	7.0	0.5	0.1	9.2
	여성	3.2	5.3	0.2	0.4	9.1
장애 유형	지체	3.3	5.5	1.2	0.1	6.4
	뇌병변	1.5	6.3	0.1	0.4	**15.4**
	시각	3.0	6.1	0.4	1.0	9.1
	청각/언어	1.6	7.0	0.1	0.1	8.1
	지적/자폐성	1.7	3.8	0.1	0.3	9.6
	정신	1.2	5.0	0.3	0.7	9.6
	내부/안면	3.2	7.9	0.3	0.0	7.5
장애 정도	중증	1.7	5.1	0.3	0.3	**12.0**
	경증	2.6	6.9	0.4	0.2	7.5

지난 1개월 동안 참여한 여가활동(1순위)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보기(TV로 영화 시청 포함)'가 176.45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라디오 듣기(151.43분), 친구 및 가족모임(137.57분), 자원봉사 활동(127.95분), 예술 활동(126.74분), 컴퓨터 또는 인터넷(120.09분) 순 이다.

〈표 Ⅴ-5-25〉 여가활동 시간(1순위)

(단위: 명, 분)

구 분	추정수	평균	중앙값	표준오차
텔레비전 보기(TV로 영화시청 포함)	(141,815)	**176.45**	180.00	0.28
라디오 듣기	(3,429)	**151.43**	120.00	1.95
영화, 연극, 연주회 관람	(1,217)	98.57	120.00	1.49
컴퓨터 또는 인터넷	(16,858)	**120.09**	120.00	0.56
운동하기(헬스, 축구, 수영 등)	(15,045)	92.44	60.00	0.46
예술 활동(악기연주, 글쓰기, 춤 등)	(2,834)	**126.74**	120.00	1.65

구 분	추정수	평균	중앙값	표준오차
독서, 학습(언어공부, 강의듣기 등)	(3,616)	104.61	120.00	1.12
휴식(낮잠, 목욕탕가기)	(11,699)	118.45	120.00	0.85
자원봉사 활동	(437)	**127.95**	60.00	4.84
친구 및 가족모임	(6,878)	**137.57**	120.00	0.90
바둑, 장기	(1,387)	116.92	120.00	1.21
종교 활동	(5,675)	94.75	60.00	0.90
집주변 산책	(15,723)	62.13	60.00	0.28
동/식물 기르기	(960)	107.23	60.00	2.35

주1) 각 항목별 여가활동 경험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만족함'이라는 응답 비율(③+④)이 63.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함'이라는 응답 비율(③+④)이 65.1%로 여성(61.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26〉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228,230)	4.7	31.9	61.1	2.3	36.5	**63.5**	100.0
성별	남성	(129,425)	4.2	30.7	62.6	2.5	34.9	**65.1**	100.0
	여성	(98,805)	5.2	33.4	59.3	2.1	38.7	61.3	100.0

주1) '전혀 만족하지 않음'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여가활동 경험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여가활동 동반자를 살펴보면, '혼자서'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족(27.1%), 친구(10.4%) 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0%로 여성(57.9%) 보다 높고 반면에, '가족'과 여가활동 한다는 응답은 여성(28.4%)이 남성(26.2%)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혼자서'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적/자폐성 장애는 '가족'과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4.3%, 시각 장애는 '친구'와 여가활동을 한다는 응답 비율이 15.7%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가족'과 여가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경증 장애(24.7%) 대비 높게 나타났고, '친구'와 여가활동은 경증 장애(13.0%)가 중증 장애(5.8%)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Ⅴ-5-27〉 여가활동 동반자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혼자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동호회 회원	기타	계	계
전 체		(228,230)	**60.7**	27.1	10.4	0.2	1.0	0.6	100.0	100.0
성별	남성	(129,425)	**61.2**	26.2	10.1	0.4	1.4	0.6	100.0	100.0
	여성	(98,805)	59.9	28.4	10.8	0.0	0.3	0.6	100.0	100.0
장애 유형	지체	(46,351)	59.6	23.8	13.8	0.5	1.7	0.5	100.0	100.0
	뇌병변	(35,702)	63.7	30.7	3.9	0.0	0.0	1.8	100.0	100.0
	시각	(19,603)	60.6	21.3	**15.7**	0.2	1.1	1.0	100.0	100.0
	청각/언어	(67,860)	57.4	28.6	12.7	0.2	1.1	0.2	100.0	100.0
	지적/자폐성	(21,566)	51.5	**42.0**	5.9	0.0	0.1	0.4	100.0	100.0
	정신	(8,044)	**78.8**	17.7	3.0	0.0	0.2	0.3	100.0	100.0
	내부/안면	(29,104)	68.1	20.1	9.4	0.5	1.5	0.3	100.0	100.0
장애 정도	중증	(81,467)	60.6	**31.4**	5.8	0.3	0.6	1.3	100.0	100.0
	경증	(146,763)	60.7	24.7	**13.0**	0.2	1.2	0.2	100.0	100.0

주1) 여가활동 경험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여행 관련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18년 기준 여행 경험을 분석한 결과, '여행 다녀온 적 없음'이 75.1%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국내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7%로 여성(20.8%) 보다 높게 나타난 한편, 여성(75.7%)은 '여행 다녀온 적 없음' 비율이 남성(74.7%) 대비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청각/언어 장애는 '국내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7%, 지체 장애는 '국외 여행' 경험이 8.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여행을 다녀온 적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2.9%로 경증 장애(70.5%)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국내 여행' 경험은 경증 장애(25.1%)에서 중증 장애(14.8%) 대비 높다.

〈표 V-5-28〉 여행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국내여행	국외여행	여행 다녀온 적 없음
전 체		(251,277)	21.3	6.0	75.1
성별	남성	(142,540)	**21.7**	6.0	74.7
	여성	(108,737)	20.8	6.1	**75.7**
장애 유형	지체	(49,532)	26.5	**8.9**	69.5
	뇌병변	(42,177)	10.6	3.2	87.4
	시각	(21,557)	20.2	5.6	75.7
	청각/언어	(73,818)	**27.7**	7.5	67.8
	지적/자폐성	(23,852)	21.0	3.8	75.9
	정신	(8,894)	8.5	1.4	**90.4**
	내부/안면	(31,447)	16.9	5.0	79.2
장애 정도	중증	(92,616)	14.8	3.1	**82.9**
	경증	(158,661)	**25.1**	7.7	70.5

2018년 기준 여행 빈도를 살펴보면, 평균 3.04회로 확인되었고,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빈도가 3.14회로 국외 여행(1.48회)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빈도는 3.28회로 여성(2.95회)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국내 여행'을 다녀온 빈도가 4.2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국외 여행 '을 다녀온 빈도가 1.66회로 경증 장애(1.43회) 보다 높고, '국내 여행' 빈도는 경증 장애(3.19회)가 중증(3.01회)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29〉 여행 빈도

(단위: 명, 회)

구 분		국내여행		국외여행		전체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전 체		(53,506)	3.14	(15,119)	1.48	(62,559)	3.04
성별	남성	(30,899)	**3.28**	(8,495)	1.43	(36,113)	3.15
	여성	(22,608)	2.95	(6,623)	1.53	(26,446)	2.90
장애 유형	지체	(13,122)	2.91	(4,385)	1.48	(15,100)	2.96
	뇌병변	(4,450)	3.34	(1,345)	1.25	(5,322)	3.11
	시각	(4,364)	**4.29**	(1,202)	1.24	(5,230)	3.86
	청각/언어	(20,479)	3.06	(5,567)	1.57	(23,769)	3.01
	지적/자폐성	(5,010)	3.38	(912)	1.51	(5,746)	3.19
	정신	(753)	2.23	(123)	1.00	(852)	2.11
	내부/안면	(5,327)	2.84	(1,586)	1.52	(6,540)	2.68
장애 정도	중증	(13,698)	3.01	(2,902)	**1.66**	(15,830)	2.91
	경증	(39,808)	**3.19**	(12,217)	1.43	(46,729)	3.09

주1) 여행 경험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018년 기준 여행 일수를 살펴보면, 평균 6.88일로 조사되었고, '국외여행'이 8.61일로 '국내여행'(5.61일) 보다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국외여행' 일수가 9.59일로, 여성(7.37일)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장애의 평균'국외여행'일수가 10.24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시각 장애의 '국내여행' 일수는 6.85일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국외여행' 일수가 7.72일로 경증 장애(8.83일)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30〉 여행 일수

(단위: 명, 일)

구 분		국내여행		국외여행		전체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추정수	(평균)
전 체		(53,506)	5.61	(15,119)	8.61	(62,559)	6.88
성별	남성	(30,899)	5.77	(8,495)	**9.59**	(36,113)	7.19
	여성	(22,608)	5.38	(6,623)	7.37	(26,446)	6.45
장애 유형	지체	(13,122)	5.41	(4,385)	**10.24**	(15,100)	7.68
	뇌병변	(4,450)	5.64	(1,345)	7.33	(5,322)	6.57
	시각	(4,364)	**6.85**	(1,202)	8.81	(5,230)	7.74
	청각/언어	(20,479)	5.57	(5,567)	8.21	(23,769)	6.72
	지적/자폐성	(5,010)	5.81	(912)	8.80	(5,746)	6.47
	정신	(753)	3.37	(123)	5.87	(852)	3.82
	내부/안면	(5,327)	5.30	(1,586)	6.57	(6,540)	5.91
장애 정도	중증	(13,698)	5.35	(2,902)	7.72	(15,830)	6.04
	경증	(39,808)	5.69	(12,217)	**8.83**	(46,729)	7.16

주1) 여행 경험 '국내여행' 또는 '국외여행'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지막으로 2018년 기준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경우,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여행 갈 돈이 없어서'가 3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19.9%),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13.8%), 여행갈 시간이 없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불안이나 자신감이 부족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3%로 여성(2.8%)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여행 갈 돈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는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6.7%, 36.3%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 여행을 다녀오지 못했다는 응답은 29.6%로, 경증 장애(13.2%) 대비 16.4%p 차이가 나타난 한편, '여행 갈 돈이 없어서' 및 '여행갈 시간이 없어서' 응답 비율은 경증 장애가 중증 장애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V-5-31〉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여행갈 돈이 없어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여행을 함께 가거나 도와줄 가족 또는 친구가 없어서	나의 장애치료나 재활로 인해	불안이나 자신감이 부족해서	누군가를 돌봐야 해서
전 체		(188,718)	**31.9**	8.0	8.7	19.9	3.6	1.1
성별	남성	(106,427)	31.9	7.7	8.9	19.8	**4.3**	0.8
	여성	(82,291)	31.9	8.4	8.6	20.0	2.8	1.4
장애유형	지체	(34,432)	31.2	9.2	7.2	16.6	2.4	1.1
	뇌병변	(36,855)	23.6	13.0	9.0	**36.7**	3.2	0.8
	시각	(16,327)	35.2	8.1	12.0	11.5	2.6	1.4
	청각/언어	(50,049)	39.6	4.7	7.9	6.2	3.3	1.9
	지적/자폐성	(18,106)	26.6	8.0	14.2	17.4	7.1	0.3
	정신	(8,042)	**41.8**	4.9	11.2	13.7	7.9	0.0
	내부/안면	(24,907)	28.3	6.6	5.3	**36.3**	3.6	0.6
장애정도	중증	(76,786)	26.9	9.7	9.5	**29.6**	4.3	0.8
	경증	(111,932)	**35.4**	6.9	8.2	13.2	3.2	1.2

구 분		여행갈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고 싶지 않아서	관광지 이동 및 편의시설 정보가 부족해서	기타	없음	계
전 체		11.1	13.8	0.9	0.9	0.0	100.0
성별	남성	11.4	13.3	1.0	0.9	0.0	100.0
	여성	10.7	14.3	0.8	0.9	0.0	100.0
장애유형	지체	13.7	15.5	1.2	1.9	0.0	100.0
	뇌병변	3.0	8.7	0.9	1.1	0.0	100.0
	시각	14.3	13.8	0.8	0.3	0.0	100.0
	청각/언어	19.2	15.3	1.1	0.9	0.0	100.0
	지적/자폐성	7.4	18.3	0.7	0.0	0.0	100.0
	정신	3.7	16.7	0.0	0.0	0.0	100.0
	내부/안면	6.3	11.5	0.7	0.8	0.0	100.0
장애정도	중증	5.0	12.7	0.6	1.0	0.0	100.0
	경증	**15.3**	14.5	1.1	0.9	0.0	100.0

주1) 여행 경험 '여행 다녀온 적 없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반려동물 유무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반려동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5%로 남성(8.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의 경우 반려동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는 6.7%만이 반려동물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반려동물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로 경증 장애(9.5%) 보다 낮다.

〈표 Ⅴ-5-32〉 반려동물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51,277)	9.1	90.9	100.0
성별	남성	(142,540)	8.0	92.0	100.0
	여성	(108,737)	10.5	89.5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9.2	90.8	100.0
	뇌병변	(42,177)	7.9	92.1	100.0
	시각	(21,557)	11.0	89.0	100.0
	청각/언어	(73,818)	9.4	90.6	100.0
	지적/자폐성	(23,852)	6.7	93.3	100.0
	정신	(8,894)	9.4	90.6	100.0
	내부/안면	(31,447)	10.3	89.7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8.4	91.6	100.0
	경증	(158,661)	9.5	90.5	100.0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반갑게 대해줘서 외롭지 않음'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15.7%), 생활하다 보면 삶의 의욕이 생김(8.6%),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7.4%), 여가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음(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반갑게 대해줘서 외롭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6%로, 남성(48.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정신 장애의 경우 '반갑게 대해줘서 외롭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체 장애는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0%, 지체/자폐성 장애는 '아이와 놀아 줌'응답 비율이 18.2%, 청각/언어 장애는 '여가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음'응답 비율이 17.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생활하다 보면 삶의 의욕이 생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7%로 경증 장애(58.9%) 보다 낮다.

〈표 V-5-33〉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반갑게 대해줘서 외롭지 않음	여가활동을 같이 할 수 있음	생활하다 보면 삶의 의욕이 생김	가족 분위기가 좋아짐
전 체		(22,821)	**52.7**	6.9	8.6	15.7
성별	남성	(11,393)	48.8	4.2	10.2	17.8
	여성	(11,428)	**56.6**	9.6	6.9	13.7
장애 유형	지체	(4,536)	44.9	2.4	4.7	**23.0**
	뇌병변	(3,316)	54.5	2.1	13.1	17.2
	시각	(2,366)	67.6	0.5	14.5	11.0
	청각/언어	(6,937)	46.3	**17.9**	5.0	15.9
	지적/자폐성	(1,605)	54.5	0.0	11.7	10.6
	정신	(835)	**72.2**	0.0	5.4	10.8
	내부/안면	(3,227)	58.8	4.7	12.0	11.0
장애 정도	중증	(7,762)	53.2	3.7	**13.7**	14.7
	경증	(15,059)	52.5	8.6	5.9	16.3

구 분		아이와 놀아 줌	산책과 같은 외부활동을 자연스럽게 함	반려동물로 인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음	기타	계
전 체		4.2	2.8	7.4	1.6	100.0
성별	남성	2.8	5.2	10.0	1.0	100.0
	여성	5.6	0.4	4.9	2.3	100.0
장애 유형	지체	1.5	8.6	13.4	1.6	100.0
	뇌병변	2.8	2.3	8.0	0.0	100.0
	시각	1.6	0.0	4.8	0.0	100.0
	청각/언어	4.8	1.4	7.2	1.5	100.0
	지적/자폐성	**18.2**	0.0	0.0	5.0	100.0
	정신	0.0	0.0	11.6	0.0	100.0
	내부/안면	4.4	1.9	3.6	3.6	100.0
장애 정도	중증	6.6	1.0	4.6	2.5	100.0
	경증	3.0	3.7	8.9	1.2	100.0

주1) 반려동물 유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자립생활

(1)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여부는 남성(0.4%)이 여성(0.3%) 대비 0.1%p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0.8%로 경증 장애(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34〉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51,277)	0.4	99.6	100.0
성별	남성	(142,540)	0.4	99.6	100.0
	여성	(108,737)	0.3	99.7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0.1	99.9	100.0
	뇌병변	(42,177)	1.1	98.9	100.0
	시각	(21,557)	0.1	99.9	100.0
	청각/언어	(73,818)	0.0	100.0	100.0
	지적/자폐성	(23,852)	0.6	99.4	100.0
	정신	(8,894)	2.0	98.0	100.0
	내부/안면	(31,447)	0.0	100.0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0.8	99.2	100.0
	경증	(158,661)	0.1	99.9	100.0

(2) 장애인보조기기

가.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

장애인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장애 유형별로 해당 보조기기의 필요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네 대해 시각 장애의 경우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2) 독서 확대기'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 음성시계(9.5%), (4) 음성유도장치(6.6%), (1) 녹음 및 재생장치(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 독서 확대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8.8%로 여성(14.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35〉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시각 장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녹음 및 재생장치 (보이스 아이메이커)	(2) 독서확대기	(3) 음성시계 (탁상, 손목)	(4) 음성유도장치
전 체		(22,992)	5.5	**17.1**	9.5	6.6
성별	남성	(13,573)	4.4	**18.8**	8.8	5.5
	여성	(9,419)	7.2	14.6	10.5	8.3

주1)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시각 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체/뇌병변 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3) 지팡이가 2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6) 전동휠체어(19.8%), (1) 자세 유지 보조기 및 기립 훈련기(18.1%), (7) 수동휠체어(1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 자세 유지 보조기 및 기립 훈련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로 여성(21.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36〉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지체/뇌병변 장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자세 유지 보조기 및 기립 훈련기	(2) 식사 보조기기 (음식보호대, 접시, 컵, 젓가락)	(3) 지팡이	(4) 목발	(5) 보행차	(6) 전동휠체어	(7) 수동휠체어	(8) 전동스쿠터
전 체		(94,436)	18.1	9.6	**21.6**	6.1	8.5	19.8	17.6	7.9
성별	남성	(54,004)	15.7	9.0	21.2	7.1	7.5	19.8	15.6	8.3
	여성	(40,433)	**21.3**	10.4	22.2	4.7	9.9	19.8	20.4	7.5

주1)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청각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4) 보청기가 7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3) 소리 증폭기/확성기(10.5%), (2) 진동시계(7.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3) 소리증폭기/확성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3.7%로 남성(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37〉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청각장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시각신호표시기 (무선호출기)	(2) 진동시계	(3) 소리증폭기/ 확성기	(4) 보청기
전 체		(70,445)	4.6	7.3	10.5	**76.4**
성별	남성	(35,564)	6.0	9.0	**13.7**	78.0
	여성	(34,880)	3.2	5.6	7.2	74.7

주1)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청각장애' 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지막으로 장애 유형별이 아닌 전체 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3) 목욕의자'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 침대(7.2%), (1) 욕창예방 매트(5.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3) 목욕의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2%로 남성(6.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38〉 장애인보조기기 필요여부(전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욕창예방 매트	(2) 욕창예방 방석 및 커버	(3) 목욕의자	(4) 리프트	(5)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6) 스위치
전 체		(251,277)	5.0	4.1	**7.7**	2.3	1.1	2.0
성별	남성	(142,540)	4.2	3.6	6.6	2.1	1.3	2.1
	여성	(108,737)	6.0	4.8	**9.2**	2.5	0.8	2.0
구 분		(7) 침대 (전동/ 수동)	(8) 의사소통 기기	(9) 쓰기 및 감각훈련 보조기	(10) 컴퓨터 보조기기	(11) 운전보조 기기	(12)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 (책상, 언어학습기 등)	(13) 여가생활 보조기기 (스포츠휠체어, 점자악보)
전 체		7.2	2.1	1.6	1.3	0.9	1.9	0.9
성별	남성	6.3	2.1	1.8	1.5	1.0	1.9	1.0
	여성	8.4	2.1	1.4	1.0	0.8	1.9	0.8

나.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

장애인보조기기의 사용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시각 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2) 독서확대기'가 7.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 음성시계(2.6%), (4) 음성유도장치(1.4%), (1) 녹음 및 재생장치(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2) 독서확대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로 여성(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39〉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시각 장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녹음 및 재생장치(보이스아이메이커)	(2) 독서확대기	(3) 음성시계 (탁상, 손목)	(4) 음성유도장치
전 체		(22,992)	1.3	**7.2**	2.6	1.4
성별	남성	(13,573)	0.9	**8.6**	2.8	0.8
	여성	(9,419)	2.0	5.3	2.2	2.2

주1)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시각 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체/뇌병변 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3) 지팡이'가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7) 수동휠체어(14.9%), (6) 전동휠체어(9.0%), (1) 자세유지 보조기 및 기립훈련기(7.7%)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7) 수동휠체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7.5%로 남성(12.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40〉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지체/뇌병변 장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자세 유지 보조기 및 기립 훈련기	(2) 식사 보조 기기 (음식보호대, 접시, 컵, 젓가락)	(3) 지팡이	(4) 목발	(5) 보행차	(6) 전동휠 체어	(7) 수동휠 체어	(8) 전동스 쿠터
전 체		(94,436)	7.7	4.5	**17.1**	3.3	3.7	9.0	14.9	2.4
성별	남성	(54,004)	6.3	4.1	17.2	4.3	2.3	9.8	12.9	3.2
	여성	(40,433)	9.4	5.0	16.9	1.9	5.5	8.0	**17.5**	1.3

주1)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지체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음으로 청각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4) 보청기'가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 소리증폭기/확성기(2.9%), (2) 진동시계(1.9%)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4)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8.9%로 여성(6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41〉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청각장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시각신호표시기 (무선호출기)	(2) 진동시계	(3) 소리증폭기/ 확성기	(4) 보청기
전 체		(70,445)	0.4	1.9	2.9	**65.7**
성별	남성	(35,564)	0.3	2.7	3.7	**68.9**
	여성	(34,880)	0.4	1.0	2.0	62.4

주1) 주장애 또는 중복장애가 '청각장애'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전체 장애 관련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를 살펴보면, ‘(7) 침대(전동/수동)’가 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 목욕의자(4.2%), (1) 욕창예방 매트(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 욕창예방 매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여성(4.1%)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3) 목욕의자’와‘(7) 침대(전동/수동)’를 사용률이 각각 16.6%, ‘(1) 욕창예방 매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1) 욕창예방 매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로 경증 장애(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42〉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전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욕창예방 매트	(2) 욕창 예방 방석 및 커버	(3) 목욕의자	(4) 리프트	(5) 특수 키보드/ 특수 마우스	(6) 스위치
전 체		(251,277)	3.4	2.6	4.2	0.9	0.4	0.6
성별	남성	(142,540)	2.9	2.4	3.9	0.6	0.4	0.7
	여성	(108,737)	**4.1**	2.9	4.6	1.2	0.3	0.6
장애 유형	지체	(49,532)	1.5	1.5	3.1	0.7	0.6	0.5
	뇌병변	(42,177)	**14.8**	11.1	**16.6**	3.6	0.4	1.6
	시각	(21,557)	0.5	0.4	1.3	0.0	0.4	0.7
	청각/언어	(73,818)	0.6	0.3	0.4	0.2	0.2	0.3
	지적/자폐성	(23,852)	1.7	1.7	4.0	0.5	0.2	0.5
	정신	(8,894)	2.5	2.0	1.3	0.4	0.2	0.5
	내부/안면	(31,447)	1.2	0.8	1.3	0.3	0.3	0.4
장애 정도	중증	(92,616)	**7.6**	6.1	8.4	2.0	0.5	1.0
	경증	(158,661)	0.9	0.6	1.8	0.3	0.3	0.4

〈표 V-5-42〉 장애인보조기기 사용여부(전체) - 계속

구 분		(7) 침대(전동/수동)	(8) 의사소통기기	(9) 쓰기 및 감각훈련 보조기	(10) 컴퓨터 보조기기	(11) 운전 보조기기	(12) 작업 및 학습 보조기기(책상, 언어 학습기 등)	(13) 여가생활 보조기기(스포츠휠체어, 점자 악보)	(14) 기타
전 체		4.4	0.8	0.4	0.3	0.5	0.5	0.3	71.2
성별	남성	4.0	0.9	0.4	0.5	0.6	0.5	0.3	69.7
	여성	4.9	0.7	0.4	0.2	0.4	0.6	0.4	74.1
장애유형	지체	3.7	0.7	0.4	0.6	1.5	0.3	0.6	54.5
	뇌병변	16.6	0.5	0.9	0.4	0.8	1.2	0.3	79.7
	시각	1.9	0.2	0.3	0.6	0.2	0.2	0.7	25.6
	청각/언어	0.6	1.5	0.4	0.1	0.0	0.4	0.2	84.1
	지적/자폐성	1.8	0.6	0.2	0.4	0.2	0.7	0.2	23.2
	정신	2.0	0.7	0.5	0.3	0.0	0.0	0.2	100.0
	내부/안면	2.4	0.2	0.2	0.3	0.5	0.2	0.1	84.2
장애정도	중증	8.1	0.8	0.6	0.5	0.7	0.9	0.5	75.7
	경증	2.2	0.7	0.3	0.3	0.4	0.3	0.2	68.3

다.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

현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를 살펴보면,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59.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60.6%로 여성(58.7%) 보다 높다.

〈표 V-5-43〉 현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만족	② 거의 불만족하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전 체		(91,948)	2.8	37.5	59.0	0.7	40.3	59.7	100.0
성별	남성	(49,466)	2.0	37.3	59.7	1.0	39.4	60.6	100.0
	여성	(42,482)	3.6	37.7	58.2	0.5	41.3	58.7	100.0

주1)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장애인보조기기 사용 여부 중 하나라도 '사용' 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현재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 불만족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조기

기의 기능/성능이 미흡해서'가 3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구입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서(30.4%),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어서(2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구입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7.8%로 여성(33.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44〉 장애인보조기기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자신에게 필요한 보조기기가 없어서	보조기기의 기능/성능이 미흡해서	구입시 본인부담 비용이 높아서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절차가 까다로워서
전 체		(37,034)	21.4	**32.1**	30.4	5.1
성별	남성	(19,482)	23.2	31.5	27.8	2.6
	여성	(17,552)	19.4	32.8	**33.3**	7.9
구 분		장애인 보조기기의 지원품목이 부족해서	수리비용이 비싸서	보조기기 이용을 위한 대기기간이 길어서	기타	계
전 체		7.3	2.0	0.6	1.1	100.0
성별	남성	8.8	3.3	0.8	2.0	100.0
	여성	5.7	0.6	0.3	0.0	100.0

주1) 장애인보조기기 만족도 '매우 불만족' 또는 '거의 불만족하는 편이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필요한 정책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 비용 제공 확대'가 4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40.5%),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인원 파악(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품목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0.1%로 여성(41.1%)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 비용 제공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56.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 정신 장애는 '장애인 보조기기 필요 인원 파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1%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수리 비용 제공 확대'라고 응답한 비율이 42.1%로 경증 장애(49.4%)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45〉 장애인보조기기 관련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인 보조 기기 구입/ 수리 비용 제공 확대	장애인 보조 기기 지원 품목 확대	장애인 보조 기기 필요 인원 파악	장애인 보조 기기 이용 대기 시간 감소	장애인 보조 기기 수리 및 관리 교육 실시	기타	없음	계
전 체		(251,277)	**46.7**	40.5	7.5	2.0	1.7	0.1	1.5	100.0
성별	남성	(142,540)	46.9	40.1	7.6	2.2	1.6	0.1	1.6	100.0
	여성	(108,737)	46.4	**41.1**	7.4	1.9	1.8	0.0	1.4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5.5	41.5	8.2	1.7	1.1	0.2	1.8	100.0
	뇌병변	(42,177)	41.4	**47.5**	7.4	1.7	1.8	0.1	0.1	100.0
	시각	(21,557)	45.0	41.8	7.8	1.9	1.5	0.0	1.9	100.0
	청각/언어	(73,818)	**56.7**	34.5	5.0	2.2	1.3	0.0	0.3	100.0
	지적/자폐성	(23,852)	36.0	44.8	8.7	2.8	3.2	0.1	4.3	100.0
	정신	(8,894)	37.4	32.7	**19.1**	1.8	3.3	0.0	5.7	100.0
	내부/안면	(31,447)	44.1	41.8	7.9	2.2	1.9	0.0	2.1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2.1	42.4	9.1	2.2	1.9	0.2	2.2	100.0
	경증	(158,661)	**49.4**	39.4	6.6	2.0	1.6	0.0	1.1	100.0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 지원시간, 만족도, 이용시간 충분여부 및 필요시간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여부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여부에 대해 이용하고 '있는'응답 비율은 4.2%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예라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이 4.4%로 여성(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서비스 이용률은 14.5%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9.5%로 경증 장애(1.2%)와 8.3%p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4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4.2	95.8	100.0
성별	남성	(142,540)	4.4	95.6	100.0
	여성	(108,737)	4.0	96.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8	97.2	100.0
	뇌병변	(42,177)	8.5	91.5	100.0
	시각	(21,557)	2.9	97.1	100.0
	청각/언어	(73,818)	0.8	99.2	100.0
	지적/자폐성	(23,852)	14.5	85.5	100.0
	정신	(8,894)	1.3	98.7	100.0
	내부/안면	(31,447)	2.7	97.3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9.5	90.5	100.0
	경증	(158,661)	1.2	98.8	100.0

나. 지원시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시간을 살펴보면, '80시간 초과'가 42.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0시간 이하(20.6%), 80시간 이하(19.9%), 40시간 이하(12.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0시간 이하'응답 비율이 15.9%로 남성(23.9%)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47〉 지원시간(보건복지부+지자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시간 이하	20시간 이하	40시간 이하	80시간 이하	80시간 초과	계
전 체		(10,633)	20.6	4.8	12.6	19.9	**42.0**	100.0
성별	남성	(6,286)	**23.9**	2.8	14.3	17.7	41.3	100.0
	여성	(4,347)	15.9	7.7	10.2	23.2	43.0	100.0

주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③+④)이 7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③+④)이 81.4%로 여성(73.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48〉 활동지원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매우 불만족	②거의 불만족하는 편임	③만족하는 편임	④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전 체		(10,633)	4.3	17.6	70.9	7.2	21.9	**78.1**	100.0
성별	남성	(6,286)	5.4	13.2	74.2	7.1	18.6	**81.4**	100.0
	여성	(4,347)	2.8	24.0	66.0	7.3	26.7	73.3	100.0

주1)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적어서'가 87.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활동 보조인의 장애인식 및 지원 능력이 낮아서(8.3%), 서비스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서(3.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간이 적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89.4%로 남성(8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49〉 활동지원서비스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서비스 제공시간이 적어서	서비스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많아서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이 길어서	활동 보조인의 장애인식 (태도) 및 지원능력이 낮아서	기타	계
전 체		(2,332)	**87.4**	0.2	3.5	8.3	0.6	100.0
성별	남성	(1,170)	85.5	0.0	5.4	9.1	0.0	100.0
	여성	(1,163)	**89.4**	0.4	1.6	7.4	1.3	100.0

주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만족도 '매우 불만족' 또는 '거의 불만족하는 편임'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 및 필요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시간의 충분성을 묻는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비율이 5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예라고 응답한 남성의 비율은 60.1%로 여성(4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50〉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충분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10,633)	**53.6**	46.4	100.0
성별	남성	(6,286)	**60.1**	39.9	100.0
	여성	(4,347)	44.1	55.9	100.0

주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시간을 살펴보면, '80시간 초과'가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시간 이하(17.9%), 20시간 이하(13.5%), 40시간 이하(13.0%)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0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21.9%로 여성(13.8%) 보다 높고, '80시간 초과'응답 비율은 여성(49.4%)이 남성(42.1%) 대비 높다.

〈표 Ⅴ-5-51〉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시간 이하	20시간 이하	40시간 이하	80시간 이하	80시간 초과	계
전 체		(4,935)	17.9	13.5	13.0	9.9	45.7	100.0
성별	남성	(2,506)	**21.9**	13.0	13.9	9.1	42.1	100.0
	여성	(2,429)	13.8	14.1	12.1	10.7	**49.4**	100.0

주1)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시간 충분성에 대해 '아니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자립생활 지원 필요 사항(1순위)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립 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립 생활을 원하지 않음(27.8%), 소득지원(8.2%), 직업재활/취업(6.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립 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6%로 여성(50.2%) 보다 낮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자립 생활을 생각해 본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2%로 가장 높았고, 내부/안면 장애는 '자립 생활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

율이 31.3%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자립생활을 원하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4%로 경증 장애(26.4%) 보다 높다.

〈표 V-5-52〉 자립생활 지원 필요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자립 생활을 원하지 않음	자립 생활을 생각해 본적 없음	직업재활/취업	주거지원	보조기기
전 체		(251,277)	27.8	**48.7**	6.1	4.8	0.9
성별	남성	(142,540)	28.3	47.6	6.4	5.2	0.7
	여성	(108,737)	27.2	**50.2**	5.7	4.2	1.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6.9	48.6	7.4	3.7	0.7
	뇌병변	(42,177)	29.4	48.6	5.0	2.9	1.0
	시각	(21,557)	28.7	42.1	6.6	7.5	0.1
	청각/언어	(73,818)	25.8	50.1	6.8	5.5	1.7
	지적/자폐성	(23,852)	27.8	51.3	6.3	4.9	0.0
	정신	(8,894)	28.2	**52.2**	5.6	6.8	0.3
	내부/안면	(31,447)	**31.3**	47.3	3.3	4.7	0.4
장애 정도	중증	(92,616)	**30.4**	48.7	4.2	4.4	0.5
	경증	(158,661)	26.4	48.7	7.1	5.0	1.1

구 분		소득지원 (자립생활정착 지원금 포함)	의료재활	이동편의	일상생활 활동지원	기타	계
전 체		8.2	1.8	0.5	1.1	0.0	100.0
성별	남성	8.1	2.0	0.5	1.1	0.0	100.0
	여성	8.4	1.6	0.5	1.1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9.1	2.5	0.5	0.7	0.0	100.0
	뇌병변	8.2	1.9	1.0	2.0	0.0	100.0
	시각	12.1	1.3	0.3	1.3	0.0	100.0
	청각/언어	8.0	0.9	0.3	0.9	0.0	100.0
	지적/자폐성	3.8	3.2	1.0	1.7	0.0	100.0
	정신	5.4	0.0	0.0	1.4	0.0	100.0
	내부/안면	9.0	2.8	0.5	0.6	0.1	100.0
장애 정도	중증	7.1	2.7	0.7	1.4	0.0	100.0
	경증	8.9	1.3	0.5	1.0	0.0	100.0

(5) 기관/시설 이동시간

거주지에서부터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병·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기관/시설까지의 접근성(이동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까지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 5분-10분 미만(38.7%), 걸어서 30분 이상(13.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여성(35.8%)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체 장애는 '30분 이상'소요된다는 응답이 19.4%로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걸어서 '5~30분 미만'응답 비율이 경증 장애 대비 높았던 반면, '5분 미만' 또는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증 장애가 경증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Ⅴ-5-53〉 기관/시설 이동시간 (1) 시장, 마트 등 일상용품 구매 장소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전 체		(251,277)	6.1	38.7	41.8	13.4	100.0
성별	남성	(142,540)	5.9	**41.0**	40.3	12.9	100.0
	여성	(108,737)	6.4	35.8	43.9	14.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6.3	38.5	35.8	**19.4**	100.0
	뇌병변	(42,177)	4.5	34.2	43.4	17.9	100.0
	시각	(21,557)	7.5	41.2	38.1	13.2	100.0
	청각/언어	(73,818)	5.7	40.0	**46.0**	8.2	100.0
	지적/자폐성	(23,852)	7.5	41.7	37.8	13.1	100.0
	정신	(8,894)	7.4	37.0	44.1	11.5	100.0
	내부/안면	(31,447)	6.2	38.7	44.2	10.9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6.4**	38.4	41.7	**13.5**	100.0
	경증	(158,661)	5.9	**38.9**	**41.9**	13.3	100.0

나.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까지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 30분 이상(27.3%), 걸어서 5분-10분 미만(19.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9%로 여성(29.0%)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 장애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9%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1%로 경증 장애(26.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54〉 기관/시설 이동시간 (2) 병, 의원, 보건소 등 의료기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전 체		(251,277)	2.2	19.4	**51.1**	27.3	100.0
성별	남성	(142,540)	2.6	20.6	50.8	25.9	100.0
	여성	(108,737)	1.7	17.9	51.4	**29.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2	19.8	44.9	33.1	100.0
	뇌병변	(42,177)	2.2	15.9	46.9	**34.9**	100.0
	시각	(21,557)	2.3	22.1	51.9	23.6	100.0
	청각/언어	(73,818)	2.2	19.9	**57.7**	20.2	100.0
	지적/자폐성	(23,852)	3.3	20.2	51.2	25.3	100.0
	정신	(8,894)	2.5	21.9	42.0	33.6	100.0
	내부/안면	(31,447)	1.7	19.3	52.5	26.5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2.1	19.4	50.4	28.1	100.0
	경증	(158,661)	2.3	19.5	51.5	26.8	100.0

다.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까지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 5분-10분 미만(22.6%), 걸어서 30분 이상(2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9.3%로 여성(22.6%)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2%로 가장 높았고, 지폐장애 미 뇌병변 장애는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 이상으

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는 걸어서 '5분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이 1.8%로 중증 장애(2.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55〉 기관/시설 이동시간 (3)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전 체		(251,277)	2.1	22.6	**54.6**	20.7	100.0
성별	남성	(142,540)	2.2	23.8	54.7	19.3	100.0
	여성	(108,737)	2.0	20.9	54.4	**22.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0	24.6	48.4	**25.0**	100.0
	뇌병변	(42,177)	1.9	19.2	53.5	**25.4**	100.0
	시각	(21,557)	2.4	24.6	52.9	20.1	100.0
	청각/언어	(73,818)	1.7	21.2	**60.2**	16.9	100.0
	지적/자폐성	(23,852)	3.6	21.7	54.2	20.5	100.0
	정신	(8,894)	4.0	25.2	54.0	16.9	100.0
	내부/안면	(31,447)	2.0	25.6	54.2	18.3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2.8	22.3	54.6	20.4	100.0
	경증	(158,661)	1.8	22.7	54.6	20.9	100.0

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까지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 30분 이상(39.6%), 걸어서 5분-10분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걸어서 '30분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40.9%로, 남성(38.5%)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걸어서 '10분-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고, 지체 장애는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4%로 경증 장애(40.9%) 보다 낮다.

〈표 Ⅴ-5-56〉 기관/시설 이동시간 (4) 사회복지시설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전 체		(251,277)	1.2	15.2	**44.0**	39.6	100.0
성별	남성	(142,540)	1.2	16.0	44.3	38.5	100.0
	여성	(108,737)	1.2	14.3	43.6	**40.9**	100.0

구 분		추정수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장애 유형	지체	(49,532)	1.3	16.3	38.9	**43.4**	100.0
	뇌병변	(42,177)	0.6	13.8	44.2	41.4	100.0
	시각	(21,557)	0.6	14.9	43.5	40.9	100.0
	청각/언어	(73,818)	1.6	14.5	45.6	38.3	100.0
	지적/자폐성	(23,852)	1.0	12.9	45.2	41.0	100.0
	정신	(8,894)	3.9	16.0	43.0	37.0	100.0
	내부/안면	(31,447)	0.8	18.9	**47.5**	32.9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1	15.3	46.2	37.4	100.0
	경증	(158,661)	1.2	15.2	42.7	**40.9**	100.0

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지하철역까지 이동시간을 살펴보면,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 48.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걸어서 10분–30분 미만(34.6%), 걸어서 5분 미만(11.1%) 등의 순으로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걸어서 '5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8%로 여성(12.8%) 보다 낮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걸어서 '5분–1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2.8%, 52.4%로 높았고, 청각/언어 장애는 걸어서 '5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9%, 뇌병변 장애는 걸어서 '30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1.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걸어서 '5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3%로 경증 장애(12.2%)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57〉 기관/시설 이동시간 (5)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걸어서 5분 미만	걸어서 5분–10분 미만	걸어서 10분–30분 미만	걸어서 30분 이상	계
전 체		(251,277)	11.1	**48.4**	34.6	5.9	100.0
성별	남성	(142,540)	9.8	49.0	35.1	6.1	100.0
	여성	(108,737)	**12.8**	47.6	34.0	5.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0.2	48.5	33.5	7.7	100.0
	뇌병변	(42,177)	6.0	42.7	39.6	**11.7**	100.0
	시각	(21,557)	11.7	**52.8**	28.9	6.6	100.0
	청각/언어	(73,818)	**14.9**	48.5	33.4	3.2	100.0
	지적/자폐성	(23,852)	10.0	47.8	39.0	3.2	100.0
	정신	(8,894)	10.1	50.1	35.4	4.4	100.0
	내부/안면	(31,447)	11.3	**52.4**	33.0	3.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9.3	49.0	36.0	5.7	100.0
	경증	(158,661)	**12.2**	48.0	33.8	6.0	100.0

(5)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정도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정도를 살펴보면,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③+④)이 8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③+④)이 83.7%로 여성(81.3%)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에서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③+④)이 8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편하다'고 응답한 비율(③+④)이 80.8%로 경증 장애(83.7%)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58〉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한 편이다	③ 편한 편이다	④ 매우 편하다	불편하다	편하다	계
전 체		(251,277)	1.7	15.6	77.2	5.5	17.3	**82.7**	100.0
성별	남성	(142,540)	0.9	15.3	77.8	5.9	16.3	**83.7**	100.0
	여성	(108,737)	2.7	16.0	76.5	4.8	18.7	81.3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3.4	18.8	70.8	7.0	22.2	77.8	100.0
	뇌병변	(42,177)	3.3	21.0	71.5	4.2	24.4	75.6	100.0
	시각	(21,557)	1.1	14.6	76.5	7.8	15.7	84.3	100.0
	청각/언어	(73,818)	0.7	10.5	84.4	4.4	11.3	**88.7**	100.0
	지적/자폐성	(23,852)	0.6	18.0	75.7	5.7	18.6	81.4	100.0
	정신	(8,894)	0.4	16.3	81.5	1.8	16.7	83.3	100.0
	내부/안면	(31,447)	0.7	14.0	78.7	6.6	14.7	85.3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6	17.6	76.3	4.5	19.2	80.8	100.0
	경증	(158,661)	1.8	14.5	77.7	6.0	16.3	**83.7**	100.0

주1) '불편하다' 는 ①매우 불편하다 또는 ②불편한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편하다' 는 ③편한 편이다 또는 ④매우 편하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임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6)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이유(1순위)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의원 등 의료 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32.0%),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1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5%로 남성(2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병의원 등 의료 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3%로 가장 높았고, 정신 장애는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 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7.7%, 시각 장애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8%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응답은 중증 장애(42.9%)에서 경증 장애(37.4%)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5-59〉 거주 지역 생활 시 불편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 시설이 부족 하거나 이용에 불편	병의원 등 의료 기관이 부족 하거나 이용에 불편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녹지공간, 공원 등이 부족 하거나 이용에 불편	각종 사회복지 시설이 부족 하거나 이용에 불편	기타
전 체		(43,547)	31.0	**39.7**	15.5	5.0	7.7	1.1
성별	남성	(23,184)	27.0	40.2	16.6	5.1	10.3	0.8
	여성	(20,364)	**35.5**	39.0	14.3	4.8	4.8	1.6
장애 유형	지체	(11,017)	35.2	36.5	16.1	6.0	6.0	0.2
	뇌병변	(10,274)	22.8	**48.3**	13.4	4.4	9.2	1.9
	시각	(3,392)	27.8	23.9	**38.8**	2.6	5.9	0.9
	청각/언어	(8,321)	33.3	43.5	10.0	7.7	5.5	0.2
	지적/자폐성	(4,437)	30.6	38.6	14.9	1.4	14.0	0.6
	정신	(1,485)	**47.7**	21.8	22.1	0.0	6.1	2.2
	내부/안면	(4,621)	32.2	39.5	10.3	5.5	8.6	3.9
장애 정도	중증	(17,745)	27.9	42.9	11.7	4.8	10.2	2.6
	경증	(25,803)	33.1	37.4	18.2	5.1	6.0	0.1

주1) 거주지역 생활 시 불편 정도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 또는 '불편한 편이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7)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살펴보면, '임대주택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 4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주택자금 제공(24.6%),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17.2%), 주택개조 사업 확대(12.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임대주택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8%로 여성(43.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임대주택건설과 같은 주택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4.0%로 가장 높고, 청각/언어 장애는 '주택자금 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6%, 뇌병변 장애는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를

응답한 비율이 20.8%이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는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라고 응답한 비율이 46.3%로 경증 장애(45.1%) 보다 높다.

〈표 Ⅴ-5-60〉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임대주택 건설과 같은 주택제공	주택자금 제공	주택개조 사업 확대	집주변 편의시설 확대	기타	계
전 체		(251,277)	45.8	24.7	12.2	17.3	0.0	100.0
성별	남성	(142,540)	47.1	25.6	10.2	17.0	0.0	100.0
	여성	(108,737)	44.0	23.5	14.8	17.7	–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4.0	25.2	12.8	18.0	–	100.0
	뇌병변	(42,177)	44.0	21.5	13.6	20.9	–	100.0
	시각	(21,557)	46.0	25.6	11.8	16.5	0.0	100.0
	청각/언어	(73,818)	44.5	26.7	12.5	16.4	–	100.0
	지적/자폐성	(23,852)	49.1	24.5	11.1	15.3	–	100.0
	정신	(8,894)	54.0	20.2	11.2	14.6	–	100.0
	내부/안면	(31,447)	48.8	24.4	10.2	16.6	–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6.6	23.7	11.9	17.8	0.0	100.0
	경증	(158,661)	45.2	25.3	12.4	17.1	–	100.0

4) 교육

(1) 재학 상태 및 무학

가.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패널의 재학 상태를 살펴보면,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재학 중인 남성의 비율이 79.5%로 여성(63.5%)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재학 중인 비율이 70.1%로 경증 장애(78.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61〉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다니고 있음	다니지 않음	계
전 체		(7,976)	73.7	26.3	100.0
성별	남성	(5,094)	79.5	20.5	100.0
	여성	(2,882)	63.5	36.5	100.0
장애 유형	지체	(736)	83.7	16.3	100.0
	뇌병변	(2,304)	58.3	41.7	100.0
	시각	(364)	60.2	39.8	100.0
	청각/언어	(3,029)	76.4	23.6	100.0
	지적/자폐성	(1,252)	93.8	6.2	100.0
	내부/안면	(290)	72.9	27.1	100.0
장애 정도	중증	(4,434)	70.1	29.9	100.0
	경증	(3,542)	78.3	21.7	100.0

주1) 학력상태에 대해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나. 초등학생

초등학생 패널의 재학 상태를 살펴보면,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재학 중인 비율이 66.9%로 여성(46.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재학 중인 비율이 62.8%로 경증 장애(50.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62〉 초등학생 –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다니고 있음	다니지 않음	계
전 체		(18,176)	**57.2**	42.8	100.0
성별	남성	(9,767)	**66.9**	33.1	100.0
	여성	(8,409)	46.0	54.0	100.0
장애 유형	지체	(1,695)	34.4	65.6	100.0
	뇌병변	(1,658)	46.4	53.6	100.0
	시각	(1,202)	49.0	51.0	100.0
	청각/언어	(5,031)	52.6	47.4	100.0
	지적/자폐성	(7,300)	**77.5**	22.5	100.0
	정신	(357)	0.0	100.0	100.0
	내부/안면	(932)	16.2	83.8	100.0
장애 정도	중증	(10,219)	**62.8**	37.2	100.0
	경증	(7,956)	50.1	49.9	100.0

주1) 학력상태에 대해 '초등학생'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다.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 패널의 재학 상태를 살펴보면,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남성의 비율이 4.2%로 여성(2.8%) 보다 높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재학 중인 비율이 6.1%로 경증 장애(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63〉 중/고등학생 –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다니고 있음	다니지 않음	진학하지 않음	계
전 체		(92,832)	**3.5**	10.1	86.5	100.0
성별	남성	(43,775)	**4.2**	12.8	83.0	100.0
	여성	(49,057)	2.8	7.7	89.5	100.0
장애 유형	지체	(21,925)	2.9	8.6	88.4	100.0
	뇌병변	(15,139)	1.5	9.0	89.5	100.0
	시각	(8,183)	2.5	6.5	91.0	100.0
	청각/언어	(29,095)	2.1	9.7	88.2	100.0
	지적/자폐성	(6,327)	**21.8**	21.0	57.2	100.0
	정신	(2,835)	1.7	26.4	72.0	100.0
	내부/안면	(9,328)	0.8	7.3	91.9	100.0
장애 정도	중증	(28,750)	**6.1**	11.9	82.0	100.0
	경증	(64,083)	2.3	9.3	88.5	100.0

주1) 학력상태에 대해 '중/고등학생'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라. 전문/대학/대학원생

전문/대학/대학원생 패널의 재학 상태를 살펴보면,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재학 중인 비율이 2.8%로 여성(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재학 중인 비율은 경증(2.3%)이 중증(1.8%)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V-5-64〉 전문/대학/대학원생 - 재학 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다니고 있음	다니지 않음	진학하지 않음	계
전 체		(90,583)	2.1	4.9	93.0	100.0
성별	남성	(55,285)	2.8	6.2	91.1	100.0
	여성	(35,298)	1.0	2.8	96.2	100.0
장애 유형	지체	(17,622)	2.1	5.7	92.2	100.0
	뇌병변	(15,602)	1.1	6.4	92.5	100.0
	시각	(7,426)	4.8	4.1	91.1	100.0
	청각/언어	(23,977)	1.8	3.8	94.4	100.0
	지적/자폐성	(6,989)	6.2	4.6	89.2	100.0
	정신	(4,198)	0.3	11.8	87.8	100.0
	내부/안면	(14,771)	0.9	2.5	96.6	100.0
장애 정도	중증	(36,118)	1.8	5.6	92.6	100.0
	경증	(54,465)	2.3	4.4	93.4	100.0

주1) 학력상태에 대해 '전문/대학/대학원생'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마. 보육시설/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

보육시설/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 어려서'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집 주변에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12.1%), 정보부족으로 인해(9.4%), 비용부담 때문에(6.8%), 시설을 믿지 못해서(5.9%) 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집 주변에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17.1%로 남성(7.2%) 보다 높고, '정보부족으로 인해'를 응답한 비율은 남성(13.0%)이 여성(5.9%) 대비 높다.

〈표 V-5-65〉 보육시설/유치원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정보부족으로 인해	비용부담 때문에	시설을 믿지 못해서	대안(예, 홈스쿨)이 있어서
전 체		(2,095)	9.4	6.8	5.9	2.2
성별	남성	(1,043)	13.0	5.7	6.9	1.8
	여성	(1,053)	5.9	7.9	5.0	2.6
구 분		집 주변에 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너무 어려서	기타	계
전 체		12.1		47.6	15.9	100.0
성별	남성	7.2		50.3	15.2	100.0
	여성	17.1		44.9	16.6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무학)

마지막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71.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 때문에(14.5%), 학비 문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9.2%), 장애로 인한 교육적 차별로 인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학비문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로 남성(8.5%)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의 경우 '다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뇌병변 장애 및 지적/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이상, 시각 장애와 청각/언어 장애는 '학비문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중증 장애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 때문에'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경증 장애(11.1%)와 9.7%p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66〉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 때문에	부모 및 동생 등 가족의 치료/재활로 인해	부모 이혼 등 가족문제 때문에	학교 선생님 혹은 친구 관계 때문에	학비문제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장애로 인한 교육적 차별로 인해
전 체		(186,094)	14.5	0.7	0.8	0.4	9.2	1.8
성별	남성	(98,917)	14.8	0.7	0.8	0.5	8.5	1.9
	여성	(87,176)	14.2	0.8	0.8	0.2	**9.9**	1.6
장애 유형	지체	(39,644)	10.0	0.3	1.3	0.1	9.6	1.0
	뇌병변	(31,234)	**21.0**	1.8	0.7	0.6	7.9	1.2
	시각	(15,657)	10.7	0.6	0.5	0.6	**10.9**	1.0
	청각/언어	(54,415)	10.7	0.5	0.6	0.1	**11.2**	1.2
	지적/자폐성	(13,145)	**24.0**	1.0	0.7	0.7	6.8	8.5
	정신	(7,327)	**24.3**	1.3	0.8	1.7	6.6	3.3
	내부/안면	(24,671)	16.5	0.4	0.6	0.4	6.7	1.3
장애 정도	중증	(66,266)	**20.8**	1.0	0.6	0.5	6.9	3.1
	경증	(119,828)	11.1	0.6	0.9	0.3	10.4	1.1

구 분		정학, 퇴학 등 처벌로 인해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해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	대안(예, 홈스쿨)이 있어서	다녀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계
전 체		0.0	0.6	0.7	0.1	**71.1**	0.1	100.0
성별	남성	0.0	0.5	0.7	0.1	71.3	0.1	100.0
	여성	0.0	0.8	0.7	0.0	70.7	0.2	100.0
장애유형	지체	0.0	0.2	0.1	0.1	**77.1**	0.1	100.0
	뇌병변	0.0	0.6	0.6	0.0	65.4	0.2	100.0
	시각	0.0	0.5	2.4	0.0	72.5	0.2	100.0
	청각/언어	0.0	0.7	0.4	0.0	74.6	0.0	100.0
	지적/자폐성	0.0	1.1	1.1	0.4	55.7	0.0	100.0
	정신	0.0	0.0	5.3	0.4	55.8	0.5	100.0
	내부/안면	0.0	1.1	0.3	0.0	72.4	0.2	100.0
장애정도	중증	0.0	0.7	1.1	0.2	64.9	0.3	100.0
	경증	0.0	0.5	0.5	0.0	74.5	0.1	100.0

주1) 학력상태에 대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지 않음' 또는 '진학하지 않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미취학 및 유치원생

앞서 살펴본 재학상태가 미취학 및 유치원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교육형태, 이용시간, 등하원 도움 및 소요시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 문제점, 관련 편의제공 및 만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유치원 형태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유치원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유치원'이 2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일반 보육시설(24.1%),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16.9%), 장애아 통합보육시설(12.7%),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10.6%)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에 다닌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로 여성(1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는 '일반 보육시설'에 다니는 비율이 46% 이상으로 높고, '일반 유치원'은 시각 장애(52.5%),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은 지적/자폐성 장애(28.9%)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은 중증(24.6%)이 경증(8.2%) 대비 3배 이상 높았고,'일반 보육시설'은 경증(36.9%)이 중증(12.7%) 대비 높다.

〈표 Ⅴ-5-67〉 현재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유치원 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일반 보육 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 시설	장애아 전문 보육 시설	일반 유치원	일반 유치원 내 특수 학급	특수 학교 유치부	유아 특수 학교	기타	계
전 체		(5,881)	24.1	12.7	10.6	**26.7**	16.9	7.1	1.7	0.1	100.0
성별	남성	(4,052)	23.6	11.8	11.8	26.8	**18.2**	7.3	0.4	0.1	100.0
	여성	(1,829)	25.3	14.7	8.0	26.6	13.9	6.8	4.6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616)	**47.2**	1.6	2.0	30.5	18.7	0.0	0.0	0.0	100.0
	뇌병변	(1,344)	14.3	24.1	**14.1**	16.6	21.2	7.4	2.3	0.0	100.0
	시각	(219)	31.5	1.2	2.9	**52.5**	0.0	7.8	4.1	0.0	100.0
	청각/언어	(2,316)	33.2	6.3	11.7	30.4	11.0	7.0	0.5	0.1	100.0
	지적/자폐성	(1,174)	0.0	22.6	11.1	21.5	**28.9**	11.7	4.3	0.0	100.0
	내부/안면	(212)	**46.3**	0.0	7.0	42.4	0.0	1.9	0.0	2.5	100.0
장애 정도	중증	(3,107)	12.7	18.2	11.8	18.8	**24.6**	10.7	2.9	0.2	100.0
	경증	(2,774)	**36.9**	6.5	9.2	35.7	8.2	3.1	0.4	0.0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나.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 주중 평균 시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6~7시간 미만'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6시간 미만(21.3%), 5시간 미만(17.6%), 8시간 이상(15.9%), 7~8시간 미만(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6~7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5%로 여성(30.7%) 보다 높다.

〈표 V-5-68〉 주중 하루 평균(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시간 미만	5~6 시간 미만	6~7 시간 미만	7~8 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전 체		(5,881)	17.6	21.3	**33.3**	11.8	15.9	100.0
성별	남성	(4,052)	18.7	19.6	**34.5**	10.7	16.6	100.0
	여성	(1,829)	15.3	25.1	30.7	14.4	14.5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5시간 미만'이 9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8시간 이상(2.2%), 5~6시간(0.6%), 6~7 시간 미만(0.4%), 7~8시간 미만(0.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5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7.2%로 남성(9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69〉 주말 하루 평균(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계
전 체		(5,881)	**96.5**	0.6	0.4	0.3	2.2	100.0
성별	남성	(4,052)	**97.2**	0.0	0.2	0.5	2.1	100.0
	여성	(1,829)	94.8	1.9	0.9	0.0	2.4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등하원시 도움을 주는 사람

계속해서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시 도움을 주는 사람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9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움 받지 않음(2.6%), 활동보조인(2.5%), 할머니/할아버지(1.8%), 형제/자매(1.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라고 응답한 비율이 91.4%로 여성(89.8%) 보다 높았던 반면, '도움 받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4.0%)이 남성(1.9%)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Ⅴ-5-70〉 (미취학) 등하원시 도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도움 받지 않음	부모	형제/자매	할머니/할아버지	친척	활동보조인	기타	계
전 체		(5,881)	2.6	**90.9**	1.4	1.8	0.3	2.5	0.6	100.0
성별	남성	(4,052)	1.9	**91.4**	2.1	1.2	0.2	2.4	0.9	100.0
	여성	(1,829)	4.0	89.8	0.0	3.1	0.5	2.5	0.0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 등하원시 소요되는 시간

보육시설/유치원 등하원시 소요되는 시간을 살펴보면, '10분'이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0분(29.6%), 30분(16.3%), 40분(13.5%), 50분 이상(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3%로 여성(25.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71〉 (미취학) 등하원시 소요시간(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상	계
전 체		(5,881)	**30.0**	29.6	16.3	13.5	10.6	100.0
성별	남성	(4,052)	30.0	25.7	17.6	15.1	11.6	100.0
	여성	(1,829)	29.9	**38.3**	13.5	9.9	8.4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바. 보육시설/유치원 생활 시 문제점

다음으로 보육시설/유치원 생활 시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제없음'이 61.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등하원시 이동불편(10.0%), 수업내용의 이해 어려움(8.5%), 특수/보조교사 부족(7.3%)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등하원시 이동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6%로 남성(11.9%)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72〉 (미취학) 보육시설/유치원 생활 시 문제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문제없음	선생님의 이해부족/편견	선생님의 과도한 배려	수업내용의 이해 어려움(진도 따라가기)	특수/보조교사 부족
전 체		(5,881)	**61.6**	2.3	0.2	8.5	7.3
성별	남성	(4,052)	60.2	1.6	0.0	9.5	6.5
	여성	(1,829)	64.5	3.7	0.5	6.3	9.2

구 분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의 괴롭힘/ 따돌림/ 놀림	보육시설/ 유치원 내 편의시설 부족	등하원시 이동불편	청소, 모임 등 보육시설/ 유치원행사 참여	기타	계
전 체		1.6	3.9	3.0	10.0	0.4	1.3	100.0
성별	남성	1.4	5.2	2.7	**11.9**	0.0	1.0	100.0
	여성	2.3	0.8	3.7	5.6	1.3	2.1	100.0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사.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의 경우 학습을 위한 편의 항목별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1) 통학차량 편의제공'과 '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에한 응답 비율이 각각 5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34.3%),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 자료, 보청 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29.4%),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29.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으로 응답한 비율이 58.6%로 여성(50.4%) 보다 높지만, '(1) 통학차량 편의제공'으로 응답한 비율은 여성(59.4%)이 남성(54.5%) 대비 높다.

〈표 V-5-73〉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 자료, 보청 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5,881)	**56.0**	34.3	29.3	29.4	**56.0**
성별	남성	(4,052)	54.5	33.2	28.1	30.7	**58.6**
	여성	(1,829)	**59.4**	36.8	32.1	26.7	50.4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아.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 항목별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1) 통학차량 편의제공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28.4%),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27.5%),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24.8%),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1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8%로 남성(1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74〉 지난조사 이후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5,881)	**35.7**	27.5	24.8	17.6	28.4
성별	남성	(4,052)	34.3	26.7	22.3	14.8	27.2
	여성	(1,829)	38.9	29.0	30.2	**23.8**	31.2

주1) 학력상태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자. 학습을 위한 편의 만족도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 항목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9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5)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92.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5-75〉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102)	0.0	5.3	79.3	15.4	5.3	94.7	100.0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1,614)	0.0	7.5	83.2	9.3	7.5	**92.5**	100.0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1,456)	2.5	1.8	78.4	17.3	4.3	95.7	100.0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1,037)	6.9	0.0	85.0	8.2	6.9	93.1	100.0
(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1,673)	0.0	3.6	82.6	13.8	3.6	**96.4**	100.0

주1) '매우 만족하지 않음' 부터 '매우 만족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미취학) 학습을 위한 편의제공 여부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초등학교

재학상태가 초등학교인 경우를 대상으로 교육형태, 이용시간, 등하원 도움 및 소요시간,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시 문제점, 관련 편의제공 및 만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초등학생 학교 형태

초등학생 패널의 학교 형태를 살펴보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이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일반학교 특수학급(40.1%), 특수학교(11.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일반학교 일반학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6%로 남성(45.9%)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특수학교'는 남성(13.8%)이 여성(8.5%)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V-5-76〉 (초등학교) 학교 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계
전 체		(10,398)	**48.0**	40.1	11.8	100.0
성별	남성	(6,534)	45.9	40.3	**13.8**	100.0
	여성	(3,864)	**51.6**	39.9	8.5	100.0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나. 초등학교 등하교시 도움을 주는 사람

등하교시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해 조사 결과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가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움 받지 않음(17.1%), 활동 보조인(10.5%), 형제/자매(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형제/자매라고 응답한 비율이 5.2%로 여성(1.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77〉 (초등학교) 등하교시 도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도움 받지 않음	부모	형제/자매	할머니/할아버지	친척	친구 및 이웃	활동 보조인	기타	계
전 체		(10,398)	17.1	65.0	3.8	1.0	0.6	0.6	10.5	1.4	100.0
성별	남성	(6,534)	14.4	65.4	5.2	0.9	0.9	0.9	10.2	2.2	100.0
	여성	(3,864)	21.8	64.4	1.5	1.2	0.0	0.0	11.0	0.0	100.0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

초등학생의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여 구간별로 살펴보면, 20분이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분(21.1%), 10분(21.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9%로 남성(41.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78〉 (초등학교) 등하교 소요시간(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이상	계
전 체		(10,398)	21.0	**43.8**	21.1	4.7	9.4	100.0
성별	남성	(6,534)	20.0	41.9	22.2	5.0	10.9	100.0
	여성	(3,864)	22.8	**46.9**	19.3	4.3	6.8	100.0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학교 생활 시 문제점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 시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제 없음'이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업내용의 이해 어려움(23.1%),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움(8.1%), 특수/보조교사 부족(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수업내용의 이해 어려움(진도 따라가기)'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6.7%로 남성(1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79〉 (초등학교) 학교 생활 시 문제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문제없음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선생님의 과도한 배려	수업내용의 이해 어려움 (진도 따라가기)	특수/ 보조교사 부족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의 괴롭힘/ 따돌림/ 놀림
전 체		(10,398)	**45.6**	4.4	1.6	23.1	7.1	0.1	2.9
성별	남성	(6,534)	42.7	5.0	2.5	**26.7**	5.5	0.1	2.7
	여성	(3,864)	50.5	3.5	0.0	17.0	9.8	0.0	3.1
구 분		친구들과 어울리는게 어려움	시설/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	등하교 불편	소풍, 외부활동, 학교행사 참여불편	이동수업 참여의 어려움	체육, 음악수업 참여의 어려움	기타	계
전 체		8.1	1.6	2.6	0.8	0.5	1.3	0.4	100.0
성별	남성	7.1	2.1	2.6	0.6	0.0	1.7	0.6	100.0
	여성	9.8	0.7	2.6	1.1	1.3	0.6	0.0	100.0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초등학생의 학습을 위한 편의에 대해 항목별로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 통학차량 편의제공(41.7%),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18.9%),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17.7%),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17.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 통학차량 편의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8%로 여성(44.7%)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80〉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기기 지원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10,398)	41.7	18.9	17.7	17.6	**44.1**
성별	남성	(6,534)	40.3	19.6	18.6	18.5	43.8
	여성	(3,864)	**43.9**	17.6	16.2	16.1	44.7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바.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에 대해 항목별로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 통학차량 편의제공(17.9%),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11.6%),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10.6%),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7.6%) 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라고 응답한 비율이 12.6%로 여성(7.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81〉 지난조사 이후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기기 지원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10,398)	17.9	11.6	10.6	7.6	**23.8**
성별	남성	(6,534)	19.1	12.1	**12.6**	9.2	25.2
	여성	(3,864)	15.9	10.7	7.1	4.9	21.4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사. 학습을 위한 편의 만족도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9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5) 보육/유치원 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87.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5-82〉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1) 통학차량 편의제공	(1,863)	2.7	6.0	74.8	16.5	8.7	91.3	100.0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1,202)	0.9	9.5	71.5	18.2	10.3	89.7	100.0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1,099)	2.8	0.0	76.6	20.5	2.8	**97.2**	100.0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792)	3.9	5.9	79.9	10.3	9.8	90.2	100.0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2,474)	6.3	6.1	72.2	15.3	12.5	**87.5**	100.0

주1) '매우 만족하지 않음' 부터 '매우 만족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초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제공 여부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아.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생활 평가

초등학교에 대한 학교 생활 평가를 살펴보면, '(2)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7) 진로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68.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5-83〉 (초등학교) 학교 생활 평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주변 친구들은 나의 장애에 대해 배려를 한다	(10,398)	2.7	18.9	74.8	3.5	21.6	78.4	100.0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계
(2)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10,398)	3.2	17.0	70.1	9.7	20.2	**79.8**	100.0
(3)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는 진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한다	(10,398)	9.2	21.6	59.1	10.1	30.8	69.2	100.0
(4)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한다	(10,398)	4.7	17.9	65.1	12.2	22.6	77.4	100.0
(5)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한다	(10,398)	5.0	25.3	58.2	11.5	30.3	69.7	100.0
(6)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건강문제로 대화를 많이 한다	(10,398)	7.7	19.3	64.8	8.2	27.0	73.0	100.0
(7)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10,398)	10.1	21.8	61.2	7.0	31.9	**68.1**	100.0
(8)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	(10,398)	5.0	15.8	66.5	12.7	20.8	79.2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초등학생의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를 조사 결과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18.0%), 개인교육(학습지/재택과외)(11.2%), 방과후 교실(1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방과후 교실'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3.9%로 여성(5.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84〉 (초등학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개인 교육(학습지/재택과외)	예체능 개인 교습	방과후 교실	다니지 않음	기타	계
전 체		(10,543)	8.8	18.0	11.2	8.0	10.7	**42.8**	0.5	100.0
성별	남성	(6,551)	6.2	17.6	10.6	5.9	**13.9**	44.9	0.9	100.0
	여성	(3,992)	12.9	18.7	12.3	11.4	5.4	39.3	0.0	100.0

주1)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초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차.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2~4시간 미만'이 3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30.6%), 4~6시간 미만(15.0%), 6시간 이상(10.2%), 1시간 미만(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1%로 남성(2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85〉 (초등학교) 주중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시간 미만	1~2 시간 미만	2~4 시간 미만	4~6 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
전 체		(6,034)	8.9	30.6	**35.3**	15.0	10.2	100.0
성별	남성	(3,611)	11.3	27.7	35.0	14.6	11.4	100.0
	여성	(2,423)	5.3	**35.1**	35.6	15.5	8.5	100.0

주1)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카.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1시간 미만'이 9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7.2%), 4~6시간 미만 및 2~4시간 미만(각각 0.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6%로 여성(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86〉 (초등학교) 주말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시간 미만	1~2 시간 미만	2~4 시간 미만	4~6 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
전 체		(6,034)	**91.8**	7.2	0.5	0.5	100.0	100.0
성별	남성	(3,611)	90.8	**8.6**	0.3	0.3	100.0	100.0
	여성	(2,423)	93.3	5.0	0.8	0.9	100.0	100.0

주1)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4) 중/고등학교

재학상태가 중/고등학생인 경우의 등하교시 도움 및 소요시간, 학교생활 시 문제점, 학습을 위한 편의 관련 내용, 진학/진로 계획 참여 여부, 사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등하교시 도움을 주는 사람

등하교시 도움을 주는 사람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 받지 않음'이 6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부모(34.5%), 할머니/할아버지(1.6%), 활동 보조인(1.5%), 친구 및 이웃(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 받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0%로 여성(61.9%)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87〉 (중/고등학교) 등하교시 도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도움 받지 않음	부모	형제/자매	할머니/할아버지	친구 및 이웃	활동보조인	계
전 체		(3,208)	60.2	34.5	1.0	1.6	1.3	1.5	100.0
성별	남성	(1,851)	59.0	33.9	1.6	2.7	0.9	1.9	100.0
	여성	(1,357)	61.9	35.3	0.0	0.0	1.8	1.0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나. 중/고등학생 등하교 소요시간

중/고등학생 패널의 등하교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20분'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30분(24.9%), 50분 이상(18.4%), 10분 이하(17.3%), 40분(10.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30분'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2%로 여성(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88〉 (중/고등학교) 등하교 소요시간(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분 이하	20분	30분	40분	50분 이상	계
전 체		(3,208)	17.3	28.6	24.9	10.8	18.4	100.0
성별	남성	(1,851)	10.3	30.2	36.2	5.3	18.0	100.0
	여성	(1,357)	27.0	26.4	9.4	18.3	18.9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 중/고등학교 생활 시 문제점

학교 생활 시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제없음'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수업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13.0%), 친구들의 괴롭힘/따돌림/놀림(8.5%), 체육, 음악수업 참여의 어려움(5.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문제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8.3%로 남성(49.3%) 보다 높았던 반면, '소풍, 외부활동, 학교행사 참여불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6.9%)이 여성(0.3%)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Ⅴ-5-89〉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 시 문제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문제없음	선생님의 이해부족/ 편견	선생님의 과도한 배려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진도 따라가기)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의 괴롭힘/ 따돌림/ 놀림
전 체		(3,208)	**53.1**	2.5	2.0	13.0	0.6	8.5
성별	남성	(1,851)	49.3	0.4	1.8	14.3	1.0	10.9
	여성	(1,357)	**58.3**	5.4	2.3	11.3	0.0	5.3
구 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어려움	시설/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	등하교 불편	소풍, 외부활동, 학교행사 참여불편	이동수업 참여의 어려움	체육, 음악수업 참여의 어려움	계
전 체		4.4	1.2	3.5	4.1	1.9	5.2	100.0
성별	남성	4.8	0.8	4.5	**6.9**	3.2	2.0	100.0
	여성	3.8	1.7	2.2	0.3	0.0	9.5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중/고등학생의 학습을 위한 편의를 항목별로 필요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1) 통학차량 편의제공'이 34.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29.4%),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14.0%),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12.6%),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5%로 여성(19.9%) 보다 높다.

〈표 V-5-90〉 (중/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기기 지원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3,208)	**34.1**	14.0	12.6	9.3	29.4
성별	남성	(1,851)	37.2	16.3	14.3	12.9	**36.5**
	여성	(1,357)	29.9	10.8	10.2	4.4	19.9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를 항목별로 이용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 통학차량 편의제공'이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10.0%),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5.1%),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4.9%),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1) 통학차량 편의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4.2%로 여성(1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91〉 지난조사 이후 (중/고등학교)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3,208)	**12.8**	10.0	5.1	3.5	4.9
성별	남성	(1,851)	**14.2**	10.7	5.5	4.8	5.7
	여성	(1,357)	10.7	9.0	4.5	1.6	3.8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바. 중/고등학생 패널의 학교 생활 평가

중/고등학생 패널의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6)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건강문제로 대화를 많이 한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7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8)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69.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5-92〉 (중/고등학교) 학교 생활 평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주변 친구들은 나의 장애에 대해 배려를 한다	(3,208)	4.0	22.1	73.0	0.9	26.1	73.9	100.0
(2)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3,208)	4.2	21.1	67.7	7.1	25.2	74.8	100.0
(3)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는 진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한다	(3,208)	4.7	21.0	65.5	8.8	25.7	74.3	100.0
(4)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한다	(3,208)	2.3	22.6	68.4	6.7	24.8	75.2	100.0
(5)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한다	(3,208)	2.7	21.8	65.0	10.4	24.5	75.5	100.0
(6)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건강문제로 대화를 많이 한다	(3,208)	3.8	19.9	65.0	11.3	23.7	**76.3**	100.0
(7)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3,208)	3.3	21.8	69.9	5.0	25.1	74.9	100.0
(8)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	(3,208)	5.2	25.8	60.6	8.4	31.0	**69.0**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사. 진학/진로계획 참여 여부

중/고등학생의 진학/진로계획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참여하고 있다'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23.6%),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1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6.8%로 여성(1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93〉 (중/고등학교) 진학/진로계획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다	참여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모르겠다	계
전 체		(3,208)	23.6	**44.4**	14.2	17.8	100.0
성별	남성	(1,851)	24.2	44.6	**16.8**	14.4	100.0
	여성	(1,357)	22.8	44.2	10.6	22.4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교'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아. 중/고등학생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학교 외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5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원(15.1%),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13.4%)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17.5%로 여성(7.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94〉 (중/고등학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	피아노/태권도 등 예체능 학원	개인 교육 (학습지/재택 과외)	예체능 개인 교습	방과후 교실	다니지 않음	기타	계
전 체		(3,530)	15.1	13.4	4.8	1.7	4.8	**59.9**	0.3	100.0
성별	남성	(2,056)	16.3	**17.5**	5.3	2.9	5.1	52.8	0.0	100.0
	여성	(1,475)	13.3	7.7	4.2	0.0	4.4	69.8	0.6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중/고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진학하지 않음' 또는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자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자.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2~4시간 미만'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33.9%), 4~6시간 미만(10.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1%로 여성(13.9%) 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표 V-5-95〉 (중/고등학교) 주중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시간 미만	1~2 시간 미만	2~4 시간 미만	4~6 시간 미만	6시간 이상	계
전 체		(1,416)	7.4	33.9	**42.2**	10.4	6.0	100.0
성별	남성	(971)	3.1	**43.1**	39.6	7.8	6.3	100.0
	여성	(446)	16.7	13.9	47.9	16.0	5.4	100.0

주1)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차.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이용안함'이 65.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4시간 이상(20.0%), 2~4시간 미만(17.1%) 순으로 높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로 남성(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96〉 (중/고등학교) 주말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이용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계
전 체		(1,416)	**65.9**	9.9	5.8	13.1	5.3	100.0
성별	남성	(971)	64.5	14.5	6.7	8.9	5.4	100.0
	여성	(446)	69.2	0.0	3.7	**22.1**	5.1	100.0

주1)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카. 중/고등학생 희망 교육수준

중/고등학생 패널의 희망하는 교육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학교'가 60.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27.7%), 잘 모름(8.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잘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9%로 남성(10.1%) 보다 낮고, '대학원(석/박사)'로 응답은 여성(6.0%)이 남성(1.1%)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Ⅴ-5-97〉 (중/고등학교) 희망하는 교육수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잘 모름	계
전 체		(3,530)	0.3	27.7	**60.8**	3.2	8.0	100.0
성별	남성	(2,056)	0.3	26.9	61.4	1.1	**10.1**	100.0
	여성	(1,475)	0.4	28.9	59.8	**6.0**	4.9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중/고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진학하지 않음' 또는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자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타. 중/고등학생 진학/진로 계획

마지막으로 중/고등학생 패널의 진학/진로 계획을 살펴보면, '상급학교 진학'이 5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26.2%), 회사취업(5.9%), 직업 훈련 참여(4.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8%로 남성(5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98〉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후 계획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상급학교 진학	개인사업 (창업)	회사취업	직업훈련 참여	집안일 돕기	요양 혹은 집에서 쉼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음	기타	계
전 체		(3,530)	**59.1**	1.0	5.9	4.3	0.1	1.9	26.2	1.5	100.0
성별	남성	(2,056)	55.0	1.8	7.2	3.6	0.0	3.3	26.6	2.6	100.0
	여성	(1,475)	**64.8**	0.0	4.0	5.3	0.3	0.0	25.6	0.0	100.0

주1) 학력상태 '중/고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중/고등학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진학하지 않음' 또는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자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재학상태가 전문/대학/대학원생인 패널을 대상으로 입학형태, 학비 지원/부담, 등하교시 도움,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지원경험 및 희망 지원, 학교 생활시 문제점, 학습을 위한 편의 관련, 학교 생활평가, 사교육 현황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입학형태

먼저 전문/대학/대학원생 패널의 학교 입학형태를 살펴보면, 일반 전형이 61.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특별전형(35.0%), 편입학(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비율이 66.7%로 남성(60.2%) 보다 높았다.

〈표 Ⅴ-5-99〉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 입학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일반전형	특별전형	편입학	계
전 체		(1,892)	**61.4**	35.0	3.5	100.0
성별	남성	(1,526)	60.2	35.5	4.4	100.0
	여성	(366)	**66.7**	33.3	0.0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나. 전문/대학/대학원생 학비 지원/부담

전문/대학/대학원생 패널의 학비 지원/부담을 살펴보면, 부모가 65.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가 장학금(25.6%), 본인 스스로(5.9%)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부모'로부터 학비를 지원받는 비율이 69.9%로 여성(46.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00〉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비 지원/부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본인 스스로	부모	민간 장학재단	학교 장학금	국가 장학금	학자금 대출	계
전 체		(1,892)	5.9	**65.4**	2.1	0.6	25.6	0.3	100.0
성별	남성	(1,526)	0.0	**69.9**	2.6	0.0	27.5	0.0	100.0
	여성	(366)	30.4	46.8	0.0	3.2	17.9	1.7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 등하교 시 도움을 주는 사람

등하교 시 도움을 주는 사람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 받지 않음'이 8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10.3%), 활동보조인(4.4%), 형제/자매(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도움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5.6%로 남성(83.5%) 보다 높았던 반면, '활동보조인'은 남성(5.3%)이 여성(0.9%) 대비 높았다.

〈표 Ⅴ-5-101〉 (전문대/대학교/대학원) 등하교시 도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도움 받지 않음	부모	형제/자매	활동보조인	계
전 체		(1,892)	**83.9**	10.3	1.3	4.4	100.0
성별	남성	(1,526)	83.5	10.0	1.3	**5.3**	100.0
	여성	(366)	**85.6**	11.8	1.7	0.9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재학 중인 패널을 대상으로 지난조사 이후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적 없음'이 6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교 내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없음(23.7%), 복지장학금 지급(5.4%), 맞춤형 학습 기자재 지원(1.4%), 기숙사 우선 입사(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학교 내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4%로 남성(20.0%) 보다 높았던 반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적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71.0%)이 여성(47.1%) 대비 높다.

〈표 Ⅴ-5-102〉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지난조사 이후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은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학교 내에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없음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이용해 본 적 없음	기숙사 우선 입사	도우미와 함께 수강지원
전 체		(1,892)	23.7	**66.4**	1.3	0.6
성별	남성	(1,526)	20.0	71.0	1.7	0.0
	여성	(366)	39.4	47.1	0.0	3.2

구 분		학습, 교수 도우미 제도 (멘토/멘티)	복지장학금 지급	맞춤형 학습 기자재 지원	계
전 체		1.0	5.4	1.4	100.0
성별	남성	1.1	5.2	1.0	100.0
	여성	0.9	6.2	3.1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

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복지 장학금 지급'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개별 진로 상담(25.0%), 기숙사 우선 입사(13.3%), 학습, 교수 도우미 제도(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복지 장학금 지급'을 희망하는 비율이 55.4%로 남성(24.5%) 보다 높았던 반면, '개별 진로상담'은 남성(31.0%)이 여성(0.0%) 대비 희망하는 지원으로 가장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표 V-5-103〉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로부터 받고 싶은 지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저상버스, 리프트카 지원	기숙사 우선 입사	도우미와 함께 수강지원	학습, 교수 도우미 제도 (멘토/ 멘티)	복지 장학금 지급
전 체		(1,892)	0.8	13.3	2.8	8.9	**30.5**
성별	남성	(1,526)	1.0	13.4	2.8	11.0	24.5
	여성	(366)	0.0	13.1	3.1	0.0	**55.4**

구 분		맞춤형 학습 기자재 지원	시험 대필/ 시험시간 조정	휠체어 책상 비치	장애학생 행사지원	개별 진로상담	없음	계
전 체		3.7	0.1	2.4	5.5	25.0	6.9	100.0
성별	남성	4.6	0.0	2.2	1.6	**31.0**	7.8	100.0
	여성	0.0	0.3	3.3	21.5	0.0	3.2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바. 현재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

현재 학교생활에서의 문제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제없음'이 69.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15.0%), 과제수행의 어려움(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문제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여성(58.8%)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여성(32.7%)이 남성(10.7%)과 22%p 격차를 보인다.

〈표 V-5-104〉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생활 시 문제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문제없음	학교직원의 이해부족/ 편견	수업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 (진도 따라가기)	과제수행의 어려움
전 체		(1,892)	**69.0**	2.1	15.0	7.9
성별	남성	(1,526)	**71.4**	2.7	10.7	9.8
	여성	(366)	58.8	0.0	**32.7**	0.0

구 분		학교 내 편의시설 부족	등하교 불편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어울리는게 어려움	계
전 체		0.5	3.0	1.1	1.5	100.0
성별	남성	0.0	3.4	1.0	1.1	100.0
	여성	2.5	1.2	1.7	3.1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사.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학습을 위한 편의를 항목별로 필요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이 21.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 통학차량 편의제공(20.5%),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18.4%),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16.7%),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15.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4%로 남성(15.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05〉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1,892)	20.5	16.7	18.4	15.2	**21.3**
성별	남성	(1,526)	21.9	16.0	15.3	13.0	20.3
	여성	(366)	14.9	19.6	**31.4**	24.6	25.5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아.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 제공여부를 살펴보면,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가 10.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8.5%),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7.5%), (1) 통학차량 편의제공(4.6%),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2.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라고 응답한 비율이 16.3%로 남성(9.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06〉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지난조사 이후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	(5) 학교생활 및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1,892)	4.6	**10.5**	7.5	2.9	8.5
성별	남성	(1,526)	5.3	9.1	6.1	2.7	9.1
	여성	(366)	1.7	**16.3**	13.2	4.1	6.2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자. 전문/대학/대학원생 학교 생활 평가

전문/대학/대학원생 패널의 학교 생활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9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8)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에 대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64.6%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5-107〉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학교 생활 평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주변 친구들은 나의 장애에 대해 배려를 한다	(1,892)	8.9	25.4	59.5	6.2	34.3	65.7	100.0
(2) 나는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1,892)	0.0	5.1	76.5	18.4	5.1	**94.9**	100.0
(3)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는 진로에 대해 대화를 많이 한다	(1,892)	5.4	20.1	63.5	11.0	25.5	74.5	100.0
(4)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학교생활에 대하여 대화를 많이 한다	(1,892)	5.4	26.0	56.2	12.4	31.4	68.6	100.0
(5)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친구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한다	(1,892)	5.4	25.0	60.9	8.6	30.5	69.5	100.0
(6) 보호자(부모님 등)와 나의 건강문제로 대화를 많이 한다	(1,892)	9.3	16.3	65.1	9.4	25.5	74.5	100.0
(7)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나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	(1,892)	0.0	13.1	61.3	25.6	13.1	86.9	100.0
(8) 진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 부모님의 결정에 따른다	(1,892)	7.9	27.5	60.9	3.7	35.4	**64.6**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차.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니지 않음'이 92.6%로 가장 높게 많았고, 그 다음 영어/영어회화(6.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사교육 시설을 '다니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1.0%로 남성(93.0%) 보다 낮다.

〈표 Ⅴ-5-108〉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영어/영어회화 (토플, 오픽 등)	제2외국어 (JPT, HSK 등)	다니지 않음	계
전 체		(1,892)	6.7	0.7	**92.6**	100.0
성별	남성	(1,526)	6.2	0.8	93.0	100.0
	여성	(366)	9.0	0.0	91.0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진학하지 않을' 또는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자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카.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중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2~4시간 미만'이 64.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이 35.7%로 조사되었다. 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2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남성(35.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09〉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주중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계
전 체		(140)	35.7	**64.3**	100.0
성별	남성	(107)	35.2	64.8	100.0
	여성	(33)	**37.0**	63.0	100.0

주1)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타.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

사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말 하루 평균 시간을 살펴보면, '이용안함'이 6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2~4시간 미만'이 24.1%, '1시간 미만'이 9.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4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4%로 여성(10.1%) 보다 높은 반면, '이용안함'이라고 답한 비율은 여성(80.2%)이 남성(59.7%) 대비 높다.

〈표 Ⅴ-5-110〉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주말 하루 평균 사교육시설 이용 시간(시간 환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이용안함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계
전 체		(140)	**64.5**	9.1	2.3	24.1	100.0
성별	남성	(107)	59.7	11.9	0.0	28.4	100.0
	여성	(33)	**80.2**	0.0	9.7	10.1	100.0

주1) 사교육시설 이용 형태 '다니지 않음'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파. 전문/대학/대학원생 향후 계획

전문/대학/대학원생 패널의 향후 계획을 살펴보면, '취직'이 5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18.9%), 개인사업(8.4%), 상급학교 진학(7.1%), 직업훈련 참여(2.7%), 자격증/시험 준비(2.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상급학교 진학'을 응답한 비율이 24.1%로 남성(3.1%)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에 대해서는 남성(21.0%)이 여성(10.3%) 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Ⅴ-5-111〉 (전문대/대학교/대학원) 향후 계획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상급 학교 진학	취직	개인 사업 (창업)	직업 훈련 참여	자격증 /시험 준비	요양 혹은 집에서 쉼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음	계
전 체		(1,892)	7.1	**59.9**	8.4	2.7	2.6	0.3	18.9	100.0
성별	남성	(1,526)	3.1	60.3	9.4	3.3	2.9	0.0	**21.0**	100.0
	여성	(366)	**24.1**	58.4	4.1	0.0	1.5	1.6	10.3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진학하지 않음' 또는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자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하.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아르바이트 경험

전문/대학/대학원생 패널의 지난조사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를 경험이 '있는' 비율은 30.3%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7.9%로 남성(26.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12〉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지난조사 이후 아르바이트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892)	**30.3**	69.7	100.0
성별	남성	(1,526)	26.1	73.9	100.0
	여성	(366)	**47.9**	52.1	100.0

주1)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다니고 있음' 응답한 자 또는 만 19세 미만의 학력상태 '전문/대학/대학원생' 중 재학상태에 대해 '진학하지 않음' 또는 '다니고 있지 않음' 응답자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6) 평생교육

가. 평생교육 참여 관련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 참여 여부를 살펴보면, 참여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비율이 5.5%로 남성(2.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비율이 5.5%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는 평생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 비율이 2.0%로 경증 장애(5.0%)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113〉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계
전 체		(229,491)	4.0	96.0	100.0
성별	남성	(129,035)	2.8	97.2	100.0
	여성	(100,456)	5.5	94.5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5.5	94.5	100.0
	뇌병변	(38,713)	1.8	98.2	100.0
	시각	(20,378)	4.2	95.8	100.0
	청각/언어	(67,431)	4.8	95.2	100.0
	지적/자폐성	(15,667)	4.3	95.7	100.0
	정신	(8,738)	2.1	97.9	100.0
	내부/안면	(30,926)	2.7	97.3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2.0	98.0	100.0
	경증	(149,583)	5.0	95.0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앞서 살펴본 평생교육 참여여부에 대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패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49.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23.6%), 시간이 없어서(11.6%),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로 응답한 비율이 25.3%로 남성(2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7.4%로 가장 높고, 뇌병변 장애는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6%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7%로 경증 장애(17.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114〉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자신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	부모 및 동생 등 가족의 치료/재활로 인해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하고 싶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서	평생교육 과정 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학비 문제 등 형편이 안돼서
전 체		(220,404)	23.6	0.9	4.3	5.6	0.4	1.5
성별	남성	(125,447)	22.4	0.9	4.2	5.8	0.6	1.9
	여성	(94,957)	**25.3**	0.9	4.5	5.2	0.2	1.1
장애 유형	지체	(45,021)	16.4	1.3	4.7	5.5	0.4	1.8
	뇌병변	(38,030)	**44.6**	0.6	3.8	2.8	0.5	0.7
	시각	(19,523)	15.8	0.5	4.5	4.0	0.8	3.0
	청각/언어	(64,176)	14.1	0.7	3.9	6.7	0.4	2.0
	지적/자폐성	(14,996)	22.2	1.2	4.8	7.7	0.0	0.6
	정신	(8,552)	31.0	1.0	4.2	9.5	0.9	0.7
	내부/안면	(30,106)	32.0	1.1	5.1	5.6	0.3	0.9
장애 정도	중증	(78,286)	**35.7**	1.0	4.6	5.6	0.4	0.6
	경증	(142,118)	17.0	0.8	4.2	5.6	0.5	2.1

구 분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기타	계
전 체		1.7	1.0	**49.2**	11.6	0.1	100.0
성별	남성	1.1	1.1	50.0	11.9	0.0	100.0
	여성	2.4	1.0	48.2	11.3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2.6	0.7	52.7	14.0	0.0	100.0
	뇌병변	2.6	1.2	39.4	3.7	0.0	100.0
	시각	1.4	0.7	**57.4**	11.7	0.0	100.0
	청각/언어	0.8	0.8	52.9	17.7	0.0	100.0
	지적/자폐성	1.9	2.9	49.1	9.3	0.3	100.0
	정신	0.7	3.5	45.2	3.0	0.4	100.0
	내부/안면	1.1	0.4	44.7	8.7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1.8	1.5	42.8	6.0	0.1	100.0
	경증	1.6	0.8	52.8	14.7	0.0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없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주로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미 및 여가 활동'이 3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건강 및 체육 활동(18.9%), 소득 창출 활동(18.8%), 학습 활동(1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취미 및 여가 활동'이라고 응답이 42.5%로 남성(29.2%)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Ⅴ-5-115〉 평생교육 프로그램(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소득 창출 활동(직업 교육)	자원 봉사 활동	학습 (언어, 컴퓨터) 활동	취미 및 여가(댄스, 수필) 활동	건강 및 체육 활동	종교 활동	친목 단체 활동	기타	계
전 체		(9,087)	18.8	3.6	13.6	37.3	18.9	4.2	3.3	0.3	100.0
성별	남성	(3,589)	20.1	4.7	25.4	29.2	16.4	0.6	3.7	0.0	100.0
	여성	(5,499)	18.0	2.9	5.9	42.5	20.5	6.6	3.0	0.5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참여한 평생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한 교육이었는지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 주민센터 등'이 6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사설 학원(17.9%), 사설 문화센터(7.1%), 초/중/고/대학교 부설(4.9%), 종교시설(4.8%) 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사설학원'으로 응답한 비율이 27.9%로 여성(11.3%) 보다 높다.

〈표 Ⅴ-5-116〉 참여한 평생교육 실시 주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사회 복지 시설, 주민 센터 등	사설 문화 센터 (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초/중/고/대학교 부설	종교 시설	사설 학원	기타	계
전 체		(9,087)	62.7	7.1	4.9	4.8	17.9	2.7	100.0
성별	남성	(3,589)	56.2	1.0	3.7	7.1	27.9	4.1	100.0
	여성	(5,499)	66.9	11.0	5.7	3.3	11.3	1.7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참여한 평생교육의 참여 빈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 2~3회'가 42.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주 1회(22.7%), 주 4회 이상(21.9%), 월 1회 미만(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 4회 이상'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30.4%로 여성(16.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117〉 평생교육 참여 빈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월 1회 미만	월 1회	2주 1회	주 1회	주 2~3회	주 4회 이상	계
전 체		(9,087)	8.9	2.8	0.8	22.7	42.8	21.9	100.0
성별	남성	(3,589)	9.6	1.0	1.9	18.7	38.3	30.4	100.0
	여성	(5,499)	8.4	3.9	0.2	25.3	45.8	16.3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나. 평생교육 학비 부담 및 지원

지난조사 이후 참여한 평생교육 학비 부담 또는 지원 주체를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4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무료프로그램(34.9%),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10.5%), 부모(4.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본인 스스로' 학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54.3%로 남성(38.3%) 보다 높다.

〈표 V-5-118〉 학비 부담/지원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무료 프로그램	본인 스스로	부모	친/인척	교육훈련기관 (학교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
전 체		(9,087)	34.9	48.0	4.0	0.2	2.4	10.5	100.0
성별	남성	(3,589)	34.9	38.3	7.8	0.0	2.8	16.3	100.0
	여성	(5,499)	34.9	54.3	1.6	0.4	2.2	6.7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지난조사 이후 참여한 평생교육 참여를 위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도움 받지 않음'이 89.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6.4%), 친구 및 이웃(1.9%), 활동보조인91.2%), 형제/자매(0.6%), 친척(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도움받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4.6%로 남성(8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19〉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도움(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도움 받지 않음	부모	형제/자매	친척	친구 및 이웃	활동 보조인	기타	계
전 체		(9,087)	**89.2**	6.4	0.6	0.2	1.9	1.2	0.5	100.0
성별	남성	(3,589)	80.9	10.7	1.6	0.5	3.9	2.5	0.0	100.0
	여성	(5,499)	**94.6**	3.7	0.0	0.0	0.6	0.3	0.7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 시간

지난조사 이후 참여한 평생교육 참여하기 위한 이동 시간을 10분단위로 응답 받아 분석하여 구간별로 살펴보면, '30분~1시간 미만'이 3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1시간~2시간 미만(24.7%), 20분 미만(20.2%)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2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5%로 남성(1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20〉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이동 시간(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20분 미만	20분~30분 미만	30분~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계
전 체		(9,087)	20.2	16.0	**33.0**	24.7	6.0	100.0
성별	남성	(3,589)	12.0	11.8	38.0	28.3	10.0	100.0
	여성	(5,499)	**25.5**	18.8	29.8	22.4	3.5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라.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 관련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에 대해 항목별 필요여부를 살펴보면, '(1) 통학차량 편의제공'이 21.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9.1%)', '(5)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7.4%)',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기기 지원(6.9%)',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6.3%)'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0%로 여성(2.4%) 보다 높다.

〈표 V-5-121〉 학습을 위한 편의 필요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기기 지원	(5)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9,087)	**21.5**	6.3	9.1	6.9	7.4
성별	남성	(3,589)	25.6	10.7	12.3	13.8	**15.0**
	여성	(5,499)	18.9	3.4	7.1	2.4	2.4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음으로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 항목별 이용여부를 살펴보면,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가 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1) 통학차량 편의제공(5.7%),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라고 응답한 비율은 8.0%로 여성(3.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122〉 지난조사 이후 평생교육 학습을 위한 편의 이용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통학차량 편의제공	(2) 화장실의 적절한 설치 및 개조	(3) 원활한 이동을 위한 경사로의 설치나 개조	(4)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보청기기 등 학습지원, 의사소통 기기 지원	(5) 학습을 위한 도우미 제공
전 체		(9,087)	5.7	**8.2**	5.1	1.0	1.7
성별	남성	(3,589)	8.1	6.9	**8.0**	0.4	3.5
	여성	(5,499)	4.2	9.0	3.2	1.4	0.5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및 희망 프로그램

앞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가 66.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참여를 고려해보겠다(28.1%),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7.9%로 여성(6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2%로 가장 높았고, 청각

/언어 장애는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5.6%, 지체 장애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고 응답한 비율이 7.1%이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 경증 장애(60.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23〉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계
전 체		(229,491)	**66.2**	28.1	5.7	100.0
성별	남성	(129,035)	**67.9**	26.6	5.5	100.0
	여성	(100,456)	64.0	30.0	6.0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63.2	29.7	**7.1**	100.0
	뇌병변	(38,713)	**77.2**	19.6	3.2	100.0
	시각	(20,378)	63.8	29.7	6.4	100.0
	청각/언어	(67,431)	57.7	**35.6**	6.6	100.0
	지적/자폐성	(15,667)	73.8	20.5	5.8	100.0
	정신	(8,738)	78.8	17.1	4.2	100.0
	내부/안면	(30,926)	69.9	25.7	4.4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76.3**	20.2	3.5	100.0
	경증	(149,583)	60.9	32.3	6.9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활동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득활동'이 34.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취미 및 여가 활동(27.0%), 건강 및 체육활동(21.6%), 종교활동(5.2%), 자원봉사활동(4.8%), 학습 활동(4.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소득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여성(28.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는 '소득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8.2%로 가장 높고, 청각/언어 장애는 '취미 및 여가 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9.8%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는 '취미 및 여가(독서, 수필)활동' 참여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9%로 경증 장애(28.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124〉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희망 활동(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소득활동 (직업교육)	자원봉사 활동	학습 (언어, 컴퓨터) 활동	취미 및 여가 (독서, 수필) 활동	건강 및 체육활동
전 체		(77,479)	**34.3**	4.8	4.7	27.0	21.6
성별	남성	(41,363)	**39.6**	5.2	5.9	23.4	19.6
	여성	(36,116)	28.3	4.5	3.3	31.0	23.8
장애 유형	지체	(17,515)	31.9	5.9	2.3	28.8	20.5
	뇌병변	(8,817)	37.3	4.9	5.7	21.1	23.3
	시각	(7,368)	30.1	8.9	5.2	20.4	28.3
	청각/언어	(28,494)	35.0	3.2	4.1	**29.8**	21.8
	지적/자폐성	(4,108)	**48.2**	0.0	11.9	27.8	9.4
	정신	(1,856)	39.5	8.1	8.7	22.8	10.4
	내부/안면	(9,320)	30.2	6.2	6.0	26.1	23.8
장애 정도	중증	(18,935)	35.8	5.2	8.0	22.9	21.7
	경증	(58,544)	33.9	4.7	3.6	**28.3**	21.6

구 분		종교활동	정치사회 활동	친목단체 활동	기타	없음	계
전 체		5.2	0.2	1.9	0.0	0.2	100.0
성별	남성	3.6	0.3	2.3	0.0	0.1	100.0
	여성	7.0	0.1	1.5	0.1	0.4	100.0
장애 유형	지체	5.0	0.0	4.8	0.2	0.6	100.0
	뇌병변	6.2	0.0	0.8	0.0	0.6	100.0
	시각	5.5	0.9	0.7	0.0	0.0	100.0
	청각/언어	4.6	0.3	1.3	0.0	0.0	100.0
	지적/자폐성	2.1	0.0	0.7	0.0	0.0	100.0
	정신	9.0	0.0	1.6	0.0	0.0	100.0
	내부/안면	6.6	0.0	1.0	0.0	0.2	100.0
장애 정도	중증	4.9	0.0	1.2	0.0	0.3	100.0
	경증	5.3	0.2	2.1	0.1	0.2	100.0

주1)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향 '참여를 고려해 보겠다' 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고용(취업)

(1)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제한 이유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1) 나는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6.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2) 나는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68.1%), '(3) 나는 장애로 인해 평균적으로 5일 중 1일을 쉬어야한다'(6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4) 나는 장애로 인해 일하는데 지속적인 보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여성의 비율이 54.7%로 남성(59.2%)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91.6%가 '(1) 나는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고 응답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4) 나는 장애로 인해 일하는데 지속적인 보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증 장애가 72.6%로 경증 장애(48.2%) 보다 대폭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25〉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나는 장애로 인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된다	(2) 나는 장애로 인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된다	(3) 나는 장애로 인해 평균적으로 5일 중 1일을 쉬어야 한다	(4) 나는 장애로 인해 일하는데 지속적인 보조나 도움을 필요로 한다	(5) 나는 장애로 인해 산재 보험을 받은 경험이 있다	통합 비율
전 체		(229,491)	**76.9**	68.1	63.6	56.7	14.3	80.8
성별	남성	(129,035)	75.6	66.3	61.9	54.7	15.6	79.8
	여성	(100,456)	78.7	70.4	65.7	**59.2**	12.7	82.0
장애 유형	지체	(47,637)	71.5	65.2	60.9	48.6	15.8	77.1
	뇌병변	(38,713)	**91.6**	90.3	85.3	83.5	19.5	93.6
	시각	(20,378)	76.6	67.5	59.5	53.9	14.5	78.4
	청각/언어	(67,431)	68.4	50.7	46.6	42.7	9.7	73.3
	지적/자폐성	(15,667)	82.2	72.2	66.3	68.8	16.2	83.6
	정신	(8,738)	86.3	77.1	74.4	68.0	13.3	89.6
	내부/안면	(30,926)	80.5	78.4	75.9	58.5	14.8	84.0
장애 정도	중증	(79,908)	87.3	82.0	77.9	**72.6**	17.0	89.4
	경증	(149,583)	71.4	60.7	56.0	48.2	12.9	76.1

주1) '예' 와 '아니오' 중 '예' 의 응답 비율로 표기함
2) 만 19세 이상 응답자만 대상으로 물음

직무종류나 근로시간 제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가 7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9.3%),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8.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라고 응답한 비율이 3.9%로 여성(2.3%)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83.6%가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라고 응답했고, 지적/자폐성 장애의 13.9%는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라고 응답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이 77.5%로 경증 장애(71.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V-5-126〉 직무종류나 근로시간 제한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서	받고있는 복지 혜택에 영향을 줄까봐
전 체		(185,336)	**73.7**	9.3	3.3	8.9	0.4	0.7
성별	남성	(102,995)	73.6	8.9	**3.9**	8.9	0.4	0.6
	여성	(82,341)	73.9	9.7	2.5	9.0	0.4	0.9
장애 유형	지체	(36,737)	74.0	9.6	2.3	9.7	0.3	0.7
	뇌병변	(36,239)	80.2	11.9	1.1	3.7	0.6	0.9
	시각	(15,985)	69.7	9.3	4.6	12.0	0.7	0.5
	청각/언어	(49,454)	67.2	7.6	3.3	14.3	0.1	1.2
	지적/자폐성	(13,099)	64.9	12.2	**13.9**	6.1	0.2	0.2
	정신	(7,832)	74.3	8.3	5.0	6.9	1.0	0.4
	내부/안면	(25,988)	**83.6**	7.3	1.3	5.1	0.6	0.3
장애 정도	중증	(71,429)	**77.5**	10.4	4.1	5.0	0.4	0.4
	경증	(113,907)	71.4	8.6	2.8	11.4	0.4	0.9

구 분		가족에 대한 양육/돌봄으로 인해	고용주/동료의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로 인해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가족, 지인의 반대로 인해	기타	없음	계
전 체		0.4	0.6	2.0	0.2	0.0	0.3	100.0
성별	남성	0.2	0.6	2.0	0.3	0.0	0.5	100.0
	여성	0.7	0.7	2.0	0.2	0.0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0.1	0.1	1.8	0.3	0.0	1.1	100.0
	뇌병변	0.1	0.2	1.0	0.3	0.0	0.0	100.0
	시각	0.3	0.5	2.4	0.0	0.0	0.0	100.0
	청각/언어	1.0	1.6	3.6	0.1	0.0	0.0	100.0
	지적/자폐성	0.0	0.5	0.7	1.0	0.0	0.3	100.0
	정신	0.4	1.6	1.9	0.0	0.2	0.0	100.0
	내부/안면	0.5	0.1	1.0	0.2	0.0	0.1	100.0
장애 정도	중증	0.3	0.3	1.0	0.3	0.0	0.1	100.0
	경증	0.5	0.9	2.6	0.2	0.0	0.3	100.0

주1) 장애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중 하나라도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일자리 유무 및 근로 형태

지난 주 돈을 벌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일자리 유무를 살펴보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36.6%로 여성(23.7%)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4.9%로 경증 장애(39.6%) 보다 낮다.

〈표 Ⅴ-5-127〉 일자리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29,491)	**31.0**	69.0	100.0
성별	남성	(129,035)	**36.6**	63.4	100.0
	여성	(100,456)	23.7	76.3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40.0	60.0	100.0
	뇌병변	(38,713)	9.3	90.7	100.0
	시각	(20,378)	35.8	64.2	100.0
	청각/언어	(67,431)	**44.4**	55.6	100.0
	지적/자폐성	(15,667)	21.2	78.8	100.0
	정신	(8,738)	10.1	89.9	100.0
	내부/안면	(30,926)	22.5	77.5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14.9	85.1	100.0
	경증	(149,583)	**39.6**	60.4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만 대상으로 물음

앞서 살펴본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으로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를 살펴보면, 1시간 이상 '일 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99.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여부에 대한 응답 비율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및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일하지 않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 정도에 따른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는 경증(98.3%)이 중증(99.6%)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V-5-128〉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일 함	일하지 않음	계
전 체		(71,068)	99.4	0.6	100.0
성별	남성	(47,275)	99.4	0.6	100.0
	여성	(23,793)	99.5	0.5	100.0
장애 유형	지체	(19,069)	99.0	1.0	100.0
	뇌병변	(3,603)	100.0	0.0	100.0
	시각	(7,285)	100.0	0.0	100.0
	청각/언어	(29,957)	100.0	0.0	100.0
	지적/자폐성	(3,317)	98.0	2.0	100.0
	정신	(886)	100.0	0.0	100.0
	내부/안면	(6,950)	97.6	2.4	100.0
장애 정도	중증	(11,884)	98.3	1.7	100.0
	경증	(59,185)	99.6	0.4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일자리가 있는 패널의 근로형태를 조사한 결과, '상용근로자'가 3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임시 근로자(21.2%),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21.0%), 일용 근로자(12.1%), 무급가족종사자(5.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비율이 25.0%로 여성(13.0%) 대비 높았던 반면, 여성의 경우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 사업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율이 12.1%로 남성(1.5%)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에서 '상용근로자' 비율이 38.9%로 높았고,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은 43.1%, 지체 장애에서'직원이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비율은 27.9%, 정신 장애에서'무급가족 종사자'비율은 14.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임시근로자' 비율이 30.7%로 경증 장애(19.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29〉 근로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상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임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일용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이 고용되어 있지 않다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일)을 돕는다	계
전 체		(71,068)	**36.8**	21.2	12.1	3.9	21.0	5.1	100.0
성별	남성	(47,275)	40.0	18.7	10.0	4.8	**25.0**	1.5	100.0
	여성	(23,793)	30.5	26.2	16.2	1.9	13.0	**12.1**	100.0
장애 유형	지체	(19,069)	36.5	21.0	8.8	3.6	**27.9**	2.3	100.0
	뇌병변	(3,603)	36.6	19.5	8.3	2.5	22.8	10.3	100.0
	시각	(7,285)	37.5	27.1	12.9	4.3	16.6	1.5	100.0
	청각/언어	(29,957)	**38.9**	17.3	14.2	3.8	18.8	7.0	100.0
	지적/자폐성	(3,317)	29.4	**43.1**	19.4	0.0	1.2	6.9	100.0
	정신	(886)	31.8	34.4	19.0	0.0	0.0	**14.7**	100.0
	내부/안면	(6,950)	32.2	21.4	8.6	7.5	27.1	3.3	100.0
장애 정도	중증	(11,884)	32.5	30.7	11.9	3.1	16.7	5.0	100.0
	경증	(59,185)	37.7	19.3	12.1	4.0	21.8	5.1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상용근로자 패널의 근로시간 형태에 대해 살펴보면, 전일제가 93.8%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전일제 남성 근로자 비율이 95.0%로 여성(90.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30〉 근로시간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전일제	시간제	계
전 체		(26,169)	**93.8**	6.2	100.0
성별	남성	(18,916)	**95.0**	5.0	100.0
	여성	(7,253)	90.6	9.4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임금근로자 관련 문항

현재 직장이 있는 패널을 대상으로 적성 적합여부, 근무 일수 및 근로 시간 관련, 주된 일 관련, 근무기간, 근로 소득, 직장 만족도, 구직/이직 경험, 근로 및 고용관련 지원 경험 및 희망 지원 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적성에 맞음'으로 응답한 비율(③+④)이 87.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적성에 맞음'으로 응답한 비율(③+④)이 87.4%로 여성(86.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131〉 적성 부합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맞지 않다	② 맞지 않은 편이다	③ 맞는 편이다	④ 매우 맞는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49,817)	0.4	12.6	83.1	3.9	13.0	**87.0**	100.0
성별	남성	(32,471)	0.6	12.0	83.0	4.4	12.6	87.4	100.0
	여성	(17,346)	0.0	13.8	83.3	2.8	13.8	86.2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전혀 맞지 않다' 부터 '매우 맞는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일주일 평균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5일'이 6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6일(12.2%), 3일(11.2%), 4일(6.3%), 1일(2.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13.0%가 '6일'근무라고 응답하여 여성(10.8%) 보다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5일' 근무한다는 응답은 중증 장애가 66.5%로 경증 장애(63.2%) 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V-5-132〉 주 평균 근무일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전 체		(49,817)	2.5	2.3	11.2	6.3	**63.8**	12.2	1.6	100.0
성별	남성	(32,471)	3.2	1.4	10.6	6.7	63.9	**13.0**	1.3	100.0
	여성	(17,346)	1.3	4.1	12.4	5.7	63.7	10.8	2.0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2.9	4.1	8.8	4.9	**66.5**	9.7	3.0	100.0
	경증	(40,888)	2.4	2.0	11.7	6.7	63.2	12.8	1.3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하루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이 55.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8시간 미만(29.0%), 9시간 이상(15.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6.0%로 남성(19.9%) 보다 높았던 반면, ‘8시간 이상’근무 비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의 59.6%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정신 장애의 경우 53.8%가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미만’근무한다는 응답은 37.1%로, 경증 장애(2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33〉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8시간 미만	8시간	9시간 이상	계
전 체		(49,817)	29.0	**55.2**	15.8	100.0
성별	남성	(32,471)	19.9	**61.9**	**18.1**	100.0
	여성	(17,346)	**46.0**	42.7	11.3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27.6	56.2	16.2	100.0
	뇌병변	(2,320)	32.6	54.8	12.7	100.0
	시각	(5,648)	34.2	54.3	11.5	100.0
	청각/언어	(21,092)	26.3	56.5	17.2	100.0
	지적/자폐성	(3,048)	45.6	44.2	10.2	100.0
	정신	(755)	**53.8**	33.3	13.0	100.0
	내부/안면	(4,320)	21.6	**59.6**	18.8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37.1**	48.7	14.3	100.0
	경증	(40,888)	27.2	56.7	16.1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주 평균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이 63.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36시간 미만’인 경우가 21.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여성(47.7%)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70.0%가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했고, 내부/안면의 30.4%는 주 평균 ‘36시간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의 23.4%가 주 평균 ‘24시간 미만’ 근무한다고 응답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9.5%로 경증 장애(66.8%)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5-134〉 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계
전 체		(49,817)	4.0	11.0	21.3	**63.7**	100.0
성별	남성	(32,471)	2.7	6.5	18.6	**72.2**	100.0
	여성	(17,346)	6.6	19.4	26.4	47.7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5.2	12.8	19.8	62.1	100.0
	뇌병변	(2,320)	3.5	12.3	14.6	69.5	100.0
	시각	(5,648)	9.4	12.4	19.7	58.4	100.0
	청각/언어	(21,092)	3.1	6.8	20.1	**70.0**	100.0
	지적/자폐성	(3,048)	0.0	**23.4**	30.0	46.6	100.0
	정신	(755)	0.0	17.2	27.9	54.9	100.0
	내부/안면	(4,320)	1.8	13.6	**30.4**	54.2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3.4	18.8	28.3	49.5	100.0
	경증	(40,888)	4.2	9.3	19.8	66.8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주 평균 희망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5일'이라는 응답 비율이 7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3일(8.5%), 4일(6.6%)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77.4%가 '5일'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여 여성(72.2%)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경우 85.7%가 주 '5일'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주 3일(16.7%),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주 4일(15.5%)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5일' 근무한다는 응답은 중증 장애가 66.5%로 경증 장애(63.2%) 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V-5-135〉 주 평균 희망 근무일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계
전 체		(49,817)	0.7	2.0	8.5	6.6	**75.6**	6.5	100.0
성별	남성	(32,471)	1.1	1.4	7.3	5.6	**77.4**	7.1	100.0
	여성	(17,346)	0.1	3.4	10.8	8.3	72.2	5.2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0.0	2.4	13.6	3.4	74.3	6.2	100.0
	뇌병변	(2,320)	1.8	4.2	5.0	4.6	79.2	5.1	100.0
	시각	(5,648)	1.4	1.2	10.3	9.4	70.2	7.4	100.0

구 분		추정수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계
	청각/언어	(21,092)	1.2	1.6	4.6	6.2	78.8	7.5	100.0
	지적/자폐성	(3,048)	0.0	0.0	4.4	**15.5**	77.0	3.2	100.0
	정신	(755)	0.0	0.0	0.0	8.7	**85.7**	5.5	100.0
	내부/안면	(4,320)	0.0	4.5	**16.7**	8.6	66.2	4.0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0.0	3.8	10.1	11.1	70.1	4.9	100.0
	경증	(40,888)	0.9	1.7	8.2	5.6	76.8	6.8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계속해서 하루 평균 희망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8시간'이 65.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8시간 미만이 29.7%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근무를 희망한다는 응답이 48.0%로 남성(20.0%) 보다 높은 반면, '8시간 이상'근무 비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 및 청각/언어 장애의 69.0%가 하루 평균 '8시간'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 했고,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45.0%가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근무를 희망한다고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하루 평균 '8시간'근무를 희망하는 비율은 56.8%로, 경증 장애(67.5%) 보다 낮은 반면, '8시간 미만' 근무 희망 비율은 중증(38.3%)이 경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36〉 하루 평균 희망 근무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8시간 미만	8시간	9시간 이상	계
전 체		(49,817)	29.7	**65.5**	4.7	100.0
성별	남성	(32,471)	20.0	**75.0**	**5.0**	100.0
	여성	(17,346)	**48.0**	47.8	4.2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31.0	63.1	5.8	100.0
	뇌병변	(2,320)	28.5	**69.0**	2.5	100.0
	시각	(5,648)	34.0	65.0	1.0	100.0
	청각/언어	(21,092)	25.7	**69.0**	5.3	100.0
	지적/자폐성	(3,048)	**45.0**	51.9	3.1	100.0
	정신	(755)	38.4	59.5	2.0	100.0
	내부/안면	(4,320)	28.5	65.1	6.3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38.3**	56.8	4.9	100.0
	경증	(40,888)	27.9	**67.5**	4.7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희망 근무일수에 이어 희망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 평균 희망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이 66.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36시간 미만(14.9%), 24시간 미만(12.2%), 12시간 미만(6.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주 평균 '36시간 이상'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9%로 여성(52.6%)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인의 68.9%가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 정신 장애의 28.2%가 주 평균 '36시간 미만', 시각 장애의 경우 15.4%가'12시간 미만'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주 평균 '36시간 이상'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5.3%로 경증 장애(68.9%) 보다 낮다.

〈표 V-5-137〉 주 평균 희망 근무시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계
전 체		(49,817)	6.4	12.2	14.9	**66.5**	100.0
성별	남성	(32,471)	5.0	7.6	13.5	**73.9**	100.0
	여성	(17,346)	9.1	20.8	17.5	52.6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7.3	12.8	11.0	**68.9**	100.0
	뇌병변	(2,320)	3.2	12.2	22.5	62.1	100.0
	시각	(5,648)	**15.4**	12.1	12.3	60.2	100.0
	청각/언어	(21,092)	5.2	8.6	16.1	70.2	100.0
	지적/자폐성	(3,048)	3.3	25.9	21.0	49.8	100.0
	정신	(755)	0.0	23.8	**28.2**	47.9	100.0
	내부/안면	(4,320)	3.3	16.8	13.3	66.6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4.4	21.8	18.5	55.3	100.0
	경증	(40,888)	6.9	10.1	14.1	68.9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앞서 살펴본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 평균 36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이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 및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각각 16.2%),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11.8%)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15.5%가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를 선택하여 남성(8.1%)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Ⅴ-5-138〉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전 체		(16,706)	49.9	16.2		16.2	0.9
성별	남성	(8,483)	48.0	19.2		19.0	0.0
	여성	(8,224)	51.7	13.1		13.3	1.9
구 분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	아동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인해	학업,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장애치료를 위한 병원방문	기타	계
전 체		11.8	0.2	0.8	2.2	2.0	100.0
성별	남성	8.1	0.1	1.4	2.0	2.2	100.0
	여성	15.5	0.3	0.1	2.4	1.7	100.0

주1) 주 평균 근무시간에 대해 '36시간 미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로 하는 일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패널의 직업코드를 살펴보면, 단순노무종사자가 45.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사무 종사자(11.3%), 서비스 종사자(10.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9.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8.7%),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5.9%)등의 순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은 25.2%로 남성(2.6%) 보다 22.6%p 더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단순노무자 종사자의 비율은 55.5%로 가장 높으며,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30%대로 비교적 낮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판매 종사자' 비율은 7.2%로 경증 장애(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139〉 직업코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전 체		(49,817)	3.6	5.9	11.3	10.5	4.1
성별	남성	(32,471)	5.3	6.7	12.5	2.6	2.5
	여성	(17,346)	0.4	4.4	9.1	**25.2**	7.0
장애 유형	지체	(12,633)	5.3	6.1	10.0	9.6	1.8
	뇌병변	(2,320)	2.5	1.2	21.0	10.2	1.6
	시각	(5,648)	1.5	6.9	17.8	10.2	3.8
	청각/언어	(21,092)	3.1	5.4	9.8	11.2	4.7
	지적/자폐성	(3,048)	0.0	1.9	6.7	11.1	5.3
	정신	(755)	0.0	5.5	21.1	9.3	9.2
	내부/안면	(4,320)	7.6	11.5	10.5	10.1	7.7
장애 정도	중증	(8,929)	3.9	7.4	10.1	9.9	**7.2**
	경증	(40,888)	3.5	5.6	11.6	10.6	3.4

구 분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계
전 체		0.1	8.7	9.9	**45.7**	0.2	100.0
성별	남성	0.1	12.5	14.0	43.6	0.3	100.0
	여성	0.2	1.6	2.3	49.7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0.0	9.3	11.4	45.8	0.7	100.0
	뇌병변	0.0	0.0	13.7	49.7	0.0	100.0
	시각	0.6	6.6	6.4	46.1	0.0	100.0
	청각/언어	0.0	10.3	8.8	46.7	0.0	100.0
	지적/자폐성	0.0	3.6	15.8	**55.5**	0.0	100.0
	정신	0.0	2.1	0.0	52.8	0.0	100.0
	내부/안면	0.4	11.3	10.7	30.1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0.0	7.4	10.0	44.3	0.0	100.0
	경증	0.1	9.0	9.9	46.0	0.2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패널의 근무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1년 미만(23.9%), 10년 이상(23.4%), 5년 미만(13.9%), 10년 미만(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8.9%로 여성(13.2%)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근무기간이 '10년 이상'인 비율은 14.9%로 경증 장애(25.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5-140〉 근무기간(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전 체		(49,817)	23.9	**25.4**	13.9	13.4	23.4	100.0
성별	남성	(32,471)	22.7	24.2	11.7	12.5	**28.9**	100.0
	여성	(17,346)	26.0	27.8	17.9	15.1	13.2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24.8	29.6	13.4	12.2	20.0	100.0
	뇌병변	(2,320)	37.6	28.0	7.8	13.9	12.7	100.0
	시각	(5,648)	21.5	35.5	13.0	14.6	15.4	100.0
	청각/언어	(21,092)	19.8	17.3	16.7	14.5	**31.7**	100.0
	지적/자폐성	(3,048)	**45.9**	38.2	11.1	1.5	3.3	100.0
	정신	(755)	42.1	44.3	7.1	6.4	0.0	100.0
	내부/안면	(4,320)	18.1	26.0	9.0	18.9	28.1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30.2	32.4	10.7	11.8	14.9	100.0
	경증	(40,888)	22.5	23.9	14.6	13.7	**25.3**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패널의 한 달 평균 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200만원 미만'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0~300만원 미만(21.5%), 100만원 미만(21.5%), 300~400만원 미만(10.8%), 500만원 이상(4.1%), 400~500만원 미만(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100~200만원 미만'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성보다 높으며, 남성의 경우 '200~300만원 이상'응답 비율이 여성 보다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100만원 미만'응답 비율은 34.7%로 경증 장애(1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41〉 한 달 평균 소득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전 체		(49,817)	21.5	38.6	21.5	10.8	3.5	4.1	100.0
성별	남성	(32,471)	14.1	32.0	**27.5**	**15.0**	**5.4**	**6.0**	100.0
	여성	(17,346)	**35.2**	**51.0**	10.3	3.0	0.0	0.6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23.7	34.3	25.2	10.9	2.8	3.1	100.0
	뇌병변	(2,320)	30.7	**49.5**	8.0	4.8	5.3	1.7	100.0

구 분		추정수	100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400 만원 미만	400-500 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시각	(5,648)	30.7	21.9	26.2	12.1	6.7	2.4	100.0
	청각/언어	(21,092)	13.0	44.9	22.3	11.6	2.5	5.8	100.0
	지적/자폐성	(3,048)	51.9	41.9	3.2	2.9	0.0	0.0	100.0
	정신	(755)	43.2	42.5	10.9	3.4	0.0	0.0	100.0
	내부/안면	(4,320)	13.6	33.8	22.8	15.4	8.4	5.9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34.7	34.0	14.9	9.8	3.2	3.4	100.0
	경증	(40,888)	18.6	39.6	22.9	11.1	3.6	4.3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상대표준오차 값 확인 후 결과 활용 시 유의해야 함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패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4%, 여성은 1.4%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 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4.7%)와 청각/언어 장애(3.3%)의 재택근무율이 타 장애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는, 중증장애의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비율이 1.8%, 경증장애는 2.1%로 나타났다.

〈표 V-5-142〉 재택근무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49,817)	2.0	97.3	0.7	100.0
성별	남성	(32,471)	2.4	96.7	0.9	100.0
	여성	(17,346)	1.4	98.5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12,633)	1.3	98.7	0.0	100.0
	뇌병변	(2,320)	2.4	97.6	0.0	100.0
	시각	(5,648)	0.1	98.8	1.1	100.0
	청각/언어	(21,092)	3.3	96.0	0.7	100.0
	지적/자폐성	(3,048)	0.0	97.0	3.0	100.0
	정신	(755)	4.7	92.4	2.9	100.0
	내부/안면	(4,320)	1.6	98.4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8,929)	1.8	96.9	1.3	100.0
	경증	(40,888)	2.1	97.4	0.5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패널의 직장 관련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4)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76.4%로 가장 높고, '(5)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45.8%로 가장 낮다.

〈표 Ⅴ-5-143〉 직장 관련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만족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1) 총 보수	(49,817)	5.6	41.7	50.8	1.9	47.3	52.7	100.0
(2) 고용 안정성	(49,817)	6.3	34.4	56.5	2.9	40.7	59.3	100.0
(3) 직무자체(하는 일)	(49,817)	3.1	22.4	70.1	4.5	25.4	74.6	100.0
(4) 근무시간	(49,817)	1.9	21.8	72.5	3.8	23.6	**76.4**	100.0
(5) 복리후생	(49,817)	10.7	43.5	44.1	1.7	54.2	**45.8**	100.0
(6) 직장 내 환경 및 안전	(49,817)	4.6	29.3	63.0	3.1	33.9	66.1	100.0
(7) 나의 발전 가능성	(49,817)	6.2	44.7	46.2	2.8	50.9	49.1	100.0
(8)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	(49,817)	3.1	22.9	70.1	4.0	25.9	74.1	100.0
(9) 전반적인 만족도	(49,817)	1.7	28.0	68.5	1.8	29.7	70.3	100.0

주1)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상용/임시/일용근로자 패널의 지난조사 이후 구직 및 이직한 경험 여부와 경험이 있다면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구직 및 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7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이유로(7.0%),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서(6.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해서'는 응답 비율은 2.2%로 여성(4.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의 '구직 및 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7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신 장애는'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응답이 10.9%, 뇌병변 장애는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서'응답이 13.1%, 청각/언어 장애는 '경제적인 이유로'응답이 10.0%로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구직 및 이직 경험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78.4%로 경증 장애(73.5%) 보다 높다.

〈표 V-5-144〉 지난조사 이후 구직/이직 경험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구직 및 이직 경험이 없음	직장 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어서	경제적인 (예, 보수가 적음) 이유로	고용주나 동료의 장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전 체		(49,817)	**74.4**	1.4	6.6	7.0	1.1
성별	남성	(32,471)	73.9	1.6	7.5	7.3	1.4
	여성	(17,346)	75.2	1.0	5.1	6.4	0.5
장애 유형	지체	(12,633)	**78.4**	1.6	5.4	4.5	2.4
	뇌병변	(2,320)	63.9	2.5	**13.1**	8.7	2.7
	시각	(5,648)	77.3	1.4	8.6	4.7	0.8
	청각/언어	(21,092)	71.5	0.8	6.6	**10.0**	0.5
	지적/자폐성	(3,048)	**78.7**	0.7	7.2	4.9	0.0
	정신	(755)	65.8	**10.9**	6.8	2.1	0.0
	내부/안면	(4,320)	77.1	1.6	3.8	3.9	0.5
장애 정도	중증	(8,929)	78.4	1.5	4.4	4.7	0.0
	경증	(40,888)	73.5	1.3	7.1	7.5	1.3

구 분		고용이 불안정해서	더 나은 근로환경 (출퇴근 거리, 휴가 등)을 이유로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족문제로 인해	기타	계
전 체		3.0	2.8	3.0	0.6	0.1	100.0
성별	남성	2.2	2.3	3.0	0.8	0.1	100.0
	여성	**4.7**	3.7	2.9	0.4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3.2	1.9	2.0	0.5	0.0	100.0
	뇌병변	3.0	2.7	3.5	0.0	0.0	100.0
	시각	2.7	2.8	1.0	0.0	0.7	100.0
	청각/언어	2.5	3.2	3.7	1.1	0.0	100.0
	지적/자폐성	4.3	3.0	1.1	0.0	0.0	100.0
	정신	9.2	3.1	2.0	0.0	0.0	100.0
	내부/안면	3.6	2.8	6.0	0.5	0.1	100.0
장애 정도	중증	4.8	2.4	3.6	0.3	0.0	100.0
	경증	2.7	2.8	2.8	0.7	0.1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지막으로 지난조사 이후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은 지원 및 받고 싶은 지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받은 지원에 대해 살펴보면,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이 6.9%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작업량이나 직무조정(6.3%)', '장애인 채용 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4.4%)',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4.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여성(3.6%) 보다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으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20.9%)는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은 13.1%로 경증 장애(5.5%) 보다 높다.

근로나 고용유지를 위해 받고 싶은 지원을 살펴보면,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이 17.8%로 가장 높았으며,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17.1%), 작업량이나 직무조정(14.9%),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10.1%)'을, 여성의 경우 '출퇴근 이동지원(18.7%)'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과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각각 27.5%, 30.8%로 높게 나타났으며, 뇌병변 장애인은 '작업량이나 직무조정'을 20.7%, 정신 장애인은 22.1%가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를 받고 싶은 지원라고 응답했다. 장애 정도로 살펴보면, 중증(26.2%) 장애의 경우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증 장애(15.9%)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5-145〉 지난조사 이후 받은 지원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2) 작업량이나 직무조정	(3) 보조기기나 장비제공	(4)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5)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예, 핸드레일, 화장실, 승강기 등)
전 체		(49,817)	6.9	6.3	1.3	3.5	2.6
성별	남성	(32,471)	6.9	6.2	1.2	3.4	2.5
	여성	(17,346)	6.8	6.5	1.5	3.5	2.8
장애유형	지체	(12,633)	4.9	4.7	1.7	4.2	3.1
	뇌병변	(2,320)	10.0	12.8	1.5	6.8	1.7
	시각	(5,648)	5.1	3.8	1.5	5.1	1.1
	청각/언어	(21,092)	5.2	6.1	1.5	1.7	2.0
	지적/자폐성	(3,048)	**20.9**	11.2	0.0	7.7	9.6
	정신	(755)	8.0	9.0	0.0	9.3	6.9
	내부/안면	(4,320)	11.1	7.7	0.2	1.9	1.3
장애정도	중증	(8,929)	13.1	9.6	0.3	5.7	5.2
	경증	(40,888)	5.5	5.6	1.6	3.0	2.1

구 분		(6)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	(7) 근무지역 변경	(8) 출퇴근 이동지원	(9)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10)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	(11)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 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
전 체		1.6	1.0	2.0	4.4	4.1	1.9
성별	남성	1.4	0.9	1.1	4.9	4.4	2.3
	여성	2.0	1.3	3.6	3.6	3.4	1.2
장애유형	지체	2.4	1.9	0.6	4.4	3.6	2.3
	뇌병변	0.0	1.0	0.0	6.9	1.7	2.0
	시각	0.4	1.5	1.1	4.3	11.1	4.2
	청각/언어	1.7	0.3	2.4	2.5	2.7	1.1
	지적/자폐성	1.2	2.2	8.3	17.2	2.7	3.1
	정신	9.4	0.0	4.8	12.5	10.0	4.8
	내부/안면	0.1	1.1	1.0	1.9	4.5	0.2
장애정도	중증	2.5	1.0	3.9	8.3	4.8	1.5
	경증	1.4	1.0	1.5	3.6	3.9	2.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표 V-5-146〉 받고 싶은 지원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2) 작업량이나 직무조정	(3) 보조기기나 장비제공	(4) 고용주와 동료들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5) 건물 내 편의시설 설치 (예, 핸드레일, 화장실, 승강기 등)
전 체		(49,817)	**17.8**	14.9	7.2	9.2	3.6
성별	남성	(32,471)	16.8	12.4	7.6	9.4	3.1
	여성	(17,346)	19.5	19.5	6.3	9.0	4.5
장애유형	지체	(12,633)	14.6	16.0	3.3	9.2	3.9
	뇌병변	(2,320)	26.2	**20.7**	6.0	10.8	9.5
	시각	(5,648)	11.9	8.5	3.5	4.7	1.5
	청각/언어	(21,092)	17.4	15.5	11.6	8.7	2.1
	지적/자폐성	(3,048)	**27.5**	16.1	8.0	21.3	12.7
	정신	(755)	11.3	8.0	4.9	16.9	4.8
	내부/안면	(4,320)	26.3	14.3	2.1	7.4	3.1
장애정도	중증	(8,929)	**26.2**	15.5	7.2	15.2	8.4
	경증	(40,888)	15.9	14.7	7.2	7.9	2.6

구 분		(6)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멘토서비스	(7) 근무지역 변경	(8) 출퇴근 이동지원	(9) 장애인 채용시 과정 단순화 등 배려 제공	(10) 유급휴가, 병가 등 복리후생제도 제공	(11) 장애근로자를 위한 고충 처리자나 노무관리사 면담
전 체		5.1	4.2	11.8	12.4	17.1	8.6
성별	남성	4.9	3.6	8.1	12.5	16.7	**10.1**
	여성	5.4	5.2	**18.7**	12.2	17.8	5.7
장애유형	지체	4.5	3.9	10.1	11.8	17.6	10.8
	뇌병변	5.0	10.2	12.9	19.5	14.4	8.8
	시각	3.2	3.2	11.3	4.0	15.4	2.6
	청각/언어	5.5	3.6	12.8	12.5	16.5	7.4
	지적/자폐성	10.5	10.1	22.2	**30.8**	18.3	18.5
	정신	9.3	4.1	13.3	14.5	**22.1**	8.9
	내부/안면	3.1	2.0	3.9	7.5	20.3	8.7
장애정도	중증	7.3	4.5	14.3	17.0	19.4	12.8
	경증	4.6	4.1	11.2	11.4	16.6	7.7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임시/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미취업자 관련

일자리 유무 문항에 일자리 '없음'으로 응답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근로가능여부, 근로를 위한 도움 필요 관련, 구직활동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본인의 근로 가능 여부를 살펴보면, '일을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14.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6%로 여성(13.5%)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로 가장 높았으며, 뇌병변 장애는 5.6%로 가장 낮다. 경증 장애의 경우 '일을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18.5%로 중증 장애(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5-147〉 본인의 근로 가능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네, 일을 할 수 있다	아니오, 일을 할 수 없다	계
전 체		(158,422)	14.6	85.4	100.0
성별	남성	(81,760)	15.6	84.4	100.0
	여성	(76,663)	13.5	86.5	100.0
장애 유형	지체	(28,568)	17.1	82.9	100.0
	뇌병변	(35,110)	5.6	94.4	100.0
	시각	(13,093)	18.9	81.1	100.0
	청각/언어	(37,473)	21.5	78.5	100.0
	지적/자폐성	(12,350)	16.0	84.0	100.0
	정신	(7,852)	12.0	88.0	100.0
	내부/안면	(23,977)	11.6	88.4	100.0
장애 정도	중증	(68,024)	9.4	90.6	100.0
	경증	(90,398)	18.5	81.5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없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근로가능 여부에 대해 '일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근로를 위해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27.9%로 조사 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3%로 여성(23.8%)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근로를 위해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4%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시각 장애의 필요 응답 비율이 16.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3.1%로 경증 장애(26.0%)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Ⅴ-5-148〉 근로를 위해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필요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필요함	필요치 않음	계
전 체		(23,101)	**27.9**	72.1	100.0
성별	남성	(12,735)	**31.3**	68.7	100.0
	여성	(10,366)	23.8	76.2	100.0
장애 유형	지체	(4,882)	28.7	71.3	100.0
	뇌병변	(1,981)	**66.4**	33.6	100.0
	시각	(2,469)	**16.7**	83.3	100.0
	청각/언어	(8,068)	22.7	77.3	100.0
	지적/자폐성	(1,972)	37.5	62.5	100.0
	정신	(943)	21.6	78.4	100.0
	내부/안면	(2,787)	19.7	80.3	100.0
장애 정도	중증	(6,415)	**33.1**	66.9	100.0
	경증	(16,686)	26.0	74.0	100.0

주1) 본인의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해 '네, 일을 할 수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근로를 위해 필요한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항목을 조사하여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조정'이 27.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26.0%), 장애 맞춤형 작업환경(16.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응답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보조기기'에 대한 응답 비율이 29.4%로 남성(5.4%) 대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Ⅴ-5-149〉 근로를 위해 필요한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항목(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일을 도와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직무수행을 위한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장애 맞춤형 작업환경(사람 제외)이 필요하다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전 체		(6,452)	26.0	14.6	16.0	**27.7**
성별	남성	(3,984)	32.4	5.4	20.8	**23.8**
	여성	(2,468)	15.5	**29.4**	8.2	34.1

구 분		직업훈련/재훈련이 필요하다	직무(일)를 수정하거나 다르게 할당되어야 한다	기숙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계
전 체		9.4	3.8	2.5	100.0
성별	남성	7.9	5.7	4.1	100.0
	여성	11.9	0.8	0.0	100.0

주1) 근로를 위해 도움, 작업환경 변화, 보조장비 마련 필요 여부 '필요함'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근로가 가능한 미취업 패널의 구직활동 여부를 살펴보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응답 비율이 26.6%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는 응답 비율은 31.3%로 여성(20.8%)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인의 48.0%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고 응답한 반면,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구직 활동 비율이 18.1%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장애 정도에 따른 구직활동은 중증 장애(27.5%)가 경증 장애(26.2%)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V-5-150〉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아니오,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계
전 체		(23,101)	**26.6**	73.4	100.0
성별	남성	(12,735)	**31.3**	68.7	100.0
	여성	(10,366)	20.8	79.2	100.0
장애 유형	지체	(4,882)	22.6	77.4	100.0
	뇌병변	(1,981)	24.0	76.0	100.0
	시각	(2,469)	26.0	74.0	100.0
	청각/언어	(8,068)	30.6	69.4	100.0
	지적/자폐성	(1,972)	25.0	75.0	100.0
	정신	(943)	**48.0**	52.0	100.0
	내부/안면	(2,787)	**18.1**	81.9	100.0
장애 정도	중증	(6,415)	**27.5**	72.5	100.0
	경증	(16,686)	26.2	73.8	100.0

주1) 본인의 근로 가능 여부에 대해 '네, 일을 할 수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이어서 구직을 위해 했던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는 응답이 53.7%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공공 취업알선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로 등록했다'는 응답이 49.7%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34.2%가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연락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성(12.9%) 보다 21.3%p 높은 수준이다.

〈표 Ⅴ-5-151〉 구직 관련 구체적인 활동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로 등록했다	(2) 민간 취업알선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로 등록했다	(3) 공공/민간/사업체/학교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했다	(4)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연락했다	(5)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6) 이력서 제출 후 고용주와 만나 면담을 하였다	통합비율
전 체		(6,139)	49.7	20.7	19.7	26.7	53.7	19.7	89.0
성별	남성	(3,982)	50.5	21.8	17.4	34.2	48.9	19.5	90.1
	여성	(2,157)	48.2	18.5	24.1	12.9	62.5	20.1	87.1

주1) '예' 와 '아니오' 중 '예' 의 응답 비율로 표기함
주2)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예,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구직활동 시 겪었던 애로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가 57.7%로 가장 높았으며 장애로 인한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14.0%),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62.3%는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구직이 어렵다고 응답 하였으며, 여성(49.1%)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구직이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는 여성(24.8%)이 남성(8.1%)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Ⅴ-5-152〉 구직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		
전 체		(6,139)	57.7	3.3	6.5	14.0		
성별	남성	(3,982)	62.3	4.4	6.4	8.1		
	여성	(2,157)	49.1	1.4	6.6	24.8		
구 분		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영향을 줄까봐	가족에 대한 양육/돌봄으로 인해	고용주/동료의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로 인해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없음	계	
전 체		1.6	2.9	3.5	10.1	0.4	100.0	
성별	남성	2.5	2.9	5.4	7.3	0.6	100.0	
	여성	0.0	2.8	0.0	15.3	0.0	100.0	

주1)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예,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취업 시 필요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업 정보제공 및 기회 확대'가 5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개선(14.1%), 전문기관의 구직상담 및 취업 알선(7.9%),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5.6%),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작업장 필요(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작업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7.7%로 여성(0.1%) 대비 높았던 한편, 여성의 경우 취업 필요사항 1순위로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을 응답한 비율은 15.0%로 남성(0.5%) 보다 높다.

〈표 V-5-153〉 취업 필요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취업 정보제공 및 기회 확대	이력서 작성, 면접 기술 등 구직역량 강화	전문기관의 구직상담 및 취업 알선	직업교육 및 현장훈련 제공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제도 개선	장애인을 위한 별도 작업장 필요
전 체		(6,139)	**54.9**	3.1	7.9	5.6	14.1	5.1
성별	남성	(3,982)	52.9	3.9	7.3	0.5	14.1	**7.7**
	여성	(2,157)	58.5	1.8	9.0	**15.0**	14.1	0.1

구 분		채용과정에서 편의제공 (채용과정 단순화, 시험시간 연장)	창업지원(창업컨설팅, 자금융자 등) 제공	장애인 채용 가산점 제공	기타	계
전 체		4.4	3.2	0.3	1.5	100.0
성별	남성	6.0	4.9	0.4	2.4	100.0
	여성	1.4	0.0	0.0	0.0	100.0

주1)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예,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라는 응답이 50.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어려서(12.8%)',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11.7%)',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7.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응답은 11.3%로 여성(3.3%) 보다 높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안면 장애의 72.9%는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 뇌병변 장애의 25.2%는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적/자폐성 장애의 29.0%는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구직을 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7%로 경증 장애(40.2%) 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Ⅴ-5-154〉 구직하지 않은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나 질병 등 건강상 문제로 인해	장애로 인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격요건이나 직업관련 경험 또는 기술부족으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어려서	학업 및 직업훈련 등에 참여하고 있어서	받고 있는 복지혜택에 영향을 줄까봐
전 체		(16,962)	**45.0**	5.0	7.4	12.8	6.0	0.9
성별	남성	(8,753)	43.2	6.4	**11.3**	10.4	9.5	1.3
	여성	(8,209)	46.9	3.7	3.3	15.4	2.2	0.4
장애 유형	지체	(3,779)	43.3	1.9	4.2	9.8	6.5	0.0
	뇌병변	(1,506)	43.1	**25.2**	5.9	0.0	1.6	0.0
	시각	(1,827)	33.7	2.2	8.7	18.9	16.1	0.5
	청각/언어	(5,601)	38.7	4.2	5.4	20.4	1.4	1.1
	지적/자폐성	(1,478)	39.6	0.0	**29.0**	10.4	15.0	2.4
	정신	(491)	63.8	0.0	19.1	0.0	17.1	0.0
	내부/안면	(2,281)	**72.9**	5.6	1.6	7.2	3.0	2.0
장애 정도	중증	(4,648)	57.7	5.8	12.9	7.3	8.4	2.8
	경증	(12,314)	40.2	4.8	5.4	14.9	5.1	0.2

구 분		가족에 대한 양육/ 돌봄으로 인해	고용주/ 동료의 장애인식 부족 및 차별로 인해	시간이나 임금이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가족, 지인의 반대로 인해	기타	계
전 체		4.6	1.9	11.7	2.6	2.0	100.0
성별	남성	1.5	1.0	12.3	0.0	3.0	100.0
	여성	7.9	2.9	11.0	5.3	1.0	100.0
장애 유형	지체	12.3	0.0	17.2	4.7	0.0	100.0
	뇌병변	0.0	0.0	9.7	0.0	14.5	100.0
	시각	1.1	2.7	13.9	0.0	2.2	100.0
	청각/언어	4.7	4.6	14.2	4.3	1.1	100.0
	지적/자폐성	0.0	0.0	2.1	0.0	1.6	100.0
	정신	0.0	0.0	0.0	0.0	0.0	100.0
	내부/안면	1.3	0.9	4.6	0.9	0.3	100.0
장애 정도	중증	0.1	0.1	3.3	1.0	0.5	100.0
	경증	6.3	2.6	14.8	3.2	2.6	100.0

주1)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아니오,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이 35.7%로 가장 높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25.9%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27.8%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의 경우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이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인의 53.8%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의 주요 활동

으로서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뇌병변 장애는 '재충전을 위한 휴식'응답이 20.0%, 내부/안면 장애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응답이 33.8%, 정신 장애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응답이 54.0%로 조사되었다. 경증 장애의 경우 41.6%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 주 활동으로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중증 장애(20.0%) 보다 21.6%p 높은 비율을 보인다.

〈표 V-5-155〉 구직활동 하지 않는 동안 주 활동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집안일 혹은 가족구성원 양육/돌봄	재충전을 위한 휴식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참여	자원봉사 활동 참여	여행/휴가/ 레저활동
전 체		(16,962)	**35.7**	15.2	10.1	1.6	4.5
성별	남성	(8,753)	20.1	17.8	15.6	1.4	7.7
	여성	(8,209)	**52.2**	12.4	4.3	1.9	1.1
장애 유형	지체	(3,779)	35.5	11.0	4.2	4.5	7.4
	뇌병변	(1,506)	17.2	**20.0**	11.2	0.0	4.2
	시각	(1,827)	31.0	13.8	9.1	1.2	3.8
	청각/언어	(5,601)	**53.8**	18.0	2.8	1.6	4.7
	지적/자폐성	(1,478)	12.7	19.7	15.2	0.0	4.9
	정신	(491)	10.6	15.5	13.2	0.0	0.0
	내부/안면	(2,281)	27.7	10.1	**33.8**	0.0	0.5
장애 정도	중증	(4,648)	20.0	15.7	24.0	0.6	1.8
	경증	(12,314)	**41.6**	15.0	4.9	2.0	5.5

구 분		문화/예술/ 창작활동 참여	대학교/ 대학원 진학	자격증 준비	아무것도 하지 않음	기타	계
전 체		2.5	4.5	3.0	22.0	0.8	100.0
성별	남성	1.2	5.8	1.5	**27.8**	1.2	100.0
	여성	4.0	3.3	4.6	15.8	0.5	100.0
장애 유형	지체	4.4	7.3	7.1	18.5	0.3	100.0
	뇌병변	5.1	0.0	3.2	39.2	0.0	100.0
	시각	0.0	7.5	4.6	23.1	6.0	100.0
	청각/언어	0.0	0.5	0.2	18.1	0.2	100.0
	지적/자폐성	4.0	17.3	2.4	23.6	0.0	100.0
	정신	0.0	4.6	0.0	**54.0**	2.1	100.0
	내부/안면	5.6	2.4	2.9	17.0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3.4	7.4	1.0	25.3	0.8	100.0
	경증	2.2	3.5	3.8	20.7	0.8	100.0

주1)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아니오,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향후 구직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향후 구직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3.0%로 여성(64.4%) 보다 소폭 낮은 비율을 보인다.

〈표 Ⅴ-5-156〉 향후 구직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계
전 체		(16,962)	63.7	17.2	19.1	100.0
성별	남성	(8,753)	63.0	20.3	16.7	100.0
	여성	(8,209)	64.4	14.0	21.7	100.0

주1) 구직활동 여부에 대해 '아니오,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7) 비임금근로자(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패널의 일자리 산업코드를 살펴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가 27.6%로 가장 높았고, 도매 및 소매업(17.7%), 숙박 및 음식점업(11.5%), 운수 및 창고업(1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일자리 종사 유형은 농업, 임업 및 어업이 31.1%, 숙박 및 음식점업 18.3%, 제조업 16.6%의 순으로 많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농업, 임업 및 어업이 26.1%, 도매 및 소매업 20.2%, 운수 및 창고업 14.5% 등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Ⅴ-5-157〉 산업코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농업,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전 체		(21,252)	27.6	9.8	3.7	17.7	10.1	11.5	2.7
성별	남성	(14,805)	26.1	6.9	5.3	20.2	14.5	8.5	2.2
	여성	(6,447)	31.1	16.6	0.0	11.8	0.0	18.3	4.1

구 분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계
전 체		1.0	3.6	0.3	1.9	0.6	1.2	8.4	100.0
성별	남성	0.8	5.0	0.4	2.5	0.9	1.1	5.8	100.0
	여성	1.4	0.3	0.0	0.5	0.0	1.6	14.4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음으로 자영업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패널의 직업코드를 살펴보면,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가 26.4%로 가장 높았고, 판매종사자(18.7%),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14.8%), 관리자(10.6%)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비율이 17.7%로 여성(8.3%) 대비 9.4%p 높고, 여성은 '서비스 종사자'비율이 20.2%로 남성(3.9%) 보다 16.3%p 높게 나타났다.

〈표 V-5-158〉 직업코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계
전 체		(21,252)	10.6	4.5	0.8	8.8	18.7	**26.4**	8.8	14.8	6.7	100.0
성별	남성	(14,805)	13.0	4.3	1.1	3.9	20.0	25.4	10.2	**17.7**	4.4	100.0
	여성	(6,447)	5.1	4.9	0.1	**20.2**	15.6	28.5	5.5	8.3	11.8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체)를 시작한 동기를 살펴보면, '관련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일자리를 시작했다는 응답이 19.8%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이런 종류의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18.3%),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13.6%), 업무시간 조절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1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이런 종류의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은 20.4%로 여성(10.2%) 대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려고' 응답은 여성(17.6%)이 남성(0.6%)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V-5-159〉 일자리(사업체) 시작 동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관련 기술이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서 (성공할 것 같아서)	사업을 물려받게 되어서	주변 사람의 권유로	내 장애 상황에 부합해서
전 체		(17,649)	**19.8**	13.6	6.4	11.0	10.0
성별	남성	(14,091)	20.1	13.2	8.0	10.4	9.2
	여성	(3,558)	18.3	15.5	0.0	13.7	13.5

구 분		업무시간 조절 등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서	가사, 육아 등을 병행하려고	임금근로자 취업을 원했으나 어려워서	이런 종류의 사업 말고는 대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은 어려워서)	기타	계
전 체		11.3	4.0	2.7	18.3	2.7	100.0
성별	남성	11.5	0.6	3.2	20.4	3.4	100.0
	여성	10.4	17.6	0.7	10.2	0.0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자영업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음으로 일자리(사업체) 소득 유무를 살펴보면, 수입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87.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수입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89.0%로 여성(80.7%) 보다 높다.

〈표 Ⅴ-5-160〉 일자리(사업체) 소득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수입이 있다	적자(손해)를 보고 있다	계
전 체		(17,649)	87.3	12.7	100.0
성별	남성	(14,091)	89.0	11.0	100.0
	여성	(3,558)	80.7	19.3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자영업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일자리(사업체)의 소득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소득 금액을 살펴보면, '300만원 미만'이 2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원 미만(27.5%), 400만원 미만(20.5%), 100만원 미만(10.0%), 500만원 이상(8.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0만원 이상' 소득이 10.4%로 여성(0.0%) 대비 높고, 여성은 '300만원 미만' 소득이 35.9%로 남성(26.3%) 대비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Ⅴ-5-161〉 일자리(사업체) 소득 금액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0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300만원 미만	4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계
전 체		(15,407)	10.0	27.5	28.1	20.5	5.5	8.5	100.0
성별	남성	(12,535)	9.1	28.4	26.3	20.8	5.1	10.4	100.0
	여성	(2,871)	13.7	23.8	35.9	19.3	7.2	0.0	100.0

주1) 일자리(사업체) 소득 유무에 대해 '수입이 있다'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6. 사회참여

1) 장애 관련 서비스

(1)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

장애인 관련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 여부, 지난조사 이후 경험여부, 만족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의 서비스별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인 연금(68.8%), 장애인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66.2%), 장애/장애아동 수당(59.4%), 장애인활동 지원(51.0%), 가사/간병 방문 지원(49.7%),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45.3%), 에너지 바우처(44.2%),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41.7%), 노인장기요양(41.1%), 장애인의료비 지원(41.1%),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28.9%), 발달재활서비스(25.6%),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25.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22.6%), 중증장애인지원고용(20.6%),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20.3%),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19.4%), 장애인 창업지원(17.9%), 장애아 보육료 지원(17.8%), 방과후 보육료 지원(16.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16.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15.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14.9%), 시각/척수, 산재근로자 심리 및 재활훈련(14.8%),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1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복지서비스 인지율은 남성이 여성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서비스에 대해 남성의 69.9%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성(61.2%) 보다 8.7%p 높은 수치다.

〈표 V-6-1〉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장애인 연금	(2) 가사/간병 방문 지원	(3) 장애/장애아동 수당	(4)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5) 장애인활동 지원	(6) 에너지 바우처	(7) 장애인자립 자금 대여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전 체		(251,277)	**68.8**	49.7	59.4	66.2	51.0	44.2	19.4	41.7
성별	남성	(142,540)	72.5	50.4	61.7	**69.9**	53.9	45.2	21.4	43.2
	여성	(108,737)	64.0	48.8	56.5	61.2	47.3	42.9	16.7	39.8

〈표 Ⅴ-6-1〉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인지 여부 - 계속

(단위: 명, %)

구 분		(9)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10)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1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13) 노인장기요양	(14) 장애인의료비 지원	(15) 발달재활서비스	(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7) 시각/척수, 산재근로자 심리 및 재활 훈련
전 체		28.9	22.6	45.3	16.1	41.1	41.1	25.6	14.9	14.8
성별	남성	30.9	24.2	47.7	18.1	42.9	43.8	28.5	15.2	17.0
	여성	26.2	20.5	42.2	13.5	38.6	37.5	21.8	14.6	12.0

구 분		(18)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재정지원)	(19) 중증장애인 지원 고용	(20)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지원	(21)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	(22) 장애인 창업지원	(23) 방과후 보육료 지원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25)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전 체		25.3	20.6	20.3	15.2	17.9	16.1	17.8	11.9
성별	남성	27.5	22.9	22.4	16.7	20.2	17.5	19.2	13.0
	여성	22.4	17.6	17.6	13.3	14.8	14.3	15.9	10.4

지난조사 이후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에너지 바우처'서비스의 경험률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31.2%), 장애/장애아동 수당(21.2%),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21.1%), 장애인 연금(20.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응답자의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서비스 경험률은 24.5%로 여성(16.0%) 보다 높다.

〈표 Ⅴ-6-2〉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1) 장애인 연금		(2) 가사/간병 방문 지원		(3) 장애/장애아동 수당		(4)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34,556)	**20.0**	(9,822)	7.9	(31,623)	**21.2**	(35,056)	**21.1**
성별	남성	(21,809)	21.1	(4,666)	6.5	(18,766)	21.3	(24,432)	**24.5**
	여성	(12,747)	18.3	(5,156)	9.7	(12,857)	20.9	(10,624)	16.0

구 분		(5) 장애인활동지원		(6) 에너지 바우처		(7)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12,194)	9.5	(45,729)	**41.2**	(919)	1.9	(15,202)	14.5
성별	남성	(7,612)	9.9	(27,232)	42.2	(716)	2.4	(9,579)	15.6
	여성	(4,582)	8.9	(18,497)	39.7	(202)	1.1	(5,623)	13.0

구 분		(9)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8,555)	11.8	(1,323)	2.3	(35,519)	31.2	(806)	2.0
성별	남성	(5,973)	13.5	(879)	2.6	(20,865)	30.7	(249)	1.0
	여성	(2,583)	9.1	(443)	2.0	(14,655)	31.9	(558)	3.8

구 분		(13) 노인장기요양		(14) 장애인의료비 지원		(15) 발달재활서비스		(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3,093)	3.0	(19,621)	19.0	(5,779)	9.0	(568)	1.5
성별	남성	(1,512)	2.5	(12,295)	19.7	(4,143)	10.2	(200)	0.9
	여성	(1,581)	3.8	(7,325)	18.0	(1,636)	6.9	(368)	2.3

구 분		(17) 시각/척수, 산재근로자 심리 및 재활훈련		(18) 장애인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19)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2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880)	2.4	(1,887)	3.0	(1,083)	2.1	(1,084)	2.1
성별	남성	(500)	2.1	(1,176)	3.0	(629)	1.9	(674)	2.1
	여성	(381)	2.9	(711)	2.9	(454)	2.4	(410)	2.1

구 분		(2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22) 장애인 창업지원		(23) 방과후 보육료 지원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937)	2.4	(761)	1.7	(2,793)	6.9
성별	남성	(453)	1.9	(564)	2.0	(2,008)	8.0
	여성	(484)	3.4	(197)	1.2	(785)	5.0

구 분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2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추정수	경험률	추정수	경험률
전 체		(2,506)	5.6	(690)	2.3
성별	남성	(1,621)	5.9	(241)	1.3
	여성	(885)	5.1	(449)	4.0

주1)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 관련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4)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항목의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83.5%로 가장 높았으며, '(22) 장애인 창업지원'의 경우 25.1%로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Ⅴ-6-3〉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만족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1) 장애인 연금	(34,556)	5.8	39.3	53.8	1.1	45.1	54.9	100.0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만족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2) 가사/간병 방문 지원	(9,822)	5.4	20.6	67.3	6.8	26.0	74.0	100.0
(3) 장애/장애아동 수당	(31,623)	5.7	45.6	47.2	1.5	51.3	48.7	100.0
(4)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35,056)	1.5	14.9	81.5	2.1	16.5	**83.5**	100.0
(5) 장애인활동지원	(12,194)	3.7	24.1	65.7	6.5	27.9	72.1	100.0
(6) 에너지 바우처	(45,729)	1.4	18.8	77.2	2.6	20.2	79.8	100.0
(7)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919)	19.0	45.8	35.2	0.0	64.8	35.2	100.0
(8)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5,202)	2.6	29.4	66.2	1.8	32.0	68.0	100.0
(9)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8,555)	2.4	20.0	74.4	3.2	22.4	77.6	100.0
(10)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323)	0.0	46.4	48.6	5.0	46.4	53.6	100.0
(1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35,519)	1.3	18.1	78.6	2.0	19.3	80.7	100.0
(12)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806)	0.0	72.8	24.3	2.9	72.8	27.2	100.0
(13) 노인장기요양	(3,093)	8.5	23.0	61.0	7.4	31.5	68.5	100.0
(14) 장애인의료비 지원	(19,621)	3.0	21.0	69.7	6.3	24.0	76.0	100.0
(15) 발달재활서비스	(5,779)	7.5	29.9	56.5	6.1	37.4	62.6	100.0
(1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568)	8.2	46.4	38.5	6.8	54.7	45.3	100.0
(17) 시각/척수, 산재근로자 심리 및 재활훈련	(880)	0.4	41.3	48.6	9.8	41.6	58.4	100.0
(18)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	(1,887)	9.3	27.4	53.2	10.1	36.7	63.3	100.0
(19) 중증 장애인지원고용	(1,083)	11.6	35.3	49.2	4.0	46.9	53.1	100.0
(20)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1,084)	11.6	38.9	47.8	1.7	50.5	49.5	100.0
(21)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937)	13.6	37.9	29.9	18.6	51.5	48.5	100.0
(22) 장애인 창업지원	(761)	20.2	54.7	25.1	0.0	74.9	**25.1**	100.0
(23) 방과후 보육료 지원	(2,793)	5.8	24.3	65.1	4.8	30.1	69.9	100.0
(24) 장애아 보육료 지원	(2,506)	14.4	27.3	55.5	2.9	41.7	58.3	100.0
(25)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690)	18.2	52.3	17.9	11.5	70.5	29.5	100.0

주1)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장애인관련 복지서비스 경험 여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반적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49.9%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인복지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51.7%로 여성(4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내부/안면 장애와 지적/자폐성 장애의 만족 비율은 각각 58.4%, 58.3%로 타 장애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55.5%

로 경증 장애(46.7%) 보다 높다.

〈표 V-6-4〉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반적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불만족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3.3	46.7	49.6	0.3	50.1	49.9	100.0
성별	남성	(142,540)	3.5	44.8	51.4	0.3	48.3	51.7	100.0
	여성	(108,737)	3.1	49.3	47.3	0.2	52.4	47.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4.0	51.8	44.2	0.1	55.8	44.2	100.0
	뇌병변	(42,177)	6.1	46.6	46.7	0.6	52.7	47.3	100.0
	시각	(21,557)	3.0	50.3	46.3	0.4	53.3	46.7	100.0
	청각/언어	(73,818)	2.5	48.0	49.3	0.1	50.5	49.5	100.0
	지적/자폐성	(23,852)	1.6	40.1	57.7	0.6	41.7	58.3	100.0
	정신	(8,894)	2.6	44.5	52.7	0.2	47.0	53.0	100.0
	내부/안면	(31,447)	2.4	39.3	58.1	0.2	41.6	58.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3.0	41.5	54.9	0.5	44.5	55.5	100.0
	경증	(158,661)	3.5	49.8	46.5	0.1	53.3	46.7	100.0

주1) '매우 불만족' 부터 '매우 만족'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사회복지시설

지난 조사 이후 사회복지시설 관련 이용경험 및 이용횟수, 이용하는 이유, 만족정도 등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이용하였다는 응답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은 4.8%로 여성(3.7%)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였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2%로 나타났으며, 내부/안면 장애 및 지체 장애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비율은 각각 1.6%, 1.5%에 불과했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은 6.8%로 경증 장애(2.9%) 보다 높다.

〈표 V-6-5〉 지난조사 이후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이용하였음	이용하지 않았음	계
전 체		(251,277)	4.3	95.7	100.0
성별	남성	(142,540)	4.8	95.2	100.0
	여성	(108,737)	3.7	96.3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6	98.4	100.0
	뇌병변	(42,177)	5.2	94.8	100.0

	시각	(21,557)	3.6	96.4	100.0
	청각/언어	(73,818)	3.7	96.3	100.0
	지적/자폐성	(23,852)	**13.2**	86.8	100.0
	정신	(8,894)	7.2	92.8	100.0
	내부/안면	(31,447)	**1.5**	98.5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6.8**	93.2	100.0
	경증	(158,661)	2.9	97.1	100.0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1달 평균 사회복지시설 이용 횟수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 1-2회' 이용 응답은 35.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3-4회(26.9%), 월 3회 이내(15.8%), 거의 매일(11.3%), 거의 이용하지 않음(10.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달 평균 사회복지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1.6%로 여성(7.4%) 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주 3-4회' 이용 비율이 33.0%로, 남성(23.4%) 대비 높은 수치를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는 '주 3-4회' 이용이 51.8%, 지적/자폐성 장애는 '주 1-2회'이용이 48.2%로 가장 높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주 1-2회' 이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9%로 경증 장애(28.8%) 보다 높다.

〈표 Ⅴ-6-6〉 1달 평균 사회복지시설 이용 횟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거의 이용하지 않음	월 3회 이내	주 1-2회	주 3-4회	거의 매일	계
전 체		(10,806)	10.1	15.8	**35.9**	26.9	11.3	100.0
성별	남성	(6,812)	**11.6**	16.4	36.5	23.4	12.1	100.0
	여성	(3,994)	7.4	14.9	34.7	**33.0**	10.0	100.0
장애 유형	지체	(798)	12.0	15.5	18.6	**51.8**	2.1	100.0
	뇌병변	(2,185)	8.1	12.9	33.5	21.1	24.4	100.0
	시각	(786)	5.3	20.7	41.2	23.1	9.7	100.0
	청각/언어	(2,764)	11.5	19.5	25.7	35.5	7.7	100.0
	지적/자폐성	(3,148)	8.9	13.1	**48.2**	20.7	9.2	100.0
	정신	(641)	12.4	12.5	35.6	24.3	15.2	100.0
	내부/안면	(485)	20.0	22.7	44.4	12.8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6,284)	10.5	15.9	**40.9**	21.3	11.4	100.0
	경증	(4,522)	9.5	15.8	28.8	34.6	11.3	100.0

주1)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이용하였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는 주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 이용' 응답 비율이 45.5%로 가장 높았으며,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의 경우 26.0%로 두 번째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프로그램'을 이용 비율이

47.5%로 여성(42.1%) 대비 높았고,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 비율은 여성이 29.5%로 남성(23.9%)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는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 이용이 60.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각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에서는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이 각각 39.1%, 38.8%로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일자리사업 참여와 구직서비스 이용' 비율은 6.5%로 경증(16.1%)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V-6-7〉 사회복지시설 이용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각종 여가 프로그램 이용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 프로그램 이용	일자리 사업 참여와 구직서비스 이용	자원봉사활동 참여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전 체		(10,806)	26.0	**45.5**	10.5	1.7	6.5
성별	남성	(6,812)	23.9	**47.5**	11.3	1.2	6.5
	여성	(3,994)	**29.5**	42.1	9.2	2.5	6.3
장애 유형	지체	(798)	22.3	23.7	25.6	0.0	6.2
	뇌병변	(2,185)	21.1	45.0	1.1	2.3	18.8
	시각	(786)	**39.1**	10.8	22.7	0.0	8.9
	청각/언어	(2,764)	21.9	**60.9**	11.6	1.6	3.3
	지적/자폐성	(3,148)	28.4	56.0	4.5	1.1	2.1
	정신	(641)	**38.8**	14.7	32.5	7.6	0.0
	내부/안면	(485)	23.6	25.2	11.8	1.2	2.3
장애 정도	중증	(6,284)	26.3	46.3	6.5	2.9	6.5
	경증	(4,522)	25.5	44.3	**16.1**	0.0	6.4

구 분		보장구 수리 및 구입	친목도모	기타	없음	계
전 체		1.3	7.1	1.0	0.5	100.0
성별	남성	2.0	6.1	0.7	0.8	100.0
	여성	0.0	8.8	1.5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11.7	0.0	10.5	0.0	100.0
	뇌병변	0.0	11.6	0.0	0.0	100.0
	시각	5.9	11.3	1.3	0.0	100.0
	청각/언어	0.0	0.8	0.0	0.0	100.0
	지적/자폐성	0.0	6.8	0.0	1.1	100.0
	정신	0.0	6.5	0.0	0.0	100.0
	내부/안면	0.0	30.2	2.1	3.6	100.0
장애 정도	중증	1.5	8.7	0.6	0.6	100.0
	경증	0.9	4.8	1.5	0.4	100.0

주1)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이용하였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82.3%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80.6%로 남성의 만족도(83.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시각 장애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③+④)이 93.7%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체 장애에서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73.8%로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③+④)이 82.9%로 경증 장애(81.6%)보다 높다.

〈표 Ⅴ-6-8〉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10,806)	4.6	13.1	76.9	5.5	17.7	**82.3**	100.0
성별	남성	(6,812)	4.7	12.0	79.7	3.6	16.7	**83.3**	100.0
	여성	(3,994)	4.3	15.0	72.0	8.6	19.4	80.6	100.0
장애 유형	지체	(798)	11.2	15.0	66.8	7.0	26.2	**73.8**	100.0
	뇌병변	(2,185)	1.8	19.5	73.5	5.3	21.3	78.7	100.0
	시각	(786)	1.4	5.0	90.9	2.7	6.3	**93.7**	100.0
	청각/언어	(2,764)	10.6	8.4	72.2	8.9	18.9	81.1	100.0
	지적/자폐성	(3,148)	1.1	10.7	86.0	2.1	11.8	88.2	100.0
	정신	(641)	0.0	21.3	69.9	8.8	21.3	78.7	100.0
	내부/안면	(485)	5.6	25.7	62.2	6.5	31.3	68.7	100.0
장애 정도	중증	(6,284)	1.9	15.3	79.4	3.4	17.1	**82.9**	100.0
	경증	(4,522)	8.3	10.1	73.3	8.3	18.4	81.6	100.0

주1) 사회복지시설 이용 경험에 대해 '이용하였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전혀 만족하지 않음' 부터 '매우 만족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 불만족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가 3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시설(설비, 위생)이 좋지 않아서(26.7%), 집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해서(16.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시설(설비, 위생)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0.8%로 여성(20.7%) 보다 높다.

〈표 Ⅴ-6-9〉 사회복지시설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시설(설비, 위생)이 좋지 않아서	이용할만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로그램 대기기간이 길어서	이용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 해서	프로그램 비용이 비싸서	서비스 제공자들이 불친절하여	기타	계
전 체		(1,908)	26.7	**37.5**	16.7	3.4	8.6	4.6	0.4	2.2	100.0
성별	남성	(1,135)	**30.8**	39.4	19.0	0.0	6.9	3.3	0.6	0.0	100.0
	여성	(773)	20.7	34.6	13.4	8.5	11.2	6.3	0.0	5.4	100.0

주1) 사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에 대해 '전혀 만족하지 않음' 또는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인권

(1) 장애 인식 관련 교육(장애인식, 인권교육)

지난조사 이후 장애 인식 관련 교육(장애인식, 인권교육)에 대해 교육 받은 경험 및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조사 이후 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장애 인식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2.4%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장애 인식관련 교육 참여 경험은 2.8%로 여성(1.9%)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인식 관련 경험 비율이 7.1%로 나타났으나, 내부/안면 장애에서는 경험 비율이 1.2%에 불과했다.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 인식관련 교육 경험이 3.0%로 경증 장애(2.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10〉 지난조사 이후 장애 인식관련 교육(장애인식,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251,277)	2.4	97.6	100.0
성별	남성	(142,540)	2.8	97.2	100.0
	여성	(108,737)	1.9	98.1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7	98.3	100.0
	뇌병변	(42,177)	1.4	98.6	100.0
	시각	(21,557)	3.1	96.9	100.0
	청각/언어	(73,818)	2.3	97.7	100.0
	지적/자폐성	(23,852)	7.1	92.9	100.0
	정신	(8,894)	2.8	97.2	100.0
	내부/안면	(31,447)	1.2	98.8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3.0	97.0	100.0
	경증	(158,661)	2.1	97.9	100.0

지난조사 이후 교육 받은 인권 관련 교육의 내용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37.7%), 노동권(14.2%),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10.0%),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9.0%)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응답 비율이 41.3%로 여성(4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6-11〉 인권교육 내용(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사법 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착취, 폭력 및 학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전 체		(6,085)	37.7	2.6	14.2	4.4	3.9	9.0	7.7
성별	남성	(3,965)	41.3	0.0	12.4	3.5	5.1	11.0	6.3
	여성	(2,120)	31.0	7.3	17.4	6.2	1.8	5.3	10.4

구 분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이동권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대중이용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계
전 체		10.0	4.1	1.6	3.5	1.2	100.0
성별	남성	11.0	5.2	2.5	1.7	0.0	100.0
	여성	8.1	2.1	0.0	6.9	3.4	100.0

주1) 장애 인식관련 교육(장애인식,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일상생활

일상생활에서 존중받는 정도를 살펴보면, '존중받음'이라는 응답 비율(③+④)은 57.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존중받음'이라는 응답 비율(③+④)은 58.7%로 여성(55.7%)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는, 내부/안면 장애의 경우 '존중받음'이라는 응답 비율(③+④)이 61.1%로 비교적 높고, 정신 장애의 경우 41.2%로 낮다.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존중받음'이라는 응답 비율(③+④)은 54.2%로 경증 장애(59.3%) 보다 낮다.

〈표 Ⅴ-6-12〉 일상생활에서 존중 받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②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받고 있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1.6	41.0	56.2	1.2	42.6	57.4	100.0
성별	남성	(142,540)	1.5	39.9	57.4	1.3	41.3	58.7	100.0
	여성	(108,737)	1.8	42.5	54.7	1.1	44.3	55.7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1.5	39.0	58.2	1.2	40.6	59.4	100.0
	뇌병변	(42,177)	3.4	43.2	52.3	1.1	46.6	53.4	100.0
	시각	(21,557)	1.5	39.2	57.7	1.5	40.7	59.3	100.0
	청각/언어	(73,818)	0.7	40.2	58.3	0.8	40.9	59.1	100.0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②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③ 존중받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존중받고 있다	①+②	③+④	계
	지적/자폐성	(23,852)	2.2	43.3	52.1	2.5	45.4	54.6	100.0
	정신	(8,894)	1.7	57.1	41.0	0.2	58.8	**41.2**	100.0
	내부/안면	(31,447)	0.8	38.1	59.7	1.4	38.9	**61.1**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1.9	43.9	52.8	1.4	45.8	54.2	100.0
	경증	(158,661)	1.4	39.4	58.2	1.1	40.7	**59.3**	100.0

주1)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부터 '매우 존중받고 있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 받을 권리에 대해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33.3%),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19.5%), 건강권(17.6%), 노동권(8.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노동권' 응답 비율이 9.4%로 여성(6.9%)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 장애의 경우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라고 응답한 비율은 37.5%로 높게 나타났고, 지체 장애는 노동권(12.8%), 정신 장애는 건강권(22.6%)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에서 노동권은 9.5%로 중증 장애(6.3%) 보다 높다.

〈표 V-6-13〉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존중 받을 권리(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사법 접근권	노동권	건강권	교육권	문화, 여가, 체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	착취, 폭력 및 학대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
전 체		(251,277)	**33.3**	2.0	8.3	17.6	2.4	7.0	3.1
성별	남성	(142,540)	33.0	1.9	**9.4**	17.0	2.7	6.5	3.2
	여성	(108,737)	33.8	2.1	6.9	18.2	2.1	7.7	2.9
장애 유형	지체	(49,532)	31.6	1.3	**12.8**	20.5	1.4	4.3	2.6
	뇌병변	(42,177)	**37.5**	3.2	3.6	19.1	1.9	5.7	3.2
	시각	(21,557)	30.8	1.6	10.8	13.2	2.5	7.9	1.7
	청각/언어	(73,818)	33.5	1.7	8.3	17.1	2.4	9.0	2.9
	지적/자폐성	(23,852)	32.4	1.9	8.5	9.5	6.9	6.3	5.8
	정신	(8,894)	31.1	3.6	4.1	**22.6**	1.7	8.3	3.3
	내부/안면	(31,447)	33.2	1.9	7.1	19.6	1.4	8.1	3.1
장애 정도	중증	(92,616)	33.9	2.4	6.3	16.4	3.0	6.9	3.9
	경증	(158,661)	33.0	1.7	**9.5**	18.2	2.1	7.1	2.6

구 분		적절한 생활 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자립 생활과 지역 사회에 동참할 권리	이동권	의사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대중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기타	계
전 체		19.5	3.6	1.4	0.8	1.0	0.0	100.0
성별	남성	19.7	4.0	1.2	0.7	0.7	0.0	100.0
	여성	19.3	3.0	1.6	1.0	1.4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19.6	3.6	1.3	0.4	0.7	0.0	100.0
	뇌병변	19.7	2.8	2.1	0.7	0.6	0.0	100.0
	시각	24.2	2.4	2.9	0.9	1.2	0.0	100.0
	청각/언어	18.3	3.7	0.6	1.1	1.3	0.0	100.0
	지적/자폐성	20.0	5.3	1.8	1.2	0.5	0.0	100.0
	정신	19.2	1.6	1.1	0.7	2.4	0.3	100.0
	내부/안면	18.9	4.0	1.2	0.5	1.1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20.2	3.8	1.7	0.7	0.9	0.0	100.0
	경증	19.2	3.4	1.2	0.8	1.1	0.0	100.0

(3) 괴롭힘(폭력) 및 차별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을 살펴보면, '(1) 언어 및 정서적 학대'의 경험이 4.4%로 가장 높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 경제적 착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0.6%로 나타났고, 여성은 0.2%로 나타났다.

〈표 Ⅴ-6-14〉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언어 및 정서적 학대 (예, 따돌림, 무시)	(2) 신체적 폭력 (학대)	(3) 성희롱, 성적 폭력	(4) 방임 및 유기	(5) 경제적 착취	(6) 종교적 폭력/ 강요	통합 비율
전 체		(251,277)	**4.4**	0.5	0.3	0.2	0.4	0.1	4.7
성별	남성	(142,540)	4.4	0.5	0.2	0.2	**0.6**	0.2	4.7
	여성	(108,737)	4.4	0.5	0.4	0.2	0.2	0.0	4.7

주1) '예' 와 '아니오' 중 '예' 의 응답 비율로 표기함

지난조사 이후 괴롭힘이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살펴보면, 언어 및 정서적 학대가 3.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신체적 폭력이 0.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

우 '(1) 언어 및 정서적 학대(예, 따돌림, 무시)'를 목격했다고 경험한 비율은 3.6%, 여성의 경우 2.5%로 조사되었다.

〈표 V-6-15〉 지난조사 이후 괴롭힘이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 언어 및 정서적 학대 (예, 따돌림, 무시)	(2) 신체적 폭력 (학대)	(3) 성희롱, 성적 폭력	(4) 방임 및 유기	(5) 경제적 착취	(6) 종교적 폭력/강요	통합 비율
전 체		(251,277)	3.1	0.8	0.4	0.4	0.3	0.2	3.7
성별	남성	(142,540)	3.6	0.9	0.4	0.5	0.3	0.2	4.2
	여성	(108,737)	2.5	0.6	0.3	0.2	0.3	0.2	3.1

주1) '예' 와 '아니오' 중 '예' 의 응답 비율로 표기함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한하여 괴롭힘이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친구/지인/동료'가 3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외 주변 이웃(29.0%), 모르는 사람(19.4%), 배우자(8.4%), 부모(6.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친구/지인/동료'라고 응답한 비율이 41.6%로 여성(23.0%)에 비해 높았던 반면, 여성은 '배우자'를 선택한 비율이 15.0%로 남성(3.5%)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지폐성 장애는 '친구/지인/동료' 비율이 46.6%, 지체 장애는 '그 외 주변 이웃'비율이 42.1%, 뇌병변 장애 및 내부/안면 장애는 '모르는 사람' 비율이 각각 38.4%로 가장 높았다. 한편 정신 장애는 배우자(19.4%), 지적/자폐성 장애는 부모(13.2%) 응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정도별로 보면, 중증 장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이 22.0%로, 경증 장애(16.7%) 대비 높게 나타났고, 경증 장애의 경우 '그 외 주변 이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4%로 중증 장애(25.7%) 보다 높다.

〈표 V-6-16〉 폭력을 행사한 사람(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그 외 가족구성원	친구/지인/동료	그 외 주변 이웃 (친구/지인/동료 제외)	모르는 사람	계
전 체		(11,758)	6.1	8.4	1.2	2.3	33.5	29.0	19.4	100.0
성별	남성	(6,679)	6.5	3.5	1.4	1.5	41.6	25.5	20.0	100.0
	여성	(5,079)	5.5	15.0	0.9	3.4	23.0	33.6	18.6	100.0

구 분		추정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그 외 가족구성원	친구/지인/동료	그 외 주변 이웃 (친구/지인/동료 제외)	모르는 사람	계
장애 유형	지체	(1,084)	2.6	9.8	2.3	0.0	23.1	**42.1**	20.0	100.0
	뇌병변	(1,702)	1.1	17.2	0.0	3.7	10.3	29.2	**38.4**	100.0
	시각	(534)	5.2	4.8	0.0	0.0	34.8	40.6	14.6	100.0
	청각/언어	(3,971)	4.8	7.5	0.2	4.1	39.6	28.7	15.2	100.0
	지적/자폐성	(3,193)	**13.2**	1.9	0.9	0.0	**46.6**	26.3	11.1	100.0
	정신	(694)	2.6	**19.4**	5.4	4.3	30.8	15.6	21.9	100.0
	내부/안면	(580)	2.7	12.8	7.8	2.7	10.1	25.5	**38.4**	100.0
장애 정도	중증	(6,043)	8.4	9.3	2.3	0.7	31.7	25.7	22.0	100.0
	경증	(5,715)	3.7	7.5	0.1	4.0	35.5	32.4	16.7	100.0

주1)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에 하나라도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괴롭힘이나 폭력을 경험한 빈도를 살펴보면, '1년에 1-2회 정도'가 51.6%로 가장 높았으며, 1개월에 1-2회 정도(20.9%), 3개월에 1-2회 정도(20.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1개월에 1-2회 정도'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22.2%로 여성(19.2%) 보다 높았던 반면, '3개월에 1-2회 정도' 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여성(22.4%)이 남성(19.4%)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Ⅴ-6-17〉 폭력 경험 빈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년에 1-2회 정도	3개월에 1-2회 정도	1개월에 1-2회 정도	1주일에 1회 정도	1주일에 2-3회 정도	1주일에 4회 이상	계
전 체		(11,758)	51.6	20.7	20.9	2.2	2.5	2.2	100.0
성별	남성	(6,679)	50.8	19.4	22.2	2.5	2.5	2.6	100.0
	여성	(5,079)	52.6	22.4	19.2	1.8	2.4	1.6	100.0

주1)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에 하나라도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괴롭힘이나 폭력 경험 시 대처 유형을 살펴보면, '참았다'는 응답이 7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즉각 말로 제지하거나 항의했다(15.5%),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알렸다(6.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참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1.4%로 남성(69.7%)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에서 '참았다'는 응답이 86.3%로 높게 나타났고, 내부/안면 장애의 응답은 57.8%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참았다'는 응답은 84.7%로 중증 장애(65.4%)보다 높다.

〈표 V-6-18〉 폭력 경험 대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참았다	즉각 말로 제지 하거나 항의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알렸다	사회복지 시설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 기관에 신고했다	계
전 체		(11,758)	**74.8**	15.5	6.9	1.1	1.8	100.0
성별	남성	(6,679)	69.7	17.1	10.3	1.2	1.7	100.0
	여성	(5,079)	**81.4**	13.3	2.4	0.9	2.0	100.0
장애 유형	지체	(1,084)	79.7	16.6	2.5	1.2	0.0	100.0
	뇌병변	(1,702)	80.0	11.1	2.4	3.7	2.7	100.0
	시각	(534)	80.0	9.2	10.8	0.0	0.0	100.0
	청각/언어	(3,971)	**86.3**	10.9	2.2	0.7	0.0	100.0
	지적/자폐성	(3,193)	59.7	**23.1**	16.2	0.0	0.9	100.0
	정신	(694)	67.9	**21.6**	3.8	3.2	3.6	100.0
	내부/안면	(580)	**57.8**	13.7	8.5	0.0	20.0	100.0
장애 정도	중증	(6,043)	65.4	20.0	10.4	0.6	3.6	100.0
	경증	(5,715)	**84.7**	10.6	3.1	1.6	0.0	100.0

주1) 괴롭힘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에 하나라도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괴롭힘이나 폭력 목격 시 대처 유형을 살펴보면, '모른척 했다(끼어들고 싶지 않아서)'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참았다(항의하거나 도움을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는 응답이 40.0%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모른척했다'는 응답 비율은 44.3%로 가장 높으며, 여성의 경우 참았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다.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 장애에서는 '참았다'는 응답 비율이 52.0%로 가장 많고, 정신 장애에서는 '모른척했다'는 응답 비율이 63.8%로 가장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참았다는 응답이 35.7%로 경증 장애(43.2%) 보다 낮다.

〈표 V-6-19〉 폭력 목격 대처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참았다 (항의 하거나 도움을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모른척 했다 (끼어 들고 싶지 않아서)	즉각 말로 제지 하거나 항의했다	가족, 친구, 이웃에게 알렸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을 요청했다	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기관에 신고했다	계
전 체		(9,404)	**40.0**	**42.5**	12.8	2.5	0.8	1.3	100.0
성별	남성	(6,010)	38.4	**44.3**	11.3	3.0	1.3	1.7	100.0
	여성	(3,394)	**42.9**	39.4	15.5	1.5	0.0	0.7	100.0

구 분		추정수	참았다 (항의 하거나 도움을 청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모른척 했다 (끼어 들고 싶지 않아서)	즉각 말로 제지 하거나 항의했 다	가족, 친구, 이웃에 게 알렸다	사회복 지시설 에 지원을 요청했 다	경찰서, 국가인 권위원 회 등 공공기 관에 신고했 다	계
장애 유형	지체	(1,409)	40.7	49.2	5.4	2.0	0.9	1.9	100.0
	뇌병변	(1,925)	43.0	38.7	13.7	1.3	3.3	0.0	100.0
	시각	(789)	**52.0**	23.0	17.0	0.6	0.0	7.4	100.0
	청각/언어	(2,340)	41.6	46.0	10.7	1.7	0.0	0.0	100.0
	지적/자폐성	(1,534)	42.1	37.6	12.4	7.9	0.0	0.0	100.0
	정신	(574)	25.8	**63.8**	3.6	2.5	0.0	4.3	100.0
	내부/안면	(832)	22.2	43.5	32.4	0.0	0.0	2.0	100.0
장애 정도	중증	(3,975)	35.7	42.6	16.5	3.5	0.3	1.4	100.0
	경증	(5,429)	**43.2**	42.5	10.1	1.7	1.2	1.3	100.0

주1) 괴롭힘이나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하나라도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인 중 여성 장애인이 더 차별을 겪는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42.5%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49.6%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37.1%로 상대적으로 낮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에서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51.2%로 나타났고, 지체 장애에서는 37.7%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중증 장애의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44.1%로 경증 장애(41.5%) 보다 낮다.

〈표 Ⅴ-6-20〉 장애인 여성으로 차별 받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5.6	52.0	40.4	2.1	57.5	**42.5**	100.0
성별	남성	(142,540)	6.6	56.3	35.7	1.3	62.9	37.1	100.0
	여성	(108,737)	4.2	46.3	46.5	3.0	50.4	**49.6**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5.2	57.0	36.7	1.1	62.3	**37.7**	100.0
	뇌병변	(42,177)	6.9	50.6	40.3	2.2	57.5	42.5	100.0
	시각	(21,557)	5.2	52.3	41.3	1.2	57.5	42.5	100.0
	청각/언어	(73,818)	5.5	50.5	41.1	2.9	56.0	44.0	100.0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지적/자폐성	(23,852)	4.6	48.4	43.7	3.3	53.0	47.0	100.0
	정신	(8,894)	4.9	43.9	49.1	2.1	48.8	**51.2**	100.0
	내부/안면	(31,447)	5.5	54.1	39.2	1.2	59.6	40.4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4.9	51.1	41.9	2.2	55.9	44.1	100.0
	경증	(158,661)	6.0	52.5	39.6	2.0	58.5	41.5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12) 인권증진 및 웰다잉

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을 살펴보면,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가 42.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26.9%),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강화(10.4%), 장애인의 인권홍보 강화(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로 여성(26.1%)에 비해 높은 반면, '장애인 차별금지 법과 같은 법률 강화'에 대해서는 여성(11.7%)이 남성(9.4%)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각각 29.9%)는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지체 장애(44.4%)의 경우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응답은 28.0%로 경증 장애(26.2%)보다 높은 반면,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응답은 경증 장애(4.2%)가 중증 장애(2.4%) 대비 높다.

〈표 V-6-21〉 인권증진 강화되어야 할 부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의 인권홍보 강화	장애인 폭력 전문 상담센터 구축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	장애인 차별금지 법과 같은 법률 강화	없음	계
전 체		(251,277)	26.9	**42.8**	10.3	6.1	3.5	10.4	0.0	100.0
성별	남성	(142,540)	**27.5**	43.2	10.2	6.2	3.6	9.4	0.0	100.0
	여성	(108,737)	26.1	42.3	10.3	6.1	3.5	**11.7**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28.0	**44.4**	6.9	6.4	4.3	10.1	0.0	100.0
	뇌병변	(42,177)	28.4	41.8	11.0	5.0	2.7	11.0	0.0	100.0
	시각	(21,557)	23.5	43.4	11.3	6.1	5.1	10.5	0.0	100.0

구 분		추정수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의 인권홍보 강화	장애인 폭력 전문 상담센터 구축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	장애인 차별금지 법과 같은 법률 강화	없음	계
	청각/언어	(73,818)	24.0	42.4	12.2	7.4	3.7	10.4	0.0	100.0
	지적/자폐성	(23,852)	**29.9**	41.8	9.4	6.3	3.1	9.4	0.0	100.0
	정신	(8,894)	26.2	43.9	9.1	4.5	3.3	13.0	0.0	100.0
	내부/안면	(31,447)	**29.9**	42.4	10.3	4.7	2.6	10.0	0.1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28.0	43.5	10.4	5.4	2.4	10.3	0.0	100.0
	경증	(158,661)	26.2	42.4	10.2	6.6	4.2	10.5	0.0	100.0

마지막으로 자신의 회복가능성이 없는 경우일 때 웰다잉 혹은 안락사 선택 의향에 대해 살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63.2%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웰다잉 혹은 안락사를 선택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비율(③+④)이 64.3%로 남성(62.4%)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에서는 '그렇다'는 응답(③+④)이 각각 66.3%, 66.2%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적/자폐성 장애에서는 51.6%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인다. 경증 장애의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65.3%로 중증 장애(59.7%) 보다 높다.

〈표 Ⅴ-6-22〉 웰다잉 혹은 안락사 선택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251,277)	8.5	28.3	53.2	10.0	36.8	**63.2**	100.0
성별	남성	(142,540)	9.3	28.3	53.2	9.2	37.6	62.4	100.0
	여성	(108,737)	7.6	28.2	53.1	11.1	35.7	**64.3**	100.0
장애 유형	지체	(49,532)	8.4	25.3	52.9	13.4	33.7	**66.3**	100.0
	뇌병변	(42,177)	7.8	29.4	53.6	9.3	37.2	62.8	100.0
	시각	(21,557)	8.2	26.3	55.0	10.4	34.5	65.5	100.0
	청각/언어	(73,818)	7.8	28.2	54.5	9.5	36.0	64.0	100.0
	지적/자폐성	(23,852)	15.0	33.4	47.6	3.9	48.4	**51.6**	100.0
	정신	(8,894)	9.9	33.4	51.6	5.0	43.4	56.6	100.0
	내부/안면	(31,447)	6.4	27.4	53.4	12.8	33.8	**66.2**	100.0
장애 정도	중증	(92,616)	9.7	30.7	51.3	8.4	40.3	59.7	100.0
	경증	(158,661)	7.9	26.9	54.3	11.0	34.7	65.3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3) 결혼생활 및 성

(1) 혼인상태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결혼' 상태가 58.3%로 가장 높았으며, 이혼(15.3%), 미혼(14.6%), 사별(10.3%), 별거(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미혼'이 18.8%, 여성의 경우 사별이 18.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와 정신 장애에서 미혼인 상태가 각각 57.5%, 58.3%로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미혼' 응답이 26.9%로 경증(8.0%) 보다 높다.

〈표 Ⅴ-6-23〉 혼인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미혼	결혼	이혼	별거	사별	계
전 체		(229,491)	14.6	**58.3**	15.3	1.5	10.3	100.0
성별	남성	(129,035)	**18.8**	58.9	16.7	1.5	4.2	100.0
	여성	(100,456)	9.2	57.5	13.5	1.6	**18.3**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7.9	66.5	13.5	1.5	10.5	100.0
	뇌병변	(38,713)	11.8	63.0	15.8	1.2	8.2	100.0
	시각	(20,378)	13.3	53.8	17.0	1.9	14.0	100.0
	청각/언어	(67,431)	6.8	62.9	15.0	1.0	14.3	100.0
	지적/자폐성	(15,667)	**57.5**	29.1	7.9	2.1	3.4	100.0
	정신	(8,738)	**58.3**	19.7	13.3	1.7	7.1	100.0
	내부/안면	(30,926)	12.2	58.2	21.0	2.6	6.1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26.9**	49.2	15.1	2.2	6.5	100.0
	경증	(149,583)	8.0	63.1	15.3	1.1	12.4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만 대상으로 물음

혼인상태를 '미혼'으로 응답한 응답자에 한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결혼 시기가 되지 않아'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장애 이외의 건강 문제로 인해(16.4%),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음(1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8%로 남성(12.6%)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결혼시기가 되지 않아'라는 응답 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정신 장애에서는 '장애 이외의 건강 문제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23.6%로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 이외의 건강 문제로 인해'에 대한 응답 비율이 19.5%로 경증(10.9%)에 비해 높다.

〈표 Ⅴ-6-24〉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결혼시기가 되지 않아	장애 이외의 건강문제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음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경제적 어려움(생활비, 결혼자금 마련)
전 체		(33,487)	26.3	16.4	16.3	14.9	10.9
성별	남성	(24,200)	26.7	15.5	15.9	12.6	14.0
	여성	(9,286)	25.4	19.0	17.3	20.8	2.8
장애유형	지체	(3,782)	29.3	10.7	12.6	12.9	21.3
	뇌병변	(4,551)	17.1	14.3	14.6	11.4	7.6
	시각	(2,703)	22.9	8.7	9.6	26.1	13.8
	청각/언어	(4,583)	22.6	8.8	18.5	22.1	17.1
	지적/자폐성	(9,008)	45.8	17.5	19.9	7.1	4.4
	정신	(5,096)	9.2	26.4	23.9	17.7	10.9
	내부/안면	(3,763)	18.1	23.6	5.1	19.4	10.5
장애정도	중증	(21,513)	27.2	19.5	17.5	12.9	8.7
	경증	(11,975)	24.8	10.9	14.0	18.6	14.8

구 분		결혼시기를 놓쳐서	가족 등 주위의 반대로	직장과 경력을 위해서	기타	없음	계
전 체		12.2	0.4	0.5	1.9	0.1	100.0
성별	남성	12.6	0.3	0.7	1.7	0.1	100.0
	여성	11.1	0.9	0.0	2.4	0.3	100.0
장애유형	지체	11.8	0.0	0.0	.8	0.5	100.0
	뇌병변	30.8	0.0	1.7	2.0	0.7	100.0
	시각	17.0	0.0	0.8	1.1	0.0	100.0
	청각/언어	10.3	0.0	0.0	0.6	0.0	100.0
	지적/자폐성	1.5	0.6	0.7	2.5	0.0	100.0
	정신	7.2	1.6	0.0	3.3	0.0	100.0
	내부/안면	21.4	0.5	0.0	1.5	0.0	100.0
장애정도	중증	10.6	0.6	0.3	2.6	0.1	100.0
	경증	15.1	0.1	0.8	.5	0.3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미혼'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또한 향후 결혼을 할 의향에 대해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③+④)은 42.8%로 나타났고,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결혼 의향이 44.9%로 여성(36.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25〉 향후 결혼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는 편이다	③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있다	①+②	③+④	모르겠다	계
전 체		(33,487)	21.2	32.2	29.2	13.6	53.4	42.8	3.9	100.0
성별	남성	(24,201)	19.3	32.7	29.2	15.7	52.0	44.9	3.0	100.0
	여성	(9,286)	26.0	30.9	28.9	8.0	56.9	36.9	6.2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미혼'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전혀 없다' 부터 '매우 있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계속해서 지난조사 이후 혼인상태에 대해 이혼, 별거, 사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1.1%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이혼, 별거, 사별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1.9%로 남성(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26〉 지난조사 이후 이혼, 별거, 사별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133,736)	1.1	98.9	100.0
성별	남성	(76,014)	0.5	99.5	100.0
	여성	(57,720)	1.9	98.1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결혼'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이혼 또는 별거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이혼, 별거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별'이 60.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성격 차이(26.1%), 경제적 이유(10.3%), 장애/질병으로 인해(2.1%), 외도(1.2%) 등이 뒤를 이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은 '사별'을 이유로 이혼/별거했다는 응답이 75.9%이고, 남성의 경우 '성격 차이' 또는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1.9%, 23.4%로 나타났다.

〈표 V-6-27〉 지난조사 이후 이혼/별거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이유 (주거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	성격차이	외도	장애/ 질병으로 인해	사별	계
전 체		(1,066)	10.3	26.1	1.2	2.1	**60.2**	100.0
성별	남성	(326)	**23.4**	**51.9**	0.0	0.0	24.7	100.0
	여성	(740)	4.6	14.8	1.7	3.0	**75.9**	100.0

주1) 이혼, 별거, 사별 경험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경제적 이유' 는 주거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함

지난조사 이후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후 힘들었던 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가 5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외로움(25.2%), 주위의 시선(7.6%),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5.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외로움', 여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표 Ⅴ-6-28〉 지난조사 이후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한 후 힘들었던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문제	외로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	주위의 시선	기타	계
전 체		(1,066)	**55.6**	25.2	5.5	7.6	6.1	100.0
성별	남성	(326)	5.0	**70.3**	0.0	24.7	0.0	100.0
	여성	(740)	**77.9**	5.4	7.9	0.0	8.8	100.0

주1) 이혼, 별거, 사별 경험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현재 혼인상태를 결혼으로 응답한 응답자 중 이혼, 별거, 사별을 경험한 적 있는 경우 재혼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예'라는 응답 비율은 96.3%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 재혼 응답 비율은 100.0%로 여성(94.6%) 보다 높다.

〈표 Ⅴ-6-29〉 현재 혼인상태의 재혼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1,066)	**96.3**	3.7	100.0
성별	남성	(326)	**100.0**	0.0	100.0
	여성	(740)	94.6	5.4	100.0

주1) 이혼, 별거, 사별 경험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재혼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58.7%),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26.8%), 이혼가정이라는 주위의 시선이 싫어서(13.3%), 상대가 원해서(1.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라는 응답은 83.7%, 남성은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70.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표 Ⅴ-6-30〉 재혼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예. 주거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이혼가정이라는 주위의 시선이 싫어서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	상대(현재 배우자)가 원해서	계
전 체		(1,026)	58.7	13.3	26.8	1.3	100.0
성별	남성	(326)	5.0	24.7	70.3	0.0	100.0
	여성	(700)	83.7	8.0	6.5	1.8	100.0

주1) 현재 혼인상태의 재혼 여부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는 주거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포함함

계속해서 현재 혼인상태가 이혼, 별거인 이유는 '사별'이 3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성격 차이(26.6%), 경제적 이유(21.3%), 장애/질병으로 인해(4.4%), 외도(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적 이유'응답이 33.5%로 여성 대비 22.%p 높고, 여성은 '사별'이 55.1%로 남성(18.9%)보다 36.2%p 격차를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는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사별'이 47.3%로 가장 높고, 내부/안면 장애는 '성격차이'가 35.5%로 가장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사별' 응답이 43.2%로 가장 높고, 중증 장애의 경우' 성격 차이'가 2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6-31〉 현재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인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이유 (주거비,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	성격차이	외도	폭언이나 폭행
전 체		(62,268)	21.3	26.6	3.8	3.3
성별	남성	(28,818)	33.5	36.2	1.9	.5
	여성	(33,452)	10.9	18.4	5.3	5.6
장애 유형	지체	(12,164)	18.6	28.8	3.8	2.8
	뇌병변	(9,771)	25.7	24.9	6.8	2.1
	시각	(6,719)	17.5	26.2	0.7	2.6
	청각/언어	(20,431)	20.0	24.1	3.5	2.6
	지적/자폐성	(2,092)	22.0	14.4	3.5	18.7
	정신	(1,923)	10.5	21.5	5.5	12.7
	내부/안면	(9,167)	28.4	35.5	2.9	1.5
장애 정도	중증	(19,058)	22.7	29.5	4.1	5.4
	경증	(43,211)	20.8	25.4	3.6	2.3

구 분		집안사람들과 갈등	장애/질병으로 인해	사별	기타	계
전 체		1.3	4.4	38.3	1.0	100.0
성별	남성	1.9	5.7	18.9	1.5	100.0
	여성	0.8	3.3	55.1	0.5	100.0
장애 유형	지체	1.0	2.4	41.2	1.4	100.0
	뇌병변	1.6	4.1	33.2	1.6	100.0
	시각	1.7	5.2	43.5	2.7	100.0
	청각/언어	0.5	2.1	47.3	0.0	100.0
	지적/자폐성	3.2	12.8	25.4	0.0	100.0
	정신	1.4	16.3	32.1	0.0	100.0
	내부/안면	2.5	7.6	20.6	1.0	100.0
장애 정도	중증	2.1	8.5	27.3	0.5	100.0
	경증	1.0	2.6	43.2	1.2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이혼' 또는 '별거' 또는 '사별'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경제적 이유' 는 주거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함

현재의 혼인상태가 이혼, 별거, 사별임으로 인해 현재 가장 힘든 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가 57.6%로 가장 높으며, 외로움(19.5%), 자녀 교육/양육 문제(12.2%),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8.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경제적 문제'를 응답한 비율은 39.9%로 남성(43.4%)과 26.5%p 차이를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모든 유형에서 '경제적 문제'가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문제'가 중증장애 55.4%, 경증장애 5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Ⅴ-6-32〉 현재의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임으로 인해 현재 가장 힘든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문제	자녀 교육/양육 문제	외로움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	주위의 시선	기타	계
전 체		(62,268)	57.6	12.2	19.5	8.2	1.4	1.0	100.0
성별	남성	(28,818)	43.4	18.9	25.9	10.0	1.5	0.3	100.0
	여성	(33,450)	69.9	6.4	14.0	6.6	1.4	1.7	100.0
장애 유형	지체	(12,164)	65.4	7.6	15.5	8.5	2.3	0.7	100.0
	뇌병변	(9,771)	58.9	6.3	23.8	9.3	1.0	0.7	100.0
	시각	(6,720)	57.4	10.5	21.4	5.8	1.5	3.4	100.0
	청각/언어	(20,431)	53.9	16.5	20.1	8.1	.8	0.7	100.0
	정신	(2,093)	52.4	29.2	10.3	6.9	1.2	0.0	100.0
	내부/안면	(1,924)	59.2	9.3	11.0	19.2	1.4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9,168)	55.4	13.1	21.7	6.4	2.1	1.2	100.0
	경증	(19,058)	57.0	12.2	18.5	9.6	1.8	0.9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이혼' 또는 '별거' 또는 '사별'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혼인상태가 이혼, 별거, 사별인 경우에 재혼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재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6.6%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재혼 의향이 9.7%로 여성(4.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33〉 재혼 의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62,268)	6.6	93.4	100.0
성별	남성	(28,817)	9.7	90.3	100.0
	여성	(33,450)	4.0	96.0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이혼' 또는 '별거' 또는 '사별'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재혼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혼 의향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라는 응답 비율이 2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부모 자녀로 된 가족을 원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20.7%로 여성(0.0)에 비해 20.7%p 더 높다. 또한 여성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라는 응답 비율이 68.1% 가장 높고 이는 남성(10.6)보다 57.5%p 격차를 보인다.

〈표 V-6-34〉 재혼 의향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예. 주거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해서	이혼가정이라는 주위의 시선이 싫어서	보다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위해서	전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극복을 위해
전 체		(4,126)	29.2	12.6	3.9	28.6	0.2
성별	남성	(2,789)	10.6	17.1	5.6	28.6	0.3
	여성	(1,337)	68.1	3.0	.3	28.6	0.0
구 분		자녀와 관계회복을 위해	부모, 자녀로 된 가족을 원해서	상대(현재 배우자)가 원해서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기타	계
전 체		3.5	14.0	3.2	2.7	2.2	100.0
성별	남성	5.2	20.7	4.7	3.9	3.3	100.0
	여성	0.0	0.0	0.0	0.0	0.0	100.0

주1) 재혼 의향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는 주거비,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포함함

(2) 출산 및 자녀

혼인상태가 '미혼'인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자녀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94.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4.9%)이 여성(93.5%) 대비 자녀가 '있는' 비율이 소폭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에서 '자녀 있음' 응답이 95.4%로 가장 높았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의 경우 '자녀 있는' 비율이 94.6%로 중증(93.5%)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6-35〉 자녀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96,004)	**94.2**	5.8	100.0
성별	남성	(104,834)	**94.9**	5.1	100.0
	여성	(91,171)	93.5	6.5	100.0
장애 유형	지체	(43,855)	95.0	5.0	100.0
	뇌병변	(34,162)	**95.4**	4.6	100.0
	시각	(17,675)	94.7	5.3	100.0
	청각/언어	(62,848)	93.8	6.2	100.0
	지적/자폐성	(6,658)	88.8	11.2	100.0
	정신	(3,643)	87.0	13.0	100.0
	내부/안면	(27,163)	94.4	5.6	100.0
장애 정도	중증	(58,396)	93.5	6.5	100.0
	경증	(137,608)	**94.6**	5.4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미혼'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시험관/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가 '있는' 비율은 1.1%로 조사되었다.

〈표 Ⅴ-6-36〉 자녀 임신형태(시험관/인공수정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84,719)	1.1	98.9	100.0
성별	남성	(99,440)	1.3	98.7	100.0
	여성	(85,279)	0.9	99.1	100.0

주1) 자녀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 경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출산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9.1%로 조사되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한 적이 '있는' 비율은 11.6%로 남성(7.0%)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28.3%는 장애 발생 이후 출산을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의 경우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 경험은 9.9%로 중증 장애(7.2%) 보다 높다.

〈표 V-6-37〉 장애 발생 이후 자녀 출산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184,719)	**9.1**	90.9	100.0
성별	남성	(99,440)	7.0	93.0	100.0
	여성	(85,279)	**11.6**	88.4	100.0
장애 유형	지체	(41,683)	4.0	96.0	100.0
	뇌병변	(32,606)	2.4	97.6	100.0
	시각	(16,743)	14.8	85.2	100.0
	청각/언어	(58,963)	15.7	84.3	100.0
	지적/자폐성	(5,911)	**28.3**	71.7	100.0
	정신	(3,170)	8.0	92.0	100.0
	내부/안면	(25,644)	3.0	97.0	100.0
장애 정도	중증	(54,582)	7.2	92.8	100.0
	경증	(130,137)	**9.9**	90.1	100.0

주1) 자녀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음으로 장애가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1.4%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장애가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친다' 응답은 1.8%로 남성(1.1%) 보다 높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에서 장애가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가 자녀계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은 2.1%로 경증 장애(1.1%)보다 높다.

〈표 V-6-38〉 장애가 자녀계획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184,719)	**1.4**	98.6	100.0
성별	남성	(99,440)	1.1	98.9	100.0
	여성	(85,279)	**1.8**	98.2	100.0
장애	지체	(41,683)	1.3	98.7	100.0

유형	뇌병변	(32,606)	1.2	98.8	100.0
	시각	(16,743)	2.0	98.0	100.0
	청각/언어	(58,963)	0.9	99.1	100.0
	지적/자폐성	(5,911)	2.8	97.2	100.0
	정신	(3,170)	3.6	96.4	100.0
	내부/안면	(25,644)	2.1	97.9	100.0
장애 정도	중증	(54,582)	2.1	97.9	100.0
	경증	(130,137)	1.1	98.9	100.0

주1) 자녀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향후 자녀 계획을 살펴보면, '낳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98.2%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6-39〉 향후 자녀 계획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낳을 예정이다	낳지 않을 것이다	모르겠다	계
전 체		(196,004)	0.5	98.2	1.3	100.0
성별	남성	(104,834)	0.5	98.2	1.3	100.0
	여성	(91,171)	0.5	98.2	1.3	100.0

주1) 자녀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많아서'가 79.2%로 가장 높으며, 그다음으로 '이미 계획한 수의 아이를 낳아서'가 16.0%로 높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은 78.2%로 여성(80.4%) 보다 낮았던 한편, '이미 계획한 수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은 남성(17.2%)이 여성(14.5%) 대비 높은 비율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에서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이 84.4%로 가장 높았던 한편,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이미 계획한 수의 아이를 낳아서'라는 응답이 36.3%로 타 장애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중증 장애의 경우 나이가 많아서라는 응답 비율은 73.0%로 경증 장애(81.8%)보다 낮다.

〈표 V-6-40〉 자녀를 더 낳지 않으려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나이가 많아서	이미 계획한 수의 아이를 낳아서	장애로 인해 낳고 키우는데 힘이 들어서	건강상의 이유로	여가/개인 시간을 더 갖기 위하여
전 체		(192,480)	**79.2**	16.0	2.6	1.1	0.1
성별	남성	(102,980)	78.2	17.2	2.7	0.9	0.2
	여성	(89,500)	80.4	14.5	2.6	1.2	0.0
장애 유형	지체	(42,903)	79.1	17.3	1.8	0.3	0.0
	뇌병변	(33,665)	74.6	17.6	4.9	1.8	0.2
	시각	(17,183)	81.4	15.2	2.4	0.3	0.0
	청각/언어	(62,149)	**84.4**	12.2	1.4	0.8	0.0
	지적/자폐성	(6,450)	54.6	**36.3**	6.7	1.3	1.2
	정신	(3,535)	73.8	14.6	5.6	3.5	0.0
	내부/안면	(26,594)	78.2	16.2	2.8	2.0	0.2
장애 정도	중증	(57,053)	73.0	19.0	5.0	1.8	0.2
	경증	(135,427)	**81.8**	14.7	1.7	0.7	0.0

구 분		자녀의 장애여부가 걱정되어	자녀 교육/양육 비용 때문에	직장/학업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들어서	양육도움/가사지원 등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기타	없음	계
전 체		0.3	0.3	0.0	0.0	0.2	0.2	100.0
성별	남성	0.3	0.1	0.1	0.0	0.1	0.3	100.0
	여성	0.4	0.4	0.0	0.0	0.4	0.1	100.0
장애 유형	지체	0.6	0.1	0.0	0.0	0.6	0.1	100.0
	뇌병변	0.1	0.4	0.0	0.0	0.4	0.0	100.0
	시각	0.2	0.2	0.1	0.0	0.1	0.0	100.0
	청각/언어	0.3	0.3	0.1	0.0	0.0	0.4	100.0
	지적/자폐성	0.0	0.0	0.0	0.0	0.0	0.0	100.0
	정신	0.7	0.0	0.0	1.3	0.6	0.0	100.0
	내부/안면	0.1	0.4	0.0	0.0	0.0	0.2	100.0
장애 정도	중증	0.1	0.3	0.1	0.1	0.3	0.1	100.0
	경증	0.4	0.2	0.0	0.0	0.2	0.2	100.0

주1) 향후 자녀 계획 '낳지 않을 것이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여부에 대해 임신 경험이 '있는' 비율은 0.4%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패널의 임신 경험 비율은 0.6%로 남성(0.2%)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에서는 임신 경험이 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 장애의 경우 임신 경험은 0.5%로 중증 장애(0.2%) 보다 높다.

〈표 Ⅴ-6-41〉 지난조사 이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96,004)	0.4	99.6	100.0
성별	남성	(104,834)	0.2	99.8	100.0
	여성	(91,171)	0.6	99.4	100.0
장애 유형	지체	(43,855)	0.5	99.5	100.0
	뇌병변	(34,162)	0.3	99.7	100.0
	시각	(17,675)	0.2	99.8	100.0
	청각/언어	(62,848)	0.3	99.7	100.0
	지적/자폐성	(6,658)	0.3	99.7	100.0
	정신	(3,643)	0.0	100.0	100.0
	내부/안면	(27,163)	0.7	99.3	100.0
장애 정도	중증	(58,396)	0.2	99.8	100.0
	경증	(137,608)	0.5	99.5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미혼' 응답한 자를 제외하고 물음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사의 어려움'이 46.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20.3%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가사의 어려움(64.2%), 여성은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28.5%)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에서 '가사의 어려움' 응답이 100.0%,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높은 병원비 부담'이 100.0%, 시각 장애는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86.2%, 청각/언어 장애는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7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증 장애의 경우 '가사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 비율은 53.1%로 중증 장애(10.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42〉 임신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점(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가사의 어려움	출산과 정에 대한 두려움	장애아 출산에 대한 두려움	자녀양육에 대한 두려움	높은 병원비 부담	없음	계
전 체		(747)	**46.4**	10.0	20.3	3.1	10.9	9.3	100.0
성별	남성	(240)	**64.2**	0.0	3.0	0.0	3.9	28.8	100.0
	여성	(507)	38.0	14.8	**28.5**	4.6	14.2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206)	43.7	23.5	0.0	9.2	23.6	0.0	100.0
	뇌병변	(87)	**100.0**	0.0	0.0	0.0	0.0	0.0	100.0
	시각	(31)	0.0	**86.2**	0.0	13.8	0.0	0.0	100.0
	청각/언어	(199)	22.8	0.0	**72.5**	0.0	4.7	0.0	100.0
	지적/자폐성	(23)	0.0	0.0	0.0	0.0	**100.0**	0.0	100.0
	내부/안면	(200)	61.8	0.0	3.6	0.0	0.0	34.5	100.0
장애 정도	중증	(116)	10.3	0.0	6.3	3.7	20.0	59.7	100.0
	경증	(631)	**53.1**	11.9	22.9	3.0	9.2	0.0	100.0

주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은 9.6%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4.2%로 남성(0.0%) 보다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각 장애에서는 교육 경험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증 장애의 경우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은 11.4%로 중증 장애(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43〉 지난조사 이후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747)	**9.6**	90.4	100.0
성별	남성	(240)	0.0	100.0	100.0
	여성	(507)	14.2	85.8	100.0
장애 유형	지체	(206)	0.0	100.0	100.0
	뇌병변	(87)	0.0	100.0	100.0
	시각	(31)	**86.2**	13.8	100.0
	청각/언어	(199)	22.8	77.2	100.0
	지적/자폐성	(23)	0.0	100.0	100.0
	내부/안면	(200)	0.0	100.0	100.0
장애 정도	중증	(116)	0.0	100.0	100.0
	경증	(631)	**11.4**	88.6	100.0

주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다음으로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유형으로는 '임신 중 태교 교실'이 100.0%로 가장 높으며, 두 번째로 '임산부 요가 등 건강교실'이 63.2%로 나타났다.

〈표 Ⅴ-6-44〉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유형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임신 중 태교(음악 등) 교실	임산부 요가 등 건강교실
전 체		(72)	**100.0**	63.2
성별	남성	(0)	-	-
	여성	(72)	100.0	63.2

주1)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장소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원'이 63.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인터넷(36.8%)이 두 번째로 높다.

〈표 Ⅴ-6-45〉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장소(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병원	인터넷	계
전 체		(72)	**63.2**	36.8	100.0
성별	남성	(0)	-	-	-
	여성	(72)	63.2	36.8	100.0

주1) 임신, 출산, 육아 관련 교육 경험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 조사 이후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이용한 경험 있음'이 59.6%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패널(72.3%)이 남성(32.9%) 대비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6-46〉 지난조사 이후 산후조리원 이용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이용한 경험 없음	이용한 경험 있음	계
전 체		(747)	40.4	**59.6**	100.0
성별	남성	(240)	67.1	32.9	100.0
	여성	(507)	27.7	**72.3**	100.0

주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인공수정 시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0.0%로 조사되었다.

〈표 V-6-47〉 지난조사 이후 인공수정 시도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747)	0.0	100.0	100.0
성별	남성	(240)	0.0	100.0	100.0
	여성	(507)	0.0	100.0	100.0

주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임신중절 경험 유무에 대해 살펴보면, 임신중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로 조사되었다. 여성의 경우 임신중절 경험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에서 임신중절 경험이 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 경증 장애의 임신중절 경험률은 3.0%로 중증 장애(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48〉 지난조사 이후 임신중절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747)	2.5	97.5	100.0
성별	남성	(240)	0.0	100.0	100.0
	여성	(507)	3.7	96.3	100.0
장애 유형	지체	(206)	0.0	100.0	100.0
	뇌병변	(87)	0.0	100.0	100.0
	청각/언어	(31)	0.0	100.0	100.0
	지적/자폐성	(199)	0.0	100.0	100.0
	정신	(23)	0.0	100.0	100.0
	내부/안면	(200)	9.4	90.6	100.0
장애 정도	중증	(116)	0.0	100.0	100.0
	경증	(631)	3.0	97.0	100.0

주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임신중절을 강요 받은 경험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6-49〉 지난조사 이후 임신중절을 강요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747)	0.0	100.0	100.0
성별	남성	(240)	0.0	100.0	100.0
	여성	(507)	0.0	100.0	100.0

주1)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경험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결혼생활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배우자와의 갈등 여부, 갈등 이유 및 해결 방안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조사 이후 배우자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있음' 응답이 14.5%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배우자와 갈등 여부는 남성(15.6%)이 여성(13.0%)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 장애에서는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2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반면, 시각 장애에서는 9.7%에 불과했다. 중증 장애의 경우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13.8%로 경증 장애(14.7%)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6-50〉 지난조사 이후 배우자와 갈등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33,736)	14.5	85.5	100.0
성별	남성	(76,016)	15.6	84.4	100.0
	여성	(57,720)	13.0	87.0	100.0
장애 유형	지체	(31,692)	15.7	84.3	100.0
	뇌병변	(24,390)	13.2	86.8	100.0
	시각	(10,957)	9.7	90.3	100.0
	청각/언어	(42,418)	15.0	85.0	100.0
	지적/자폐성	(4,565)	19.7	80.3	100.0
	정신	(1,719)	28.5	71.5	100.0
	내부/안면	(17,996)	13.0	87.0	100.0
장애 정도	중증	(39,339)	13.8	86.2	100.0
	경증	(94,397)	14.7	85.3	100.0

주1) 혼인상태에 대해 '결혼'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배우자와 갈등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성격 및 가치관이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경제문제(25.8%), 생활방식/습관(14.8%), 장애 및 건강문제(8.9%)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28.0%로 여성(22.4%) 보다 높았던 반면, '성격 및 가치관'을 응답한 비율은 여성(45.1%)이 남성(39.8%)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에서 '성격 및 가치관'응답이 59.3%, 정신 장애에서 '생활방식/습관' 응답이 45.7%, 시각 장애에서 '경제문제' 응답이 3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성격 및 가치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22.0%로 경증 장애(49.6%) 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장애 및 건강문제'라는 응답은 중증(19.5%)이 경증(5.0%) 대비 많다.

〈표 V-6-51〉 배우자와 갈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성격 및 가치관	생활방식/습관 (음주, 흡연 포함) 차이	경제문제 (예, 생활비 등)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	본인 가족과의 갈등	부모 부양 문제	자녀문제(교육 및 진로, 결혼)
전 체		(19,342)	**41.8**	14.8	25.8	0.6	2.3	0.9	2.7
성별	남성	(11,851)	39.8	13.2	**28.0**	0.3	2.3	1.5	3.1
	여성	(7,491)	**45.1**	17.5	22.4	1.1	2.3	0.0	2.1
장애유형	지체	(4,977)	39.9	16.3	32.6	0.4	3.9	0.0	1.0
	뇌병변	(3,222)	27.3	13.7	31.3	0.0	2.4	0.0	3.7
	시각	(1,067)	35.4	21.7	**37.9**	0.0	3.7	0.0	0.0
	청각/언어	(6,347)	**59.3**	6.3	16.9	0.4	1.6	2.8	1.8
	지적/자폐성	(899)	15.5	35.7	17.0	2.6	0.0	0.0	5.1
	정신	(489)	30.5	**45.7**	14.3	0.0	0.0	0.0	0.0
	내부/안면	(2,341)	34.0	18.9	28.6	2.3	1.3	0.0	8.2
장애정도	중증	(5,427)	22.0	21.9	27.6	2.3	0.8	0.0	4.4
	경증	(13,915)	**49.6**	12.1	25.2	0.0	2.9	1.3	2.0

구 분		배우자의 외도 문제	폭력, 욕설, 신체적 폭력 문제	장애 및 건강문제	부부간 가사 분담 문제	부부관계 문제	기타	계
전 체		0.8	0.1	8.9	0.7	0.3	0.0	100.0
성별	남성	0.0	0.2	10.5	0.6	0.5	0.0	100.0
	여성	2.1	0.0	6.5	0.8	0.0	0.1	100.0
장애유형	지체	0.0	0.0	5.6	0.0	0.0	0.2	100.0
	뇌병변	0.0	0.9	18.6	2.2	0.0	0.0	100.0
	시각	0.0	0.0	1.3	0.0	0.0	0.0	100.0
	청각/언어	2.4	0.0	7.5	0.0	1.0	0.0	100.0
	지적/자폐성	0.0	0.0	24.0	0.0	0.0	0.0	100.0
	정신	0.0	0.0	0.0	9.6	0.0	0.0	100.0
	내부/안면	0.0	0.0	6.0	0.7	0.0	0.0	100.0
장애정도	중증	0.0	0.0	**19.0**	0.9	1.2	0.2	100.0
	경증	1.1	0.2	5.0	0.6	0.0	0.0	100.0

주1) 배우자와 갈등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배우자와 갈등 해결 방법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대방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힌다'가 5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눈다(30.4%),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갈등 해결 방법을 살펴보면, 여성은 '상대방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힌다'가 68.4%, 남성은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눈다'응답이 34.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는 응답 비율이 64.1%, 정신 장애는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는 응답 비율이 8.0%로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다소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응답 비율은 22.2%로 경증 장애(9.7%)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6-52〉 갈등 해결 방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배우자와 차분히 대화를 나눈다 (문자, 카톡 포함)	상대방과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혼자 속으로 삭힌다	격렬하게 논쟁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 거나 물건을 집어 던진다	종교 기관, 이웃 등의 도움을 받는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다	외식, 영화, 체육과 같은 외부활동을 같이 한다	계
전 체		(19,342)	30.4	**54.9**	13.2	0.7	0.2	0.5	0.2	100.0
성별	남성	(11,851)	**34.8**	46.4	16.6	1.2	0.0	0.8	0.3	100.0
	여성	(7,491)	23.5	**68.4**	7.7	0.0	0.5	0.0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4,977)	29.6	53.9	14.7	1.8	0.0	0.0	0.0	100.0
	뇌병변	(3,222)	20.6	60.8	17.5	0.0	1.1	0.0	0.0	100.0
	시각	(1,067)	49.3	44.8	5.2	0.7	0.0	0.0	0.0	100.0
	청각/언어	(6,347)	35.9	61.5	2.6	0.0	0.0	0.0	0.0	100.0
	지적/자폐성	(899)	0.0	35.9	**64.1**	0.0	0.0	0.0	0.0	100.0
	정신	(489)	31.1	28.9	32.0	**8.0**	0.0	0.0	0.0	100.0
	내부/안면	(2,341)	33.6	48.5	12.7	0.0	0.0	3.8	1.4	100.0
장애 정도	중증	(5,427)	27.7	46.4	**22.2**	0.9	0.6	1.6	0.6	100.0
	경증	(13,915)	31.5	58.2	9.7	0.7	0.0	0.0	0.0	100.0

주1) 배우자와 갈등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성생활 및 만족도

지난조사 이후 장애가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영향을 미친다(③+④)'의 응답 비율이 39.1%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이 42.5%로 여성(3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의 경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6%로 가장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장애가 성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 비율이 52.1%로 경증 장애(32.2%)보다 높다.

〈표 V-6-53〉 지난조사 이후 장애가 성관계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②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	③ 영향을 미치는 편임	④ 매우 영향을 미침	①+②	③+④	계
전 체		(229,491)	22.9	38.0	27.3	11.8	60.9	**39.1**	100.0
성별	남성	(129,035)	18.7	38.9	28.4	14.1	57.5	**42.5**	100.0
	여성	(100,456)	28.3	36.9	25.9	8.9	65.2	34.8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22.2	38.9	28.6	10.3	61.1	38.9	100.0
	뇌병변	(38,713)	15.3	23.1	34.2	27.4	38.4	**61.6**	100.0
	시각	(20,378)	29.6	44.8	21.1	4.5	74.4	25.6	100.0
	청각/언어	(67,431)	30.6	47.5	19.9	2.0	78.1	21.9	100.0
	지적/자폐성	(15,667)	17.9	38.4	28.0	15.6	56.4	43.6	100.0
	정신	(8,738)	21.6	34.3	28.0	16.1	55.9	44.1	100.0
	내부/안면	(30,926)	15.1	30.9	36.5	17.6	46.0	54.0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18.0	29.8	31.4	20.8	47.9	**52.1**	100.0
	경증	(149,583)	25.5	42.4	25.2	7.0	67.8	32.2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성생활 만족도를 살펴보면, '만족한다(③+④)'의 응답 비율이 42.8%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42.4%로 여성(43.3%) 보다 낮았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만족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고, 뇌병변 장애의 만족 비율은 27.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지난 1년간 성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33.3%로 경증 장애(47.9%) 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V-6-54〉 지난조사 이후 성생활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음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229,491)	22.5	34.8	41.1	1.7	57.2	**42.8**	100.0
성별	남성	(129,035)	22.4	35.2	40.4	2.0	57.6	42.4	100.0
	여성	(100,456)	22.5	34.2	41.9	1.4	56.7	43.3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14.9	35.4	47.2	2.4	50.4	49.6	100.0
	뇌병변	(38,713)	35.2	37.4	26.3	1.1	72.6	**27.4**	100.0

구 분		추정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음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시각	(20,378)	18.9	32.9	45.7	2.6	51.7	48.3	100.0
	청각/언어	(67,431)	18.6	30.6	49.1	1.8	49.1	**50.9**	100.0
	지적/자폐성	(15,667)	25.0	37.2	36.7	1.2	62.1	37.9	100.0
	정신	(8,738)	37.1	32.5	29.0	1.4	69.6	30.4	100.0
	내부/안면	(30,926)	23.5	40.2	35.2	1.2	63.7	36.3	100.0
장애 정도	중증	(79,908)	30.2	36.5	32.0	1.3	66.7	33.3	100.0
	경증	(149,583)	18.3	33.8	45.9	2.0	52.1	**47.9**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성 관련 상담 대상자를 살펴보면, '없다'는 응답 비율이 78.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성관련 상담 대상자가 '없다'는 응답은 81.6%로 남성(76.4%)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와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배우자'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3.1%, 23.3%로 비교적 높았던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와 정신 장애에서는 각각 5.2%, 3.4%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성관련 상담 대상자가 없다는 응답은 83.6%로 경증 장애(76.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6-55〉 지난조사 이후 성관련 상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없음	배우자	부모님	전문 상담사/ 의료진	주변 동성 친구/지인	주변 이성 친구/지인
전 체		(229,491)	**78.7**	18.0	0.5	0.5	1.4	0.3
성별	남성	(129,035)	76.4	19.5	0.6	0.5	1.8	0.4
	여성	(100,456)	**81.6**	16.0	0.4	0.5	0.8	0.3
장애 유형	지체	(47,637)	73.5	**23.1**	0.3	0.3	1.8	0.9
	뇌병변	(38,713)	85.1	12.6	0.3	0.8	0.8	0.1
	시각	(20,378)	84.1	13.6	0.2	0.2	0.9	0.8
	청각/언어	(67,431)	74.0	**23.3**	0.2	0.6	1.0	-
	지적/자폐성	(15,667)	87.9	**5.2**	3.1	0.2	2.2	-
	정신	(8,738)	89.1	**3.4**	3.1	0.6	1.3	0.6
	내부/안면	(30,926)	77.5	18.9	0.1	0.6	2.3	0.4
장애 정도	중증	(79,908)	**83.6**	12.3	1.2	0.5	1.5	0.3
	경증	(149,583)	76.1	21.1	0.2	0.5	1.3	0.3

구 분		주변 이성 친구/지인	형제, 자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온라인 (SNS,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계
전 체		0.6	0.2	0.1	0.0	100.0
성별	남성	0.7	0.2	0.1	0.0	100.0
	여성	0.4	0.3	0.0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0.6	0.2	0.0	0.1	100.0
	뇌병변	0.0	0.4	0.0	0.0	100.0
	시각	1.0	0.1	0.0	0.0	100.0
	청각/언어	1.0	0.0	0.0	0.0	100.0
	지적/자폐성	0.2	0.0	1.1	0.0	100.0
	정신	0.4	1.8	0.2	0.0	100.0
	내부/안면	0.4	0.2	0.0	0.0	100.0
장애 정도	중증	0.2	0.5	0.3	0.0	100.0
	경증	0.8	0.1	0.0	0.0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지난조사 이후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여부를 살펴보면,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3.2%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3.1%, 남성은 3.2%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에서는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률이 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경증 장애의 경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중증 장애(2.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56〉 지난조사 이후 원치 않는 성관계 경험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전 체		(229,491)	3.2	96.8	100.0
성별	남성	(129,035)	3.2	96.8	100.0
	여성	(100,456)	3.1	96.9	100.0
장애 유형	지체	(47,637)	2.5	97.5	100.0
	뇌병변	(38,713)	1.5	98.5	100.0
	시각	(20,378)	1.9	98.1	100.0
	청각/언어	(67,431)	5.6	94.4	100.0
	지적/자폐성	(15,667)	0.4	99.6	100.0
	정신	(8,738)	2.3	97.7	100.0
	내부/안면	(30,926)	3.5	96.5	100.0

구 분		추정수	경험 있음	경험 없음	계
장애 정도	중증	(79,908)	2.0	98.0	100.0
	경증	(149,583)	3.8	96.2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원치 않는 성관계 시 조치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율이 80.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7.9%로 남성(81.6%)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6-57〉 원치 않는 성관계 시 조치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성관계를 한 당사자와 문제에 대해 직접 이야기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이야기 하였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상담사와 이야기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주변 동성 친구/지인과 이야기 하였다	경찰에 신고 하였다	계
전 체		(7,255)	80.0	15.1	1.3	0.2	3.0	0.4	100.0
성별	남성	(4,092)	81.6	12.1	0.0	3.9	100.0	0.0	100.0
	여성	(3,163)	77.9	2.4	0.4	0.0	100.0	100.0	100.0

주1)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경험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노후

만 50세 이상인 패널을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유무 및 정도, 노후에 대한 걱정, 노후를 위한 필요한 생활비, 주관적 노인 기준, 희망 활동 등 노후생활 관련 사항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조사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를 살펴보면, '준비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19.4%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2.4%로 여성(15.7%) 보다 다소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8.3%로 높은 반면, 지적/자폐성 장애는 2.0%로 낮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한 적이 있거나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10.0%로 경증 장애(23.5%)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Ⅴ-6-58〉 지난조사 이후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193,116)	19.4	80.6	100.0
성별	남성	(107,486)	22.4	77.6	100.0
	여성	(85,630)	15.7	84.3	100.0
장애 유형	지체	(42,579)	28.3	71.7	100.0
	뇌병변	(33,659)	11.1	88.9	100.0
	시각	(17,451)	17.1	82.9	100.0
	청각/언어	(61,500)	23.2	76.8	100.0
	지적/자폐성	(6,534)	2.0	98.0	100.0
	정신	(5,177)	10.3	89.7	100.0
	내부/안면	(26,216)	14.4	85.6	100.0
장애 정도	중증	(58,675)	10.0	90.0	100.0
	경증	(134,440)	23.5	76.5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앞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노후생활 준비 사항을 조사한 결과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등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이 5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은행예금 및 적금'이 28.2%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국민연금 등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6.6%로 여성(51.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6-59〉 노후생활 준비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은행예금 및 적금	국민연금 등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민간금융 개인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가입 및 수령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또는 전세금) 이용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전 체		(37,484)	28.2	54.6	2.3	5.1	0.7
성별	남성	(24,035)	27.0	56.6	2.4	4.1	1.1
	여성	(13,449)	30.4	51.0	2.1	6.9	0.0

구 분		자녀(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기댐	부모님, 가족의 유산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함	기타	계
전 체		0.8	1.0	7.2	0.1	100.0
성별	남성	0.3	0.4	8.1	0.0	100.0
	여성	1.6	2.1	5.5	0.3	100.0

주1)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계속해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 정도에 대한 인식 살펴보면, '충분하다'는 응답(③+④) 비율이 66.7%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노후생활 준비 충분 정도는 남성(64.5%)이 여성(70.7%) 대비 낮게 조사되었다.

〈표 Ⅴ-6-60〉 노후생활 준비 정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매우 부족함	② 거의 부족한 편임	③ 충분한 편임	④ 매우 충분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37,484)	13.5	53.3	31.7	1.5	66.7	33.3	100.0
성별	남성	(24,035)	14.2	50.3	33.5	2.0	64.5	35.5	100.0
	여성	(13,449)	12.2	58.6	28.6	0.6	70.7	29.3	100.0

주1)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가족'이 7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이 24.6%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응답이 73.9%로 남성(72.3%)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은 '가족'과 함께 살고 싶다는 비율이 80.0%로 가장 높고, 정신 장애와 시각 장애의 경우 '혼자'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30% 이상으로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가족'과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73.6%로 경증 장애(72.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6-61〉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가족	혼자	친구, 이웃	기타	계
전 체		(193,116)	73.0	24.6	2.4	0.1	100.0
성별	남성	(107,486)	72.3	24.8	2.8	0.1	100.0
	여성	(85,630)	73.9	24.3	1.8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42,579)	73.0	25.3	1.7	0.0	100.0
	뇌병변	(33,659)	79.8	19.1	1.1	0.0	100.0
	시각	(17,451)	63.6	32.9	3.5	0.0	100.0
	청각/언어	(61,500)	74.0	22.3	3.6	0.1	100.0
	지적/자폐성	(6,534)	80.0	20.0	0.0	0.0	100.0
	정신	(5,177)	61.0	38.6	0.4	0.0	100.0
	내부/안면	(26,216)	68.8	28.5	2.4	0.3	100.0
장애 정도	중증	(58,675)	73.6	24.6	1.6	0.2	100.0
	경증	(134,440)	72.8	24.6	2.7	0.0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노후생활 중 걱정되거나 고민되는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문제'가 4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노환으로 인한 건강문제(23.7%), 경제적 문제(20.1%),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라는 응답은 여성(7.8%)이 남성(6.5%)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경제적 문제'는 남성(20.5%)이 여성(19.5%) 대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는 '장애문제'라고 응답한 비율이 63.2%, 정신 장애의 경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5.4%, 청각/언어 장애는'노환으로 인한 건강문제'와 '경제적 문제'는 청각 장애에서 각각 28.2%, 26.2%로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장애문제'라는 응답 비율은 57.5%로 경증 장애 보다(39.0%)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Ⅴ-6-62〉 노후생활 걱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장애문제 (예, 장애 상태 악화, 장애치료 등)	노환으로 인한 건강문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것	경제적 문제 (예, 일자리, 노후자금 부족 등)	마땅히 시간을 보내거나 할 일이 없는 것
전 체		(193,116)	**44.6**	23.7	7.1	20.1	1.0
성별	남성	(107,486)	44.8	24.0	6.5	20.5	0.9
	여성	(85,630)	44.3	23.5	7.8	19.5	1.1
장애 유형	지체	(42,579)	37.6	29.6	6.4	20.6	0.9
	뇌병변	(33,659)	**63.2**	15.0	7.2	10.0	1.3
	시각	(17,451)	40.0	25.5	8.9	20.6	0.3
	청각/언어	(61,500)	34.6	**28.2**	6.8	**26.2**	1.4
	지적/자폐성	(6,534)	54.8	21.4	11.4	12.2	0.0
	정신	(5,177)	44.6	18.2	**15.4**	16.8	0.0
	내부/안면	(26,216)	56.1	15.6	4.7	19.9	0.6
장애 정도	중증	(58,675)	57.5	15.5	7.7	15.3	0.8
	경증	(134,440)	39.0	27.3	6.8	22.1	1.0

구 분		가족문제 (예, 자녀교육, 배우자의 사망 등)	가족 이외 주변사람 혹은 친구문제	외로움	없음	계
전 체		1.0	0.2	2.3	0.1	100.0
성별	남성	0.8	0.2	2.2	0.1	100.0
	여성	1.2	0.3	2.3	0.0	100.0
장애 유형	지체	0.9	0.3	3.8	0.0	100.0
	뇌병변	0.9	0.5	1.8	0.2	100.0
	시각	2.2	0.3	2.2	0.0	100.0
	청각/언어	1.0	0.2	1.7	0.0	100.0
	지적/자폐성	0.0	0.0	0.1	0.0	100.0
	정신	0.7	0.3	3.9	0.0	100.0
	내부/안면	0.6	0.1	2.2	0.2	100.0
장애 정도	중증	0.5	0.3	2.3	0.0	100.0
	경증	1.1	0.2	2.3	0.1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관적으로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70세~75세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65세~70세 미만(27.8%), 75세~80세 미만(11.9%), 80세 이상(4.3%), 65세 미만(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75세~80세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은 13.3%로 여성(10.0%) 보다 다소 높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에서는 '70세~75세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63.6%, 정신 장애의 경우 '65세~70세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65세~70세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29.3%로 경증 장애(2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V-6-63〉 주관적 노인 나이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65세 미만	65세~70세 미만	70세~75세 미만	75세~80세 미만	80세 이상	계
전 체		(193,116)	3.4	27.8	**52.7**	11.9	4.3	100.0
성별	남성	(107,486)	2.9	27.2	52.2	**13.3**	4.5	100.0
	여성	(85,630)	3.9	28.6	53.3	10.0	4.1	100.0
장애 유형	지체	(42,579)	2.4	23.1	54.4	14.9	5.2	100.0
	뇌병변	(33,659)	4.3	32.6	46.1	11.4	5.7	100.0
	시각	(17,451)	1.7	28.6	55.2	10.0	4.5	100.0
	청각/언어	(61,500)	3.8	28.0	53.7	10.9	3.7	100.0
	지적/자폐성	(6,534)	3.5	21.5	**63.6**	10.7	0.6	100.0
	정신	(5,177)	5.3	**38.6**	43.0	12.5	0.5	100.0
	내부/안면	(26,216)	3.4	27.9	53.5	11.2	4.0	100.0
장애 정도	중증	(58,675)	3.7	**29.3**	52.0	11.5	3.6	100.0
	경증	(134,440)	3.2	27.2	53.0	12.0	4.6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1달 생활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6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만원~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10.1%로 여성(15.3%) 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72.9%, 정신 장애에서는 '50만원~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24.9%로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200만원~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 비율이 15.7%로 경증 장애(17.8%) 보다 낮다.

〈표 Ⅴ-6-64〉 노후생활에 필요한 1달 생활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50만원 미만	50~100 만원 미만	100~200 만원 미만	200~300 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계
전 체		(193,116)	0.3	12.4	**68.1**	17.1	2.1	100.0
성별	남성	(107,486)	0.2	10.1	68.8	18.7	2.2	100.0
	여성	(85,630)	0.4	**15.3**	67.2	15.2	1.9	100.0
장애 유형	지체	(42,579)	0.4	12.4	66.7	17.9	2.6	100.0
	뇌병변	(33,659)	0.3	11.4	67.2	17.8	3.3	100.0
	시각	(17,451)	0.0	15.2	68.3	15.1	1.4	100.0
	청각/언어	(61,500)	0.1	11.2	68.8	18.5	1.4	100.0
	지적/자폐성	(6,534)	0.6	19.1	**72.9**	7.4	0.0	100.0
	정신	(5,177)	0.0	**24.9**	69.3	5.0	0.9	100.0
	내부/안면	(26,216)	0.6	10.6	68.3	18.1	2.3	100.0
장애 정도	중증	(58,675)	0.6	13.5	68.3	15.7	2.0	100.0
	경증	(134,440)	0.1	12.0	68.0	**17.8**	2.1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희망하는 노후활동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 없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 취미 및 여가(20.2%), 소득창출활동(16.3%), 귀촌, 귀농, 전원생활(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귀촌, 귀농, 전원생활'을 응답한 비율이 11.4%로 여성(6.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희망하는 노후활동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69.8%로 가장 높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 없음' 응답이 54.1%로 경증(33.2%) 대비 높게 나타난 한편, '취미 및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중증(13.5%)이 경증(23.1%) 대비 낮은 비율을 보인다.

〈표 V-6-65〉 희망하는 노후활동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소득창출 활동 (직업교육 등)	자원봉사 활동	학습(언어, 컴퓨터 등)활동	취미 및 여가 (댄스, 수필 등) 활동	귀촌, 귀농, 전원생활
전 체		(193,116)	16.3	3.0	0.4	20.2	9.0
성별	남성	(107,486)	17.1	2.8	0.6	18.1	11.4
	여성	(85,630)	15.2	3.1	0.2	22.9	6.1
장애 유형	지체	(42,579)	17.0	4.3	0.5	21.7	8.2
	뇌병변	(33,659)	8.6	1.0	0.9	14.8	7.4
	시각	(17,451)	18.3	4.5	0.4	17.5	12.1
	청각/언어	(61,500)	20.0	3.0	0.3	25.8	10.3
	지적/자폐성	(6,534)	6.1	1.0	0.0	6.2	7.0
	정신	(5,177)	16.5	0.6	0.9	11.1	3.4
	내부/안면	(26,216)	17.1	3.1	0.1	18.6	9.0
장애 정도	중증	(58,675)	12.3	2.2	0.7	13.5	7.2
	경증	(134,440)	18.0	3.3	0.3	23.1	9.8

구 분		종교활동	정치사회 활동	친목단체 활동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적 없음	계	계
전 체		7.0	0.0	4.4	39.6	100.0	100.0
성별	남성	5.0	0.0	4.5	40.4	100.0	100.0
	여성	9.7	0.1	4.3	38.5	100.0	100.0
장애 유형	지체	6.6	0.1	4.7	36.9	100.0	100.0
	뇌병변	6.5	0.1	4.8	55.7	100.0	100.0
	시각	7.5	0.0	6.6	33.1	100.0	100.0
	청각/언어	7.6	0.0	4.0	28.8	100.0	100.0
	지적/자폐성	5.9	0.0	4.0	69.8	100.0	100.0
	정신	4.8	0.0	1.4	61.4	100.0	100.0
	내부/안면	7.5	0.0	3.8	40.9	100.0	100.0
장애 정도	중증	6.1	0.0	3.9	54.1	100.0	100.0
	경증	7.5	0.1	4.7	33.2	100.0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마지막으로 가족(자녀, 자녀 배우자, 손자녀)와의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1주일에 1-2회 정도'가 36.8%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거의 매일(27.1%), 1개월에 1-2회 정도(1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10.2%로 여성(5.0%) 보다 5.2%p 높은 반면, '거의 매일'연락한다는 응답은 여성(33.5%)이 남성(22.0%) 대비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 장애는 '1주일에 1-2회 정도'가 41.2%, 내부/안면 장애는 '거의 매일' 연락하는 경우가 31.2%, 지적/자폐성 장애의 경우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24.2%로 다른 장애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증 장애의 경우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11.1%로 경증 장애(6.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Ⅴ-6-66〉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연락을 거의 하지 않는다	1년에 1-2회 정도	3개월에 1-2회 정도	1개월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거의 매일 (주4회 이상)	해당 없음	계
전 체		(193,116)	7.9	2.7	4.6	12.3	**36.8**	27.1	8.6	100.0
성별	남성	(107,486)	**10.2**	3.0	5.3	13.7	36.0	22.0	9.8	100.0
	여성	(85,630)	5.0	2.4	3.6	10.6	37.9	**33.5**	7.0	100.0
장애 유형	지체	(42,579)	4.0	2.7	5.9	11.6	**41.2**	28.0	6.5	100.0
	뇌병변	(33,659)	10.3	2.4	3.8	13.6	34.7	26.5	8.8	100.0
	시각	(17,451)	8.0	3.6	6.2	13.1	32.7	27.3	9.0	100.0
	청각/언어	(61,500)	7.1	2.3	3.6	12.0	40.1	27.2	7.8	100.0
	지적/자폐성	(6,534)	**24.2**	2.6	2.0	17.9	18.8	17.8	16.6	100.0
	정신	(5,177)	13.5	7.5	3.6	15.5	25.3	11.8	22.8	100.0
	내부/안면	(26,216)	7.7	2.7	5.3	10.1	34.4	**31.2**	8.6	100.0
장애 정도	중증	(58,675)	11.1	3.2	4.3	13.0	30.9	26.4	11.2	100.0
	경증	(134,440)	6.5	2.5	4.7	12.0	39.4	27.4	7.5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5) 현재 삶의 만족도

현재 삶의 만족정도를 항목별로 조사한 결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51점으로 가장 높고,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4.2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삶의 만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여성 대비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남성이 6.62점으로 여성(6.31점) 대비 0.31점 높은 수준이다.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6.98점으로 가장 높고, 정신 장애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3.43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삶의 만족도 모든 항목에서 중증 장애가 경증 장애 대비 낮은 만족 수준을 보이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중증(6.21점)이 경증(6.90점) 대비 0.62점 낮게 조사되었다.

〈표 V-6-67〉 현재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 분		(1) 건강	(2) 수입	(3) 주거환경	(4) 학교생활	(5) 직업	(6) 결혼생활	(7) 사회적 관계	(8)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전 체		4.62	**4.20**	5.99	**6.51**	6.09	6.25	5.34	5.32
성별	남성	4.68	4.22	6.00	**6.62**	6.17	6.33	5.36	5.32
	여성	4.54	4.17	5.98	6.31	5.93	6.14	5.32	5.31
장애 유형	지체	4.58	4.40	6.18	6.93	6.06	6.59	5.68	5.55
	뇌병변	3.54	3.46	5.54	6.11	6.03	5.57	4.43	4.38
	시각	4.78	4.18	5.94	6.76	5.74	6.10	5.48	5.33
	청각/언어	5.30	4.59	6.19	**6.98**	6.17	6.43	5.81	5.81
	지적/자폐성	5.44	4.34	6.19	6.19	6.11	5.58	5.17	5.47
	정신	4.34	**3.43**	5.45	6.28	6.38	4.94	4.17	4.36
	내부/안면	3.90	4.02	5.89	6.84	6.16	6.51	5.27	5.19
장애 정도	중증	4.21	3.72	5.79	6.21	5.98	5.88	4.75	4.82
	경증	4.86	4.43	6.12	**6.90**	6.11	6.40	5.69	5.61

주1) 장애발생 원인 '후천적 장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불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3) (2)수입, (5)직업, (6)결혼생활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4) (2)수입의 경우 가구소득이 0원이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주5) (4)학교생활의 경우 재학생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주6) (5)직업의 경우 취업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주7) (6)결혼생활의 경우 기혼자(사실혼, 동거 포함)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Ⅵ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조사 결과(가구주)

Ⅵ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조사 결과(가구주)

1. 가계변화

1) 경제상황

(1) 월평균 가구 소득(전체)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패널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평균 272.5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소득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 소득이 168.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사업/부업 소득(43.67만원), 공적이전소득(36.75만원),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15.16만원), 사적이전소득(6.52만원), 비경상소득(1.97만원)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 별로, 월평균 가구 소득은 지적/자폐성 장애가 301.2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지체(282.96만원), 청각/언어(278.51만원) 등의 순이었다. 항목별로, 지적/자폐성 장애는 근로소득(211.11만원), 정신 장애는 공적이전소득(52.63만원), 지체 장애는 사업소득(51.60만원), 뇌병변 장애는 사적이전소득(12.68만원)에서 타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보였다. 패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월평균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경증 장애(279.06만원)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중증(261.31만원)보다 17만원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중증 장애(각각 159.29만원, 34.74만원)가 경증 장애(각각 173.81만원, 48.88만원) 대비 14만원 이상 낮게 나타난 반면, 공적이전 소득은 중증(46.11만원)이 경증(31.28만원) 대비 14.83만원 높았다.

〈표 Ⅵ-1-1〉 월평균 가구 소득(전체)

(단위: 명, 만원)

구 분		추정수	근로 소득	사업. 부업소득	개인재산. 금융.연금소득	사적이전 소득	공적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	전체 합계
전 체		(251,277)	**168.46**	43.67	15.16	6.52	36.75	1.97	**272.52**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173.97	**51.60**	13.64	6.42	35.43	1.89	282.96
	뇌병변	(42,177)	140.45	36.18	22.61	**12.68**	46.18	2.21	260.30
	시각	(21,557)	155.55	39.14	20.24	6.13	36.15	2.83	260.04
	청각/언어	(73,818)	187.61	46.81	11.63	3.84	26.58	2.05	278.51
	지적/자폐성	(23,852)	**211.11**	48.29	4.44	3.44	33.32	0.62	**301.22**
	정신	(8,894)	90.84	17.48	12.01	5.10	**52.63**	4.00	182.08
	내부/안면	(31,447)	150.81	40.86	21.39	7.72	48.54	1.42	270.73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159.29	34.74	11.68	7.60	46.11	1.90	261.31
	경증	(158,661)	173.81	48.88	17.19	5.89	31.28	2.00	279.06

주1) 연속형 문항에 '모름/응답거절' 인 경우 범주형 보기로 응답받아 합산하여 산출함

(2)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

장애인 패널 가구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평균 170.2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생활비 항목별로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57.1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보건의료비(20.79만원), 교통/통신비(20.67만원)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에 따른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가구 소득이 가장 많았던 지적/자폐성 장애가 201.4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뇌병변(186.22만원), 내부/안면(167.82만원) 등의 순으로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뇌병변 장애는 보건의료비(42.61만원), 시각 장애와 내부/안면 장애는 집세, 월세(각각 7.42만원, 7.45만원), 그 외 항목은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타 유형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패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월평균 가구 생활비를 살펴보면, 중증 장애(181.95만원)의 월평균 가구 생활비가 경증(163.41만원) 보다 높았다. 생활비 중 보건의료비는 중증 장애(30.56만원)에서 경증 장애(15.09만원) 대비 2배 이상 높게 조사되었다.

〈표 Ⅵ-1-2〉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

(단위: 명, 만원)

구 분		추정수	식료품비(외식비 포함)	집세, 월세	의류비(옷, 신발 구입비 포함)	보육 및 교육비	보건 의료비
전 체		(251,277)	**57.16**	6.12	8.28	11.03	20.79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55.56	5.85	8.56	7.89	16.58
	뇌병변	(42,177)	57.57	6.32	7.81	9.91	**42.61**
	시각	(21,557)	54.45	**7.42**	8.36	12.90	12.73
	청각/언어	(73,818)	57.10	5.40	8.40	10.62	13.23
	지적/자폐성	(23,852)	**69.28**	5.73	**9.87**	**23.66**	16.78
	정신	(8,894)	50.25	5.65	5.13	4.97	12.98
	내부/안면	(31,447)	53.88	**7.45**	7.82	9.26	26.7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59.11	6.63	8.06	12.94	**30.56**
	경증	(158,661)	56.02	5.81	8.41	9.91	15.09

구 분		주거관련 비용 (전기/수도/냉난방)	교통 /통신비	교양/오락비	생필품 및 내구재 구입비	기타생활비용(경조사비, 부채상환비 등 포함)	생활비 전체합계
전 체		15.09	20.67	4.59	9.53	16.99	**170.24**
패널 장애 유형	지체	15.52	23.46	4.61	8.96	17.62	164.60
	뇌병변	15.17	19.58	4.19	9.63	13.43	186.22
	시각	13.72	19.36	4.37	8.74	19.25	161.31
	청각/언어	15.64	19.83	4.90	10.07	18.59	163.78
	지적/자폐성	**16.01**	**23.46**	**5.78**	**11.38**	**19.48**	**201.44**
	정신	11.98	14.58	2.80	6.63	11.04	126.02
	내부/안면	14.12	20.20	4.14	8.94	15.30	167.82
패널 장애 정도	중증	14.75	20.33	4.47	9.70	15.41	181.95
	경증	15.29	20.86	4.67	9.43	17.92	163.41

주1) 연속형 문항에 '모름/응답거절' 인 경우 범주형 보기로 응답받아 합산하여 산출함

(3) 생활비 부담(1순위)

장애인 패널 가구의 생활비 부담 비율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식료품비'가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 보건의료비(14.8%), 집세/월세(5.9%), 기타생활비용(5.7%)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생활비 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정신 장애에서는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7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건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뇌병변 장애(27.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경우 '식료품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58.4%로 경증 장애(62.7%) 보다 낮았던 반면, '보건 의료비'가 부담된다는 응답은 중증 장애(20.1%)에서 경증 장애(11.7%)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Ⅵ-1-3〉 생활비 부담(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식료품비 (외식비 포함)	집세, 월세	의류비 (옷, 신발 구입비 포함)	보육 및 교육비	보건 의료비	주거관련 비용(전기/수도/냉난방)
전 체		(251,277)	61.1	5.9	0.3	4.2	14.8	3.2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58.0	6.6	0.2	3.2	13.2	3.1
	뇌병변	(42,177)	56.0	5.6	0.6	2.5	**27.5**	2.5
	시각	(21,557)	57.5	9.4	0.4	6.1	12.2	3.7
	청각/언어	(73,818)	66.1	4.4	0.0	4.1	9.3	3.5
	지적/자폐성	(23,852)	**70.4**	3.6	0.5	10.4	6.2	2.9
	정신	(8,894)	65.4	5.5	0.5	2.8	11.6	4.0
	내부/안면	(31,447)	55.0	7.9	0.2	2.7	22.1	3.2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58.4	5.7	0.4	5.0	20.1	3.0
	경증	(158,661)	62.7	6.0	0.2	3.8	11.7	3.3

구 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생필품 및 내구재 구입비	기타생활비용(경조사비, 부채 상환비 포함)	기타	계
전 체		4.0	0.1	0.5	5.7	0.3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7.0	0.0	0.4	7.7	0.5	100.0
	뇌병변	1.6	0.3	0.2	2.9	0.4	100.0
	시각	2.9	0.2	0.3	6.9	0.4	100.0
	청각/언어	4.4	0.0	0.8	6.9	0.3	100.0
	지적/자폐성	1.5	0.0	0.8	3.6	0.1	100.0
	정신	5.1	0.0	0.2	4.8	0.0	100.0
	내부/안면	3.8	0.1	0.3	4.6	0.0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2.8	0.0	0.5	4.0	0.2	100.0
	경증	4.7	0.1	0.5	6.8	0.3	100.0

(4)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

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등록을 마친 초기등록장애인의 2차 년도 모집단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 패널 가구의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평균 21.9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관련 생활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의료비'가 12.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비(3.45만원), 보육 및 교육비(2.49만원)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에 따른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는 뇌병변 장애가 44.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내부/안면(26.98만원), 지적/자폐성(23.45만원) 등의 순으로 장애 관련 생활비가 높게 나타났다. 항목 별로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에서 의료비(28.77만원) 및 보호 및 간병비(7.93만원), 지적/자폐성 장애에서 보육 및 교육비(9.96만원), 청각/언어 장애에서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유지비(1.85만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패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를 살펴보면, 중증(33.55만원)의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가 경증(15.19만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유지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중증 장애인의 장애 관련 생활비가 경증 장애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Ⅵ-1-4〉 장애 관련 월평균 가구 생활비(전체)

(단위: 명, 만원)

구 분		추정수	보육 및 교육비 (장애아동 보육 및 특수 교육비 등)	의료비 (장애로 인한 진료비, 약값, 재활 치료비 등)	보호 및 간병비	교통비 (장애인 콜택시, 구급차, 차량 개조비용 등)	장애인 보조 기구 구입 및 수리/ 유지비	직무지원인, 근로지원인 또는 활동보조인	기타	전체 합계
전 체		(251,277)	2.49	12.89	1.84	3.45	0.90	0.32	0.07	**21.96**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0.96	9.43	0.86	3.80	0.67	0.38	0.03	16.13
	뇌병변	(42,177)	1.71	**28.77**	**7.93**	4.20	0.67	0.63	0.33	**44.24**
	시각	(21,557)	2.24	7.41	0.11	3.17	0.30	0.09	0.04	13.35
	청각/언어	(73,818)	2.57	6.97	0.17	2.60	**1.85**	0.05	0.00	14.21
	지적/자폐성	(23,852)	**9.96**	8.30	0.97	3.35	0.09	0.69	0.09	23.45
	정신	(8,894)	0.48	8.36	0.18	2.85	0.11	0.10	0.00	12.09
	내부/안면	(31,447)	0.81	19.48	1.41	4.33	0.56	0.38	0.01	26.98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3.70	19.78	4.26	4.22	0.71	0.71	0.17	**33.55**
	경증	(158,661)	1.78	8.87	0.42	3.01	1.00	0.09	0.02	15.19

주1) 연속형 문항에 '모름/응답거절'인 경우 범주형 보기로 응답받아 합산하여 산출함

(5) 자산과 부채

장애인 패널 가구의 자산 보유수준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이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천만원 미만(19.1%), 1억원 미만(12.5%), 3천만원 미만(9.4%)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 자산 보유수준은, 지체 장애의 경우 '1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으며, 정신 장애에서는 '1천만원 미만'이 29.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패널의 장애 정도에 따른 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중증 장애에서 자산 '1천만원 미만'인 비율은 22.9%로 경증 장애(17.0%) 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1억원 이상' 자산 보유 비율은 경증 장애(56.1%)가 중증(48.4%) 대비 높았다.

〈표 Ⅵ-1-5〉 자산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전 체		(251,277)	19.1	9.4	5.7	12.5	53.3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16.5	7.9	4.2	11.3	**60.1**	100.0
	뇌병변	(42,177)	19.7	8.9	6.6	11.2	53.7	100.0
	시각	(21,557)	25.1	8.0	6.1	14.1	46.7	100.0
	청각/언어	(73,818)	14.0	10.5	6.0	13.3	56.2	100.0
	지적/자폐성	(23,852)	22.2	8.3	4.6	13.8	51.1	100.0
	정신	(8,894)	**29.4**	10.9	7.2	18.6	33.8	100.0
	내부/안면	(31,447)	25.3	10.8	6.6	10.5	46.8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22.9	9.6	5.8	13.4	48.4	100.0
	경증	(158,661)	17.0	9.2	5.7	12.0	56.1	100.0

장애인 패널 가구의 부채 분포를 살펴보면, '1천만원 미만'이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억원 이상(10.1%), 1억원 미만 및 3천만원 미만(각각 9.0%) 등 순 이다. 장애 유형별 부채 분포를 살펴보면, 정신장애는 부채 '1천만원 미만'이 7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패널의 장애 정도에 따른 부채의 차이를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은 중증이, '3천만원 이상'은 경증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Ⅵ-1-6〉 부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1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5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계
전 체		(251,277)	65.9	9.0	5.9	9.0	10.3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64.3	9.5	5.9	8.7	11.6	100.0
	뇌병변	(42,177)	67.3	9.3	5.6	9.3	8.5	100.0
	시각	(21,557)	65.7	9.1	6.5	9.3	9.4	100.0
	청각/언어	(73,818)	65.6	8.0	6.7	9.6	10.3	100.0
	지적/자폐성	(23,852)	64.3	9.4	4.9	9.6	11.8	100.0
	정신	(8,894)	**77.4**	8.2	5.7	4.5	4.1	100.0
	내부/안면	(31,447)	65.5	9.8	4.5	8.2	12.0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66.2**	**9.6**	5.0	8.9	10.2	100.0
	경증	(158,661)	65.7	8.6	**6.4**	**9.0**	**10.3**	100.0

(6) 전년 대비 현재의 경제상태

장애인 패널 가구의 전년 대비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면, '비슷하다'는 응답이 70.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나빠졌다(①+②)'는 응답이 25.9%로 좋아졌다 3.2% (③+④)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유형별로 전년 보다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내부/안면 장애에서 '나빠졌다'는 응답이 32.2%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증 장애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29.0%로 경증 장애(2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Ⅵ-1-7〉 현재 경제상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① 상당히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비슷하다	④ 약간 좋아졌다	⑤상당히 좋아졌다	①+②	④+⑤	계
전 체		(251,277)	4.2	21.8	**70.9**	3.1	0.1	25.9	3.2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5.7	20.3	70.0	4.0	0.0	25.9	4.0	100.0
	뇌병변	(42,177)	4.1	24.6	68.0	3.0	0.2	28.7	3.3	100.0
	시각	(21,557)	3.0	21.6	71.7	3.3	0.3	24.7	3.6	100.0
	청각/언어	(73,818)	3.4	19.5	74.8	2.3	0.0	22.9	2.3	100.0
	지적/자폐성	(23,852)	1.5	21.5	73.6	3.5	0.0	23.0	3.5	100.0
	정신	(8,894)	4.8	21.7	70.4	3.0	0.0	26.5	3.0	100.0
	내부/안면	(31,447)	6.2	26.1	64.5	3.3	0.0	**32.2**	3.3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4.7	24.3	68.1	2.8	0.0	**29.0**	2.8	100.0
	경증	(158,661)	3.8	20.3	72.5	3.3	0.1	24.1	3.4	100.0

주1) '상당히 나빠졌다' 부터 '상당히 좋아졌다' 까지 5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7)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및 보장 받고 있는 내용

장애인 패널 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를 살펴보면, 수급 가구 비율은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 장애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비율은 45.3%로 높게, 청각/언어 장애는 12.7%로 낮게 조사되었다. 수급가구 비율을 패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중증 장애가 22.8%로 경증 장애(1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Ⅵ-1-8〉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251,277)	17.3	82.7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13.9	86.1	100.0
	뇌병변	(42,177)	18.1	81.9	100.0
	시각	(21,557)	17.2	82.8	100.0
	청각/언어	(73,818)	12.7	87.3	100.0
	지적/자폐성	(23,852)	18.1	81.9	100.0
	정신	(8,894)	**45.3**	54.7	100.0
	내부/안면	(31,447)	24.0	76.0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22.8**	77.2	100.0
	경증	(158,661)	14.1	85.9	100.0

주1)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작 시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보장 받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 급여가 9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의료 급여(90.1%), 주거 급여(72.6%), 교육 급여(6.5%) 등의 순이다. 장애유형별로 보장 받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뇌병변 장애인은 '생계 급여' 수급률이 94.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각 장애(93.8%)는 '의료 급여', 청각/언어 장애는 '주거 급여'(80.9%), 지적/자폐성 장애(18.7%)에서는 '교육 급여'가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증 장애의 '교육 급여' 보장 비율은 8.4%로 경증 장애(4.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Ⅵ-1-9〉 보장 받고 있는 내용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생계 급여	의료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자활	기타
전 체		(43,427)	**91.9**	90.1	72.6	6.5	2.7	0.1
패널 장애 유형	지체	(6,876)	93.5	89.2	71.2	3.4	1.6	0.0
	뇌병변	(7,623)	**94.6**	92.0	69.7	5.4	4.2	0.0
	시각	(3,704)	91.3	**93.8**	67.5	2.4	0.6	0.1
	청각/언어	(9,340)	92.4	83.6	**80.9**	6.7	2.2	0.0
	지적/자폐성	(4,326)	90.9	92.9	67.4	**18.7**	7.6	0.0
	정신	(4,025)	92.2	91.5	71.8	6.7	0.0	0.0
	내부/안면	(7,534)	**88.0**	92.9	72.2	5.4	2.4	0.3
패널 장애 정도	중증	(21,097)	90.9	91.7	71.3	8.4	3.2	0.0
	경증	(22,330)	92.9	88.6	73.7	4.8	2.2	0.1

주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주거

1) 이사 이유

장애인 패널 가구의 지난 조사 이후 이사 여부 및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한적 없음'이 9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2.4%), 경제적 이유로(1.7%), 집 계약이 만료되어(1.0%)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 이사 이유를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라는 응답 비율이 2.2%, 지적/자폐성 장애와 시각 장애의 경우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라는 응답 비율이 각각 3.3%, 3.2%로 타 장애 유형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에 따른 이사 이유를 살펴보면, '이사한 적 없음' 응답 비율은 중증 장애가 92.2%, 경증 장애는 91.4%로 나타났다.

〈표 Ⅵ-2-1〉 이사 이유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이사한적 없음	내 집 마련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가구원 수 변동으로	교통이 불편해서	직장 이동, 이직 등
전 체		(251,277)	91.7	0.9	1.7	0.2	0.4	0.4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91.3	0.6	2.1	0.1	0.5	0.5
	뇌병변	(42,177)	90.6	0.9	1.2	0.1	0.5	0.5
	시각	(21,557)	90.6	0.5	1.4	0.7	0.8	0.6
	청각/언어	(73,818)	92.3	1.1	**2.2**	0.2	0.5	0.3
	지적/자폐성	(23,852)	92.4	1.1	0.5	0.1	0.1	0.5
	정신	(8,894)	92.5	1.0	1.1	0.1	0.3	0.2
	내부/안면	(31,447)	92.3	1.1	2.1	0.1	0.2	0.2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92.2	0.9	1.3	0.2	0.3	0.3
	경증	(158,661)	91.4	0.9	2.0	0.2	0.5	0.5

구 분		자녀 교육을 위해	친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	집 계약이 만료되어	치료나 요양을 위해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위해	기타	계
전 체		0.2	0.4	1.0	0.3	2.4	0.5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0.1	0.6	0.5	0.2	2.5	1.1	100.0
	뇌병변	0.1	0.4	1.3	1.0	2.8	0.5	100.0
	시각	0.1	0.1	1.3	0.1	**3.2**	0.5	100.0
	청각/언어	0.4	0.4	0.6	0.0	1.8	0.3	100.0
	지적/자폐성	0.2	0.2	1.2	0.2	**3.3**	0.2	100.0
	정신	0.0	0.6	1.3	0.2	2.1	0.6	100.0
	내부/안면	0.0	0.5	1.4	0.1	1.9	0.0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0.1	0.3	1.0	0.5	2.6	0.3	100.0
	경증	0.2	0.5	0.9	0.1	2.3	0.6	100.0

2) 현재 주택 형태

장애인 패널 가구의 현재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48.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단독주택/전원주택 등(25.2%), 연립주택/빌라 등(13.2%), 다세대주택(9.7%)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 현재 주택 형태를 살펴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와 뇌병변 장애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나 타 장애 유형 보다 가장 높았다. 중증 장애의 아파트 비율은 49.7%로 경증 장애(4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Ⅵ-2-2〉 현재 주택 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빌라 등	영업건물내 주택(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건물 내 (공장)	단독주택, 전원주택 등	비닐하우스/판잣집	컨테이너 혹은 임시가건물	기타	계
전 체		(251,277)	48.1	9.7	13.2	1.8	0.9	25.2	0.3	0.2	0.7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44.6	9.3	13.1	1.1	0.6	30.5	0.2	0.1	0.5	100.0
	뇌병변	(42,177)	50.8	8.1	13.9	1.7	0.8	22.5	0.3	0.0	1.9	100.0
	시각	(21,557)	47.1	9.8	12.8	1.6	0.2	27.5	0.2	0.2	0.7	100.0
	청각/언어	(73,818)	49.3	10.8	12.3	1.4	1.7	23.4	0.3	0.4	0.4	100.0
	지적/자폐성	(23,852)	51.0	8.8	12.0	2.2	0.4	25.5	0.0	0.0	0.1	100.0
	정신	(8,894)	45.5	8.3	14.4	1.8	0.0	27.5	1.6	0.0	0.9	100.0
	내부/안면	(31,447)	46.5	10.9	15.7	3.4	0.6	22.0	0.1	0.1	0.7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49.7	8.3	14.2	2.4	0.4	23.6	0.2	0.0	1.1	100.0
	경증	(158,661)	47.2	10.5	12.6	1.4	1.1	26.1	0.3	0.2	0.5	100.0

3) 현재 주택점유 형태

장애인 패널 가구의 현재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가 58.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월세/반전세(15.0%), 전세(10.7%), 국민임대주택(4.7%)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 현재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청각/언어 장애는 자가 비율이 60.1%로 타 장애 유형 대비 높게 나타났다. 중증 장애의 자가 비율은 52.1%로 경증 장애(61.6%) 보다 낮았다.

〈표 Ⅵ-2-3〉 현재 주택점유 형태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월세, 반전세 (보증금 있음)	사글세 (보증금 없음)	자가 (자기집)	전세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무상	기타	계
전 체	(251,277)	15.0	1.9	58.1	10.7	4.7	3.8	3.4	2.5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12.3	2.5	65.5	8.5	4.0	2.6	3.1	1.5	100.0
	뇌병변	(42,177)	15.6	1.7	58.5	11.2	4.3	3.1	3.2	2.3	100.0
	시각	(21,557)	18.8	2.8	55.7	8.3	4.7	2.9	3.8	2.9	100.0
	청각/언어	(73,818)	12.7	1.3	**60.1**	12.0	4.7	3.7	2.4	3.0	100.0
	지적/자폐성	(23,852)	17.6	1.1	56.1	10.8	4.1	3.3	4.3	2.6	100.0
	정신	(8,894)	15.9	1.5	42.0	10.8	7.6	9.6	8.3	4.3	100.0
	내부/안면	(31,447)	18.8	2.4	48.5	12.0	5.7	6.1	4.4	2.3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17.5	1.4	52.1	11.5	4.9	5.1	4.8	2.8	100.0
	경증	(158,661)	13.5	2.1	**61.6**	10.2	4.5	3.1	2.7	2.3	100.0

4) 주택 마련 방법(1순위)

장애인 패널 가구의 주택 마련 방법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가 6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 가족의 도움(22.1%), 정부 제공(8.3%), 대출(5.9%) 등의 순이다.

장애 유형별로 주택 마련 방법을 살펴보면, 정신 장애의 '정부 제공' 비율이 14.7%로 타 장애 유형 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 정도별로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주택 마련을 한 경우는 경증 장애(66.3%)에서 중증(57.7%)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던 반면, 중증 장애의 '가족의 도움' 및 '정부 제공' 비율은 각각 26.2%, 10.3%로 경증 장애(각각 19.7%, 7.2%) 보다 높았다.

〈표 Ⅵ-2-4〉 주택 마련 방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추정수	본인 스스로	가족의 도움	대출	정부 제공	기타	계
전 체		(251,277)	**63.1**	22.1	5.9	8.3	0.6	100.0
패널 장애 유형	지체	(49,532)	68.0	18.0	5.7	7.3	1.0	100.0
	뇌병변	(42,177)	61.6	24.1	5.7	7.7	0.9	100.0
	시각	(21,557)	64.1	23.0	4.1	8.2	0.6	100.0
	청각/언어	(73,818)	66.5	19.8	6.8	6.7	0.3	100.0
	지적/자폐성	(23,852)	53.7	30.3	6.3	9.5	0.1	100.0
	정신	(8,894)	43.3	37.5	4.4	**14.7**	0.0	100.0
	내부/안면	(31,447)	61.8	19.8	5.7	12.0	0.6	100.0
패널 장애 정도	중증	(92,616)	57.7	**26.2**	5.4	**10.3**	0.5	100.0
	경증	(158,661)	**66.3**	19.7	6.2	7.2	0.6	100.0

Ⅶ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조사 결과(가구원)

Ⅶ 장애인삶 패널조사 2차 조사 결과(가구원)

1. 응답자 특성

조사 대상은 본 조사의 패널(2015년 ~ 2017년 사이 보건복지부에 장애를 등록한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만 12세 이상 가구원이다. 따라서 가구원 파트에서 제시된 결과는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전체로 확대 해석 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해석 시 유의해야 한다. 가구원의 경우 모집단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모수 추정하지 않았으며, 응답된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가구원은 총 5,005명 조사 완료 되었다. 응답자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2,064명(41.2%), 여성이 2,941명(58.8%)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1-1〉 응답자(가구원)의 특성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비율
전 체		(5,005)	100.0
성별	남성	(2,064)	41.2
	여성	(2,941)	58.8

2. 장애수용 및 변화

1) 장애수용

(1) 패널의 장애 특성 인지 정도

가구원에게 패널의 장애 특성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91.5%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알고 있다' 는 응답 비율이 91.3%로 여성(91.7%) 보다 낮았다.

〈표 Ⅶ-2-1〉 패널의 장애 정보 인지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전혀 모름	②거의 모르는 편임	③알고 있는 편임	④매우 잘 알고 있음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0.4	8.1	60.5	31.0	8.5	**91.5**	100.0
성별	남성	(2,064)	0.3	8.4	61.1	30.2	8.7	91.3	100.0
	여성	(2,941)	0.4	7.9	60.1	31.7	8.3	**91.7**	100.0

주1) '전혀 모름' 부터 '매우 잘 알고 있음'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장애 관련 도움처

가구원에게 패널의 장애 발생 후 도움처를 물어본 결과, '없음'의 응답 비율이 32.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의료기관 종사자(25.7%), 가족 또는 친인척(23.4%), 장애인복지관 또는 치료실(7.0%),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 또는 장애아동 부모(5.9%), 구청 또는 주민센터(7.6%) 등의 순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가족 또는 친인척'이라는 응답 비율이 25.4%로 여성(3.5%) 대비 높았던 반면, 남성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 또는 장애아동 부모'라는 응답은 4.1%로 여성(7.1%) 보다 낮았다.

〈표 Ⅶ-2-2〉 장애 관련 도움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없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 또는 장애아동 부모	온라인 (SNS,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장애인 복지관 또는 치료실	구청 또는 주민센터	의료 기관 종사자	종교 기관	가족 또는 친인척	기타	계
전 체		(5,005)	**32.3**	5.9	2.0	7.0	2.7	25.7	0.6	23.4	0.6	100.0
성별	남성	(2,064)	32.5	4.1	2.2	5.8	2.6	26.3	0.7	**25.4**	0.4	100.0
	여성	(2,941)	32.1	**7.1**	1.9	7.8	2.7	25.3	0.4	21.9	0.7	100.0

(3)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1순위)

가구원에게 패널의 장애진단 시 애로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물어본 결과,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의 응답 비율이 54.6%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름'(22.6%), '의료기관에서 장애치료,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음'(10.0%) 등의 순이다. 성별에 따른 장애진단 시 애로사항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3〉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어려움	장애를 형제나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어려움	의료기관마다 장애치료, 진단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	의료기관에서 장애 치료, 상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주지 않음	장애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름	기타	없음	계
전 체		(5,005)	54.6	6.7	4.5	10.0	22.6	0.7	1.0	100.0
성별	남성	(2,064)	53.8	7.0	4.5	10.9	21.9	0.5	1.3	100.0
	여성	(2,941)	55.1	6.5	4.5	9.3	23.1	0.8	0.7	100.0

(4) 장애수용

가구원에게 패널의 장애가 가구원의 삶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결과, '외출/여가활동'이 4.60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다음 '생활방식'(4.60점), '직업/구직'(4.76점), '대인관계'(4.81점)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생활방식'이 4.60점으로 가장 낮았고, 여성은 '외출/여가활동'이 4.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Ⅶ-2-4〉 패널의 장애가 삶에 미친 영향

(단위: 명, 점)

구 분		응답수	성격 및 가치관	생활 방식	건강	교육/ 학업	직업/ 구직	결혼/ 연애	대인 관계	외출/ 여가활동
전 체		(5,005)	4.82	4.60	4.86	5.29	4.76	4.98	4.81	4.60
성별	남성	(2,064)	4.89	4.70	4.98	5.36	4.98	5.05	4.91	4.73
	여성	(2,941)	4.78	4.54	4.78	5.24	4.61	4.94	4.74	4.51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장애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함
주2) 직업/구직은 만 19세 이상만, 결혼/연애는 만 1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에게 패널의 장애관련 자신의 경험을 물어본 결과, '(1) 패널은 장애의 발생원인,

치료, 관리 등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③+④) 비율이 7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패널은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36.7%로 가장 낮았다.

〈표 Ⅶ-2-5〉 패널의 장애와 관련한 자신의 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패널은 장애의 발생원인, 치료, 관리 등 장애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5,005)	3.5	20.4	63.0	13.2	23.9	**76.1**	100.0
(2) 패널은 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5,005)	7.5	37.1	46.2	9.2	44.6	55.4	100.0
(3) 패널은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5,005)	3.9	25.7	54.3	16.1	29.6	70.4	100.0
(4) 패널은 사회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5,005)	12.6	50.6	32.7	4.0	63.3	36.7	100.0
(5) 패널은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5,005)	11.1	42.4	38.2	8.2	53.6	46.4	100.0
(6) 패널은 사회가 장애를 보는 관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5,005)	4.4	40.1	48.5	7.0	44.5	55.5	100.0
(7) 패널은 장애가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5,005)	9.0	36.3	46.0	8.8	45.3	54.7	100.0
(8) 패널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005)	7.0	29.0	48.3	15.7	36.0	64.0	100.0
(9) 패널은 종교적인 믿음이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돕는다고 생각한다	(5,005)	14.8	38.8	40.7	5.7	53.6	46.4	100.0
(10) 패널은 장애로 인해 외부활동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한다	(5,005)	14.1	34.5	39.9	11.4	48.7	51.3	100.0
(11) 패널은 장애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005)	9.9	38.4	46.1	5.6	48.3	51.7	100.0
(12) 패널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지 충분히 알고 이해한다	(5,005)	6.0	28.1	58.1	7.7	34.1	65.9	100.0
(13) 패널은 장애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려 애쓴다고 생각한다	(5,005)	6.8	35.0	51.9	6.3	41.8	58.2	100.0
(14) 패널은 장애에 완전하게 적응했다고 생각한다	(5,005)	6.4	36.4	53.3	4.0	42.7	57.3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가구원에게 패널의 장애수용 문항의 세부항목별 응답결과 '(6) 패널은 장애보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점수가 2.68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7) 패널은 장애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장애수용 점수가 가장 낮았다. 성별에 따른 장애수용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6〉 장애수용

(단위: 명, 점)

구 분		응답수	(1) 패널은 장애 때문에 사람들을 잘 사귀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2) 패널은 장애 때문에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3) 패널은 장애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없어 속상하다고 생각한다	(4) 패널은 장애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5) 패널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에 만족한다고 생각한다	(6) 패널은 장애보다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5,005)	2.39	2.40	2.20	2.31	2.39	2.68
성별	남성	(2,064)	2.39	2.42	2.18	2.31	2.39	2.69
	여성	(2,941)	2.38	2.39	2.21	2.31	2.39	2.67

구 분		(7) 패널은 장애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8) 패널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9) 패널은 자신의 장애를 잊고 살만큼 삶을 재미있게 산다고 생각한다	(10) 패널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11) 비록 패널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2) 패널은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전 체		2.10	2.67	2.32	2.32	2.34	2.58
성별	남성	2.10	2.69	2.31	2.32	2.34	2.58
	여성	2.10	2.67	2.32	2.32	2.34	2.59

주1)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그런 편이다, ④매우 그렇다)로 점수화함
주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1, 3, 7, 12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가구원에게 패널이 장애에 적응한 정도를 물어본 결과, '적응했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81.0%로 조사되었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적응했다는 응답 비율은 81.3%로 여성(80.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Ⅷ-2-7〉 패널이 장애에 적응한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적응하지 못함	② 거의 적응하지 못한 편임	③ 적응한 편임	④ 매우 적응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1.4	17.6	76.5	4.5	19.0	**81.0**	100.0
성별	남성	(2,064)	1.3	17.4	76.8	4.5	18.8	81.3	100.0
	여성	(2,941)	1.4	17.7	76.3	4.6	19.1	80.9	100.0

주1) '전혀 적응하지 못함' 부터 '매우 적응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심리상태

(1) 우울증

가구원의 우울한 정도를 살펴보면,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가 2.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가 1.3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우울한 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2-8〉 우울증

(단위: 명, 점)

구 분		응답수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2) 비교적 잘 지냈다	(3) 상당히 우울했다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5) 잠을 설쳐서 자지 못했다
전 체		(5,005)	1.57	2.07	1.58	1.79	1.61
성별	남성	(2,064)	1.51	2.02	1.51	1.72	1.54
	여성	(2,941)	1.60	2.10	1.63	1.83	1.66
구 분		(6) 혼자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다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8) 사람들이 나를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9) 그냥 슬펐다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전 체		1.53	**2.28**	1.38	1.49	**1.34**	1.58
성별	남성	1.47	2.23	1.36	1.42	1.31	1.52
	여성	1.57	2.32	1.40	1.54	1.35	1.63

주1) 4점 척도(①극히 드물다, ②가끔 있었다, ③종종 있었다, ④대부분 그랬다)로 점수화함
주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2, 7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2) 자아존중감

가구원의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가 3.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가 2.6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2-9〉 자아존중감

(단위: 명, 점)

구 분		응답수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2)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3) 나는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4)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을 잘할 수 있다	(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 체		(5,005)	2.97	2.99	3.07	2.89	2.95
성별	남성	(2,064)	2.98	3.01	3.1	2.93	2.98
	여성	(2,941)	2.95	2.98	3.06	2.87	2.93

구 분		(6)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9) 나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나는 나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 체		**2.63**	2.74	2.79	3.2	**3.23**
성별	남성	2.63	2.74	2.81	3.23	3.26
	여성	2.63	2.74	2.77	3.18	3.21

주1) 4점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그렇다, ④항상 그렇다)로 점수화함
주2) 평균 산출 시 일부 문항은 역코딩함 (문항 3, 6, 9, 10번 : ①→④, ②→③, ③→②, ④→①)

(3) 이민고려 이유

가구원에게 패널과 함께 이민고려 이유를 물어본 결과, '이민을 생각해본 적 없음'의 응답 비율이 93.0%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사회의 장애에 대한 차별이 싫어서'(3.8%)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한국사회의 장애에 대한 차별이 싫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4.3%로 남성(3.1%)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Ⅶ-2-10〉 이민고려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이민을 생각해본 적 없음	한국사회의 장애에 대한 차별이 싫어서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해	외국어 습득/국제적 안목을 키우기 위해	한국사회의 위험 불감증, 전쟁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개인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사회 부조리가 없는 사회에서 살기 위해	기타	계
전 체		(5,005)	93.0	3.8	1.4	0.3	0.4	0.5	0.5	0.1	100.0
성별	남성	(2,064)	93.3	3.1	1.6	0.4	0.3	0.5	0.7	0.1	100.0
	여성	(2,941)	92.8	4.3	1.2	0.2	0.5	0.5	0.4	0.1	100.0

(4) 자살

지난 1년간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적이 있다는 가구원의 응답 비율은 2.7%로 나타났다. 자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 가구원의 비율은 3.0%로 남성(2.2%)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Ⅶ-2-11〉 자살생각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5,005)	2.7	97.3	100.0
성별	남성	(2,064)	2.2	97.8	100.0
	여성	(2,941)	3.0	97.0	100.0

가구원의 자살생각 이유를 살펴보면, '육체적/정신적 건강문제'가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가족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30.4%), '장애인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2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자살생각의 이유라고 응답 비율은 32.6%로 여성(29.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2-12〉 자살생각 이유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육체/정신적 건강 문제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	괴롭힘, 학대, 폭력	장애인 가족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	남녀 관계 및 결혼 문제	직장, 직업 문제	외로움, 고독	배우자, 가족, 지인의 사망	계
전 체		(135)	**39.3**	30.4	0.7	22.2	0.7	1.5	4.4	0.7	100.0
성별	남성	(46)	41.3	**32.6**	0.0	19.6	0.0	0.0	6.5	0.0	100.0
	여성	(89)	38.2	29.2	1.1	23.6	1.1	2.2	3.4	1.1	100.0

주1)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의 자살충동 행동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혼자서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가족과 이야기 했다'(6.7%), '친구, 이웃과 이야기 했다' 및 '병원에 상담을 요청했다'(각각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혼자서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84.8%로 여성(88.8%) 보다 낮았다.

〈표 Ⅶ-2-13〉 자살 충동 행동 (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혼자서 생각했다	가족과 이야기 했다	친구, 이웃과 이야기 했다	병원에 상담을 요청했다	사회복지 시설에 도움을 구했다	기타	계
전 체		(135)	87.4	6.7	2.2	2.2	0.7	0.7	100.0
성별	남성	(46)	84.8	6.5	2.2	4.3	0.0	2.2	100.0
	여성	(89)	88.8	6.7	2.2	1.1	1.1	0.0	100.0

주1)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의 자살시도 경험 비율은 4.4%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자살시도 경험률은 10.9%로 여성(1.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2-14〉 자살시도 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135)	4.4	95.6	100.0
성별	남성	(46)	10.9	89.1	100.0
	여성	(89)	1.1	98.9	100.0

주1)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사회관계

(1) 패널과의 관계 정도

가구원과 패널과의 관계 정도를 살펴보면, '좋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93.5%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패널과의 관계 정도는 남성(93.9%)이 여성(93.3%) 대비 소폭 더 높았다.

〈표 Ⅶ-2-15〉 패널과의 관계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나쁘다	② 별로 좋지 않은 편이다	③ 대체로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①+②	③+④	잘 모르겠다	계
전 체		(5,005)	0.2	5.3	61.6	31.9	5.5	93.5	1.0	100.0
성별	남성	(2,064)	0.1	4.8	62.3	31.6	5.0	93.9	1.1	100.0
	여성	(2,941)	0.2	5.6	61.1	32.2	5.8	93.3	0.9	100.0

주1) '매우 나쁘다' 부터 '매우 좋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가족관계

가구원의 가족관계 만족도를 살펴보면, '(5) 나는 형제/자매/친척과 관계가 좋다'의 그렇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9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4) 나는 자녀와 관계가 좋다(75.4%)', '(1)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7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2) 나는 처가/시댁과 관계가 좋다(54.6%)'로 조사되었다.

〈표 Ⅶ-2-16〉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거의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그런 편이다	④ 매우 그렇다	①+②	③+④	해당 없음	계
(1) 나는 부모와 관계가 좋다	(5,005)	0.4	3.6	43.0	27.1	3.9	70.1	26.0	100.0
(2) 나는 처가/시댁과 관계가 좋다	(5,005)	0.5	4.9	39.3	15.3	5.4	54.6	40.0	100.0
(3) 나는 배우자와 관계가 좋다	(5,005)	0.4	4.8	44.3	23.1	5.2	67.4	27.4	100.0
(4) 나는 자녀와 관계가 좋다	(5,005)	0.3	3.1	44.2	31.2	3.4	75.4	21.2	100.0
(5) 나는 형제/자매/친척과 관계가 좋다	(5,005)	0.6	7.4	62.5	27.6	8.0	**90.0**	2.0	10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주2) 미성년자 또는 미혼인 경우 (2)번, (3)번, (4)번 문항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함
주3) 부모, 형제, 자매, 친척이 없는 경우 (1)번, (5)번 문항에 해당 없음으로 응답함

가구원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평가를 물어본 결과, ‘(7) 우리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의 그렇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8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6)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87.5%), ‘(9)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 발생시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8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12) 우리가족만의 전통이 있다’(71.4%)로 조사되었다.

〈표 Ⅶ-2-17〉 가족관계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솔직하다	(5,005)	0.8	13.2	59.8	26.1	14.0	86.0	100.0
(2) 문제를 해결할 때, 가족원 모두에게 최선의 해결이 되도록 노력한다	(5,005)	1.0	12.3	51.0	35.7	13.3	86.7	100.0
(3) 우리가족은 화목하다	(5,005)	1.1	14.6	53.6	30.7	15.7	84.3	100.0
(4) 우리가족은 서로를 믿으며 숨김없이 모든 것을 털어 놓고 산다	(5,005)	1.5	18.2	53.8	26.5	19.7	80.3	100.0
(5) 우리가족은 서로 비슷한 가치관과 신념을 갖고 있다	(5,005)	1.9	18.8	54.9	24.4	20.7	79.3	100.0
(6)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가족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5,005)	1.0	11.5	53.6	33.9	12.5	87.5	100.0
(7) 우리가족은 서로를 감싸준다	(5,005)	0.7	11.1	53.2	35.0	11.8	**88.2**	100.0
(8) 우리가족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치한다	(5,005)	1.0	17.0	55.1	26.8	18.1	81.9	100.0
(9) 우리가족은 어려운 문제 발생시 가족원끼리 협력하면서 해결한다	(5,005)	0.9	12.3	55.3	31.5	13.2	86.8	100.0
(10) 우리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한다	(5,005)	0.8	15.2	56.7	27.3	16.0	84.0	100.0

〈표 Ⅶ-2-17〉 가족관계 평가 – 계속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지 않다	③ 가끔 그렇다	④ 항상 그렇다	①+②	③+④	계
(11) 우리가족은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가족원 모두가 의견을 제시한다	(5,005)	1.2	16.4	57.1	25.3	17.6	82.4	100.0
(12) 우리가족만의 전통이 있다 (가훈, 가치관, 규칙 등)	(5,005)	3.9	24.7	50.9	20.6	28.6	71.4	100.0
(13) 우리가족은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5,005)	1.1	13.5	57.4	28.0	14.6	85.4	100.0
(14) 우리가족은 서로에 대해 충분한 관심을 보였다	(5,005)	0.8	14.1	56.3	28.9	14.9	85.1	100.0
(15) 우리가족은 서로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	(5,005)	0.9	15.7	57.7	25.7	16.6	83.4	100.0
(16) 우리가족의 가치관과 규칙은 명확하다	(5,005)	1.9	21.4	55.2	21.5	23.3	76.7	100.0
(17) 우리가족 간의 의견차는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다	(5,005)	2.1	20.6	56.1	21.3	22.7	77.3	100.0
(18) 우리가족은 서로에게 진실하다	(5,005)	1.1	15.2	56.9	26.8	16.2	83.8	100.0
(19) 우리가족은 서로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5,005)	1.0	14.3	60.4	24.3	15.3	84.7	100.0
(20) 우리가족은 규칙이나 가치관을 가족과 함께 만든다	(5,005)	1.6	17.6	61.4	19.5	19.2	80.8	100.0

주1) '그렇지 않다' 부터 '항상 그렇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3) 연락 빈도

가족·친척·친구·이웃/동료와의 연락 빈도를 살펴보면, '거의 매일' 연락한다는 응답 비율은 '(1) 가족_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연락하지 않음'의 응답 비율은 '(2) 친인척_(외)조부모, (외)삼촌, (외)숙모, 고모, 이모, 사촌 등'이 48.6%로 가장 높았다. 그 외 모든 항목은 '1달에 1번 정도' 만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표 Ⅶ-2-18〉 연락 빈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연락 하지 않음	1년에 1번 정도	1달에 1번 정도	1주에 1번 정도	거의 매일	해당 없음	계
(1)가족_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5,005)	0.9	7.3	20.6	25.8	**36.9**	8.6	100.0
(2)친인척_(외)조부모,(외)삼촌, (외)숙모, 고모, 이모, 사촌 등	(5,005)	14.1	**48.6**	24.3	5.7	1.5	5.9	100.0
(3)친구_고향친구, 동네 및 학교친구	(5,005)	11.9	27.8	**32.4**	15.7	10.1	2.1	100.0
(4)이웃동료_직장동료, 선후배, 취미 클럽회원, 종교단체, 장애인가족모임 회원, 이웃	(5,005)	12.5	17.1	**25.2**	17.9	12.4	14.9	100.0
(5)전문가_사회복지사, 동주센터직원, 의사, 교사, 상담사	(5,005)	24.8	22.8	**26.5**	8.1	2.1	15.6	100.0

3. 건강/의료

1) 건강

(1) 건강상태

가구원이 지난 6개월 동안 패널을 돌보다가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원 중 3.9%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6개월간 패널 돌봄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이 있었다는 여성의 응답 비율은 4.9%로 남성(2.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3-1〉 패널 돌봄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은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5,005)	3.9	96.1	100.0
성별	남성	(2,064)	2.5	97.5	100.0
	여성	(2,941)	4.9	95.1	100.0

1년 전과 비교 시 가구원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건강해졌다(④+⑤)'는 응답 비율이 8.0%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건강해졌다는 응답 비율은 8.3%로 여성(7.8%)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Ⅶ-3-2〉 전년 대비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안좋아 졌다	② 조금 안좋아 졌다	③ 비슷 하다	④ 조금 건강해 졌다	⑤ 매우 건강 해 졌다	①+②	④+⑤	계
전 체		(5,005)	1.3	13.0	77.6	7.3	0.7	14.4	8.0	100.0
성별	남성	(2,064)	1.1	10.5	80.1	7.7	0.6	11.6	8.3	100.0
	여성	(2,941)	1.5	14.8	75.9	7.1	0.7	16.3	7.8	100.0

주1) '매우 안좋아 졌다' 부터 '매우 건강해 졌다' 까지 5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패널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패널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가구원은 '건강검진비 지원'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이동지원'(12.7%), '체육시설 이용지원'(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이동지원' 응답이 13.3%로 여성(12.3%) 대비 소폭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Ⅶ-3-3〉 패널의 건강 및 관리를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건강검진비 지원	이동지원	체육시설 이용지원 (할인혜택, 도움제공)	건강검진센터 내 장애전문요원 필요	서비스제공자의 장애인식 증가	건강관리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	기타	없음	계
전 체		(5,005)	53.7	12.7	12.0	6.5	5.2	9.5	0.2	0.2	100.0
성별	남성	(2,064)	53.8	13.3	11.8	6.4	4.9	9.6	0.1	0.2	100.0
	여성	(2,941)	53.6	12.3	12.1	6.6	5.4	9.5	0.2	0.3	100.0

(4)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지난 6개월간 가구원의 전반적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74.8%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77.5%는 6개월간 전반적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성(72.9%) 보다 높은 편이다.

〈표 Ⅶ-3-4〉 지난 6개월간 전반적인 건강상태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좋은 편이다	④ 매우 좋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1.2	24.0	72.0	2.8	25.2	74.8	100.0
성별	남성	(2,064)	1.0	21.5	74.0	3.5	22.5	77.5	100.0
	여성	(2,941)	1.3	25.8	70.6	2.3	27.1	72.9	100.0

주1) '매우 나쁘다' 부터 '매우 좋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5) 만성질환(질병)

만성질환(질병)을 가지고 있는 가구원은 31.4%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31.9%는 만성질병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성(31.1%)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표 Ⅶ-3-5〉 만성질환(질병) 유무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5,005)	31.4	68.6	100.0
성별	남성	(2,064)	31.9	68.1	100.0
	여성	(2,941)	31.1	68.9	100.0

만성질병 유형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혈압, 저혈압'이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8.1%), 당뇨병(3.6%) 등의 순이다. 만성질병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68.6%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12.8%는 '고혈압,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성(8.0%) 보다 높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우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가 9.8%로 남성(5.6%)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Ⅶ-3-6〉 만성질병 유형(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암 (위,간, 폐,기관지 등)	관절염, 요통, 좌골통, 디스크	위염, 위궤양, 십이장궤양 등	만성간염, 간경변	당뇨병	갑상선 질환	고혈압, 저혈압	중풍, 뇌혈관 질환	심근경색증, 협심증	폐결핵, 결핵
전 체		(5,005)	1.1	8.1	1.8	0.2	3.6	0.9	10.0	0.8	0.5	0.0
성별	남성	(2,064)	1.0	5.6	1.5	0.1	4.8	0.1	12.8	1.2	0.7	0.0
	여성	(2,941)	1.2	9.8	2.0	0.2	2.7	1.4	8.0	0.6	0.3	0.0

구 분		만성기관지염 (심한 가래, 기침 등)	천식	백내장, 녹내장	만성중이염	만성신부전증 (만성신장질환)	골절, 탈골 및 사고로 인한 후유증	골다공증	정신질환 (우울증 등)	전립선 질환	기타	없음
전 체		0.3	0.3	0.2	0.1	0.3	0.2	0.5	1.2	0.2	1.3	68.6
성별	남성	0.3	0.5	0.3	0.0	0.2	0.2	0.3	0.8	0.6	0.9	68.1
	여성	0.3	0.2	0.2	0.1	0.3	0.3	0.6	1.5	0.0	1.5	68.9

(6) 운동

가구원의 주 평균 운동 일수를 살펴보면, '1~2일'이 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0일(26.3%), 3~4일(21.0%), 5~6일(11.6%), 7일(3.1%) 등의 순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0일(운동하지 않음)' 응답 비율이 24.7%로 여성(27.4%)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Ⅶ-3-7〉 주 평균 운동 일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0일	1~2일	3~4일	5~6일	7일	계
전 체		(5,005)	26.3	**38.0**	21.0	11.6	3.1	100.0
성별	남성	(2,064)	24.7	36.6	21.9	13.0	3.8	100.0
	여성	(2,941)	**27.4**	39.0	20.3	10.7	2.6	100.0

가구원의 1회 평균 운동 시간을 살펴보면, '30분~60분 미만'이 5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60분~90분 미만(30.2%) 등의 순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1회 평균 '30분~60분 미만' 응답 비율이 45.9%로 여성(54.8%) 보다 낮았다.

〈표 Ⅶ-3-8〉 운동 시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30분 미만	30분~60분 미만	60분~90분 미만	90분 이상	계
전 체		(3,690)	13.4	**51.1**	30.2	5.3	100.0
성별	남성	(1,555)	11.4	45.9	35.1	7.6	100.0
	여성	(2,135)	14.8	**54.8**	26.7	3.7	100.0

주1) 1주일 평균 운동 일수가 '1일' 이상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의료서비스

(1) 처방약 복용 여부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가구원은 26.8%로 조사되었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로 여성(25.6%)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Ⅷ-3-9〉 처방약 복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5,005)	**26.8**	73.2	100.0
성별	남성	(2,064)	**28.5**	71.5	100.0
	여성	(2,941)	25.6	74.4	100.0

(2) 건강검진

2019년 건강검진 받은 경험이 있다는 가구원은 45.8%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43.5%는 건강검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49.0%) 보다 낮은 수준이다.

〈표 Ⅷ-3-10〉 건강검진 받은 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5,005)	**45.8**	54.2	100.0
성별	남성	(2,064)	**49.0**	51.0	100.0
	여성	(2,941)	43.5	56.5	100.0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로는 '검진대상이 아니어서'가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건강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27.5%), 경제적 부담(11.9%), 정보부족(5.0%) 등의 순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다'는 응답 비율이 31.4%로 여성(25.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3-11〉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경제적 부담	이전에 좋지 않은 경험	정보 부족	건강 검진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해서	검진 대상이 아니어서	기 타	없 음	계
전 체		(2,713)	11.9	2.2	5.0	27.5	**48.9**	4.3	0.1	100.0
성별	남성	(1,052)	11.4	2.2	3.2	**31.4**	48.4	3.3	0.1	100.0
	여성	(1,661)	12.3	2.2	6.1	25.1	49.2	5.0	0.1	100.0

주1) 건강검진 경험에 대해 '없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지난 6개월간 필요한 의료적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

지난 6개월간 필요한 의료적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의 비율은 3.9%이다. 여성 가구원의 4.3%는 지난 6개월간 필요한 의료적 진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3.3%) 가구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3-12〉 지난 6개월 필요한 의료 받지 못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5,005)	**3.9**	96.1	100.0
성별	남성	(2,064)	3.3	96.7	100.0
	여성	(2,941)	**4.3**	95.7	100.0

충분한 진료 받지 못한 이유로는 '진료비 부담'이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시간의 부족'(22.2%), '가족돌봄으로 인해'(12.9%), '진료를 받아도 낫지 않을 것 같아서'(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진료를 받아도 낫지 않을 것 같아서'의 응답 비율이 10.1%로 여성(5.6%) 보다 높았던 반면, '가족돌봄으로 인해'의 응답 비율은 여성(14.4%)이 남성(10.1%) 대비 높았다.

〈표 Ⅶ-3-13〉 충분한 진료를 받지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진료비 부담	시간의 부족	가족돌봄으로 인해	진료를 받아도 낫지 않을 것 같아서	정보 부족	기타	계
전 체		(194)	**55.7**	22.2	12.9	7.2	1.0	1.0	100.0
성별	남성	(69)	56.5	23.2	10.1	**10.1**	0.0	0.0	100.0
	여성	(125)	55.2	21.6	**14.4**	5.6	1.6	1.6	100.0

주1) 지난 6개월 동안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예'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안전

(1) 평상 시 안전도

평상 시 생활에서의 안전과 관련한 가구원의 인식을 살펴보면, '안전하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94.0%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평상 시 안전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Ⅶ-3-14〉 평상 시 안전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위험함	② 위험한 편임	③ 안전한 편임	④ 매우 안전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0.2	5.9	87.9	6.1	6.0	**94.0**	100.0
성별	남성	(2,064)	0.2	5.7	87.5	6.6	5.9	94.1	100.0
	여성	(2,941)	0.1	6.0	88.1	5.8	6.2	93.8	100.0

주1) '매우 위험함' 부터 '매우 안전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여부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65.7%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이 실시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69.4%로 여성(6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3-15〉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알고 있음	모름	계
전 체		(5,005)	**65.7**	34.3	100.0
성별	남성	(2,064)	**69.4**	30.6	100.0
	여성	(2,941)	63.0	37.0	100.0

(3)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경험

지난조사 이후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22.2%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참여 경험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7.2%로 여성(1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3-16〉 지난조사 이후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3,286)	22.2	77.8	100.0
성별	남성	(1,433)	27.2	72.8	100.0
	여성	(1,853)	18.2	81.8	100.0

주1) 재난대응 종합교육훈련 실시 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으로 '(2)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와 '(6)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의 '할 수 있다(③+④)'라고 응답한 가구원 비율이 각각 9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1)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95.5%), '(5) 대피소를 알고 패널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9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문항은 '(4)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75.8%)로 나타났다.

〈표 Ⅶ-3-17〉 위급상황 발생 시 행동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못함	② 거의 못함	③ 조금 할 수 있음	④ 충분히 할 수 있음	①+②	③+④	계
(1) 재난이나 위급상황 발생시 소방서,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5,005)	0.5	4.0	20.3	75.2	4.5	95.5	100.0
(2)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수 있다	(5,005)	0.7	3.5	19.7	76.1	4.3	95.7	100.0
(3) 집안/건물 내에 소화기, 비상벨의 위치를 알고 있다	(5,005)	2.4	7.9	22.8	66.9	10.3	89.7	100.0
(4)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5,005)	6.9	17.3	24.5	51.4	24.2	75.8	100.0
(5) 대피소를 알고 패널과 함께 이동할 수 있다	(5,005)	1.6	5.8	24.2	68.4	7.4	92.6	100.0
(6) 재난이나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다	(5,005)	0.5	3.8	22.1	73.6	4.3	95.7	100.0

주1) '전혀 못함' 부터 '충분히 할 수 있음'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4. 자립

1) 일상 및 여가활동

(1)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패널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 지에 대해 '필요하다(③+④)'라고 응답한 가구원은 70.9%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71.6%는 패널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69.9%) 보다 높은 편이다.

〈표 Ⅷ-4-1〉 패널의 일상생활 도움 필요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필요없다	② 거의 필요없는 편이다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7.2	21.9	50.7	20.2	29.1	**70.9**	100.0
성별	남성	(2,064)	7.0	23.1	50.9	19.0	30.1	69.9	100.0
	여성	(2,941)	7.2	21.1	50.6	21.0	28.4	**71.6**	100.0

주1) '전혀 필요없다' 부터 '매우 필요하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일상생활 도움 제공 여부

가구원 중 패널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3.7%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68.0%는 패널의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성(57.6%) 보다 높은 수준이다.

〈표 Ⅷ-4-2〉 가구원의 일상생활 도움 제공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네	아니오	계
전 체		(5,005)	**63.7**	36.3	100.0
성별	남성	(2,064)	57.6	42.4	100.0
	여성	(2,941)	68.0	32.0	100.0

(3) 도움제공 분야(1순위)

가구원이 패널에게 제공하는 도움 분야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집안일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17.6%), '이동'(13.4%), '의사소통'(1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20.5%는 패널에게 제공하는 도움 분야의 1순위가 '이동'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성(9.2%)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집안일'에 대한 응답은 여성(44.2%)이 남성(30.8%)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Ⅷ-4-3〉 도움제공 분야(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세면 및 개인위생관리 (목욕, 대소변, 등)	이동(휠체어 밀어주기, 길 안내하기, 버스타고 내리기 등)	의사소통 (대화하기, 전화하기, 문자 쓰기 등)	집안일 (청소, 식사준비 등)	건강관리 (약 챙겨 먹기, 운동 등)
전 체		(3,187)	17.6	13.4	13.1	**39.2**	5.7
성별	남성	(1,188)	15.4	20.5	14.8	30.8	5.6
	여성	(1,999)	18.9	9.2	12.1	44.2	5.9
구 분		학습활동 (언어배우기, 쓰기, 말하기 등)	금전관리 (저축, 가계부 쓰기 등)	여가 및 사회참여 (여행, 쇼핑 등)	육아/양육	기타	계
전 체		3.4	1.9	2.5	2.9	0.2	100.0
성별	남성	2.9	2.9	4.9	2.0	0.3	100.0
	여성	3.7	1.3	1.1	3.5	0.2	100.0

주1) 일상생활 도움 제공 경험에 대해 '네'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도움제공 시간

가구원의 패널에게 제공하는 도움 시간을 살펴보면, '10시간 이상'이 3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5시간 미만'(38.4%), '10시간 미만'(22.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10시간 이상' 도움을 제공한다는 응답 비율은 31.5%로 여성(43.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Ⅶ-4-4〉 도움제공 시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0시간	5시간 미만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전 체		(3,186)	0.7	38.4	22.0	**38.9**	100.0
성별	남성	(1,188)	1.3	44.8	22.5	31.5	100.0
	여성	(1,998)	0.4	34.5	21.7	**43.3**	100.0

주1) 일상생활 도움 제공 경험에 대해 '네'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도움 제공시 느끼는 부담

패널에게 도움 제공 시 느끼는 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된다(③+④)'라고 응답한 가구원 비율은 53.0%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은 57.2%로 남성(45.9%)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Ⅶ-4-5〉 도움 제공시 느끼는 부담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② 거의 부담되지 않는 편임	③ 부담되는 편임	④ 매우 부담됨	①+②	③+④	계
전 체		(3,187)	6.9	40.1	41.3	11.7	47.0	**53.0**	100.0
성별	남성	(1,188)	9.4	44.7	38.0	7.8	54.1	45.9	100.0
	여성	(1,999)	5.5	37.4	43.2	14.0	42.8	**57.2**	100.0

주1) 일상생활 도움 제공 경험에 대해 '네'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터 '매우 부담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6) 돌봄/양육 강화

가구원에게 패널의 돌봄/양육을 위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을 물어본 결과, '의료비 지원 확대'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활동지원시간 확대'(26.4%), '가사도우미 확대'(12.7%), '자녀양육 지원서비스 확대'(10.7%) 등의 순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의료비 지원 확대' 응답 비율은 44.0%로 여성(4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6〉 돌봄/양육 강화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활동 지원 시간 확대	가사 도우미 확대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확대	거주 시설 확대	의료비 지원 확대	기타	없음	계
전 체		(5,005)	26.4	12.7	10.7	7.0	**41.7**	0.6	0.9	100.0
성별	남성	(2,064)	25.0	14.0	9.3	6.5	**44.0**	0.5	0.7	100.0
	여성	(2,941)	27.4	11.8	11.7	7.4	40.0	0.6	1.1	100.0

(7) 돌봄/양육 책임

가구원에게 패널의 돌봄/양육을 책임지는 주체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족구성원'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국가'(40.6%), '장애인 스스로'(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55.8%는 '가족구성원'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여성(5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7〉 돌봄/양육 책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장애인 스스로	가족구성원	국가	기타	계
전 체		(5,005)	6.9	**52.4**	40.6	0.2	100.0
성별	남성	(2,064)	5.7	**55.8**	38.3	0.1	100.0
	여성	(2,941)	7.7	50.0	42.2	0.2	100.0

(8) 패널 지원으로 인해 못한 일

가구원에게 지난조사 이후 패널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한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 비율은 17.4%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패널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6%로 남성(12.8%)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Ⅷ-4-8〉 지난조사 이후 패널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못한 경험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5,005)	**17.4**	82.6	100.0
성별	남성	(2,064)	12.8	87.2	100.0
	여성	(2,941)	**20.6**	79.4	100.0

하지 못한 일의 유형으로는, 직장 및 구직관련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여가 혹은 여행'(39.5%), '가족 돌봄 관련'(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여가 혹은 여행'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44.9%로 여성(37.2%) 보다 높았던 반면, '직장 및 구직관련'일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여성(49.8%)이 남성(43.0%) 대비 높았다.

〈표 Ⅷ-4-9〉 하지 못한 일 유형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학업관련	직장 및 구직관련	가족 돌봄 관련	여가 혹은 여행	결혼	기타	계
전 체		(870)	3.7	**47.7**	7.0	39.5	0.8	1.3	100.0
성별	남성	(265)	3.8	43.0	6.0	**44.9**	1.1	1.1	100.0
	여성	(605)	3.6	**49.8**	7.4	37.2	0.7	1.3	100.0

주1) 패널을 위한 지원으로 인해 못한 일에 대해 '있음'으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9) 주부양자 부재시 패널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주거형태

가구원에게 패널의 주부양자가 부양할 수 없을 때 패널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주거형태를 물어본 결과, '장애인자립홈'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중증장애인 거주시설'(14.8%),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거주'(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희망하는 주거형태 차이는 거의 없었다.

〈표 Ⅶ-4-10〉 주부양자 부재 시 패널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주거형태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 유형별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거주	장애인 자립홈	잘 모르겠음	기타	계
전 체		(5,005)	14.8	12.2	15.6	56.7	0.7	100.0
성별	남성	(2,064)	14.7	12.3	15.4	56.7	0.9	100.0
	여성	(2,941)	14.8	12.2	15.7	56.7	0.6	100.0

(10) 현재 경제상태

가구원에게 1년간 경제상황 변화 정도를 물어본 결과, '비슷하다'는 응답이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나빠졌다(①+②)'는 응답이 22.6%로, '좋아졌다(③+④)'는 응답(3.7%) 대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1년간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22.0%)이 여성(23.1%) 대비 낮은 수준이었다.

〈표 Ⅶ-4-11〉 현재 경제상태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상당히 나빠 졌다	② 약간 나빠 졌다	③ 비슷 하다	③ 약간 좋아 졌다	④ 상당히 좋아 졌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3.9	18.7	73.6	3.5	0.2	22.6	3.7	100.0
성별	남성	(2,064)	4.0	18.0	74.3	3.5	0.2	22.0	3.7	100.0
	여성	(2,941)	3.8	19.2	73.2	3.6	0.2	23.1	3.7	100.0

주1) '크게 악화되었다' 부터 '크게 개선되었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11) 여가활동 만족

가구원에게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정도를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43.1%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여가활동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6.5%로 여성(40.6%)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Ⅷ-4-12〉 여가활동 만족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② 거의 만족하지 않는 편임	③ 만족하는 편임	④ 매우 만족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10.8	46.2	42.0	1.0	56.9	**43.1**	100.0
성별	남성	(2,064)	8.5	45.0	45.3	1.2	53.5	**46.5**	100.0
	여성	(2,941)	12.4	47.0	39.7	0.9	59.4	40.6	100.0

주1) '전혀 만족하지 않음' 부터 '매우 만족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2) 자립생활

(1) 패널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가구원에게 패널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물어본 결과, '예'라는 응답 비율은 9.0%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9.0%는 패널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남성(8.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13〉 패널의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5,005)	9.0	91.0	100.0
성별	남성	(2,064)	8.9	91.1	100.0
	여성	(2,941)	9.0	91.0	100.0

(2) 패널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충분정도

가구원에게 패널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충분한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충분하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33.3%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이 '충분하다'는 응답 비율은 29.3%로 여성(36.1%) 보다 낮은 편이다.

〈표 Ⅶ-4-14〉 패널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시간 충분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부족함	② 부족한 편임	③ 충분한 편임	④ 매우 충분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450)	8.7	58.0	31.8	1.6	66.7	33.3	100.0
성별	남성	(184)	6.5	64.1	28.3	1.1	70.7	29.3	100.0
	여성	(266)	10.2	53.8	34.2	1.9	63.9	36.1	100.0

주1)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여부에 대해 '예' 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매우 부족함' 부터 '매우 충분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3) 패널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가구원에게 패널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물어본 결과, '소득지원'이 2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취업'(각각 18.5%), '주거지원'(13.3%), '일상생활 활동지원'(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자립생활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직업재활/취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7%로 여성(19.7%)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Ⅶ-4-15〉 패널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요한 지원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직업 재활/ 취업	주거 지원	보조 기기	소득지원 (자립생활 정착지원 금 포함)	의료 재활	이동 편의	일상 생활 활동 지원	기타	없음	계
전 체		(5,005)	18.5	13.3	3.8	**29.1**	18.5	5.0	11.1	0.0	0.7	100.0
성별	남성	(2,064)	16.7	13.2	3.9	29.0	19.3	5.8	11.3	0.0	0.8	100.0
	여성	(2,941)	**19.7**	13.4	3.8	29.1	18.0	4.4	10.9	0.1	0.6	100.0

(4) 거주지 주변환경과 일생생활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변환경으로 인해 패널과 함께 생활하는데 불편함 정도에 대해, '편하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86.1%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84.9%는 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여성(84.9%)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Ⅶ-4-16〉 지역 환경으로 인한 불편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불편하다	② 불편한 편이다	③ 편한 편이다	④ 매우 편하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0.9	13.0	80.5	5.6	13.9	**86.1**	100.0
성별	남성	(2,064)	0.5	11.6	82.5	5.3	12.2	**87.8**	100.0
	여성	(2,941)	1.1	14.0	79.1	5.7	15.1	84.9	100.0

주1) '매우 불편하다' 부터 '매우 편하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거주지역의 일상생활 불편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18.8%),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18.2%),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하다'는 응답 비율이 39.0%로 여성(33.9%)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17〉 거주지역 일상생활 불편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시장, 마트, 은행 등 생활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대중교통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녹지공간, 공원 등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부족하거나 이용에 불편	기타	계
전 체		(696)	18.2	**35.8**	18.8	6.8	17.8	2.6	100.0
성별	남성	(251)	17.1	**39.0**	21.5	6.0	14.3	2.0	100.0
	여성	(445)	18.9	33.9	17.3	7.2	19.8	2.9	100.0

주1) 현재 살고 있는 지역 주변환경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편하다(①+②)' 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교육

(1) 학업중단/상급학교 미진학

지난조사 이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1.1%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8%로 여성(1.3%)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Ⅶ-4-18〉 지난조사 이후 학업중단/상급학교 진학 못한 경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아니오	계
전 체		(5,005)	1.1	98.9	100.0
성별	남성	(2,064)	0.8	99.2	100.0
	여성	(2,941)	1.3	98.7	100.0

가구원이 지난조사 이후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가족의 치료/재활로 인해'서가 38.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신의 치료/재활 때문에'(20.0%),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16.4%), '학비문제, 취업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14.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29.4%로 여성(1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19〉 지난조사 이후 학업중단/상급학교 진학을 못한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자신의 치료/재활 때문에	가족의 치료/재활로 인해	학교 선생님 혹은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학비문제, 취업 등 경제적 문제로 인해	학교를 다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기타	계
전 체		(55)	20.0	**38.2**	1.8	14.5	16.4	9.1	100.0
성별	남성	(17)	23.5	29.4	0.0	17.6	**29.4**	0.0	100.0
	여성	(38)	18.4	**42.1**	2.6	13.2	10.5	13.2	100.0

주1)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경험 여부에 대해 '예'로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2) 평생교육

평생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가구원은 3.1%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로 남성(2.7%) 보다 높았다.

〈표 Ⅷ-4-20〉 평생교육 참여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참여한 적 있음	참여한 적 없음	계
전 체		(4,830)	3.5	96.5	100.0
성별	남성	(1,987)	2.7	97.3	100.0
	여성	(2,843)	4.2	95.8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의 평생교육 참여 빈도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이 4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월 1회 미만(25.1%), 주 1회 이하(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주 2회 이상' 참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54.7%로 여성(43.2%) 보다 높던 반면, '주 1회 이하' 참여 비율은 여성(21.2%)이 남성(9.4%) 대비 높았다.

〈표 Ⅷ-4-21〉 평생교육 참여 빈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월 1회 미만	월 1회 이하	2주 1회 이하	주 1회 이하	주 2회 이상	계
전 체		(171)	25.1	5.8	4.7	17.5	46.8	100.0
성별	남성	(53)	28.3	5.7	1.9	9.4	54.7	100.0
	여성	(118)	23.7	5.9	5.9	21.2	43.2	100.0

주1) 평생교육 참여 여부에 대해 '참여한 적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가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시간이 없어서'(27.6%), '패널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서'(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패널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16.7%로 남성(10.7%)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22〉 평생교육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패널의 장애로 인한 치료/재활로 인해	가족의 치료/재활로 인해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참여하고 싶은 교육프로그램이 없어서	평생교육과정 내 인간관계 문제로 인해	학비 문제 등 형편이 안돼서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전 체		(4,659)	14.2	3.0	4.2	7.0	0.8	1.0	0.6
성별	남성	(1,934)	10.7	2.4	3.7	7.1	0.7	1.0	0.5
	여성	(2,725)	16.7	3.5	4.6	6.9	0.9	1.1	0.7

구 분		주변 시선과 편견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고령 등의 이유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기타	없음	계
전 체		0.6	33.1	27.6	7.4	0.3	0.0	100.0
성별	남성	0.8	34.7	30.1	8.1	0.3	0.1	100.0
	여성	0.5	32.0	25.9	6.9	0.3	0.0	100.0

4) 고용(취업)

(1) 일자리 유무

일자리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50.1%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 중 일자리가 있다는 응답 비율은 65.5%로 여성(39.4%) 보다 높았다.

〈표 Ⅶ-4-23〉 일자리 유무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4,830)	50.1	49.9	100.0
성별	남성	(1,987)	65.5	34.5	100.0
	여성	(2,843)	39.4	60.6	100.0

주1)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2)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지난 주 1시간 이상 '일을 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98.8%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1주일 동안 1시간 이상 '일을 했다'는 응답 비율은 남성(98.3%)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표 Ⅶ-4-24〉 지난 주 1시간 이상 근로 유무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일 함	일하지 않음	계
전 체		(2,422)	98.8	1.2	100.0
성별	남성	(1,301)	98.8	1.2	100.0
	여성	(1,121)	98.8	1.2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3) 근로형태

가구원의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5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임시근로자'(18.2%), '고용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14.4%), '일용근로자'(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상용근로자' 응답 비율은 57.9%로 여성(45.6%)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25〉 근로형태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상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임시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있다	자영업을 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이 고용되어 있지 않다	급여를 받지 않고 가족사업(일)을 돕는다	계
전 체		(2,422)	**52.2**	18.2	8.8	3.5	14.4	3.0	100.0
성별	남성	(1,301)	**57.9**	10.2	9.7	4.4	16.8	1.0	100.0
	여성	(1,121)	45.6	27.4	7.9	2.4	11.5	5.3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4) 근로시간형태

가구원의 근로시간형태로는 전일제 응답 비율이 96.4%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전일제 형태는 98.8%로 여성(93.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4-26〉 근로시간형태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전일제	시간제	계
전 체		(1,264)	**96.4**	3.6	100.0
성별	남성	(753)	98.8	1.2	100.0
	여성	(511)	93.0	7.0	100.0

주1) 근로형태에 대해 '상용근로자'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주 평균 근무일수

가구원의 주 평균 근무 일수를 살펴보면, '5일'이 6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6일 이상'(25.3%), '5일 미만'(10.8%) 등의 순이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5일' 근로한다는 응답 비율은 65.9%로 남성(62.2%) 보다 높았다.

〈표 Ⅶ-4-27〉 주 평균 근무일수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5일 미만	5일	6일 이상	계
전 체		(2,422)	10.8	**63.9**	25.3	100.0
성별	남성	(1,301)	11.6	62.2	26.2	100.0
	여성	(1,121)	9.9	**65.9**	24.2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6) 근무시간

가구원의 하루 평균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8시간'이 6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9시간 이상'(21.7%), '8시간 미만'(1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8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응답 비율은 28.1%로 남성(7.9%) 보다 높았다.

〈표 Ⅶ-4-28〉 하루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8시간 미만	8시간	9시간 이상	계
전 체		(2,422)	17.3	**61.1**	21.7	100.0
성별	남성	(1,301)	7.9	65.2	26.9	100.0
	여성	(1,121)	**28.1**	56.3	15.6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의 주 평균 근무 시간을 살펴보면, '36시간 이상'이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36시간 미만'(11.1%), '24시간 미만'(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36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응답 비율은 87.0%로 여성(73.0%) 보다 높았다.

〈표 Ⅶ-4-29〉 주 평균 근무시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12시간 미만	24시간 미만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계
전 체		(2,422)	2.3	6.1	11.1	80.5	100.0
성별	남성	(1,301)	1.5	3.2	8.3	87.0	100.0
	여성	(1,121)	3.2	9.5	14.4	73.0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있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7)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1순위)

가구원의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를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가 2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26.9%),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21.8%) 등의 순이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14.8%로 여성(14.8%) 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라는 응답 비율은 남성(36.7%)이 여성(13.5%) 대비 크게 높았다.

〈표 Ⅷ-4-30〉 주 36시간 미만 근로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장애로 인한 직업능력의 제한	시간제 근로가 현재 직업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전일제 근무를 구하지 못해서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시간제 근무를 선호해서
전 체		(472)	2.5	26.9	21.8	**27.1**	8.9
성별	남성	(169)	5.3	26.6	36.7	14.8	4.7
	여성	(303)	1.0	27.1	13.5	**34.0**	11.2

구 분		전일제 근무가 복지급여, 수당에 영향을 줄까봐	아동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인해	학업, 훈련과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장애치료를 위한 병원방문	기타	계
전 체		0.4	7.2	1.9	0.2	3.0	100.0
성별	남성	0.0	0.0	3.6	0.6	7.7	100.0
	여성	0.7	11.2	1.0	0.0	0.3	100.0

주1)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물음

(8) 구직 시 패널의 영향

가구원에게 구직 시 패널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본 결과, '영향이 없었다'는 응답 비율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일자리 선택에 제한을 받음'(17.6%), '돌봄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14.4%), '패널의 돌봄으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움'(1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구직 시 '영향 없음'의 응답이 72.8%로, 여성(43.6%) 대비 다소 높았던 반면, 여성 가구원의 경우 '돌봄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의 응답 비율은 21.1%로 남성(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Ⅷ-4-31〉 구직 시 패널의 영향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영향 없음	패널의 돌봄으로 직업을 가지기 어려움	돌봄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고 있음	일자리 선택에 제한을 받음	계
전 체		(472)	**54.0**	14.0	14.4	17.6	100.0
성별	남성	(169)	**72.8**	7.1	2.4	17.8	100.0
	여성	(303)	43.6	17.8	**21.1**	17.5	100.0

(9) 구직활동 여부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6.4%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구직활동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9.2%로 여성(5.3%) 보다 높았다.

〈표 Ⅷ-4-32〉 구직활동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알아보았다	아니오,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계
전 체		(2,408)	**6.4**	93.6	100.0
성별	남성	(686)	**9.2**	90.8	100.0
	여성	(1,722)	5.3	94.7	100.0

주1) 일자리 유무에 대해 '없음'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5. 사회참여

1) 인권

(1) 차별

장애인가정으로 살면서 가족·친구·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받는 차별 정도에 대해, '차별받는다(③+④)'는 응답 비율은 27.8%이다. 여성 가구원의 30.4%는 차별받는다는 응답 하였으며, 이는 남성(24.1%) 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표 Ⅶ-5-1〉 차별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전혀 차별받지 않는다	② 차별받지 않는 편이다	③ 차별받는 편이다	④ 매우 차별받고 있다	①+②	③+④	계
전 체		(5,005)	14.3	57.8	26.7	1.1	72.2	**27.8**	100.0
성별	남성	(2,064)	15.6	60.3	23.4	0.7	75.9	24.1	100.0
	여성	(2,941)	13.4	56.1	29.0	1.4	69.6	**30.4**	100.0

주1) '전혀 차별 받지 않는다' 부터 '매우 차별 받고 있다'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차별 받고 있는 영역으로 '일상생활'이라고 응답한 가구원은 5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취업/직장생활'(24.8%), '지역사회'(10.9%), '학교 입학/생활'(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취업/직장생활'에서 차별받는다는 응답 비율은 27.8%로 여성(2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5-2〉 차별 받고 있는 부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일상생활	학교 입학/생활	결혼	취업/직장생활	지역사회(공연, 음식점, 체육시설)	기타	계
전 체		(1,392)	**51.8**	9.3	3.0	24.8	10.9	0.2	100.0
성별	남성	(497)	50.3	8.0	3.8	**27.8**	10.1	0.0	100.0
	여성	(895)	52.6	9.9	2.6	23.1	11.4	0.3	100.0

주1) 장애인가정으로 살면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음(③+④)'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차별을 받았을 때 주로 대처하는 방법으로 '무시한다'라고 응답한 가구원은 4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참는다'(37.3%),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8.9%),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참는다'는 응답 비율은 35.2%로 여성(38.4%) 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Ⅶ-5-3〉 차별 대처방법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무시한다	참는다	그 자리에서 항의한다	진정,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대처방법을 몰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계
전 체		(1,392)	**44.6**	37.3	8.3	0.9	8.9	100.0
성별	남성	(497)	44.9	35.2	8.7	0.4	10.9	100.0
	여성	(895)	44.5	**38.4**	8.0	1.2	7.8	100.0

주1) 장애인가정으로 살면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음(③+④)'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차별에 대해 주로 상담하는 사람으로 '없음'이라고 응답한 가구원은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가족'(41.6%), '친척, 친구, 이웃'(7.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상담 대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49.5%로 여성(44.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Ⅶ-5-4〉 차별 상담 대상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없음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	구청, 주민센터 공무원	장애인 단체	기타	계
전 체		(1,392)	**46.0**	41.6	7.6	3.2	0.9	0.2	0.4	100.0
성별	남성	(497)	**49.5**	41.4	5.8	1.8	1.0	0.0	0.4	100.0
	여성	(895)	44.1	41.7	8.6	3.9	0.9	0.3	0.4	100.0

주1) 장애인가정으로 살면서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으로부터 '차별 받고 있음(③+④)'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5) 장애 인식관련 교육(장애인식,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

지난조사 이후 장애 인식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4.6%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장애 인식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5.3%로 남성(3.5%)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Ⅷ-5-5〉 지난조사 이후 장애인식 관련 교육 여부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있음	없음	계
전 체		(5,005)	4.6	95.4	100.0
성별	남성	(2,064)	3.5	96.5	100.0
	여성	(2,941)	5.3	94.7	100.0

(6) 인권증진 강화되어야 할 부분

가구원에게 장애인을 위한 인권증진 강화 방안을 물어본 결과,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가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22.0%), '장애인의 인권홍보 강화'(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가구원의 경우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응답 비율은 42.7%로 남성(40.2%)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Ⅷ-5-6〉 인권증진 강화되어야 할 부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비장애인 대상 장애인식 및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의 인권홍보 강화	장애인폭력 전문상담센터 구축	장애인의 교육수준 향상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 강화	기타	없음	계
전 체		(5,005)	22.0	41.7	15.3	3.6	4.9	12.4	0.1	0.0	100.0
성별	남성	(2,064)	22.9	40.2	16.3	3.4	4.6	12.5	0.1	0.0	100.0
	여성	(2,941)	21.4	42.7	14.7	3.8	5.1	12.2	0.0	0.1	100.0

(7) 장애관련 시설 입지가 어려운 이유

가구원에게 지역사회 내 특수학교, 장애인 거주시설 등이 입지하는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어려움 없음'이 62.4%로 가장 많았고, 그 외로 '막연한 혐오'가 1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집값 떨어짐에 대한 걱정'(10.1%),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어려움 없다'는 응답 비율은 63.9%로 여성(61.3%)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Ⅷ-5-7〉 장애관련 시설 입지가 어려운 이유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어려움 없음	집값 떨어짐에 대한 걱정	치안 문제에 대한 걱정	자녀 교육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막연한 혐오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걱정	계
전 체		(5,005)	62.4	10.1	2.8	5.4	14.1	5.2	100.0
성별	남성	(2,064)	63.9	10.2	2.3	5.1	13.9	4.7	100.0
	여성	(2,941)	61.3	10.1	3.1	5.6	14.3	5.6	100.0

2) 노후

(1) 노후생활 준비

지난조사 이후 노후생활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원은 20.3%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노후생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25.4%로 여성(16.5%) 보다 높았다.

〈표 Ⅷ-5-8〉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 유무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예	아니요	계
전 체		(2,484)	20.3	79.7	100.0
성별	남성	(1,062)	25.4	74.6	100.0
	여성	(1,422)	16.5	83.5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가구원의 노후생활 준비 사항을 1순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 등 국가운영 공적

연금'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은행예금 및 적금'(31.5%),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함'(9.5%), '부동산 임대소득'(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국민연금 등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응답 비율은 54.4% 로, 여성(48.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Ⅷ-5-9〉 노후생활 준비 사항(1순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은행예금 및 적금	국민연금 등 국가운영 공적연금 가입 및 수령	민간금융 개인연금 가입 및 수령	부동산 임대소득 (월세 또는 전세금) 이용
전 체		(505)	31.5	**51.9**	1.4	4.8
성별	남성	(270)	28.9	**54.4**	1.1	4.4
	여성	(235)	34.5	48.9	1.7	5.1

구 분		주식, 펀드, 채권 등 운용	자녀(가족)에게 도움을 받거나 기댐	부모님, 가족의 유산	퇴직하지 않고 계속 일함	계
전 체		0.2	0.6	0.2	9.5	100.0
성별	남성	0.0	0.0	0.4	10.7	100.0
	여성	0.4	1.3	0.0	8.1	100.0

주1) 노후생활 준비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노후생활을 위한 가구원의 경제적 준비 정도를 살펴보면, '충분하다(③+④)'는 응답 비율이 32.3%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노후생활 경제적 준비정도는 여성(33.2%)이 남성(31.5%) 대비 높았다.

〈표 Ⅷ-5-10〉 노후생활 준비 정도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① 매우 부족함	② 거의 부족한 편임	③ 충분한 편임	④ 매우 충분함	①+②	③+④	계
전 체		(505)	16.4	51.3	30.3	2.0	67.7	**32.3**	100.0
성별	남성	(270)	16.7	51.9	29.6	1.9	68.5	31.5	100.0
	여성	(235)	16.2	50.6	31.1	2.1	66.8	33.2	100.0

주1) 노후생활 준비 여부에 대해 '예'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2) '매우 부족함' 부터 '매우 충분함' 까지 4점 척도의 비율로 표기함

가구원이 희망하는 노후 생활 동반자를 살펴보면, '가족'이 9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 '혼자'(8.1%), '친구, 이웃'(1.2%)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남성 가구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노후생활을 함께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93.4%로 여성(88.7%) 보다 높았던 반면, '혼자'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응답은 여성(9.8%)이 남성(5.8%) 대비 높게 나타났다.

〈표 Ⅶ-5-11〉 노후생활을 함께 살고 싶은 사람

(단위: 명, %)

구 분		응답수	가족	혼자	친구, 이웃	계
전 체		(2,484)	**90.7**	8.1	1.2	100.0
성별	남성	(1,062)	**93.4**	5.8	0.8	100.0
	여성	(1,422)	88.7	**9.8**	1.5	100.0

주1) 만 50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3) 삶의 만족도

(1) 현재 삶의 만족도

가구원의 현재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반적 삶의 만족도'는 6.03점으로 나타났으며, 남성 가구원의 만족도가 6.16점으로 여성(5.95점) 보다 높게 나타났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5.15점으로 타 문항 보다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학교생활'(7.16점)과 '주거환경'(6.30점)의 만족도가 타 문항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Ⅶ-5-12〉 현재 삶의 만족도

(단위: 점)

구 분		(1) 건강	(2) 수입	(3) 주거환경	(4) 학교생활	(5) 직업	(6) 결혼생활	(7) 사회적 관계	(8)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전 체		6.02	5.15	6.3	7.16	6.21	6.24	6.12	6.03
성별	남성	6.19	5.27	6.37	7.18	6.28	6.32	6.24	6.16
	여성	5.90	5.07	6.24	7.14	6.13	6.18	6.04	5.95

주1) 10점 척도로, 낮은 점수는 불만족하는 것을 의미하며, 높은 점수는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함
주2) (2)수입, (5)직업, (6)결혼생활은 만 19세 이상 응답자를 대상으로 물음
주3) (2)수입의 경우 가구소득이 0원이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주4) (4)학교생활의 경우 재학생이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주5) (5)직업의 경우 취업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주6) (6)결혼생활의 경우 기혼자(사실혼, 동거 포함)가 아니면 '해당 없음'으로 응답

[부록] 주요 용어 정의

□ 가구주 :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그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면서 해당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사실상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하는 사람”을 의미함

□ 가구원 : 6개월 이상 생계(동거)를 같이 한 사람(단, 활동보조인, 파출부, 운전사 등 고용인과 하숙생 등의 비친ㆍ인척 제외하며, 주민등록 등재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을 의미. 단,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도 가구원에 포함

□ 장애발생 원인

◦ 선천적 원인 : 유전성, 다낭성 신증, 다운증후군, 기타염색체 이상, 발육기형, 모체 감염, 염색체 이상 등 포함

◦ 출생시 원인 : 조산, 난산, 출산시 외상 등 포함

□ 후천적 장애발생 원인

◦ 의료사고 :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약물복용에 의해 발생한 장애를 포함

◦ 스포츠/취미 활동 중 사고 : 스포츠나 놀이 중에 일어난 사고에 의한 손상

◦ 교통사고 : 탑승시/보행시에 일어난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업무상 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상. 근로복지공간에서 재해로 인정받은 경우

◦ 가정 내 사고 :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장애로 낙상, 화상, 절단 등을 포함

□ 지체장애 세부 유형

◦ (상지/하지) 절단장애 : 선천성/후천성 사유로 인해 사지 중의 한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손실한 유형

– (상지/하지) 관절장애 : 관절 기능에 장애가 있는 유형. 관절염, 마비 또는 외상후 후유증으로 관절을 정상범위까지 움직일 수 없는 때

– (상지/하지) 기능장애 : 팔, 다리, 경추 또는 흉요추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유형

◦ 척추장애 : 척수손상으로 신체와 뇌 사이에 있는 주요 신경전달통로가 끊어져 손상부위 아래로 감각 및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는 유형

◦ 변형 등의 장애 : 신체에 변형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유형. 예) 척추측만증, 척추후만증, 하지길이 단축, 왜소증 등

□ 청각장애 세부 유형

◦ 청력장애 : 청력을 잃은 사람. 보청기(인공와우 포함)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통 말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는 경우

◦ 평형기능장애 : 평형기능(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의사소통 수단

◦ 수어 : 손의 움직임과 비수지 신호(얼굴표정과 몸짓)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시각언어

◦ 필담 : 글로 써서 의사소통하는 방법

◦ AAC : AAC(보완·대체 의사소통)란 말과 언어 표현 및 이해에 어려움을 있는 사람들에게 기기, 그림카드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거나(augment) 대체적인(alternative) 방법을 사용하는 것

□ 만성질병(질환) : 과거 3개월 이상 앓았거나 앞으로 계속 앓을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질병)

□ 식사 수 : 끼니로 음식을 먹음을 의미함. 끼니는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을 의미함(간식 제외)

□ 의료기관 :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하는 곳. 예)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

□ 의료기관 유형

◦ 병/의원

- 의원: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포함)
- 병원: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포함)으로, 병상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함

◦ 종합/대학병원

- 종합병원: 병상 수가 100개 이상인 병원
- 대학병원: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부속병원을 의미함

◦ 보건소/보건의료원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

□ 의료관련 재활치료 서비스

◦ 물리치료 : 신체적 기능 손상과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치료
예) 적외선 치료, 초음파 치료, 전기자극치료, 레이져, 온열치료 등

◦ 작업치료 : 장애로 인한 손상을 회복하고 상태의 악화를 방지하며, 목적 있는 활동을 통해 제한된 능력 및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재활치료

◦ 언어치료 :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의 발달상태 및 언어능력을 평가하여 언어의 발달을 유도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치료 예) 구강훈련, 발성훈련, 발음 교정 등

◦ 음악치료 : 음악을 통해 치료하거나 회복을 돕는 치료
예) 노래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감상 등

◦ 놀이치료 : 장애인의 경험과 감정을 놀이로 표현하는 심리 치료의 한 방법

예) 모래놀이치료, 게임놀이치료 등

◦ 미술치료 : 미술활동을 매개로 정서적·사회적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을 치료
예) 그림그리기, 점토로 만들기 등

◦ 행동치료 : 부적응의 원인이 되는 행동을 교정하여 증상을 없애는 치료 방법

◦ 운동치료 : 질병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경 및 근육 혹은 관절계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 증진시키거나 보다 나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처방하는 신체 운동
예) 가동성운동, 근력강화운동, 심폐 지구력 운동

□ 재난대응 교육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에 의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훈련. 지진/지진해일 대피훈련, 태풍, 원전사고 대비 통합훈련, 재난취약 대상 현장대피 훈련 등 실시

□ 일상생활 : 평상시의 생활로 잠자기, 일어나기, 세면, 식사, 화장실 이용, 이동, 의사소통 등을 의미

□ (유료/무료) 간병인 : 가족을 대신하여 일정시간 동안 병수발을 들거나 간병을 들어주는 사람을 의미. 전문적인 간병인 파견기관을 통해서 제공되거나,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경우도 있음

□ (유료/무료) 가정봉사원 :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활동보조인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콜택시 : 지자체 및 장애인 단체 등에서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

□ 장애인 노약자 무료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과 대중교통수단 연계지점을 중심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사업

□ 여행 : 국내여행과 국외여행을 모두 포함하며, 기분전환, 휴식, 여가를 목적으로 현재 생활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비숙박/당일여행 등도 포함됨

□ 반려동물 :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여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의미에서 반려동물이라 함. 애완동물을 달리 이르는 말

□ 자립생활 :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의사결정 또는 일상생활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한으로 하고,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가 납득되는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생활을 관리하는 것

□ 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에게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장애인보조기기 :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조기기, 보조기 및 의지 등(「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녹음 및 재생장치 : 음을 녹음하거나 재생하는 장치
◦ 독서확대기 : 활자로 된 인쇄물을 확대하여 볼 수 있는 보조기기
◦ 음성시계 :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고안된 음성시계로서 간단하게 버튼을 눌러 시간을 알려주는 보조기기
◦ 음성유도장치 :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이나 메시지로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장치
◦ 기립훈련기 : 선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고정식 장비
◦ 식사보조기기 : 음식보호대, 접시, 컵, 젓가락, 머그컵 등
◦ 지팡이 : 보행시 사용자를 지지하는 장치
◦ 보행차 : 3개 이상의 바퀴와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행하는 동안 체간의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 시켜주는 프레임으로 구성되며 좌석이 있거나, 무릎용 보행 장치와 앞쪽이 개방되어 있는 후방지지 보행차도 포함
◦ 전동휠체어 : 보행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이동 및 신체를 지지해주는 장치로 전동 추진장치가 부착되어 있음
◦ 수동휠체어 : 보행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바퀴로 이동하고 신체를 지지하게 하는 장치
◦ 전동스쿠터 :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되는 전동휠체어
◦ 시각신호표시기 : 송신기가 있는 곳에서 빛이나 다른 시각 신호로 방향을 표시해주는 기기
◦ 소리증폭기 : 1인 이상의 음성을 크게 하는 장치
◦ 보청기 : 청각장애인에게 소리를 집성, 확성, 변조하는 장치
◦ 욕창예방 매트 : 장시간 누워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피부 보호 및 욕창을 예방해주는 제품
◦ 욕창예방 방석 및 커버 : 엉덩이 부위에 과도하게 가해지는 압력을 고르게 분산시켜 피부 보호 및 욕창을 예방해주는 제품
◦ 리프트 : 사람을 들어 올려서 이동시키는 장치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미취학 아동 및 유치원생

◦ 어린이집 :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기관

* 보육 :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영유아보육법 제2조)

◦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어린이집) :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시설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1:3)을 전제로 함(2018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아 전문 보육시설(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교사대아동비율 1:3을 전체)으로 지정받은 시설(2018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 유치원 :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의 교육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유아교육법 제2조)

◦ 일반 유치원 내 특수학급 : 특수교육 대상자가 1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 1학급, 4명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이 설치되어야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 특수학급 :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

◦ 특수학교 유치부 : 특수학교 내에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설치되어 있는 학급

◦ 유아특수학교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 등으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유아에게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유아교육법 제15조)

□ 초등학생, 중/고등학교

◦ 일반학급 : 각급 일반학교에 설치된 일반학급

◦ 특수학급 :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 아동을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 시간제, 특별지도, 순회교육 등으로 운영하는 학급

□ 특수학교 :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

□ 중/고등학교

◦ 전환교육 : 장애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마치고 성인 사회의 생활로 옮아가는 과정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 마련하는 교육 모형

□ 전문대/대학생/대학원생

◦ 장애학생 지원센터 : 장애학생의 교육환경 개선 및 학습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 내 설치/운영되는 기구. 주요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및 이동지원, 교수·학습지원, 대학생활 상담 및 지원, 장애 이해 교육 및 인식 개선 프로그램 등이 있음 (학교마다 차이 있음)

□ 근로형태

◦ 상용근로자 : 임금 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정한 기간의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퇴직금등 각종수혜를 받는 사람을 의미함. 근속기간이 1년 이상 일지라도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이거나 임시 또는 일용인 경우에는 상용근로자가 아님. 근무기간이 1년 이하 일지라도 상용직으로 계약하고 채용된 경우는 상용근로자임

◦ 임시근로자 : 임금 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또는 일정한 고용계약을 하지 않았으나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사업완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사람을 의미함. 같은 사업체에 1년 이상 근무 하였으나,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이거나 처음부터 임시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해당됨

◦ 일용근로자 : 임금 근로자 중 개인, 가구, 사업체와 1개월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 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이나 일당제로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건설노무자, 행사도우미, 파출부 등 그때 일을 얻거나 호출되어 일을 수행하여 일급 또는 일당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해당됨

□ 근로시간형태

◦ 전일제 근로 : 시간제근로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

◦ 시간제 근로 : 아르바이트로 일하거나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 일하거나 임금이 시간단위로 지급되는 경우.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됨

□ 구직활동 :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공기관·민간기관에 구직등록이나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및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경우를 의미함

□ 구직활동 기간 :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시험 응시, 일자리 상담 침 의뢰, 사업체 방문, 취업박람회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한 기간

□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 연금 :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다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2018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자로 서비스 대상자는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등이 포함됨(2018년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 장애수당 :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장애인복지법 제49조)

◦ 장애아동수당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 장애인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 차량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이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접근성을 높이고, 동절기의 난방에너지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빌려 드려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임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등록장애인(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심장장애인)임

◦ 저소득장애인 진단/검사비 지원 : 장애 등록 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등록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급하고,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수당 등의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 장애 정도심사를 받을 장애인에게 검사비 일부를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산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함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화 생활을 개선하고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제도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금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도모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 장애인의료비 지원 : 저소득 장애인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 장애인을 지원함

◦ 발달재활서비스 :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여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척수장애인 재활 훈련 지원 :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 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 :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심리적 충격을 해소하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장애인일자리사업(재정지원)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등보장 지원,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 중증장애인지원고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해 구직 장애인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중증장애인의 직무 및 직장적응을 위해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 후 현장훈련 실시,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 배치

◦ 직업능력개발 훈련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 및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 : 저소득 층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자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 장애인 창업지원 :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장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 장애대학생이 장애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예) 종합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시설, 결핵·한센시설,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후견기관, 복합노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폭력피해보호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등

□ 장애인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권리

*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참고

◦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권리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않는 자유로, 일명 '인신의 자유'임

◦ 사법 접근권 : 장애인이 조사와 기타 예비적 단계를 포함한 모든 법적 절차에서 증인을 포함한 직·간접적 참여자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절차와 연령에 적합한 편의 제공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노동권 : 장애인에게 개방적이고 통합적이며 접근 가능한 노동시장과 근로환경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하거나 수용한 직업을 통하여 삶을 영위할 기회를 가질 권리. 취업 및 고용을 통해 정당하게 일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

◦ 건강권 :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 여성장애인 모성보호권 포함

◦ 교육권 : 장애인의 교육 받을 권리로, 모든 수준에서 통합적인 교육제도와 평생교육 보장.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교육을 받을 권리

◦ 문화, 여가,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 : 적정한 수준의 의식주를 포함하여 장애인 자신과 그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생활 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권리

◦ 자립생활과 지역사회에 동참할 권리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고, 장애인이 이러한 권리를 완전히 향유하고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이동권 : 장애인에 대하여 최대한 독립적인 개인적 이동성을 보장해야 함. 자유로운 이동과 시설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 장애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얻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정보제공을 위해 자막, 점자 등을 제공받을 권리

◦ 대중이용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도시 및 농촌지역 모두에서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와 의사소통 기술 및 체계를 포함한 정보와 의사소통,

그리고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괴롭힘·폭력

◦ 언어 및 정서적 학대 :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무시 및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은 물론 감시도 포함

◦ 신체적 폭력 : 학대 등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는 것

◦ 성희롱, 성적 폭력 : 동성/이성 간 성행위를 포함하는 성교의 강요, 성적학대 등 포함

◦ 방임 및 유기 : 보호자가 아동에게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경제적 착취 : 생활비 무제공. 집안의 재산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행위, 논의 없이 보증을 서는 행위 등을 포함

◦ 종교적 폭력/강요 :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종교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거나, 자신과는 다른 종교 시설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데리고 가는 것을 의미

□ 웰다잉/안락사

◦ 웰다잉 :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맞이한다는 말로, 생명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함

◦ 안락사 : 불치의 병 등의 이유로 치료 및 생명 유지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인위적인 행위를 의미함

□ 자녀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료, 베이비시터 비용, 학원비, 학교 등록금 및 교재 구입비, 교구 구입비등을 포함함

□ 국민연금 :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일정한 나이가 되었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하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노령연금(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장애연금(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 유족연금(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을 포함

□ 개인연금 : 은행, 보험회사, 투신사,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한 금융상품인 종신보험도 포함

□ 퇴직연금 : 기업이 사내에 적립하던 퇴직금 제도를 대체하여, 금융기관에 매년 퇴직금 해당금액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

□ 퇴직보험 :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보험회사 등의 기관에 미리 적립해 두는 보험상품

□ 근로소득 :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현금, 현물

·예) 임금, 수당, 봉사료 등

□ 사업·부업소득 : 비법인기업의 주인이 사업체를 운영하여 얻은 순수익이며, 생산비용을 제외한 금액

□ 개인재산·금융·연금소득 : 소유한 재산을 타인이 사용한 대가로 받은 순수익

·예) 임대, 이자, 연금소득 등

□ 사적이전소득 : 비동거 가구원, 친척 등에게 용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 또는 현물을 의미

□ 공적이전소득 :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정부, 비영리단체, 다른 가구에서 받은 현금, 재화, 서비스를 포함

·예) 사회보험금, 기초연금, 장애인수당, 참전용사수당 등

□ 비경상소득 : 비정기적 소득으로 경조소득, 복권당첨금, 일시금으로 받은 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 기타생활비용 :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출

·예) 인테리어비, 이사비용, 경조사비, 부채상환비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

◦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

◦ 주거급여: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

◦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 차단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자활에 필요한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창업교육, 기능훈련 및 기술경영 지도 등 창업지원

□ 주택점유 형태

◦ 국민임대주택 :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을 배려해 시행하는 장기임대 주택(30년 이상)임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발 행 일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최경숙
발 행 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인쇄업체명

ISBN 9788969213969(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